

# 제주4·3사건자료집 2

[신문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주4·3사건자료집 2

[신문편]



# 범례

1. 본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각 언론사 및 도서관 소장 신문과 영인자료집인 『한국현대사자료총서』(돌베개, 1986), 『제주신보영인본』(제주4·3연구소, 1991), 『해방공간신문자료집성』(선인문화사, 1996)에 수록된 국내 22개 신문의 기사들로서,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3월까지의 제주4·3사건 관련 기사를 뽑아 정리한 것이다. 1949년 4월 이후의 기사는 다음 자료집에 수록할 예정이다.
2. 자료의 배치는 신문 발행일자 순서대로 하였으나 정정(訂正)기사인 경우엔 해당 기사의 뒤쪽에 붙였고, 같은 날짜의 기사들은 신문명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자료집 후반에는 정리된 순서대로 해당 영인본을 실었다.
3. 한 가지 사건·사안에 대하여 비슷한 기사가 많을 때에는 가장 충실한 정보가 담긴 기사를 대표로 실고 나머지는 기사 끝에 신문명과 날짜를 표시했다. 다만 중복 기사라도 내용에 차이가 있는 기사는 따로 실었다.
4. 이 자료집에 나온 ‘(전략)’ ‘(중략)’ ‘(후략)’은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생략한 것이며, 원문에 중략이 있는 경우는 ‘(원문 중략)’이라 표기하여 구분지었다.
5. 원자료에 사용된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다만 한글 표기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나 인명은 한자를 괄호 속에 넣어 병기했다. 표기법은 현대 맞춤법을 따랐다.
6. 외국인 이름과 국가명은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데, 주요 명칭에 한하여 지금의 표기법에 맞추어 통일하였다. [예 : ‘스치븐손’, ‘스티븐슨’ → 스티븐슨]
7. 명백한 오자 또는 탈자의 경우에는 바로 잡았고 필요한 경우엔 각주를 달았다. [예 : 김대봉(金大鳳) → 김대봉(金大奉), 김정오 → 김정호]

8. 신문기사에 나오는 다양한 부호표시[예 : ◇, ◆, ▲]는 △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나 ×는 원문 그대로의 표시임.
9. 판독할 수 없는 부분은 □로 글자 수만큼 표시하였고, 한 줄 이상 판독할 수 없을 경우엔 '(1줄 누락)'이라고 표시하였다.
10. 한자로 된 숫자는 만(萬)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었다. [예 : '二萬六千七十二圓' → '2만 6,072원']
11. 자료집에 실린 신문은 당시 22개 중앙지 가운데 4·3사건 관련기사가 수록된 20개 신문(『해방일보』 『청년해방일보』에는 4·3기사가 없었음)과 지방지의 경우 『제주신보』와 광주에서 발행한 『동광신문』 등 2개 신문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국제신문』 『노력인민』 『대동신문』 『대중신보』 『독립신문』 『독립신보』 『동광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우리신문』 『자유신문』 『제주신보』 『조선인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앙신문』 『중외신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 목 차

## 1948년 4월

▪ 200의원 선거 / 각 도별 배정 발표	서울신문 1948. 4. 1	31
▪ 4일 제주도서 총선거 반대 폭동 / 사상자 12명 발생	동아일보 1948. 4. 6	31
▪ 등록실수 64% 4일 현재 경남 80%가 수위	대동신문 1948. 4. 7	32
▪ 제주청(廳) 발표	독립신보 1948. 4. 7	32
▪ 제주 11경찰관서 등 피습 / 관민측의 사상도 다수 / 조경무부장 담	서울신문 1948. 4. 7	32
▪ 응원대를 급파 / 제주도 폭동사건 심대 / 경무부 발표	동광신문 1948. 4. 8	33
▪ 남군(南郡) 선위(選委) 임명	제주신보 1948. 4. 8	34
▪ 이호, 봉개에 소요사건 발생	제주신보 1948. 4. 8	34
▪ 금반 소요사건의 주동은 육지부로부터의 악질도배 / 공안국장 김정호씨 담	제주신보 1948. 4. 8	35
▪ 선거인 등록 마감 / 6일 현재 81% / 전북이 최고(93) 다음 경기(91) / 3일간 추가로 90% 돌파 예상	동아일보 1948. 4. 10	35
▪ 경비사령부에서 포고문 발표	제주신보 1948. 4. 10	36
▪ 성명서(남로당 탈당 : 안덕면 사계리)	제주신보 1948. 4. 12	38
▪ 경비사령부에서 사건 전모 발표 / 제주비상경비사령 부 특별 발표	제주신보 1948. 4. 12	38

▪ 성명서(남로당 탈당 : 안덕면 서광리 1구)	제주신보 1948. 4. 12	39
▪ 김대봉씨 제주도에 선무공작차로 출장	대동신문 1948. 4. 13	39
▪ 제주도 반선 폭동사건 속보 / 특파원 대청원 투쟁 / 피살 14, 중상 51명(총본부의 중간보고)	대동신문 1948. 4. 13	40
▪ 제주도 응원대 또 100명 파견	동광신문 1948. 4. 13	40
▪ 제주도 폭동에 위무공작대 파견	조선일보*1948. 4. 13	41
▪ 사망자 22명, 부상자 50, 행방불명 12명 / 3~7일간 제주도 소요	조선중앙* 1948. 4. 14	41
▪ 제주도의 살상 즉시 중지하라 / 민전(民戰)서 성명	독립신보 1948. 4. 16	42
▪ 경비대 제주읍 진주 / 특별경비대장 포고문 발표	제주신보 1948. 4. 16	42
▪ 안심 협조하라 / 김(金)부대장 담화	제주신보 1948. 4. 16	42
▪ 모략중상 삼가라 / 이(李)정보부장 담	제주신보 1948. 4. 16	43
▪ 공고(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제주신보 1948. 4. 16	43
▪ 제주도에 무장한 폭도 ‘개릴라진’을 전개 / 경찰은 교통을 차단코 만전의 포진	동아일보 1948. 4. 17	44
▪ 제주도의 전신(電信)피해 상황	서울신문 1948. 4. 17	44
▪ 14일에도 지서습격 / 제주도는 우금(于今) 교전상태 / 무장도민 300명이 한라산에 집결	우리신문 1948. 4. 17	45
▪ 제주도 폭동 아직도 미식(未熄)	조선일보 1948. 4. 17	45
▪ 제주도 전신 복구	조선일보 1948. 4. 17	45
▪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민전에서 호소의 성명	조선중앙 1948. 4. 17	46
▪ 선거에 경비 만전! / 비상경비총사령부 설치 / 각 관구에는 사령부 두고 맹활동	대동신문 1948. 4. 18	46
▪ 제주 15일 또 폭동 / 경관가족 1명 피살	동아일보 1948. 4. 18	46
▪ 입후보자 명부	동아일보 1948. 4. 18	46
▪ 공고(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제주신보 1948. 4. 18	47
▪ 김공보실장 내도 / 조경무부장 선무문(宣撫文) 발표	제주신보 1948. 4. 18	47
▪ 동포애만이 사건 해결의 관건 / 내도한 김공보실장 담화 발표	제주신보 1948. 4. 18	48

\* 목차에 조선중앙일보를 ‘조선중앙’으로 표기했음.



▪ 인민의 생명 재산보호가 목적 / 군 출동에 김연대장 성명서 발표	제주신보 1948. 4. 18	49
▪ 국군은 건국의 초석	제주신보 1948. 4. 18	49
▪ 경비대 사고(事故)에 딴 장관 각서 / 제9연대에서 발표	제주신보 1948. 4. 18	50
▪ 선거등록 74%	제주신보 1948. 4. 18	51
▪ 전국적으로 향보단(鄉保團)을 조직	제주신보 1948. 4. 18	51
▪ 선거사무소 피습 48건 / 선거방해 예방에 만진 / 조 부장 담	조선중앙 1948. 4. 18	52
▪ 선박 발착(發着) 금지로 제주교통 두절	동광신문 1948. 4. 20	52
▪ 김공보실장 도민에 메시지	제주신보 1948. 4. 20	53
▪ 사건 진압을 위해서 김사령관 경고문 발표	제주신보 1948. 4. 20	54
▪ 선거방해 143건	제주신보 1948. 4. 20	55
▪ 시국수습대책위원회 결성	제주신보 1948. 4. 20	55
▪ 수습교섭을 토의	제주신보 1948. 4. 20	55
▪ 공고(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제주신보 1948. 4. 20	56
▪ 제주도 등록 63%를 돌파 / 연일 피습중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1948. 4. 21	56
▪ 구국 위해 쫓겨 / 제주도 소요에 반일(反日) 담	우리신문 1948. 4. 21	57
▪ 제주 폭동 계속 / 사망 25·중상10	현대일보 1948. 4. 22	57
▪ 미군대도 파견 예정 / 제주도 소요 거익(去益) 확대	조선중앙 1948. 4. 23	57
▪ 항쟁 제주도에 민전(民戰)에서 조사단 파견을 준비	독립신보 1948. 4. 24	58
▪ 혈해화(血海化)한 제주도 / 미군 출동하면 국제 문제	독립신보 1948. 4. 25	58
▪ 살상 중지하라 / 제주도 사태에 전평(全評)서 성명	독립신보 1948. 4. 25	59
▪ 민애청에서도 항의	조선중앙 1948. 4. 25	60
▪ 제주도 사태에 항의한다 / 민애청(民愛靑)서 하지 중장에 서한 전달	독립신보 1948. 4. 27	60
▪ 전통적인 평화항에 단정 반대의 무장 봉기 / 제주도 봉기의 진상(1)	독립신보 1948. 4. 27	61
▪ 제주도 1대 6의 격전 / 입후보	자유신문 1948. 4. 27	62
▪ 제주신보사 무전기 차압	독립신보 1948. 4. 28	63

▪ 제주도 사건에 전농(全農) 담화	우리신문 1948. 4. 28	63
▪ 살상 중지하라 / 제주도사건에 전농 등서 요구	독립신보 1948. 4. 29	63
▪ 동포 상살의 비극 / 4개월간 350명 살해 / 제주도는 미증유의 폭동	동아일보 1948. 4. 29	64
▪ 항쟁이라 찬미하면 체포 / 장(張)청장 폭동사건에 관해 선언	우리신문 1948. 4. 29	64
▪ 동족상잔 중지하고 양군 즉시 철퇴하라 / 문맹(文盟) 성명	조선중앙 1948. 4. 29	65
▪ 투쟁하는 형제 잊지 말라 / 제주 무장봉기 인민에 대해 국방경비대 김종령 전투중지 요청	독립신보 1948. 4. 30	65
▪ 내 형제 죽이지 마라! / 제주도 인민 살상에 여맹(女盟) 항의	독립신보 1948. 4. 30	66
▪ 미군 출동이란 만부당 / 근민당서 엄중한 항의 성명	독립신보 1948. 4. 30	66
▪ 위정자는 반성할 일 / 교협(教協)서 성명	독립신보 1948. 4. 30	66
▪ 일병(日兵)이 남긴 작전시설 2,000반도가 이용 / 김(金)공안국장 제주도 시찰 답	동아일보 1948. 4. 30	67
▪ 제주 소요사태 / 한라산 중심 게릴라전 / 김공안국장 귀임담	서울신문 1948. 4. 30	68
▪ 제주도의 무장대치 / 그 동기를 파악 / 당국의 냉정한 처리요망	우리신문 1948. 4. 30	68
▪ 상잔을 중지하라 / 근민, 전농 등에서 담화	우리신문 1948. 4. 30	69
▪ 소요 중의 제주도 / 동굴속에 잠복 / 식량과 무기도 확보 / 김(金)공안국장 목격담	자유신문 1948. 4. 30	70
▪ 공옥청야(空屋淸野)작전을 계속 / 김공안국장 제주도 소요 근황 답	한성일보 1948. 4. 30	71

## 1948년 5월

▪ 제주도 소요 악화 경비대 행동개시 선언	대동신문 1948. 5. 3	72
▪ 경찰관서 23처 피습	서울신문 1948. 5. 3	73
▪ 제주도의 소요 화평교섭? / 국방경비대서 행동을 개시	조선일보 1948. 5. 3	73

▪ 피로 물들인 제주도를 주시하자! / 쓰러져 가는 제주 인민 빨리 구출하자! / 민전서 애국인민에 격(檄)	독립신보 1948. 5. 4	74
▪ 통행중의 도민을 / 참혹! 경관이 사살	독립신보 1948. 5. 4	74
▪ 무고한 노유(老幼)만 죽이는 제주폭도의 만행 / 경무부 선무사 김대봉씨 귀래담	동광신문 1948. 5. 4	75
▪ 제주소요 격심 / 미(美) 부녀자를 소개(疎開)	서울신문 1948. 5. 4	75
▪ 제주도 사건 조사 거부에 민전 담	우리신문 1948. 5. 5	76
▪ 민전 조사단 파견 / 당국 아직 불허가	조선중앙 1948. 5. 5	77
▪ 귀순자도 다수 / 제주 성내는 평온했다 / 선무공작 갔다온 김(金)공보실장 담	경향신문 1948. 5. 6	77
▪ 제주도 사건에 반일구원회 담	우리신문 1948. 5. 6	77
▪ 제주 소요 의연 계속 / 군·민정 양(兩)장관 공로로 현지 시찰	조선일보 1948. 5. 6	78
▪ 불원 진압될 터 / 공보실장 귀임담	조선일보 1948. 5. 6	78
▪ 제주도와 각 항(港)간 항행시간을 개정	조선일보 1948. 5. 6	79
▪ 편의대(便衣隊) 활약으로 곤란 / 제주도에서 김공보실장 귀환담	조선중앙 1948. 5. 6	79
▪ 제주도 폭동 계속 / 게릴라대의 활동 격화	한성일보 1948. 5. 6	80
▪ 제주 선거위원 4명이 또 피살	경향신문 1948. 5. 7	80
▪ 제주소요는 도외(外)서 온 공산분자의 선동 / 딘 장관	대동신문 1948. 5. 7	81
▪ 딘 장관 일행 제주 향(向)	동광신문 1948. 5. 7	81
▪ 소(蘇) 테러전술로 선거 파괴를 기도 / 미지(美紙) 제주도 폭동 평(評)	동아일보 1948. 5. 7	81
▪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 ‘피의 제장(祭場)’으로 변모한 남해의 고도 제주	동아일보 1948. 5. 7	82
▪ 700만원 사건 발표할 수 없다 / 제주 소요는 일반적 으로 평온화 / 딘 장관 담	조선일보 1948. 5. 7	84
▪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 중죄범 관대처분 / 좌익세력 날로 증대	동아일보 1948. 5. 8	84
▪ 요구는 단선 중지 / 제주도 봉기사건에 UP보도	우리신문 1948. 5. 8	86

▪ 제주도 치안문제 / 조(趙)경무부장 수습 대책 담	경향신문 1948. 5. 9	87
▪ 제주경찰 고문사건 / 지서장 등 체형 벌금 언도	대동신문 1948. 5. 9	88
▪ 형제 구출하자 / 제주도 유학생 쫓기	독립신보 1948. 5. 9	88
▪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 5월 1일 메이데이에도 농민 참살의 비극	동아일보 1948. 5. 9	89
▪ 남조선 전역 93%의 호(好)성과	동아일보 1948. 5. 12	90
▪ 민주정치에의 시련! / 투표율 90.82% / 10일 오후 7 시 기하여 투표 일제 완료	한성일보 1948. 5. 12	90
▪ 제주도는 개표 중 / 당선결과 무소속이 다수	대동신문 1948. 5. 15	91
▪ 제주간 경찰간부 후보생 1명 피살, 1명은 납치	동아일보 1948. 5. 15	91
▪ 남방의 도원경 제주 / 소요는 어찌됐나 / 한라산에 2,000명 잠복 / 게릴라전을 연출하고 출몰 폭행	자유신문 1948. 5. 15	92
▪ 제주 치안의 꽃 손(孫)경감 순직	현대일보 1948. 5. 15	93
▪ 소요 중이던 제주도의 선거	자유신문 1948. 5. 16	93
▪ 남제주군은 제외 2개구 당선 결정	조선일보 1948. 5. 16	93
▪ 제주 소요로 희생자 또 9명 / 건물도 15동 전소	자유신문 1948. 5. 17	94
▪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 / 폭동에 현로(顯露)된 공당원의 의도와 전술 / 잔인한 동족살해가 인민봉기?	동아일보 1948. 5. 18	94
▪ 제주도 소요 격화 / 수도청 형사대들도 현지 향발	조선일보 1948. 5. 18	96
▪ 경찰 정예부대 제주도 향발	독립신보 1948. 5. 19	96
▪ 선거 불능구(區) 과반 / 제주 선거상황 홍순재씨 보고	조선일보 1948. 5. 19	96
▪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 / 국가가 주는 자유, 파괴행위에 역용(逆用) / 민족주의 의 가면 쓴 좌익	동아일보 1948. 5. 20	97
▪ 북제주 채선? / 무효선포 건의	조선일보 1948. 5. 20	98
▪ 제주에 경찰 응원대 / 목포서도 다수 출발	서울신문 1948. 5. 21	99
▪ 항거하의 제주도 선거 / 전도민의 불과 5할만 투표	우리신문 1948. 5. 21	99
▪ 제주에 응원대 증파	자유신문 1948. 5. 21	99
▪ 제주도 소요 확대 / 진압까지 상당시일 소요	한성일보 1948. 5. 22	99

▪ 악화일로의 제주사태 / 통신도 두절 / 경비대 전원 철거 / 정예 경관대를 파견	동광신문 1948. 5. 23	100
▪ 제주도에 사법관을 특파	한성일보 1948. 5. 23	101
▪ 구국전선의 선봉대로 단선단정 분쇄에 사투 / 반동숙청에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상) / 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동포를 구출하자!	노력인민 1948. 5. 25	101
▪ 무력으로 해결은 부당 / 제주도 사건에 각계에서 성명	조선중앙 1948. 5. 25	103
▪ 제주에 사법관 파견	자유신문 1948. 5. 26	103
▪ 법조 기자단 시찰행	자유신문 1948. 5. 26	104
▪ 무력해결 부당 / 제주사건에 각계 담	조선중앙 1948. 5. 26	104
▪ 북제주 양구(兩區)는 재선거 / 래(來) 23일 시행 / 딴 장관 발표	조선일보 1948. 5. 27	104
▪ 무효된 북제주 선거 / 6월 26일 재개	한성일보 1948. 5. 27	105
▪ 제주행 회피로 철경(鐵警) 군재(軍裁) 회부	한성일보 1948. 5. 27	105
▪ 제주도 소요 더욱 확대 / 4월이래 사망자만 160	대동신문 1948. 5. 29	106
▪ 제주행 회피 철경 / 군재(軍裁)서 집유(執猶) 언도	조선일보 1948. 5. 29	106
▪ 제주도 사건에 반일(反日) 과학(科學)에서 성명	조선중앙 1948. 5. 29	106
▪ 조(趙)부장 부산에 / 30일 귀임 예정	한성일보 1948. 5. 29	107

## 1948년 6월

▪ 제주 하곡수집 철폐한다 /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 발표	경향신문 1948. 6. 3	108
▪ 조국의 식민지화 분쇄전에 전도 순국 열정으로 작렬! / 반동숙청에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중) / 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동포를 구출하자! / 망국단독정부를 결사 분쇄하자!	노력인민 1948. 6. 3	108
▪ 제주 경주 양처 소요에 대청원 60여 명 순사(殉死)	대동신문 1948. 6. 3	113
▪ 소요 진압에 노력 / 제주사태에 유(柳)부장 담	서울신문 1948. 6. 3	113

▪ 저지리 1부락 전소 / 700 이재민 산중에서 노숙	조선일보 1948. 6. 3	114
▪ 불원 진정 기대	현대일보 1948. 6. 3	114
▪ 제주법원장 대리에 양원일(梁元一)판사가 취임	경향신문 1948. 6. 4	115
▪ 포로 귀순 3,000 쌍방 사망자 9명 / 유(柳)통위부장 제주폭동 사건 진상 담	동아일보 1948. 6. 4	115
▪ 불안 속의 제주 / 진압시기는 속단 불허	서울신문 1948. 6. 4	116
▪ 아직도 해결의 서광없는 제주도 사태 이모저모	서울신문 1948. 6. 4	116
▪ 4·3폭동 공판 / 사형 등을 구형	조선일보 1948. 6. 4	118
▪ 군은 작전, 경찰은 치안 / 소요 처리에 이참모총장 담	조선일보 1948. 6. 4	118
▪ 제주의 밤은 죽음의 거리 / 산간부락에는 끊임없이 총성이 은은 / 1읍 12면의 경찰지서 대부분이 피습	조선중앙 1948. 6. 4	119
▪ 사설 : 제주사태 수습에 관하여	조선일보 1948. 6. 5	119
▪ 인민군 사령부 소탕전 제주도에 전개 / 국경대(國警 隊) 맹활동	동아일보 1948. 6. 5	121
▪ 전소(全燒) 부락도 다수 / 도로 교량은 모두 파괴 / 제주도 현지보고	한성일보 1948. 6. 5	121
▪ 보리는 익어 가는데 농부의 그림자도 안보이는 들판 / 상공에는 미군 기(機) 해안에는 미 군함(艦) / 제주 도 현지보고	조선중앙 1948. 6. 6	122
▪ 최초의 출진(出陣)이 동쪽에겐 유감 / 민중동맹 담	조선중앙 1948. 6. 6	123
▪ 제주도 사건과 각 정당들의 태도	조선중앙 1948. 6. 8	123
▪ 사건원인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 뿐 / 최고지 휘관 브라운 대좌 기자단에 답변 / 제주 현지보고	조선중앙 1948. 6. 8	124
▪ 부녀자 폭행 후 생매(生埋)까지 / 이렇다, 제주도의 인민항쟁 진상 / 조(趙)경무부장 담	경향신문 1948. 6. 9	125
▪ 귀순권고에 혈서반항 / 경비대가 말하는 인민해방군 / 제주도 사건 현지보고(4)	조선일보 1948. 6. 9	126
▪ 불안에 싸인 그들, 묵묵하고 활기없다 / 제주 현지보고	조선중앙 1948. 6. 10	127
▪ 재선(再選) 불능 상태 / 제주선관위 재연기 요청	조선중앙 1948. 6. 10	128
▪ 살상 말라 / 학병거맹(學兵拒盟)서 담화	조선중앙 1948. 6. 10	129
▪ 제주도에 이변(異變) / 미인(美人) 살인미수사건	한성일보 1948. 6. 11	129

▪ 망국 단선단정 분쇄전의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 (하)	노련인민 1948. 6. 11	129
▪ 조선의 축도판(縮圖版) / 원인 제거가 급선무 / 제주 소요 현지보고	조선중앙 1948. 6. 11	132
▪ 국방경비대 계속 활약 / 제주 폭도 소탕전 진행	현대일보 1948. 6. 11	133
▪ 제주지사(濟州支社)에서 소요 이재민 구호	경향신문 1948. 6. 12	133
▪ 무장 경관 800여 / 날이 갈수록 살기 창일 / 제주도 현지보고	조선중앙 1948. 6. 12	133
▪ 북제주의 선거 무기 연기키로	서울신문 1948. 6. 13	134
▪ 감정의 악화가 금반 사건의 도화선 / 제주도 현지보고	조선중앙 1948. 6. 13	135
▪ 제주도 사건 원인 / 첫째는 민심과 경찰 이반(離反) / 해결에는 무력보다 행정력 / 현지 시찰한 박(朴)검찰관 담	경향신문 1948. 6. 15	136
▪ 덕망자 등용하라 / 박 검찰관 제주시찰 담 / 폭도는 일본서 돌아온 공당원(共黨員)	동아일보 1948. 6. 15	136
▪ 사태수습은 어렵겠다 / 박(朴)검찰관의 제주도 소요 시찰담	서울신문 1948. 6. 15	137
▪ 일인(日人) 내조(來朝), 제주도 문제에 / 기자회견 하지 중장에 공개 질문장	조선중앙 1948. 6. 15	137
▪ 포착(捕捉)만 3천 수백 / 군은 동족애를 견지한다 / 제주도 사건 통위부 발표	경향신문 1948. 6. 16	138
▪ 약질관리 행동이 큰 원인 / 이(李)검찰총장 제주도사건 담	대동신문 1948. 6. 16	139
▪ 관공리의 개편뿐 / 제주도 사건에 이인씨 담	서울신문 1948. 6. 16	139
▪ 제주도 전과 / 통위부서 발표	서울신문 1948. 6. 16	140
▪ 요는 민심수습 / 관민이반이 한 원인 / 제주 소요에 이(李)검찰총장 담	자유신문 1948. 6. 16	140
▪ 관공리의 부패가 원인 / 제주사건에 이인 검찰총장 견해	조선일보 1948. 6. 16	141
▪ 43건을 판결 / 제주도로 파견된 판검사 활동	대동신문 1948. 6. 17	141
▪ 제주폭도 소탕 성과	동아일보 1948. 6. 17	141

▪ 강대해진 인민위원회 / 경찰과 청년단의 과오도 일인 (一因) / 제주도 사건에 양원일판사 담	조선일보 1948. 6. 17	142
▪ 경찰 가혹으로 민심 이탈 / 급속 수습 못하면 또다른 민요(民擾) 발생 / 양원일 심판관 제주도 시찰담	조선중앙 1948. 6. 17	142
▪ 지서 습격한 경비대원 제주도에서 32명을 체포	조선중앙 1948. 6. 17	143
▪ ‘동요기세’ 농후 / 산중폭도도 군의 온정에 감격 / 제주사건에 통위부 발표	경향신문 1948. 6. 18	144
▪ 면소(面所) 학교 개문(開門) / 경관은 ‘고문철폐’를 서약 / 제주사태 점차 평온	자유신문 1948. 6. 18	144
▪ 제주경찰청장 정직 처분	한성일보 1948. 6. 18	145
▪ 제주경찰 신기구 / 감찰청을 경찰청으로 / 2서(署) 신설하고 대량 증원	동아일보 1948. 6. 19	145
▪ 경비대 숙사서 박진경 대령 암살 / 딘 장관, 직접 조사차 제주행	조선일보 1948. 6. 19	145
▪ 제주사건에 인공당(人共黨)서 담화	조선중앙 1948. 6. 19	146
▪ 대청 담화 / 질서유지 위해 희생뿐 / 제주청년단에 심판관 담 유감	대동신문 1948. 6. 20	146
▪ 폭동하는 제주 수습에 거물 청장 배치 / 김(金) 8관 구 부청장 불일 부임(赴任)	동광신문 1948. 6. 20	146
▪ 경비대 박대령 제주도서 피습 절명	조선중앙 1948. 6. 20	147
▪ 박대령 시체신고 딘 장관 즉일 상경	조선중앙 1948. 6. 20	148
▪ 딘 장관 귀임	현대일보 1948. 6. 20	148
▪ 박대령 장의(葬儀) / 오늘 부대장 집행	자유신문 1948. 6. 22	148
▪ 국경대는 건투(建鬪) / 대내(隊內) 제 사건은 조사중 / 유(柳)통위부장 담	자유신문 1948. 6. 22	149
▪ 평화적인 진압을 요청 / 제주출신 제우회(濟友會)에서 건의	자유신문 1948. 6. 22	149
▪ 정치적 환경 개혁만이 제주사건 해결의 열쇠 / 제우회서 요로에 청원서 제출	조선일보 1948. 6. 22	149
▪ 살상 적게 하고 사태수습할 것이 목적 / 유(柳)통위부장 담	조선중앙 1948. 6. 22	150
▪ 고 박대령 부대장(部隊葬) 거행 / 후임 대장에는 최경록(崔慶祿)씨 / 통위부서 기자회견	한성일보 1948. 6. 22	151



▪ 고(故) 박대령 부대장(部隊葬) 엄숙 집행	경향신문 1948. 6. 23	151
▪ 경비선 월북은 사실 / 통위부장 기자단 회견 담	동광신문 1948. 6. 23	152
▪ 폭도 귀순을 가장(假裝) / 장기항전을 기도 / 최(崔) 경감 제주도 시찰 담	동아일보 1948. 6. 24	152
▪ 제주 폭동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음모 / 은위(恩威) 병행으로 수습에 노력 / 조 경무부장 담화 발표	현대일보 1948. 6. 24	153
▪ 이(李)검찰총장 제주 시찰행	동아일보 1948. 6. 27	154
▪ 경관 2명 또 피살 / 제주소요 언제 해결?	조선중앙 1948. 6. 27	155
▪ 제주도 인민대중에게 드림 / 미제의 분할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민족주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자 /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한	노력인민 1948. 6. 28	155

## 1948년 7월

▪ 각지 제주도인 쫓기 / 평화적 해결을 당국에 진정	조선중앙 1948. 7. 1	158
▪ 제주사건 수습 / 광주제우회에서 제주청장에 청원	조선일보 1948. 7. 2	158
▪ 제주도 문제를 제우회(濟友會)에서 건의	한성일보 1948. 7. 3	159
▪ 제주치안은 회복 / 브라운 사령관 시찰담	현대일보 1948. 7. 3	159
▪ 제주작전 대체로 종결 / 민심수습은 치안당국 책임	조선일보 1948. 7. 4	160
▪ 어획금지 등 해제 / 제주치안 점차 회복	대동신문 1948. 7. 6	160
▪ 예상보다 양호 / 박대령 살해혐의자 9명 체포 / 이인 검찰총장 제주도 시찰담	조선일보 1948. 7. 6	161
▪ 철경(鐵警) 제주응원대 / 폭도소탕하고 무기 등 압수	동아일보 1948. 7. 7	161
▪ 제주대책위원회(委會) / 제우회(濟友會)에서 제안 토의	한성일보 1948. 7. 7	162
▪ 총검 버리고 직장으로 / 경비대 제주 신(新) 사령관 담화	대동신문 1948. 7. 8	162
▪ 제주사건을 평화적 해결 희구(希求)/ 부산 제우회(濟友會) 요로에 진정	한성일보 1948. 7. 9	162
▪ 제주도에 제2차 응원대 파견 / 철도관구청서	조선일보 1948. 7. 10	163
▪ 제주 토벌대 제3차 부대 출발	동광신문 1948. 7. 11	163

▪ 제주는 울음의 바다 / 죽도 살도 못하는 그들의 심경 / 부락민은 복구공사에 동원 / 제주도 현지보고	조선중앙 1948. 7. 11	163
▪ 경찰 불법숙청이 급무 / 무력만으론 해결 불능 / 김청장 최대장 방침 천명	조선중앙 1948. 7. 11	164
▪ 제주 제3차 토벌대 출발	조선중앙 1984. 7. 11	165
▪ 박(朴)대령 살해범 군법재판 개정	한성일보 1948. 7. 11	165
▪ 제주도 사태는 일단락 / 통위부 이(李)참모총장 담	동아일보 1948. 7. 13	165
▪ 청년없는 마을들, 도민의 회의감은 여전 / 그 후의 제주도	서울신문 1948. 7. 13	166
▪ 군기(軍紀) 숙청 강화 / 박대령 살해범에 중형 / 이(李)참모총장 담	자유신문 1948. 7. 13	166
▪ 제주도 지사에 임관호씨 취임	동아일보 1948. 7. 14	167
▪ 민족의 비극 제주사건, 평화해결 바라오 / 제주출신 학생들 진정	서울신문 1948. 7. 16	167
▪ 양민 사망 292명 / 가옥 소실이 400여 호 / 제주사건 종합보고	조선중앙 1948. 7. 16	168
▪ 제주사태 변모 / 사형(私刑)의 복수전이 자행	조선중앙 1948. 7. 17	168
▪ 목포~제주간 여행증 폐지	조선중앙 1948. 7. 17	169
▪ 제주도 이모저모 / 양기하(梁基河)	경향신문 1948. 7. 18	169
▪ 동란의 제주도 사건 진모 / 이도(吏道) 부패가 원인 / 사설단체의 가림주구도 성행	서울신문 1948. 7. 20	171
▪ 제주사건 / 경찰의 무장해제 등 소요측서 조건을 제출?	조선일보 1948. 7. 20	174
▪ 제주도 사건 그 후의 변모 / 학교는 둔영(屯營)으로 / 학동들까지 '산사람편'	조선중앙 1948. 7. 20	174
▪ 민심 수습 / 오리(汚吏) 단속 / 제주지사 소신 담	국제신문 1948. 7. 21	175
▪ 요즘 제주사태 / 아직도 불안한 정세	조선중앙 1948. 7. 21	176
▪ 여전히 항전 계속 / 사령부에는 400여 명의 폭도 수용 / 제주 소요 속보	한성일보 1948. 7. 21	176
▪ 박(朴)대령 살해용의범 불일 군법회의 회부	국제신문 1948. 7. 23	177

▪ 제주도 그 후 사태 / 유기시체 처처서 발견	조선중앙 1948. 7. 23	177
▪ 선처 않으면 재발 위험 / 제주사건 대위회(對委會)에서 성명	서울신문 1948. 7. 24	178
▪ 제주도 사건 진상조사단 20여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	조선중앙 1948. 7. 24	179
▪ 제주도 사건 대책위원회 성명	조선중앙 1948. 7. 24	179
▪ 균형(軍刑)으로 4명 총살 / 제주사건 관계의 경비대원들	국제신문 1948. 7. 28	181
▪ 제주 파견 연대 귀환	현대일보 1948. 7. 28	181
▪ 동란의 제주도 현지답사(1) / 무력만으론 해결불능 / 최(崔)국경비사령관 기자단에 역설	조선중앙 1948. 7. 29	181
▪ 동란의 제주 현지답사(2) / 산사람 요구는 경찰의 무장해제 / 김봉호 경찰청장과 일문일답	조선중앙 1948. 7. 30	183

## 1948년 8월

▪ 관공리의 부패가 주인(主因) / 제주사태에 원(元)검사 시찰담	국제신문 1948. 8. 5	185
▪ 제주도 사태 / 사람없는 마을 / 유격대는 다시 공작 개시 / 김(金) 3대장 담	조선중앙 1948. 8. 5	185
▪ 소요 점차로 미약 / 원택연(元澤淵) 부장검사 담 / 제주도 근황	한성일보 1948. 8. 5	186
▪ 제주도에 2차 응원대 파견 / 1관구청서	조선중앙 1948. 8. 7	186
▪ 무장한 산사람 다시 출몰 / 제주도 소요 아직도 불안정	조선중앙 1948. 8. 8	187
▪ 제주 관공서원 피검 / 구국투위(救國鬪委) 관계로	조선중앙 1948. 8. 8	187
▪ 경비대원 3명 총살형 집행	조선중앙 1948. 8. 8	187
▪ 박대령 암살사건 공판 / 9일 군기대사령부에서 개정	한성일보 1948. 8. 8	188
▪ 박(朴)대령 살해범 / 고등군법회의 개정	국제신문 1948. 8. 10	188
▪ 박(朴)대령 암살범 군법회의	경향신문 1948. 8. 11	189
▪ 제주관공서원에 벌금형	조선중앙 1948. 8. 11	189
▪ 증인으로 유동열씨 지명 / 박대령 암살공판 제3일	한성일보 1948. 8. 12	189
▪ 박(朴)대령 암살범 군법회의 계속	경향신문 1948. 8. 14	190

▪ “지령받은 일 없소” / 박대령 살해범 3회 공판정서 진술	국제신문 1948. 8. 14	190
▪ 박대령은 도민을 무조건 탄압 / 문상길 중위 진술 / 박대령 암살 제4회 공판	조선중앙 1948. 8. 14	190
▪ 사건심문을 계속 / 박진경 암살공판 제4일	한성일보 1948. 8. 14	191
▪ 총살 체형 등 언도 / 박(朴)대령 암살범 고등군법회의	경향신문 1948. 8. 15	192
▪ 제주 경계 다시 강화 / 지하선거 실시도 사실	조선중앙 1948. 8. 15	193
▪ 4명에 총살형 / 박대령 암살사건 언도	조선중앙 1948. 8. 15	193
▪ 4명에게 사형 언도 / 박대령 군법회의 일단락 / 암살 공판	한성일보 1948. 8. 15	194
▪ 쌀이란 구경도 못하는 제주 / 물가고로 도민의 생활 고는 극도 / 학교는 교원 없어 황폐	조선중앙 1948. 8. 18	195
▪ 총살형은 흑심(酷甚) / 요로에 감형 진정서 / 박대령 의 암살공판	한성일보 1948. 8. 19	196
▪ 문중위 총살형 언도 / 각계에서 철회를 요망	조선중앙 1948. 8. 20	197
▪ 지서장 또 피살 / 제주소요의 여파	조선일보 1948. 8. 21	197
▪ 해상에 괴선이 기총쏘며 도주	한성일보 1948. 8. 21	198
▪ 제주 검거 977명	국제신문 1948. 8. 24	198
▪ 목포~제주 여행증제 부활	동광신문 1948. 8. 25	198
▪ 인민대표 대회 제2일 김달삼(金達三)씨 등단하자 박 수우뢰	조선중앙 1948. 8. 25	199
▪ 박대령 살해사건 총살형은 부당 / 법학가동맹 견해	조선일보 1948. 8. 27	199
▪ 제주도 상(尙) 미평온 / 현지에서 온 두 인사의 말	국제신문 1948. 8. 28	199
▪ 문중위 등의 총살형 철회 요구 / 민애청과 법학자동 맹 성명	조선중앙 1948. 8. 28	200
▪ 박대령 살범(殺犯) 감형하라 / 인권옹호연맹에서 성명	서울신문 1948. 8. 29	200
▪ 문(文)중위 등의 총살형 보류 / 감형여부 주목	조선일보 1948. 8. 29	201
▪ 제주사건 진상조사단 / 제우회(濟友會)에서 파견	조선일보 1948. 8. 29	201
▪ 경관 응원대 제주도에 파견	조선중앙 1948. 8. 29	201
▪ 제주도 사건 조사단 출발	한성일보 1948. 8. 29	202

- 문중위 등의 총살형 철회하라 / 신진당서 담화      조선중앙 1948. 8. 31      202

## 1948년 9월

- 문중위 사형 반대 뼈라!      독립신보 1948. 9. 1      203
- 응원경관대 800명 도착 / 동포상잔 비극 또 다시 전개 / 제주사건      조선중앙 1948. 9. 1      203
- 문중위 등 감형하라 / 기독교 민주동맹 주장      조선중앙 1948. 9. 1      204
- 문중위 등 행위는 민족정기에서 / 사형 취소하라 / 재일조련(在日朝聯)서울위(委)서도 성명      조선중앙 1948. 9. 1      204
- 최대 토벌전 전개? / 특별 응원경관대 도착 / 제주도는 언제나 평화지가 되나?      동광신문 1948. 9. 2      204
- 제주조사단 목포서 지체 / 여행증명 불여의(不如意)로      조선중앙 1948. 9. 2      205
- 제주 소요관계 200명 광주지심(地審)에      독립신보 1948. 9. 3      205
- 제주사태 악화 / ‘토벌전’ 을 재연?      서울신문 1948. 9. 3      205
- 제주사건 토벌전 재개? / 상잔(相殘) 화근은 무엇 / 무장응원대 파견설의 귀추 주목      조선일보 1948. 9. 3      206
- 못가게 하는 이유는? / 제주 현지조사단 경찰이 승선 제지      조선중앙 1948. 9. 3      207
- 문중위 등 총살형 즉시 철회하라 / 민중동맹 담화      조선중앙 1948. 9. 3      208
- 사형은 부당 / 근대당(勤大黨) 학병거부자연맹서도 성명      조선중앙 1948. 9. 3      208
- 제주 토벌 중지하고 문중위 등 사형 철회하라 / 민전 인공 청구 담화      조선중앙 1948. 9. 4      208
- 제주토벌 중지 요망 / 교협(教協)에서 담화 발표      서울신문 1948. 9. 5      208
- 제주사태 긴급을 호소 / 출항제지로 현지조사단 분기(奮起)      조선일보 1948. 9. 5      209
- 제주도 사태에 3개 단체 성명      조선일보 1948. 9. 5      209
- 제주도 증원부대 파견에 여론 비등 /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 각 정당 단체서 성명 발표      조선중앙 1948. 9. 5      210
- 목포경찰서 갈 길을 막아 / 제주진상조사단 허귀(虛歸)      국제신문 1948. 9. 7      211

▪ 30만 제주 동포에 민족적인 구원을 재(再) 호소 / 제주도사건 진상조사단 성명	독립신보 1948. 9. 7	211
▪ 선무공작으로 민심수습 / 제주도 사태와 군(軍) 방침 / 제5여단 참모장 담	동아일보 1948. 9. 7	213
▪ 제주에 응원대 / 토벌전 개시?	서울신문 1948. 9. 7	213
▪ 비극의 섬 제주 / ‘토벌’ 즉시 중지 요망 / 승선 제지 된 조사단 귀경 성명	서울신문 1948. 9. 7	213
▪ 동족상잔 중지하라 / 12정당 단체 성명 발표	조선중앙 1948. 9. 7	214
▪ 문중위 등 사형 반대 / 교협(敎協)서 담화	조선중앙 1948. 9. 7	214
▪ 제주진상조사단 승선 금지로 귀경	한성일보 1948. 9. 7	214
▪ 제주도 사태에 민주독립당 성명	국제신문 1948. 9. 8	215
▪ 무장경관대의 증파 / 제주도 유혈 참극 예고! / 조사단 경찰 제지로 여론 점고(漸高)	독립신보 1948. 9. 8	215
▪ 제주 소요 사건 기록 / 무려 5,000여 정(丁) / 광주법원서 정식 수리	동광신문 1948. 9. 8	216
▪ 제주도민 무력탄압 중지하라 / 유련(儒聯) 민애청 사맹(寫盟)서 성명	독립신보 1948. 9. 9	217
▪ 사설 : 제주도 사건 재검토	조선일보 1948. 9. 9	217
▪ 제주사태 은폐말고 조사단 행동 자유주라 / 인공(人共) 기민(基民) 유련(儒聯) 음맹(音盟) 담화	조선중앙 1948. 9. 10	218
▪ 제주사건 관계자 40명을 또 이송	국제신문 1948. 9. 11	219
▪ 제주도 사건 평화해결 요망 / 인공경기당부 불청(佛靑) 담화	조선중앙 1948. 9. 11	219
▪ 제주 증파 경관 즉시 철회하라 / 민중동맹 담화	조선중앙 1948. 9. 12	219
▪ 13세 소년을 고문치사 / 제주도에 일어난 경관 만행	서울신문 1948. 9. 15	219
▪ 중지당한 제주도 조사단 / 윤장관에 서한	조선중앙 1948. 9. 15	220
▪ 구장(區長) 대청원(大靑員) 피살 / 제주사태 다시 험악화	서울신문 1948. 9. 22	220
▪ 제주사건 문(文)중위 등 총살형 집행	국제신문 1948. 9. 24	220
▪ 집행직전에 신(申), 배(裨)만 특사 감형	경향신문 1948. 9. 25	221
▪ 제주 소요사건 래(來) 1일부터 공판	동광신문 1948. 9. 25	221

▪ 총살의 그 찰나 / 비창(悲愴)한 유언	자유신문 1948. 9. 25	221
▪ 비장한 유언 / 문(文)·손(孫) 양명(兩名) 종용(從容) 히 취사(取死) / 박대령 암살범 총살형 목격기	서울신문 1948. 9. 26	222
▪ 악질경관 등 원인 / 제주사태와 춘천 공보원장 담	서울신문 1948. 9. 26	223

## 1948년 10월

▪ 제주 다시 폭동 / 쌍방간의 교전을 전개	자유신문 1948. 10. 2	225
▪ 13구장(區長)도 총사직	국제신문 1948. 10. 3	226
▪ 5명이 사상 / 제주서 경관대 귀경	동아일보 1948. 10. 3	226
▪ 치안에 적신표 / 제주도 수도청 응원대 급파	조선일보 1948. 10. 3	226
▪ 경찰과 폭도 접전 / 제주도 사태 재악화	한성일보 1948. 10. 3	227
▪ 제주도 폭동 대비 작일 군경대를 급파	한성일보 1948. 10. 3	227
▪ 제주사태 재 악화 / 경관과 폭도간 교전	현대일보 1948. 10. 3	227
▪ 제9경찰청장 경질	조선일보 1948. 10. 6	228
▪ 제주 순직 경관 유해 안착(安着)	국제신문 1948. 10. 7	228
▪ 예상보다 평온 / 제주도서 귀임한 정(丁)대령 담	국제신문 1948. 10. 7	229
▪ 2명에 사형 / 제주 4·3사건 구형	서울신문 1948. 10. 7	229
▪ 제주 순직경관 고별식을 거행	국제신문 1948. 10. 9	230
▪ 제주 4·3사건 계속 공판 구형	조선일보 1948. 10. 12	230
▪ 제주 근해에 괴잠함(怪潛艦) / 함미(艦尾)에는 인공기 계양	동아일보 1948. 10. 13	230
▪ 제주 각처에 인공기	서울신문 1948. 10. 13	231
▪ 제주사건 공판 완결 / 최고 무기징역 언도	동광신문 1948. 10. 15	231
▪ 접전 후에 격퇴 / 사상자 다수, 제주사태 험악	조선일보 1948. 10. 15	232
▪ 폭도측 병기부를 발견 / 쌍방간 치열한 산악전	조선일보 1948. 10. 16	232
▪ 불안은 극도 / 독촉지부장 서한	조선일보 1948. 10. 16	233
▪ 제주사건 언도	국제신문 1948. 10. 17	233
▪ 제주읍 관공서에 파업강요 협박장	조선일보 1948. 10. 19	234

▪ 제주사건 공판에 최고 15년형 구형	자유신문 1948. 10. 20	234
▪ 무허가 통행금지 / 제주 송(宋) 연대장 포고	조선일보 1948. 10. 20	235
▪ 제주서 또 교전 / 폭도 4명이 피살	국제신문 1948. 10. 21	235
▪ 제주사건 언도 연기	동아일보 1948. 10. 27	236
▪ 제주도 의연 소란 / 군 당국 근일 소탕작전 개시호(乎)	국제신문 1948. 10. 28	236
▪ 제주 무장폭도, 순경 등을 살해	국제신문 1948. 10. 29	236
▪ 제주읍 등에도 내습	국제신문 1948. 10. 29	237
▪ 제주서도 교전 빈번 / 아라리서 교전	조선일보 1948. 10. 30	237
▪ 승객 버스 피습	조선일보 1948. 10. 30	237

## 1948년 11월

▪ 제주서 소탕전 / 폭도 수십명을 사살	국제신문 1948. 11. 2	239
▪ 민보단은 경찰 일익(一翼) / 조직완료는 경하사(慶賀事) / 수도청장 담	한성일보 1948. 11. 2	239
▪ 현지질서 회복 / 제주작전서도 포로 200여 / 반란사건 속보 국방부서 발표	조선일보 1948. 11. 3	240
▪ 제주인민군 사령 이덕구 등을 사살	국제신문 1948. 11. 6	241
▪ 당중앙위원회 메시지에 답함 / 학살과 폭압에 항(抗)하며 제주도 인민항쟁 선두에 선 당제주도위원회 메시지	노력인민 1948. 11. 7	241
▪ 제주도서 김씨 피살	한성일보 1948. 11. 11	243
▪ 서귀포 방화 폭동 / 양민 가장(假裝) 폭도 100명 사살	경향신문 1948. 11. 12	244
▪ 폭도 섬멸은 시간문제 / 제주연대장 송(宋)소령 담화	자유신문 1948. 11. 12	244
▪ 폭도 서귀포발전소 내습	동아일보 1948. 11. 14	245
▪ 제주도 파견한 통학(統學)간부 피살	독립신문 1948. 11. 18	245
▪ 3특경(特警) 1계급 승진 / 제주서의 수훈 표창	한성일보 1948. 11. 19	245
▪ 제주계엄령은 무근(無根)	조선일보 1948. 11. 20	246
▪ 군관계 기사 사전에 검열	국제신문 1948. 11. 21	246



▪ 언론억압 아니다 / 군 기사 검열에 군 당국 답	국제신문 1948. 11. 23	246
▪ 폭도 88명 사살 / 제주도 각처서 잔적을 소탕	조선일보 1948. 11. 26	247
▪ 폭도 79명을 사살 / 북제주군서 국군 소탕전	독립신문 1948. 11. 27	247
▪ 이 국무총리 제주연대 격려 방송	자유신문 1948. 11. 27	247
▪ 제주 4·3사건 공판	국제신문 1948. 11. 30	247
▪ 제주에 계엄령 / 선무공작의 성과 다대	자유신문 1948. 11. 30	248

## 1948년 12월

▪ 제주 진압 진척 / 폭도 속속 체포	한성일보 1948. 12. 2	249
▪ 식량 노획에 인한 적의 타격 심대 / 제주방면 토벌작전	동광신문 1948. 12. 3	249
▪ 제주사건 연도 / 최고 무기, 최하 3년 / 제7회	동광신문 1948. 12. 3	250
▪ 폭도 분거 포위 / 제주에서 230명 포로	자유신문 1948. 12. 3	250
▪ 폭도섬멸에 공훈세우고 / 김(金)중대장 외 전원 개선 / 제8관구청 제주응원부대	동광신문 1948. 12. 4	251
▪ 맹렬히 토벌 중 / 제주도내 반도 소탕은 계속	서울신문 1948. 12. 5	251
▪ 안도하라! 국군은 엄존 / 반란사건의 진모 / 이(李)국방장관 국회서 설명	국제신문 1948. 12. 9	251
▪ 국내 반란사건 종합 집계 / 잔존 반도 약 300 / 숙청은 민족 양심에 호소	대동신문 1948. 12. 9	252
▪ 제주사태는 점차 호전, 1만여 재민 구호가 긴급 / 임 제주지사가 말하는 도내 실정	서울신문 1948. 12. 9	253
▪ 제주 등 잔도(殘徒) 소수 / 3개월 내에 완전 진압 / 이 국무총리 반란경위 보고	한성일보 1948. 12. 10	254
▪ 제주 4·3사건 공판 재개	조선중앙 1948. 12. 12	254
▪ 제주소탕전 진척 / 창 가진 시민 3,000명도 협력!	대동신문 1948. 12. 17	255
▪ 제주사건 9회 공판 / 강성인(姜性仁)에 무기 연도	독립신문 1948. 12. 18	255
▪ 혼돈은 언제 종식되나 / 함양·북제주 등지에 반도 내습(來襲)	자유신문 1948. 12. 21	256
▪ 내무장관 증명서가 제주도 여행에 필요	서울신문 1948. 12. 23	256

▪ 제주4·3사건 계속 언도	조선중앙 1948. 12. 29	256
▪ 제주 파견 철경 귀환	조선중앙 1948. 12. 29	257
▪ 제주도 계엄령 31일로 해제	경향신문 1948. 12. 31	257
▪ 제주치안 점차 회복 / 계엄령도 금명간 해제 / 채(蔡)준장 담	국제신문 1948. 12. 31	257
▪ 제주사태 양호! 채(蔡)참모총장 담화 발표	대동신문 1948. 12. 31	258
▪ 제주사태 완전진압 / 도민의 협력도 다대	한성일보 1948. 12. 31	259

## 1949년 1월

▪ 전(全) 제주 계엄령 31일 해제	조선중앙 1949. 1. 1	260
▪ 제주사건 공판 3개월만에 결심(結審)	조선중앙 1949. 1. 1	260
▪ 최고에 무기 징역 / 제주 4·3사건	한성일보 1949. 1. 3	261
▪ 제주도청 전소 / 원인은 조사 중	조선중앙 1949. 1. 6	261
▪ 전소설 비상사령부 부인	조선중앙 1949. 1. 6	261
▪ 국적불명의 잠수함 / 제주도 근해에 출현	동광신문 1949. 1. 7	262
▪ 제주평정부대를 / 목포 시위(市委)의 위로	동광신문 1949. 1. 7	262
▪ 제주 명덕리서 격전! 아직도 계속되는 한라산 전투	독립신문 1949. 1. 12	262
▪ 제주사태 재악화 / 오용국 의원 현지시찰 담	조선일보 1949. 1. 12	263
▪ 선무공작 보고 청취 / 미곡매상에 경찰력 행사는 불가 / 신년벽두의 첫 국회	조선중앙 1949. 1. 12	263
▪ 군(軍)의 기사는 헌병서 검열	조선중앙 1949. 1. 15	264
▪ 신(申)내무장관 제주 부산 등 시찰	동아일보 1949. 1. 16	264
▪ 공산당에 주민들은 목침(木枕) 망망이 들고 대항 / 제주도 시찰한 신(申)내무장관 담	경향신문 1949. 1. 18	265
▪ 제주도 등 시찰 / 신성모 내무장관 귀경 담화	조선중앙 1949. 1. 18	265
▪ 제주검사 봉변	경향신문 1949. 1. 20	266
▪ 대통령령 제50호로 제주에 2개 서(署) 증치	자유신문 1949. 1. 20	266
▪ 소지(蘇紙), 제주도 근해 잠수함설 부인	동광신문 1949. 1. 22	267

## 1949년 2월

- 제주에 식량부족 / 본도서 4,000여 석 원조                      동광신문 1949. 2. 1            268
- 제주서 육해공 공동작전 / 사살이 360, 포로 130명            조선중앙 1949. 2. 9            268
- 지리산 등지의 폭도 / 근일 완전소탕 개시                    경향신문 1949. 2. 15        269
- 사태는 호전 일로 / 남제주지사의 도내 상황 담            대동신문 1949. 2. 18        269
- 평화통일을 염원 / 제주사태는 3월까지의 결말 / 이  
(李)참모장 광주서 담화                                      대동신문 1949. 2. 19        270
- 34명을 사살 / 제주서 폭도 토벌                                  대동신문 1949. 2. 20        270

## 1949년 3월

- 준법정신을 기만 / 부임검사 또 피검 / 소속장관의  
사전연락이란 말 뿐    경향신문 1949. 3. 1            271
- 양(梁)검사 체포 해제를 시달                                      경향신문 1949. 3. 4            272
- 경찰이 검사를 체포 / 제주서(濟州署)서                      조선중앙 1949. 3. 4            272
- 2만여 호가 회진(灰塵) / 400부락이 105부락으로 감  
소 / 상경(上京) 대표가 말하는 제주도                    조선중앙 1949. 3. 4            273
- 검경(檢警)간 기사문제에 김효석 내무차관 담화 발표      조선중앙 1949. 3. 6            273
- 제주도 대표 수습 진정(陳情)차 상경                            조선중앙 1949. 3. 10        274
- 선무 군악대 / 18일 제주에 파견                                동아일보 1949. 3. 12        274
- 비참한 제주도 / 진정(陳情) 온 홍(洪)씨 읍소                동아일보 1949. 3. 12        274
- 회신(灰燼)으로 화한 제주 / 살인·방화는 다반사 /  
인민은 자유와 평화 애원 / 재경 제주도민대회            자유신문 1949. 3. 12        275
- 제주문제 해결책 / 정부 국회 합심 노력하라 / 민주  
국민당 담    자유신문 1949. 3. 12        276
- 폭도소탕 강행 / 육군참모장 담화                                경향신문 1949. 3. 15        277
- 국방부 발표 주간 전과    경향신문 1949. 3. 15        278
- 제주사태는 호전 / 이총리 목포서 답변                        동광신문 1949. 3. 15        278
- 각처서 귀중한 희생 / 38선 제주 등 소탕전과                동아일보 1949. 3. 15        279

▪ 1부락 721호 파괴 / 도민의 생활상태는 극도 / 외인 선교사가 말하는 제주 근황	독립신문 1949. 3. 16	279
▪ 폭도섬멸 주간 각지 전과 / 국방부 제2국 보도과 발표	동광신문 1949. 3. 16	280
▪ 먼저 민심수습 하라 / 이총리 제주도서 연설	자유신문 1949. 3. 16	280
▪ 제주민 구별 곤란 / 도 대표-번즈씨 회담 내용	자유신문 1949. 3. 16	281
▪ 날로 클로즈업 되는 제주도 / 부락 태반이 폐허화 / 이(李) 신(申) 양 장관 현지를 시찰	조선일보 1949. 3. 16	281
▪ 충남 경찰국서 제주에 위문단	조선중앙 1949. 3. 16	283
▪ 잔도 섬멸을 개시 / 이국무총리 전남반란지 시찰담	경향신문 1949. 3. 17	283
▪ 반도섬멸은 불원 / 민중도 이젠 속지 않는다 / 이국무총리 제주시찰담	자유신문 1949. 3. 17	284
▪ 신(申)내무장관도 제주도 사태 보고	조선중앙 1949. 3. 17	285
▪ 민사처 설치 / 제주사령부에	조선중앙 1949. 3. 17	286
▪ 제주 구호물자 또 8트럭 발송	독립신문 1949. 3. 19	286
▪ 제주에 구호물자 / 의복 식량 등등 화차수송	동광신문 1949. 3. 19	286
▪ 육군 군악대 제주장병을 위문	조선일보 1949. 3. 19	287
▪ 반란으로 연기했던 제주 양 국회의원(國議員) 선거	자유신문 1949. 3. 20	287
▪ 인적은 간 곳 없고 산촌엔 해풍만이 소슬 / 주(朱)국회의원 제주 답사기	자유신문 1949. 3. 20	287
▪ 사살 181명 등 제주 제2연대 발표	조선중앙 1949. 3. 20	289
▪ 군정 3년이 유죄 / 일부 오리(汚吏)에도 책임 있다 / 주(朱)국회의원 제주 답사기(2)	자유신문 1949. 3. 22	289
▪ 1주간 소탕전과 / 군 보도과에서 종합발표	자유신문 1949. 3. 22	290
▪ 아직 '동정자' 있다 / 그러나 사태는 점차 회복 / 신(申)장관의 제주사태 전망	조선일보 1949. 3. 22	290
▪ 험난한 한라산봉 / 군경 소탕전에 지장 막대 / 주(朱)국회의원 제주 답사기(3)	자유신문 1949. 3. 23	291
▪ 기근 대책 세워주오 / 제주도민 당국에 진정	동아일보 1949. 3. 24	293
▪ 인심수습에 치중 / 복구에 관민 협력 지요(至要) / 주(朱)국회의원 제주 답사기(4)	자유신문 1949. 3. 24	293

▪ 제주민 구제하고자 식량선(食糧船) 인천 출항	조선일보 1949. 3. 25	295
▪ 보안법 위반으로 양을(梁乙) 검사보 기소	경향신문 1949. 3. 26	295
▪ 제주도 평정 불원 / 반도소굴 한라산 소탕	자유신문 1949. 3. 26	295
▪ 제주도 현지 전람회	조선중앙 1949. 3. 29	296
▪ 군재(軍裁) 수형자 재심 / 66명 의원이 긴급 동의	조선중앙 1949. 3. 29	296

♣ 신문기사 영인자료 / 301

♣ 찾아보기 / 523



# 제주4·3사건자료집 2

[1948년 4월~1949년 3월]





---

# 1948년 4월

## ■ 서울신문 1948년 4월 1일

### 200의원 선거 / 각 도별 배정 발표

국회 선거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차 선거에서 선출될 의원 수는 200명이라고 하는데 각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인구수)

△서울시 : 10명(1,141,766) △경기 : 29명(2,486,469) △충북 : 12명(1,112,894) △충남 : 19명(1,909,405) △전북 : 22명(2,016,428) △전남 : 29명(2,944,842) △경북 : 33명(2,278,750) △경남 : 31명(3,185,832) △강원: 12명(1,116,836) △제주 : 3명(276,148)

## ■ 동아일보 1948년 4월 6일

### 4일 제주도서 총선거 반대 폭동 / 사상자 12명 발생

5일 시공관에서 개최된 총선거 촉진 대강연회 석상 조(趙)경무부장이 연설한 바에 의하면, 4일 제주도에서는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좌익분자들의 파괴행동이 있었는데, 그 피해상황은 경찰관서 습격이 11개소, 경찰관 사망이 4명, 일반청년 사상이 8명, 경찰지서 습격이 5개소나 있었다 한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조선일보·한성일보 48. 4. 6)

■ 대동신문 1948년 4월 7일

등록 실수(實數) 64% / 4일 현재 경남 80%가 수위

오는 5월 10일에 실시될 총선거에 앞서 남조선 각지에서는 지난 30일부터 연일 유선거권자의 등록이 실시되고 있는데 4일까지의 등록상황은 유권자의 64%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 경남은 80%로 제일이고 전남은 48%이며 제주도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제주도 유권 등록 14,101(미상) (후략)

■ 독립신보 1948년 4월 7일

제주청(廳) 발표

【제주 6일 발 함동】 지난 3, 4 양일 미명 제주도 각지에는 폭도들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급보를 접한 제8관구 경찰청(광주)으로부터 응원대 약 100명이 5일 아침 당지에 도착하였다 하는바, 이에 대하여 제주경찰청장은 사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습격 : 지서 13, 대청사무소 1 △방화 : 지서 1, 경관 숙소 1, 대청원 가옥 1 △사망 : 경관 4, 급사 2, 경관 가족 1, 일반인 1, 대청원 3, 폭도 3 △부상 : 경관 6, 대청원 2, 일반인 2 △경상 : 경관 1, 대청원 5, 일반인 4 △납치 : 경관 2, 대청원 4 △행방불명 : 대청원 3 △파괴 : 지서 2

(같은 기사 자유신문·조선중앙일보·현대일보 48. 4. 7)

■ 서울신문 1948년 4월 7일

제주 11경찰관서 등 피습 / 관민측의 사상도 다수 / 조경무부장 담

지난 3일 이래 제주도에 발생한 경찰관서 등 습격사건에 관하여 조(趙)경무부장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회견 석상에서 조부장은 특히 2·7이후 경찰관의 사망자가 30명에 달한 것을 강조하고, 현재 제주에는 2경찰서 15지서에 약 480명의 경찰관이 있으며, 응원대는 전남에서 파견하였다는 발언이 있었다.

“거(去) 4월 3일 이래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사건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되어서

치안이 극도로 교란되었다. 공산계열의 파괴적 반민족적 분자들의 지도하에 총기 수류탄 및 기타 흉기를 휴대한 무뢰한들이 성군작당(成群作黨)하여 경찰관서 및 기타 관공서의 습격, 경찰관리 및 그 가족의 살해, 선량한 동포 살해, 방화 폭행 및 약탈 등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여 전도의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구에 빠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선거 등록 실시 사무를 정돈(停頓)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인적 물적 손해는 좌기(左記)와 여(如)하다.

△경찰관서 습격 11개소 △테러 11건 △경찰관 피습 2건 △경찰관 사망 4명, 부상 7명, 행방불명 3명 △경찰관 가족 사망 1명 △관공리 사망 1명, 부상 2명 △양민 사망 8명, 부상 30명 △전화선 절단 4개소 △방화 경찰관서 3개소, 양민가옥 6개소 △도로 교량 파괴 9개소

그런데 경무부에서는 제주도의 치안 정세가 위급함에 비추어 전도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부(當部)로부터 김정호(金正浩) 공안국장 및 그 대원을 특파하는 동시에 응원경찰대를 급파하였다. “제주도의 동포제위는 안심하시는 동시에 경찰과 적극 협력을 하여 그 망국적 도배들을 발본색원적으로 퇴치하여 제주치안의 완벽을 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남조선의 이여(爾餘)의 지역에 계신 동포들도 국제적 정세의 긴박함과 우리 민족의 역사적 위기에 당면한 사실을 직시하여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역사적 대사업인 총선거가 성공리에 종결되도록 국립경찰에게 애국적 협력을 아끼지 말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독립신보·동아일보·우리신문·자유신문·조선일보·중앙신문 48. 4. 7)

#### ■ 동광신문 1948년 4월 8일

#### 응원대를 급파 / 제주도 폭동사건 심대 / 경무부 발표

【서울 6일 발 합동】 지난 3일 이래 제주도에서는 도내 15개 지서 중 11개의 지서를 습격하는 등 일대 불상사가 야기되었다는데 경무부에서는 5일 공안국장 김정호(1)씨와 전남에서 응원대를 급파하는 등 비상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 동 사건에 관하여 6일 경무부장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去) 4월 3일 이래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사건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되어

1) 김정호의 오기인 듯. 이후는 김정호로 표기함.

치안이 극도로 교란되었다. 총기, 수류탄 및 기타 흉기를 휴대한 도배들이 작당하여 경찰관서 및 기타 관공서의 습격, 경찰관리와 그 가족의 살해, 선량한 동포 살해, 방화, 폭동 및 약탈 등의 천인공노할 행위를 감행하여 동포의 생명과 재산이 위기에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선거 등록사무를 정돈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인적, 물적 손해는 좌기와 같다.

경찰관서 습격 11개소, 테러 11건, 경찰관 피습 2건, 경찰관 사망 4명, 부상 7명, 행방불명 3명, 경찰관 가족 사망 1명, 관공리 사망 1명, 부상 2명, 양민 사망 7명, 부상 30명, 전화선 절단 4개소, 방화(경찰관서 3개소, 양민가옥 6개소), 도로 교량 파괴 9개소”

그런데 경무부에서는 제주도의 치안상태의 위급함에 비추어 김정호 공안국장 및 그 수원을 특파하는 동시에 응원경찰대를 급파하였다.

#### ■ 제주신보 1948년 4월 8일

#### 남군(南郡) 선위(選委) 임명

금반 남제주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의(國議) 선거위원이 임명되었다 한다.

△위원장 임태희(任泰禧·치안관) △위원 고유혼(高遊混·서귀金組 이사) 김문옥(金文玉·대서업) 박성대(朴性大·모슬포우편국장, 국민회원) 강희정(康熙正·實業) 장용문(張龍文·내무과장, 민독당원) 송문희(宋文熙·서귀면장, 민독당원) 허민(許民·전 남원면 부면장, 국민회원) 윤국선(尹國宣·전 중문면 부면장, 실업) △후보위원장 강방길(康邦吉·서귀우편국장) △후보위원 우영하(禹寧夏·전 대정면장, 실업) 서상경(徐相京·식량영단 서귀출장소장) 김길수(金吉洙·실업) 이원옥(李元玉·실업, 민독당원) 현영휴(玄英休·실업, 국민회원) 장홍(張洪·서귀전매서장) 김제암(金濟岩·서귀漁組 이사) 김문숙(金文淑·의업, 대청원)

#### ■ 제주신보 1948년 4월 8일

#### 이호, 봉개에 소요사건 발생

지난 6일 미명에는 또다시 좌기 2개소에서 소요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호사건 : 지난 3일 하오 2시경에 40여명이 내습하여 선거사무소의 간판, 초자(硝子) 및 대청 간판을 파괴한 후 도피한 사실이 있었는데 또다시 6일 상오 1시 반경에는 무기를 가진 십수명이 이도연(李道連·대청 총무부장)의택을 습격하여 전기 이도연을 총살시키고 또 양봉호(梁奉浩)택을 습격하였는데 피신, 동숙하고 있는 양남호(梁南浩·대청원)가 총살당하였다.

△봉개사건 : 6일 상오 2시경에 대청원 및 자치회 간부 택이 수십명의 죽창 소지자에 습격 당하였는데 내습을 예지(豫知)한 대청원 및 자치회 간부들은 피신한 관계로 무사하였고 대개 그 가족이 피상당하였는데 그 성명은 여좌하다.

중상 이왕우(李旺雨·국민학교교장, 대청단장) 강재규(姜載奎·교장 장인) 홍수숙(洪秀淑·자치회 고문 宋守邦 처) 변옥출(邊玉出·자치회 부회장 高炳球 모) 그 외 경상자 3명.

#### ■ 제주신보 1948년 4월 8일

금반 소요사건의 주동은 육지부로부터의 악질도배 / 공안국장 김정호 씨담

금반사건의 수습차로 중앙에서 내도한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金正浩)씨는 왕방(往訪)한 기자에게 여좌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민은 선량하고 근실한 민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폭동사건은 제주도민의 주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서 침입한 악질불량 도배들이 협박 위협 등으로 도민을 선동시켜 야기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육지부에서 침입한 주동자 및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임하며, 악질도배들의 협박과 위협으로 선동된 도민들에게는 최대의 온정으로 임하며, 제주도민에 나는 많은 동정을 가지며 앞으로 더욱 경찰에 협력할 것을 요망한다.”

#### ■ 동아일보 1948년 4월 10일

선거인 등록 마감 / 6일 현재 81% / 전북이 최고(93) 다음 경기(91) / 3일간 추가로 90% 돌파 예상

작(昨) 9일로써 등록실시는 끝났다. 이 땅 이 겨레의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우

리의 피끓는 염원은 이 등록실시에 나타나는 숫자만으로도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등록을 실시한 애국애족 남녀 동포들이여! 그대들이 등록소에 가서 서명 날인하던 그 엄숙한 기분으로 닥쳐오는 5월 10일의 역사적 총선거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깨끗한 한 표를 던져 주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단속하기 바란다.

그런데 국회선거위원회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지난 6일 현재 전라북도의 93%, 경기도의 91%를 비롯하여 제주도를 제하고는 대개가 80%를 넘는 좋은 성적을 올리어 전국적으로 81%를 돌파하고 있는데, 6일 현재 각도의 등록상황과 8일 현재 서울시 등록상황은 각각 다음과 같다.

(6일 현재)

도명	등록자	율(%)
서울시	521,605	72
경기	1,042,545	91
충북	421,052	85
충남	730,304	83
전북	762,889	93
전남	970,608	70
경북	1,068,899	79
경남	1,242,906	90
강원	441,195	82
제주	57,676	45
합계	7,259,679	81

(후략)

■ 제주신보 1948년 4월 10일

경비사령부에서 포고문 발포

금반사건 수습차로 내도한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씨를 중심으로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는데 동 사령관 김정호씨는 여좌한 포고문을

발하였다.

### 포고문

제주도내 비상사태를 고려하여 4월 5일 11시부터 제주경찰감찰청내에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 도내 치안을 수습하고자 좌기의 포고문을 발한다.

### 기(記)

(1) 본관은 제주도내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도에 대하여 전 경찰력을 집중, 소탕전을 전개하려 한다.

(2) 친애하는 도민제위는 경찰에 협력하여 적의 준동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락별로 향보단을 조직하고 불량도배의 침입을 방지하라.

(3) 폭도에 대하여는 추상열일(秋霜烈日)같은 태도로 임할지나, 부화뇌동한 순진한 도민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애무하려 한다.

(4) 폭도도 우리 동족이니 회개하고 귀순함에 따라 본관은 포용의 용의를 가지고 있다.

(5) 민간이나 청년단체이나 혹은 기타 단체에 있어서 자위방어책으로 무기를 소지한 자는 사령부에 제공하고 본관의 무기회수 방침에 협력하라.

(6) 각 부락민은 지서장과 협력하여 교통로 보수에 전적 협력을 요망한다.

(7) 폭도에게 정보 식량 숙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단할 방침이니 폭도의 위협 감언이설에 끌리어 후회 없기를 바란다.

(8) 경찰토벌대에 대하여 협력을 거부하고 행동을 방해하는 자는 엄중 처단 할 것이다.

(9) 경찰관서 및 기타 양민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민심을 소란케 하는 시에는 경찰은 추호도 무기사용을 주저치 않을 것을 명언한다.

(10) 본관은 본도 30만 도민의 고침안면(高枕安眠)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의 존경하는 도민제위는 본관의 방침에 전적 협력하여 후회 없기를 요청한다.

우(右) 포고함.

1948년 4월 8일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정호

■ 제주신보 1948년 4월 12일

성명서

오등(吾等)은 1947년 5월 이후로 남로당 사마(詐魔)의 호언과 유인에 빠져 어두운 농민들은 남로당에 가입하였던 바, 금반 비인도인 무수한 음모와 모략선전, 관공서 습격, 폭동행위 계획의 유(有)한 것을 목하 전면적으로 연발시켜서 민심을 극도에 교란케 하고 인민을 평화롭게 살 수 없게 만들며 심지어 자주독립을 방해함을 잘 알았으므로 자(茲)에 성명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여 자주독립 이바지하고자 굳게 맹서함.

안덕면 사계리

이사훈(李仕훈) 강춘백(姜春白) 강정생(姜丁生) 김□□ 이도학(李道學) 이운석(李雲錫) □□일(□□一) 강제병(姜齊柄) 강시선(姜時宣) 김□섭(金□燮) 강문화(姜文化) 오경남(吳京南) 이성환(李成煥) 강제환(姜齊桓) 이□림(李□林) 강일화(姜日化)

서기 1948년 3월 25일

■ 제주신보 1948년 4월 12일

경비사령부서 사건전모 발표 / 제주비상경비사령부 특별 발표

현하 본도에 준동하고 있는 남로당 계열의 악렬분자 등은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인민 살상, 파괴, 방화(주로 경찰관 및 우익요원) 등을 연일 감행하여 치안을 교란하고 있다. 연(然)이나 국립경찰은 남로당 계열의 악렬분자의 준동을 발본색원 할 만단의 준비와 용의를 □□하고 있다. 도민제위는 안심□□하여 총선거 실시에 협심 동력하라. 금반 남로당 계열의 악렬분자 등의 감행으로 인한 본도 전역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면 좌기와 여(如)함.

(自4월 3일 至4월 7일)

(1) 4월 3일 △모슬포 일반측 중상 1명, 가옥파괴 1, 방화 1 △외도 경찰측 사망 1명 △화북 경찰측 사망 1명, 방화 1, 일반측 사망 2명, 가옥파괴 1 △조천 경찰측 중상 2명, 경상 1명, 가옥파괴 1, 일반측 행방불명 5명, 폭도측 사망 2명 △대정 경찰측 중상 1명 □□□ 경찰측 중상 1명, 일반측 사망 3명, 중상 12명, 경상 12명, 행방불명 1명, 가옥파괴 4, 방화 3, 폭도측 사망 2명 △세화 경찰측 중상 1명 △남원



경찰측 사망 1명, 일반측 사망 1명, 중상 2명 △한림 경찰측 사망 1명, 중상 1명, 일반측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4명, 가옥파괴 6 △함덕 경찰측 행방불명 2명, 일반측 행방불명 4명

(2) 4월 6일 △이호 일반측 사망 2명, 중상 5명, 경상 3명, 가옥파괴 1

(3) 4월 7일 △저지 경찰측 방화 1, 일반측 사망 3명, 중상 2명, 가옥파괴 1, 폭도측 사망 2명

경찰측 계 : 사망 4명, 중상 6명, 경상 1명, 행방불명 2명, 가옥파괴 2, 방화 3

일반측 계 : 사망 12명, 중상 24명, 경상 19명, 행방불명 10명, 가옥파괴 15, 방화 4

폭도측 계 : 사망 6명

총계 : 사망 22명, 중상 30명, 경상 20명, 행방불명 12명, 가옥파괴 17, 방화 7

#### ■ 제주신보 1948년 4월 12일

##### 성명서

오등(吾等)은 서기 1947년 5월경 이후에 모략분자의 감언이설과 기만적 행동으로 남로당에 가입하였던 바 금반 방화, 살인, 관공서 습격, 전선 단선, 공무집행 방해, 시위행렬 및 불온뼈라 살포 등 제반 음모계획의 유(有)한 것을 각지(覺知)하고 민족적 양심을 판단함과 동시에 지서와 부락유지 대중의 감격에 넘친 설유(說諭) 밑에 자신을 반성하며 시국을 재인식하고 본일을 기하여 남로당 탈당을 맹서하고 금후로는 민족진영인 대동청년단에 정식 가입하여 백절불굴의 정신을 건국대업에 공헌함을 연명(連名)하고 성명하나이다.

서기 1948년 3월 20일

안덕면 서광리 1구

이창□(李昌□) 장관봉(張官奉) 고공백(高公伯) 김재규(金在奎) 고희만(高喜萬) 고규길(高圭吉) 김기병(金기柄) 강성인(姜性仁) 고성화(高聖化) 홍제문(洪濟文) 박태순(朴泰順) 송창선(宋昌善) 임영창(任永昌) 김문칠(金文七) 강만일(姜萬一)

#### ■ 대동신문 1948년 4월 13일

김대봉씨 제주도에 선무공작차로 출장

김대봉 경찰공보실장은 총선거를 앞두고 폭동이 심한 제주도에 선무공작차로 약 2주일 예정으로 장기춘(張箕春) 경감 외 3명을 대동하고 오는 14일 출발하리라 한다.

■ 대동신문 1948년 4월 13일

제주도 반선 폭동사건 속보 / 특파된 대청원 투쟁 / 피살 14, 중상 51명(총본부의 중간보고)

5월 10일의 총선거에 반대하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제주도 폭동사건에 대하여 대동청년단 총본부에서는 17일 다음과 같이 대청에서 특파된 단원과 폭도들이 투쟁하는 중간보고의 입전(入電)을 발표하였다.

과반 선거 반대를 기치로 하여 폭동을 야기시킨 제주도 폭동사건의 폭도는 상당한 무장인원수로서 계속 총화(銃火)를 교화(交火) 중 그들은 지방의 유력한 단세(團勢)를 가진 대동청년단을 투쟁대상으로 공격하여 왔다. 제주도 대청은 총동원 응전하고 있던 중 초기에 벌써 대청원 사자(死者) 9명, 중상자 17명의 다대한 희생을 내었거니와 17일 대청본부에 입전한 바에 의하면 15일 현재 단원피살 14, 중상 51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청 중앙본부에서는 현지특파원에 격려전(電)을 발하는 동시에 사태의 급속한 수습을 위하여 계속 특별응원부대를 파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 동광신문 1948년 4월 13일

제주도 응원대 또 100명 파견

【목포】 제주도에서 3일 이래 발생한 근래에 드문 일대 불상사를 야기한 것으로 경무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지난번 제8관구경찰청으로부터 응원대를 파견시켜 사태 수습을 촉진한 바 있었는데 그 외에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2차 응원으로 파견하게 되어 지난 10일 아침 목포를 통과하여 선로(船路)로 현지를 향하였다 한다.

■ 조선일보 1948년 4월 13일

제주도 폭동에 위무공작대 파견

지난 3일 이래 제주도에서 발생된 폭동은 상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양으로 교통도 두절되고 해안선은 경비대에 의하여 봉쇄되고 있다 하며 경무부에서는 특히 총선거가 임박하였으니 만큼 위무공작을 실시하고자 13일 김대봉(金大奉)공보실장 외 4명을 현지에 파견하게 되었다 한다.

(같은 기사 동아일보·경향신문 48. 4. 13)

■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4일

사망자 22명, 부상자 50, 행방불명 12 / 3~7일간 제주도 소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소요사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듯 한데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특별발표에 의하면 4월 3일부터 동 7일까지 5일간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4월 3일 △모슬포 일반측 중상 1명, 가옥파괴 1, 방화 1 △외도 경찰관 사망 1 △회북 경찰관 사망 1, 방화 1, 일반측 사망 2, 가옥파괴 1 △조천 경찰측 중상 2명, 경상 1명, 가옥파괴 1, 일반측 행방불명 5, 폭도측 사망 △대정 경찰측 중상 1명 △신업 경찰측 중상 1, 일반측 사망 3, 일반측 부상 12, 경상 12, 행방불명 1, 가옥파괴 4, 방화 3, 폭도측 사망 △세화 경찰측 중상 1, △남원 경찰측 사망 1, 일반측 사망 1, 중상 2 △한림 경찰측 사망 1, 부상 1, 일반측 사망 1, 중상 2, 경상 4, 가옥파괴 6 △합덕 경찰측 행방불명 2, 일반측 행방불명 4

4월 6일 △이호 일반측 사망 2, 중상 5, 경상 3, 가옥파괴 2

4월 7일 △피습 경찰측 방화 1, 일반측 사망 3, 중상 2, 가옥파괴 1, 폭도측 사망 2 △경찰측 계 사망 4, 중상 6, 경상 1, 행방불명 2, 가옥파괴 2, 방화 2

△일반측 계 사망 12, 중상 24, 경상 19, 행방불명 10, 가옥파괴 15, 방화 4

△폭도측 계 사망 6,

총계 사망 22, 중상 30, 경상 20, 행방불명 12, 가옥파괴 17, 방화 7.

(같은 기사 독립신보·동아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 48. 4. 14 / 자유신문 48. 4. 13)

■ 독립신보 1948년 4월 16일

제주도의 살상 즉시 중지하라 / 민전(民戰)서 성명

제주도의 인민소요는 공전의 대규모인 것으로 보여 경무부에 도달된 보고에 의한 사상자만도 58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주도사태에 대하여 민전(民戰)에서는 15일 제주도 인민에 대한 폭압을 중지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16일

경비대 제주읍 진주 / 특별경비대장 포고문 발표

금반 북제주지구 경비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연대에서는 제주읍에 특별부대를 파견하였으며 특별부대장으로 육군대위 김용순(金容淳)씨가 임명되고 4월 13일 0명의 장병을 지휘 제주읍에 도착하였다. 동 부대장은 진주에 당하여 다음과 같은 포고문과 담화를 발표하여 일반도민의 절대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포고문**

- (1) 군은 정부의 재산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 확수(確守)하기 위하여 출동함.
- (2) 일반 도민은 규정된 통행금지 시간을 엄수함을 요함.
- (3) 하시(何時) 하인(何人)을 막론하고 보초 혹은 순찰자로부터 취조당할 시에는 온순히 대할 것이며 절대로 대항치 못함.
- (4) 일반 도민은 무기 기타 흉기를 소지치 못함.
- (5) 특히 야간에 있어서 수하(誰何)를 당할 시에는 즉시 응답할 것이며 3회의 수하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변이 위해롭게 될 것임.
- (6) 보초 혹은 순찰자에 대하여 권주(勸酒)치 못함.

우기와 여(如)히 일반 도민 제씨(諸氏)에게 양심적으로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반자가 유(有)할 시에는 본관은 전 도민을 위하여 눈물로써 엄중히 처단할 것을 엄숙히 포고함. 1948년 4월 14일 조선경비대 제9연대 북제주지구 특별경비부대장 육군대위 김용순

■ 제주신보 1948년 4월 16일

안심협조하라 / 김(金)부대장 담화

북제주지구의 경비를 쌍견(雙肩)에 지고 임무의 중대성을 통절히 느끼는 바이다. 그러나 충실하고 용감한 국방군의 장병이 있다는 것만은 자랑하고 싶다. 도민제위들은 절대로 이 용감한 장병을 신뢰하고 하루바삐 치안이 안정 확보되도록 협력을 하여주기 바란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16일

모략중상 삼가라 / 이(李)정보부장 담

금반 군 출동에 관하여 제9연대 정보주임 장교 이윤락(李允洛) 소위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군은 정부의 재산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 확수(確守)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음. 모든 관공서와 인민은 절대신뢰와 협력을 하여주기 바라며 추호도 군 출동을 모략 악선전 중상 혹은 고의적으로 불협력하며 간접적으로 군 행동에 방해함을 불허한다. 만약 이에 위반하는 자는 여하 인사를 막론하고 군율에 의하여 엄중 처단할 것이다. 도민은 경비에 대하여 의견이 유(有)할 시에는 하시라도 대장이나 군기대나 보도대에 □□하여 주기 바란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16일

공고

서기 1948년 5월 10일 선거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당(當)선거구에 등록된 자 좌(左)와 여(如)함.

공고함

서기 1948년 4월 11일

국회의원 제주도 남제주군 선거위원회

기(記)

주소 :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면 서귀리 58번지의 2

성명 : 오용국(吳龍國)

연령 : 당 44세

직업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소속정당 또는 단체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동아일보 1948년 4월 17일

제주도에 무장한 폭도 ‘게릴라전’을 전개 / 경찰은 교통을 차단코 만전의 포진

지난 4일부터 전도에 걸쳐 봉기된 제주도의 공산계열 폭동은 이미 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진압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게릴라전이 전개되고 있다.

즉 지난 14일에는 경찰지서 두 곳을 습격 당하고 경찰관 1명이 사망하였는데, 폭도들은 대략 300명 내지 400명으로 추정되어 전부 강고한 무장을 장비하고 있는 듯 낮에는 한라산 암굴에 은신하였다가는 밤이 되면 경찰지서와 선거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양민들을 위협 공갈하는 등 자못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으므로 제주도 도령을 공포하여 외지와의 해상교통 일체를 차단하고 경찰에서는 김(金) 공안국장을 총사령관으로 만전의 포진을 하고 있다.

한편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폭도들은 기관총까지 장비하고 그 지휘자는 상당히 군사행동에 능란한 자인 듯 경찰에서 한라산을 포위 공격하면 섬멸할 수도 있으나 동포 상호살상은 전혀 그 본의가 아니므로 될 수 있는대로 선무공작으로 귀순하도록 하려는 방침이라고 한다.

■ 서울신문 1948년 4월 17일

제주도의 전신(電信) 피해상황

지난 3일 이래 발생한 제주도 소요사건으로 인한 체신관계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체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제 15일 오후 1시 현지로부터 체신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11일 오후 1시 20분까지 발생한 피해는 △제주~서귀포간 전신 전화선 절단 △제주~모슬포간 전화선 절단 △제주~한림간 전주 1본 절도, 선조(線條) 절단(4조 2주간) △모슬포~서귀포간 전주 절도 1본, 선조 절단(2조 2주간)으로 그 중 제주~한림간은 12일 2시 50분부터 복구되었고 그밖에도 현재 복구 공사중이다.”

(같은 기사 우리신문 48. 4. 17)

■ 우리신문 1948년 4월 17일

14일에도 지서습격 / 제주도는 우금(于今) 교전상태 / 무장도민 300명이 한라산에 집결

15일 경무부에 들어온 최신 보고에 의하면 지난 3일 소요사건이 일어난 제주도에 는 우금 불안한 교전 상태에 있다고 한다. 동 보고에 의하면 300명 이상으로 추측되는 무장도민은 한라산 일대 암굴 속에 잠복하여 밤이면 출몰하여 경찰지서를 습격 하고 있다는 바 14일에 2개소의 지서를 습격하였으나 교전 끝에 피해 없이 격퇴하였 다 한다. 그리고 최초 도민들은 기관총까지 소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그 후 조사 결과 부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산간에 잠복한 폭도는 상당히 훈련된 집단이 라고 하며 현지 경찰사령부에서도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귀순을 종용하여 사태의 불확대 방침을 취하고 있다 한다.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4. 18)

■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

제주도 폭동 아직도 미식(未熄)

지난 3일 이래 제주도에서 발생된 폭동은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어 14일에도 2개소의 경찰이 습격을 받아 또 경관 1명이 사망하였다 하며 현재 약 300명의 완전 무장이 된 폭도는 한라산(漢拏山) 동굴 속에서 반항하고 있으며 제주도 연해안은 도령(道令)으로써 선박의 항행이 금지되어 있고 육지의 통행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한다.

■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

제주도 전신 복구

지난번 제주도에서 발생한 선거반대 폭동으로 인한 전신 전화의 불통은 12일 이후로 대부분이 복구되어 현재 동도내의 무선 유선 전신은 거의 정상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7일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 민전에서 호소의 성명

15일 민전(民戰)에서는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성명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제주도 사건은 그 동기가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일어난 애국적인 것이므로 이를 살상, 탄압한 것은 불가한 것이라고 격렬한 문구로써 호소하였다.

■ 대동신문 1948년 4월 18일

선거에 경비 만전! / 비상경비총사령부 설치 / 각관구에는 사령부 두고 맹활동

연일 발생하는 남조선 각지의 선거방해 사건 등 비상사태에 비추어 3일부터는 경무부 안에 비상경비총사령부를 두고 각 관구에도 경비사령부를 두어 경비의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는 바 금번 조치는 지난 2월 소동사건 때 이후 두번째의 비상경찰권의 발동이라 한다.

■ 동아일보 1948년 4월 18일

제주 15일 또 폭동 / 경관가족 1명 피살

제주도의 소요는 완전히 게릴라적 태세에 들어가 지난 15일 밤에도 경찰관의 가족 1명이 피습 당하여 살해되고 또 경찰관의 집에 방화하여 전소케 하였다 한다.

■ 동아일보 1948년 4월 18일

입후보자 명부

(전략)

제주도 : △남제주 양기하(梁基河·무·34) 오용국(吳龍國·무·44) 강성건(姜成健·대청·34)

△북제주(갑) 김충희(金忠熙·독촉·59) 문대유(文大侑·독촉·41) 양귀진(梁貴珍·독촉·41) 김시학(金時學·무·70)



△북제주(을) 박창희(朴彰禧·독촉·53) 김덕준(金德俊·대청·34) 임창현(任昌鉉·독촉·64) 양병직(梁秉直·대청·40) 현주선(玄周善·독촉·44) 김인선(金仁善·대청·27)  
(후략)

■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공고

서기 1948년 5월 10일 선거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당선거구에 등록된 자 좌와  
여함

공고함

서기 1948년 4월 14일

국회의원 제주도 남제주군선거구 선거위원회

기

주소 :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면 서귀리 610번지

성명 : 강성건(姜成健)

연령 : 당 34세

직업 : 실업(實業)

소속정당 또는 단체 : 대동청년단

■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김공보실장 내도 / 조경무부장 선무문(宣撫文) 발표

금반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金大奉)씨는 선무공작을 위하여 거(去) 16일 내도하  
였는데 내도 즉시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씨의 「도민에 고함」이라는 선무문을 발표  
하였다.

도민에게 고함

친애하는 제주도의 동포여러분! 우리의 동경하던 자주독립이 목첩(目睫)에 박두한  
이 때, 무모한 폭동을 일으켜 여러분의 골육인 건국의 일꾼을 살상하여 가뜩이나 빈  
약한 우리의 재산을 파괴하고 독립을 방해함은 그 무슨 일인가. 여러분은 민족을 소

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 하는 공산분자의 흉악한 음모와 계략에 속은 것이다. 현명한 여러분은 총선거가 조선독립의 천재일우의 호기이고 그 완성의 유일한 방도임을 인식하라. 이 기회에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영영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때는 아직 늦지 않았다. 파괴와 기만적 선전 및 폭동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그리고 주모자와 직접 행동으로 범죄한 자들도 지금이라도 즉시 그 전과(前過)를 회전(悔愆)하고 선량한 국민이 되는 행상(行狀)을 가지라. 소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을 신속히 경찰관서에 납부하라. 그리고 각기 생업에 종사하라. 그리하여 정상작량(情狀酌量)의 은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개전치 않고 끝끝내 여사(如斯) 망국적 폭거를 지속할진대 본관은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1948년 4월 14일

경무부장 조병옥

#### ■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 동포애만이 사건해결의 관건 / 내도한 김공보실장 담화 발표

금반사건에 선무공작을 위하여 내도한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金大奉)씨는 경감청에서 17일 상오 9시에 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내가 제주에 와보니 서울에서 들은 바와 같이 □□□□ 상태에 있다. 내가 내도한 목적은 민중을 탄압하는 것보다도 민중의 참다운 여론을 듣고 서로 협동해서 선무를 통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동족상잔을 막자는 이 점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민중과 접촉하여 민중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무력이나 탄압으로 치안을 확보하려는 것은 벌써 낡은 치안유지 방법이며 폭력과 동족상잔은 절대 회피하여 도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3·1사건으로부터 2·7사건에 궁(巨)하여 경찰이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것을 나는 인정하며 이를 사과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경찰관 개인의 부당한 행위이요, 국립경찰은 항상 이러한 부당행위를 제거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들도 경찰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폭행과 살육으로 임하는 대신에 상사에 호소하여 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민중의 여론을 듣고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 사건의 수습에 노력하겠다. 오늘과 같이 미군정 하에 있는 우리들은 사상을 초월하여 민족애를 가져 독립진취에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국을 잃을 것이요, 민족은 영원히 멸망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공산주의이니 우익이니 하는 것을 모두 싫어한다. 이런 것은 조국이 독립되는 날 주장할 것이고, 군정 하에 있어서 취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동족상잔밖에 아무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나도 제주사람이요, 조선민족이다. 나는 제주사람을 사랑하고 조선민족을 사랑한다. 동포에 이것만이 이번 사건해결의 유일한 관건일 것이다. 그리고 청년단체가 경찰에 협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 기회를 얻어서 무기를 가져서 테러 폭행 그 외의 경찰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제주도의 언론인이 일부 말단 경관에 의하여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양성할 것이며 언론인을 통하여 참다운 여론을 듣고 싶다. 야간통행증 같은 것도 발행하도록 하겠다. 또 교통이 차단되어 곤란한 사정도 잘 안다. 최후에 부탁할 것은 이조 500년래(年來) 내려온 개인 팻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애를 가져서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목적 / 군 출동에 김연대장 성명서 발표

금반 군 출동에 제(際)하여 제9연대장 육군중령 김익렬(金益烈)씨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0만 도민여러분! 본 연대는 본도에 주둔한 이래 도민여러분의 부단(不斷)의 □□□□ 밑에 (3줄 누락) 도내 각지에서 야기된 전고(前古) 미증유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도내 민심은 극도로 동요, 불안에 빠지고 있음으로 본 연대에서는 정부재산 및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사오니 도민제위는 안심하고 직장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줄 누락) 군기대, 정보부, 파견대 본부에 속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기 목적 완수에는 도민제위의 긴밀한 협조에서 기할 수 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국군은 건국의 초석

조선경비대 제9연대에서 제주읍에 진주하였다함은 이미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동

보도대에서는 진주에 제(際)하여 여좌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 도민에게 고향

조선경비대 제9연대가 본도에 탄생 이래 어언간 2개 여 성상(星霜). 그간 착착 성립하여 융성발전의 길을 밟아왔음은 오로지 도민제위의 간절한 지도와 간단없는 애호의 덕택임을 자이(茲以) 중심으로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현재 국제, 국내 정세가 심각한 도를 가(加)하며 독립전취의 전야인 금일, 우리의 경비대에 부하된 중책이야 하인(何人)이든지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유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은 해방 후 3년을 지났건마는 아직 독립에 광명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민족 장래는 심급(深急)한 시기, 국내 민족적 투쟁은 각지로 발생되어 정부재산 파괴와 인명까지도 침손(侵損)시키는 악질분자가 있음은 실로 유감천만이다. 기상하자, 삼천만 동포여. 일제 압정 40년간을 엄연히 높이 솟은 한라산에 잔설이 자취를 감추고 산천초목도 춘절을 맞이하여 아름답게 피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앞길은 저 푸른 초목과 같을 것이다.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합하여 세계에 우리 민족 생존권을 주장하고 미소양국에 민족자결권을 요구하자. 군민일체 위기를 돌파하자. 그리고 비인도적인 파괴분자를 청산하자! 때는 왔다! 30만 도민이여. 국군의 정의와 용감성을 보라. 조국의 광복은 오직 청년단결에, 아니 국군의 발전 여하에 있다. 제주건병(濟州健兵)에 철석같은 단결 하 국방선(國防線)으로! 모이자! 태극깃발 아래로.

제9연대 보도대

### ■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 경비대 사고(事故)에 딴 장관 각서 / 제9연대에서 발표

금반 군정장관 딴 소장은 다음과 같은 각서를 발표하였으므로 일반시민에게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제9연대에서는 이 각서 원문 일부를 발표하였다.

(1)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원으로서 파괴적 행동이 유(有)하다는 경찰의 혐의를 수(受)한 자는 수사상 필요할지라도 차(此)를 경찰당국에 인도하지 않음.

통위부(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원으로서 파괴적 행동이 유(有)하다든가 또는 파괴행동에 관련이 유(有)하다는 경찰의 혐의를 수(受)한 자 유(有)한 경우에는 경찰당국은 즉시 여사(如斯)한 사실을 통위부장 및 통위부 고문관에게 통보하여 또한 여사(如斯)한 파괴적 행동 또는 파괴행동에 관련성이 유(有)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유

효한 일체 증거 및 정보를 제시할 것임.

여사(如斯)한 보고된 자에 대하여서는 통위부 당국에서 차(此)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결과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함.

경무부와 군정장관실에 대하여는 그 처치에 관하여 충분히 통보함.

■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선거등록 74%

15일 국회의원 제주도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거(去) 9일까지 등록이 종료되었는데 등록인원수는 여좌하다.

북제주군 갑구 27,074, 을구 20,754

남제주군 37,118

합계 84,946 74%

그런데 동일까지 입후보 수속을 한 사람은 남제주군에 오용국(吳龍國), 강성건(姜成健) 양씨이고 북제주군에는 한사람도 없다 하는 바 명(明) 16일 마감을 앞두고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전국적으로 향보단(鄉保團)을 조직

【서울 18일 발 합동】 금반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향보단(鄉保團)을 딴 군정 장관 명령에 의하여 남선 전역에 걸쳐 조직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이는 경무부와 각 관구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조직에 착수될 것이라는 바 그 내용은 여좌하다.

△목적 : (1) 향토정신의 고취와 향보 관념의 양양 (2) 불순분자의 침입과 모략선동을 봉쇄함으로써 향토방위의 만전을 기도 (3) 강도, 절도, 살인, 방화 등 모든 범죄의 방지

△조직 : 경찰지서를 단위로 본단을 조직, 동리 가로를 단위로 분단을 조직. 그리고 본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2명, 조장 3명, 반장 6명, 기타 단원 9명이고, 분단에는 분단장 1명, 부장 1명, 단원 20명에 반장 1명씩이라 한다.

△의무 : (1) 각 지역의 주민으로서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는 공동책임이

유(有)함 (2)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녀는 단원이 될 의무가 유(有)함(경관, 경비대원, 소방서원, 학생은 제외할 수 있음) (3) 각 지역내의 특정 청년단체 등에 직능을 대행시킴을 금함. (4) 경찰서장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함.

△경비 : 본단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역 주민의 거출금으로써 이에 충당함.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8일

#### 선거사무소 피습 48건 / 선거방해 예방에 만전 / 조부장 담

어제 17일 경무부 조(趙)부장은 선거방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선거사무 개시 이래 선거사무소의 습격 공무원에 대한 협박 습격 등의 행동을 아래와 같이 행하고 있다. 5월 10일을 기하여 치안의 교란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하여 본관은 선거방해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주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이다.”

기(記)(4월 16일 현재) △선거사무소 피습 48건, △관공서 피습 2건 △선거시설 방화 2건 △선거사무소 방화 5건 △선거공무원 피습 18건 △입후보의원 피습 1건 △선거공무원 협박 7건 △선거운동자 피습 1건 △뼈라산포 7건 △등록서류 피습 30건 △선거공무원 부상건수 9건(19명) △양민 중상 건수 1건(4명) △전선절단 1건 △UN감시단에 대한 테모 1건 △선거사무소 간판 철거 4건 △선거 반대 테러 1건 △등록표 탈취 미수 1건 △경찰관에 대한 협박물 1건 △기타 11건 △범인체포 19건

#### ■ 동광신문 1948년 4월 20일

#### 선박 발착(發着) 금지로 제주교통 두절

【서울 17일 발 조선】 16일 경무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의 불안 상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다. 동 보고에 의하면 15일 밤에도 경찰관의 주택이 피습을 당하여 방화되었고, 한 경찰관의 친형은 피습 절명하는 등 경찰관의 가족에 대한 위협이 격증되고 있다. 한편 동도에서는 도령(道令)으로 도내 선박 발착을 일절 금지하고 있어 동도와의 교통은 원천적으로 두절되고 있다고 한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 김공보실장 도민에 메시지

4월 3일 이래 본도에 발생한 소요에 대하여 선무의 사명을 띠고 내도한 김공보실장은 19일 동포 상살과 파괴행동으로 치안이 교란되어 있는 현하의 시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에게 여좌한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 제주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이여! 나는 이 땅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내 부모의 산소가 계시고 내가 이 곳에서 출생하였고 나를 키워준 곳인 까닭에 나는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 품안에 안겨있는 것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앞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든지 당돌하게 할 수가 있고 어머니는 어떤 요구라든지 자애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줄 줄 아는 까닭에 이 땅에 사랑하는 여러 동포들에게 이 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천재일우로 해방은 되었으나 내 민족의 피와 땀으로 된 해방이 아니고 남의 힘으로 된 해방인 위에 우리의 국력이 없는 소치로 해방 후 3년이 가고 4년을 맞이하여도 38선을 철폐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희망과 실망의 혼란한 음악의 이중주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고통과 민생문제의 번민을 맞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생활을 하려면 다른 국가군(國家群)과 같이 공동생활을 영위하여야 인류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자격의 유무(有無)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문명의 여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은 문화민족인가 또는 준법정신이 함양되어 법치생활을 할 수 있는 민족인가 아닌가 등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봉기된 무자비한 폭행, 동포 상살육(相殺戮), 파괴, 방화 등은 우리 민족의 문화성을 의심케 하여서 우리 독립완수에 적지 않는 지장과 암영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주의 및 극렬의 공산주의에 감염되어 망국사상에 중독된 일부의 매국도배들은 사려와 판단력이 박약한 청소년과 천진무지한 노동자와 농민동포들을 선동과 모략으로 또는 금전으로 매수하여 파괴와 살상을 일삼으니 어찌 통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폭행은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문화성을 의심케 할 염려가 불무(不無)하니 이와 같은 것을 제거함이 국립경찰의, 아니 우리 민족에 부여된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일지라도 민주주의의 금과옥조인 언론자유, 집회결사 자유에 의지하여 조선민족 본의(本意)를 이탈치 않고 법과 질서를 준봉(遵奉)한다면 국가의 공정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정기를 망각하고 조선을 타국에 예속시키는 국제주의에 도취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며 살상과 파

괴에 전념하는 만행적 행동을 한다면 국가의 생명을 위하여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사(如斯) 만행적 행동은 향토를 사랑치 않고 민족을 사랑치 않는 동포애가 없는 소위입니다. 나는 제주도에 있는 나의 고향을 위하여 도민을 위하여 나의 동포를 위하여 만행적 행동을 하는 자에게 개전할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무기와 흉기를 경찰에 납부하고 각기 생업에 종사하면 좋은 타협과 묘안이 있을 것이요 또는 해결책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회를 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개전치 않고 망국적 만행을 계속한다면 준엄한 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친애하는 동포들이여! 동포살상과 파괴를 중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8년 4월 19일

경무부 경찰공보실장 김대봉(金大奉)

#### ■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 사건진압을 위해서 김사령관 경고문 발표

지난 3일부터 발생한 본도 소요사건은 아직도 그칠 줄 모르고 도내 각처에 계속 연발되고 있는데 가급적 연시일(連時日) 내에 사건을 진압시키고자 작(昨) 18일 본도 비상경비사령관 김정호(金正浩)씨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 경고문

30만 도민제위여. 삼천만 동포가 동경하는 자주독립은 목하 실시 중에 있는 총선거 실시로써 목첩(目睫)에 박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계열의 악렬분자 등은 우리 삼천리 강토를 소련에 팔아 공산사회를 건설하여 정권을 장악하려고 갖은 모략과 수단을 다한 나머지 최후 발악으로 인명살상, 파괴, 방화, 강간을 연일 감행하여 민생을 도탄에 함입(陷入)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도민제위는 그 기만적 선전에 빠지어 파괴적 폭동에 부화뇌동치 말라. 그리고 단시일내로 (1)폭동의 주모자와 직접 행동으로 범죄를 감행한 자는 자수하라 (2)무기와 흉기를 가진 자는 신속히 경찰관서에 납부하라 (3)폭도에게 식량을 보급한 자 또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고 부화뇌동한 자도 자수하라. 그리하여 개전한다면 정상참작하여 은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개전의 빛이 없이 끝끝내 망국적 폭거를 계속할진대 본관은 부득



이 눈물을 머금고 일거에 소탕할 것을 명언하여 둔다.

1948년 4월 18일

제주비상경비사령관 김정호

■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선거방해 143건

【서울 18일 발 합동】 5월 10일의 선거를 앞두고 정부측은 이의 추진에 힘쓰고 있는데 일부 반대측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대폭동사건을 비롯하여 16일까지 경무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선거사무 방해사건이 모두 143건 이나 된다고 한다.

△선거사무소 피습 33건 △관공서 피습 1건 △선거시설 방화 2건 △선거사무소 방화 5건 △선거공무원 피습 18 △입후보원 피습 1 △선거공무원 협박 7 △선거운동자 피습 1 △빠라 살포 7 △등록서류 피습 30 △선거공무원 부상 9 (부상자는 19명) 양민부상 중상 3명 △전화선 절단 1, 각종테모 11 △범인체포 19명. 이에 대하여 조경무부장은 단호한 태도로 나갈 방침이라고 17일 「총선거 방해범에 대하여」 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시국수습대책위원회 결성

지난 18일 하오 오현중학에서 열린 시국좌담회가 끝난 후 곧 지방유지인지(地方有志人志)들로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당일 피선된 위원은 유해진(柳海辰)씨 외 32명이며 제1회 회합을 18일 하오 2시 읍사무소 2층에서 열기로 하고 산 회하였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수습교섭을 토의

전일에 이어 18일 하오 2시부터 읍사무소 2층에서는 제1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 회합이 있었는데 동 석상에서 토의된 사항은 수습을 위한 쌍방에 교섭과 민생문제 협의와 교섭이며 교섭위원회에는 박명효(朴明效)씨 외 6명이 선출되었다 한다.

■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공고

서기 1948년 5월 10일 선거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당선거구에 등록된 자 좌와  
여함

우(右) 공고함

서기 1948년 4월 14일

국회의원 제주도남제주군선거구 선거위원회

기(記)

주소 :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면 신례리 1307번지

성명 : 양기하(梁基河)

연령 : 당 34세

직업 : 회사원

소속정당 또는 단체 : 무

■ 동아일보 1948년 4월 21일

제주도 등록 63%를 돌파 / 연일 피습중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의 동굴을 본거로 하여 신출귀몰하는 반동분자들은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가옥과 선거사무소, 입후보자 및 일반 민가를 습격하는 게릴라 전술을 실연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행동에도 여러가지 장애를 가져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통신기관인 전주를 넘어뜨리고 전선을 절단하고 이리하여 각지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는 작전으로 나오고 있어 경찰도 이 방면에 주력을 집중하는 동시 한라산을 포위하고 그들의 무모한 준동을 막으려 하는 한편 그들이 회오 반성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한다.

그리고 동도의 3선거구에서는 이미 63%의 선거인 등록을 마쳤고 또 13명의 입후

보 등록도 마감하게 되어 도민들은 냉정한 태도로 총선거의 날짜를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

■ 우리신문 1948년 4월 21일

구국 위해 궐기 / 제주도 소요에 반일(反日)담

제주도의 소요는 아직도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거니와 19일 반일운동자구원회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등록 강제에 대한 제주도 인민들의 반항과 시위에 대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4월 3일 이래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인민항쟁이 전개되어 오늘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단선반대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폭압과 테러, 기만, 모략 등 갖은 방법으로 등록을 강제하고 이에 분개한 인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하여 폭압을 가함은 언어도단으로서 인민들은 본능적인 방위행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나니 이번 제주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민항쟁은 실로 그 원인이 반인민적 정책, 특수적으로는 반동적 등록 강제와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열화적 시위에 대한 폭압에 기인한 것이다. 민족성과 구국정신에 불타는 우리 인민대중은 우리의 형제자매가 총칼에 피흘림을 단연 목시할 수 없다. 제주도 인민의 독립정신을 따라 단선 단정을 분쇄하고 통일독립의 구국전열에 총집결하자.”

■ 현대일보 1948년 4월 22일

제주 폭동 계속 / 사망 25·중상10

【제주】 4월 11일부터 17일에 걸쳐 제주경비사령부 제2의 발표에 의하면 폭동 사건은 여전히 계속되어 경관 사망이 3명, 중상 1명, 경상 1명, 동가족 대청원 사망이 9명, 중상 12명, 행방불명 11명, 방화 2명, 파괴 2명이고 폭도 사망이 2명, 중상 9명이라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23일

미군대도 파견 예정 / 제주도 소요 거익(去益) 확대

【제주 22일 AP 합동】 지난 4월 3일부터 발생한 제주도 소요사건은 경찰의 비상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 습격은 의연 계속되어 가면서 확대의 일로를 밟고 있는 바 이 비상한 사태에 비추어 지난 13일부터 국방경비대 제9연대 특별중대가 제주읍과 서귀포 등지에 주둔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물샷 틈없는 경계를 하고 있다 하며 한편 근일중 미군당국에서도 군대를 파견하여 치안에 빈틈없기를 기하리라 하는데 특히 금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때아닌 불안에 휩싸여 전전긍긍하는 도민간의 물적 타격은 심히 막대한 바가 있다. 그런데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가 발표한 사건 발생 이래 지난 19일까지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사망 7, 부상자 9, 가족사망 3, 행방불명 2 △일반 사망 22, 부상자 45, 행방불명 21, 가옥파괴 19, 방화 7 △폭도측 사망 29, 부상 2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독립신보·서울신문·우리신문·자유신문 48. 4. 23)

#### ■ 독립신보 1948년 4월 24일

##### 항쟁 제주도에 민전(民戰)에서 조사단 파견을 준비

지난 3일 발발한 제주도의 항쟁은 경관의 대량 출동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미 군대의 출동설까지 대두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는 지난 20일 산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우선 법조, 언론, 문화 각계를 망라한 조사단을 급속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4. 24)

#### ■ 독립신보 1948년 4월 25일

##### 혈해화(血海化)한 제주도 / 미군 출동하면 국제 문제

제주도민들이 외군 철퇴, 단선단정 반대 등을 부르짖은 끝에 민경간의 무력 충돌로 발전한 제주도 소요사건은 점점 확대하여 한라산을 중심한 무장한 인민들과 이를 제압하는 경찰간에는 무참한 유혈 참극을 빚어내어 제주도는 비상상태 하에 놓인 동시에 22일 합동통신이 전하는 소식을 보면 13일부터 국방경비대 특별부대가 출동하여 무장경관과 협력하는 한편 미군도 근일중 파견될 계획이라 한다. 이로써

제주도는 토벌전의 전장으로 되어버렸고 제주경비사령부 발표에 의한 쌍방 사상자 만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제주도는 혈해(血海)로 화(化)한 느낌이 불무(不無)하다. 동족 상잔의 비참한 이러한 전고(前古) 미증유의 사태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이목을 총집중하고 있는데 합동통신이 전하는 대로 미군까지 출동하여 제주도민을 미군의 총으로 겨누게 된다면 이것은 조선인민을 해방시키러 온 미군이 조선인민에게 총부리를 대게되는 결과를 초치(招致)하게 되는 것으로 제주도 사건은 국제문제로 될 것으로 그 귀추가 극히 주목된다.

#### ■ 독립신보 1948년 4월 25일

#### 살상 중지하라 / 제주도 사태에 전평(全評)서 성명

24일 전평에서는 제주인민의 항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경비대가 출동하고 심지어는 미 군대까지 파견한다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 제주인민에 대한 살상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민족된 사람으로서 국토와 민족을 두 동강으로 쪼개는 단선을, 그리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남조선을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고야말 것이 뻔한 단정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선단정을 ‘통일의 전제’니 조선사람의 ‘살길’이니 심지어는 ‘국책’이니 하는 따위의 생억지소리를 하고 ‘자유분위기’이니 무어니 떠들어대면서 뻔뻔스럽게 위협, 공갈, 협박 등 갖은 악랄한 수단으로 등록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망국 멸족의 단선을 반대하는 애국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조선민족에 대한 반역적이고 침략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라!

단선단정은 어느모로 보나 외국의 ‘국책’일 수는 있으나 절대로 우리 조선의 ‘국책’일 수는 없음이 분명함에 반하여 단선단정에 의한 국토 양단과 민족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 민주 독립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야말로 진정 백만 번이라도 정당하고 절실한 우리의 삶의 부르짖음이요 ‘국책’인 것이다.

제주도 인민들의 이번 이 절규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구국애국정신의 성화(盛花)요, 가장 정당한 투쟁으로서 최대의 영예와 찬양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 경찰대를 동원하여 토벌을 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경비대 심지어는 미 군대까지를 동원하려고 하여 대규모적으로 제주도 인민들을

살상하려함에 이르러서는 단호코 목과할 수 없다.

우리 조선과 인민들은 미국에 선전 포고한 일도 없고 적국도 아니다. 특별 행위는 미국의 적국에 가서나 하라! 우리 조선민족은 그런 꼴을 미국인들로부터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미국인들이 우리 조선인민들에게 그렇게 할 하등의 권한도 없다. 살상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단선단정 음모를 포기하라! 미소 양군은 즉시 철퇴하라! 우리는 통일 민주 독립을 원한다! 제주도 인민들의 절규는 우리 3천만 동포의 부르짖음이요 성스러운 구국투쟁이다. 여하한 무력으로도 우리 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전평(全評)은 전 노동자, 사무원, 대중과 더불어 비인도적인 특별행위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그의 즉시 중지를 강경히 요구한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4. 25)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25일

##### 민애청에서도 항의

민애청(民愛靑) 중앙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소요사건에 대하여 무력으로써 인민을 폭압하지 말라는 항의문을 하지 중장에게 제출하였다고 24일 발표하였다.

#### ■ 독립신보 1948년 4월 27일

##### 제주도사태에 항의한다 / 민애청(民愛靑)서 하지 중장에 서한 전달

민애청 중위(中委)에서는 하지 중장에게 지난 24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제주도 인민 봉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항의문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항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3일 제주도에서는 단선 등록을 강요하려는 폭압에 반대하여 꺾기한 애국인민에 대하여 각하의 경찰을 대량 파견하여, 이 애국인민을 모조리 닥치는 대로 탄압하고 있다. 이는 단선을 거부하는 애국인민들을 멸족하려는 가공할 사실이다. 또한 이는 5월 10일 강행되려는 매국단선 투표의 서곡이라고도 할 것이다. 우리 민애청은 참을 수 없는 격분으로 항의하는 동시에 이 원한의 피로 물들인 애국인민의 뜻을 받들고 어떠한 폭압이라도 이를 박차고 단선 투표를 분쇄하고 통일 조국의 민주독립을 완수하려는 결의를 피력한다.”

■ 독립신보 1948년 4월 27일

## 전통적인 평화향에 단정반대의 무장봉기 / 제주도 봉기의 진상 (1)

남해의 고도 제주도가 이제야 과도기의 가열한 역사적 시련의 무대로 화하고 단선단정 반대의 광범한 인민 봉기가 이 섬 속에서 폭발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방이 거리의 원격과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평상시에 등한시되기 쉬운 만큼 특히 심각한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구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정확을 기하기는 어려우나 위선(爲先) 다음과 같은 보도를 작성케 한 것이다. 사태의 급박에 감(鑑)하여 시급 발표되는 이 보도는 물론 만전(萬全)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異議)와 반대의 방면에 대하여서 후일의 보충 정정을 약속하는 바이다.

겨울에도 동백꽃 붉게 피는 전설의 제주도, 근면한 어부와 순박한 농민들이 자자(孜孜)한 영위(營爲)로써 여러 세기에 궁(巨)하여 평화스러운 목가적 생활을 쌓아 올린 먼 남해 위의 이 고도(孤島)는 이제야 돌연히 현실의 가장 가열한 시련의 수라장으로 화(化)하고 남조선 인민 항쟁의 가장 심각 거대한 무대로서 세인의 이목을 충동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 거리상의 원격은 해방 이래 남조선의 전반적 혼란과 아울러서 이곳에서 생기(生起)하는 복잡다단한 제사건을 지금까지 관청식의 피상적 보고나 엽기적인 풍토기의 모호한 장막 속에 깊이 파묻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는 급격한 템포로 이 섬 속에서 실로 용이치 않은 사태가 발생되고 진행되면서 있는 것을 전하기에 이르렀다. 일제 말기에 전도 요새화를 목표로 구축하였던 한라산 중복(中腹)의 반 항구적 동혈(洞穴) 진지를 거점으로 하여 총검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휴대용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는 방대한 수효의 인민들의 공공연한 반란 유격전이 이 섬을 무대로 하여 감행되고 있으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한 막대한 수의 경관 및 국방경비대가 또한 이곳에 파견되었다고 한다. 제주읍에는 전시 체제의 경비사령부가 설치되고 이미 누차의 조우전(遭遇戰)은 완연히 국부적인 전쟁 상태를 연출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금일 남조선의 혼란과 비극을 상징하는 저 정치적 유행어 ‘동족상잔’은 이곳에서는 경고적인 의미를 넘어서 벌써 가장 심각하고 확대된 형태의 사실의 표현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당국의 발표는 이 중대사태를 ‘일부 폭도의 선동에’ 귀책(歸責)하고 있다. 그러나 근면하고 소박한 도민들이 ‘소수의 정치적 음모가의 선동에 속아서’ 일조(一朝)에 평화로운 생활과 살아있는 가족들을 내버리고 산악의 동굴에 생명을 도(賭)하는 무장

봉기를 결의하였다는 이 설명에는 우리의 이성을 설득할 진실성이 희박한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나 이 봉기에 참가한 민중의 막대한 수효는 이러한 설명의 숨길 수 없는 모순을 더욱 명백하게 지적하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현재 단선단정 반대가 투쟁의 중심 슬로건으로서 계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민민이 결코 일조일석의 정치적 선전에 의하여 동원된 것이 아니고, 8·15 이래 3년 간 남조선을 유린한 반동 테러 지배의 가열한 시련 속에서 철골(徹骨)의 실물 교훈을 통하여서만이 이 반동 지배의 최후의 귀결인 단선단정에 대한 한사(限死) 항쟁을 결의하고 분기하게 된 것과 같이 제주도의 인민들에게도 그들의 피나는 굴욕과 박해의 3년간의 암담하고 특수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일찍이 전설적인 평화향이던 남해의 이 고도가 금일 남조선 정치사의 최첨단에서 유혈과 철화(鐵火)의 투쟁 무대로 변하게 된 진실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제주도의 인민들은 어떠한 정치생활을 경험하였던가? 그러나 우리는 사건의 진상에 일보 접근하기 전에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이곳 인민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과 그 속에서 발전된 이곳 인민들의 독특한 기질을 일별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속) - 부제민 기.

#### ■ 자유신문 1948년 4월 27일

#### 제주도 1대 6의 격전 / 입후보

총선거 등록 실시를 계기로 혼란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편 추진과에서는 갑을 양구에서 도합 13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하여 축록(逐鹿)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씨명은 다음과 같다.

(1) 갑구 : 김충희(59·독촉) 문대유(41·독촉) 양귀진(51·무소속) 김시학(70·독촉)

(2) 을구 : 박창희(53·독촉) 김덕준(34·대청) 임창현(64·독촉) 양병직(40·대청) 현주선(44·독촉) 김인선(27·대청)

양기하(34·무소속) 오용국(44·독촉) 강성건(34·대청)<sup>2)</sup>

---

2) 양기하·오용국·강성건은 남제주선거구임.



■ 독립신보 1948년 4월 28일

제주신보사 무전기 차압

경무부에서는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제주신보사에서 송신기를 비밀히에 두고 무전 □송신 하였다고 하여 이를 차압하였다 한다. 동사에 있는 송신기를 사용금지하는 동시 봉인을 하고 27일 이를 체신부에 통지하였다 한다.

■ 우리신문 1948년 4월 28일

제주도 사건에 전농(全農) 담화

제주도 사건에 경무부에서는 선무반을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요즘에는 미군 부대 까지 출동한다고까지 전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종말을 보지 못한 채 더욱 우심하여 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에 대하여 전농(全農)에서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립경찰은 많은 경관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인민 항쟁을 진압하려 하고 있다. 정의와 조국애에 불타는 제주도 전 인민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더욱 공고한 단결하에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 역사를 상징시키고 있는 한라산 밑에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제주도 인민들은 우리 동포며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다. 이 제주도의 형제, 자매들은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갈이 싸움을 전개하고 그 희생을 불구하고 최후의 일인까지도 싸우고 말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 기타의 근로대중은 자기의 직장에서 도시에서 농촌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조국과 민족의 위기를 우리 인민의 승리로써 □□하기 위하여 제주도 동포 형제와 함께 끊임없는 투쟁에 총력기하여, 더욱이 전농은 1,400만 농민과 더불어 제주도 동포의 투쟁지에 경의를 표하여 한사람의 농민이라도 빠짐없이 구국 항쟁에서 조선의 완전자주통일, 민주독립을 전취하기 위하여 추진할 것을 맹세한다.”

■ 독립신보 1948년 4월 29일

살상 중지하라 / 제주도사건에 전농(全農) 등서 요구

섬 일대를 피로 물들이고 제주도의 인민은 과감한 싸움을 하고 있다. 노예가 되느니보다는 최후의 일각까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자는 것이다. 그동안 양측의 사상자만 백수십명, 섬 일대를 피로 물들이고 있거니와 27일 전농, 문학가동맹, 유련(儒聯), 협조시위(協組市委), 과학기술연맹에서는 다음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27만 제주도 동포 형제 자매들은 지금 조국의 양단과 민족분열을 초래하는 외제(外帝)와 앞잡이들의 단선단정 강행을 분쇄하고 조선의 자주통일 민주독립을 전취하는 구국투쟁에 총괄하고 있다. 제주도 형제 자매들은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느냐 죽느냐하는 판가름 싸움을 전개하고 그 희생을 불구하고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스러운 구국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찰의 발포로 무수히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 인민에 대한 살상을 즉시 중지할 것을 열렬히 요구하는 바이다.”

#### ■ 동아일보 1948년 4월 29일

#### 동포 상살의 비극 / 4개월간 350명 살해 / 제주도는 미증유의 폭동

【서울 UP제공 조선】 조선 미군당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4월 22일까지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351명의 조선사람이 살해당하였다고 한다. 그중의 68명은 경관이며, 196명은 폭도들이고, 87명은 폭동에 참가하지 않은 우익진영인데, 그중에는 최소한도 7명의 선거역원과 두 명의 입후보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4월 중에 소동이 가장 심한 곳은 제주도였다. 4월 2일부터 26일까지의 24일간에 동도에서는 51명이 살해를 당하였는데 그중 8명은 경관이고 15명은 폭도, 나머지는 우익진영이라 한다.

(같은 기사 자유신문·조선중앙일보 48. 4. 29)

#### ■ 우리신문 1948년 4월 29일

#### 항쟁이라 찬미하면 체포 / 장(張)청장 폭동사건에 관해 선언

남조선 각처에서 발생한 소요사건에 관하여 항간에서는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28일 장(張)수도경찰청장은 폭동사건을 인민항쟁이라고 찬양하는 자는 체포하여 법정에 고발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수도경찰은 폭동사건을 인민항쟁이라는 칭호로 찬미하고 폭동행위를 중용하는

의미의 문자나 혹은 언사로 민중을 현혹케 하는 자는 시간을 지체치 않고 체포하여 고발하고 사직의 재결을 받게 하겠다. 단선단정 반대나 기타 정치 언론에 관하여는 경찰은 하등의 간섭을 않겠지만 폭동을 권유, 선동하는 자는 직업의 하등을 물론하고 체포, 고발할 것을 명확히 선언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29일

동족상잔 중지하고 양군 즉시 철퇴하라 / 문맹(文盟) 성명

27일 문학가동맹 중앙위원회 서기국에서는 제주도의 동족 살상을 중지하고 즉시 양군을 철퇴하라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단선등록을 강요하려는 폭압에 반대하여 지난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동도(同島) 전 애국도민의 총궐기 투쟁에 대하여 지나친 무력 탄압으로써 동족 살상의 중지를 엄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번 사상자만도 140여 명에 달하는 참사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망국 단선단정을 결사 반대하는 조선 전 애국민을 총칼로써 격멸시키려는 전율할 죄상의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후략)”

■ 독립신보 1948년 4월 30일

투쟁하는 형제 잊지 말라 / 제주 무장봉기 인민에 대해 국방경비대 김종령 전투중지 요청

단선단정을 죽음으로써 항거하려는 제주도의 투쟁은 날로 확대하여가고 있어 평화의 섬 제주도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로 화하고 있는 터인데 방금 현지에 출동중인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육군중령 김익렬(金益烈)씨는 지난 22일 다음과 같은 전단을 비행기로 산포하여 그 가열한 전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친애하는 형제 제위에 : 우리는 과거 반삭(半朔) 동안에 걸친 형제 제위의 투쟁을 몸소 보았다. 이제부터는 제위의 불타는 조국애와 완전 자주통일 독립애의 불퇴전의 의욕을,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형제 제위의 적나라한 진의를 잘 알았다. 이에 본관은 통분한 동족상잔, 골육상쟁을 이 이상 백해무득이라고 인정한다. 우리 국방경비대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나는 동족상잔은 이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제 제위와 굳은 악수를 하고자 만반의 용의를 갖추고 있다. 본관은 이에 대한 형

제 제위의 회답을 고대한다. 우리가 회합할 수 있는 적당한 시일과 장소를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제시하여주기 바란다.”

■ 독립신보 1948년 4월 30일

내 형제 죽이지 마라! / 제주도 인민 살상에 여맹(女盟) 항의

제주도 인민에 대한 살상을 곧 중지하라고 29일 민주여성동맹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경히 요구하였다.

“(1) 지난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망국 단선 등록을 강요하려는 위협, 폭압에 대하여 쫓겨난 애국인민에 대한 살상을 자행하며, 폭압은 거익(去益) 대규모로 확대되어 계속되고 있다. (2) 제주도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대하여 무한한 감격과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본 여맹은 전 여성과 함께 애국인민에 대한 살상을 곧 중지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여 단호 항의하는 바이다.”

■ 독립신보 1948년 4월 30일

미군 출동이란 만부당 / 근민당서 엄중한 항의 성명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근민당에서는 29일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반동 단선을 반대하고 조국의 민주통일을 기하는 것은 조선 민족의 지상명령이며 이를 위한 등록 강제 폭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제주도민들의 쫓겨 투쟁은 진실로 애국적인 정의의 투쟁인 것이다. 이 애국적 정의 투쟁에 동원된 선량한 조선인민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면 아래 경찰을 동원하여 총칼로 살상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까지 다수 동원하고 있고 드디어 미군부대의 출동설까지 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전 민족의 이름으로 즉시 이러한 죄악적인 인민 살상을 즉시 중지할 것과 미군부대 출동의 음모를 중지할 것을 엄숙히 항의한다.”

■ 독립신보 1948년 4월 30일

위정자는 반성할 일 / 교협(敎協)서 성명

조선교육자협회에서는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29일 요지 다음과 같은 성명을 하였다.  
 “현명한 제주도의 인민들은 왜 봉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들은 왜 생명을 내걸고 반항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위정자는 이것을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는 인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어 죄없는 자로 하여금 유린케 하는 것이다. 위정자는 즉시 이런 정책을 중지하라. 남아있는 최후의 양심의 일편으로써 인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인민의 요구에 즉시 응하는 것만이 세계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여 UN 조위(朝委)는 그 사업을 중지하고 철거하라. 양군은 동시에 철퇴하라. 조선의 자주 독립은 조선인민이 해결할 것이니 독립을 시켜준다고 기만하고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것은 거국적으로 결사 반대할 것이다.”

■ 동아일보 1948년 4월 30일

일병(日兵)이 남긴 작전시설 2,000 반도가 이용 / 김(金)공안국장 제주도 시찰담

무지몽매한 도민을 폭력으로 선동하여 경찰을 습격케 하고 살인 방화 약탈 등 갖은 잔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반민족적 도배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지난 5일 제주도로 파견되었던 경찰 방위사령 김정호(金正浩) 공안국장은 28일 공로로 귀임하였는데, 29일 왕방한 기자에게 제주도 사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방 전 일본군의 병참기지로 20만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던 제주도의 작전시설은 해방 이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한라산을 중심으로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반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 3개월을 지탱할 식량과 우수한 군비를 가지고 용의주도한 전략과 전법을 지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지도자는 상당히 병법의 훈련을 받고 실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반도를 체포하여다 문초하여 보면 대개 백정들로 좌익계열에서는 일부러 잔악한 살인을 감행하기 위하여 남조선 각지로부터 백정을 모집하여다 제일선에서 경찰관과 그 가족, 선거위원 등을 살해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형편이며, 또 라디오나 신문으로서 세계의 움직임과 국내사정을 알 수 없는 지역이므로 더구나 주민들이 순박 우매하여 좌익의 모략과 선전과 위협에 협력 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실 반도들 전체를 소탕하고자 하면 강력한 무장을 하고 1주일 동안이면 전면적으로 결말을 지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중에는 순박한 양민들이 섞여 있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양민의 살상을 덜기 위하여 선무공작도 진행하고 있다.”

(같은 기사 우리신문 48. 4. 30)

■ 서울신문 1948년 4월 30일

제주 소요사태 / 한라산 중심 게릴라전 / 김공안국장 귀임담

지난 3일 발생하여 아직도 미진상태에 있는 제주도 소요를 진압하고자 현지에 파견되었던 김공안국장은 지난 28일 귀경하였는데 동포의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생 당시와 같은 지서 습격은 없어지고 지금은 분산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 일본군이 전쟁중에 구축한 한라산 진지를 중심으로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폭도가 모여있으며 이들은 약 3개월 분의 탄약과 식량을 저장하고 있다 한다. 그들 중에는 기관총을 소지한 자도 보았고 지형을 이용하여 게릴라 작전을 쓰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소탕할래도 관련없는 민중이 상해될 염려가 있어 공격을 중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오후 8시 이후면 전도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사살해버리는 삼엄한 경계진을 베풀고 있다.”

■ 우리신문 1948년 4월 30일

제주도의 무장대치 / 그 동기를 파악 당국의 냉정한 처리요망

5·10 남조선 단선단정이 결정, 발표된 이래 남조선 각지에서 발생한 소요사건은 최근 바야흐로 절정에 달한 감이 없지 않으며 특히 제주도의 작금 사태는 소요 이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전투 형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서울 UP가 제공한 보도만에 하여 보더라도 저 소요 발단일인 3일 이래 26일까지 24일간에 판명된 사망자만이 51명에 달하고 있다 하니 남쪽의 고도 제주도에 저미하고 있는 암운이 여하하며 그것이 점차 어떻게 변양되어 가고 있는가를 추적하기 어렵지 않다. 동시에 제주도에 금번의 사태가 발생된 이후 많은 후원경찰대와 심지어는 국방경비대까지 출동하여 진압에 가담하였으나 근 3순이 되도록 평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제주도 인민봉기의 원인이 ‘죽음’ 이상으로 심각한 무엇이 있다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니 이제 당국은 탄압만으로 평상을 유지하

려는 것의 부당성을 냉철히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한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창의와 비판의 자유가 권력이나 혹은 무력으로 억압당할 때 인민들이 이에 항거 투쟁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이다. 하물며 남북조선의 분열을 항구화하려는 남조선 단정이 실행되려 하는 위태스런 이 순간에 애국인민이 몸소 그것을 반대 투쟁하는 대열에 참가한다는 것을 독재주의가 아닌 나라의 인민이라면 그것의 가부 여하는 스스로 정확해질 것이다.

더구나 무조건하고 이를 억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조선의 애국인민은 미국보다도 소련보다도 누구보다도 조선의 독립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바칠 것이니 여사한 전 민족적인 신념을 미 당국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전 조선 인민의 참된 외침에는 귀를 가리고 일방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지, 만일 이러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조선독립 사상에 한 개의 오점의 대상으로 영원히 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국인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결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굴복과 추종만으로는 민족의 영생과 독립을 가져올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 조선인민은 세계 어느 나라 인민보다도 더 한층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주도에서 기타 남조선 각지에서의 봉기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남북을 통일한 독립정부를 전취할 때까지 조선인민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일제 36년의 침략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기정된 사실이니 지방 조선인민은 그것 이외 모든 것은 여하한 감언이설로 이를 음해하더라도 끝끝내 폭로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분쇄를 위하여 진격 또 진격할 것이다.

#### ■ 우리신문 1948년 4월 30일

#### 상잔을 중지하라 / 근민, 전농 등에서 담화

제주도 소요사건에 대하여 근민당, 전농, 교육자협회, 연극동맹, 음악동맹에서는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근민당 : “단선을 반대하고 조국의 민주통일을 기하는 것은 조선민족의 지상명령이며 이를 위하여 일어난 제주도민들의 4월 3일 투쟁은 타당한 것이다. 우리 당은 전민족의 이름으로 즉시 당국의 조치를 즉시 정지할 것을 항의한다.”

△전농(全農) : “지금 제주도에서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살상당하여 넘어지고 있다. UN조위 감시하의 단선단정을 반대하여 4월 3일 일제히 일어난 애국인민들에 대하여 총과 탄환은 어느 나라에서 누가 가져온 것인가. 죽어도 잊을 수 없다. 제주도인민은 일찍이 일제시대에도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싸워왔으며 거년 3월 13일 투쟁에서도 용감하였었다. 우리 전 인민들은 멀리 고도에서 무수한 희생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제주도 동포들을 구호하자. 제주도 인민의 싸움은 곧 우리 인민의 싸움이다.”

△교협(敎協) : “현하 제주도 인민들은 왜 봉기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위정자는 이것을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어 유혈케 하는 것이다.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며 인민의 생존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연극동맹 : “제주에서 발생한 인민봉기는 조국의 난관을 구하고자 감연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일부 소수분자의 책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도 재래의 조선인민의 자발적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동맹 : “자유분위기를 선전하여 민주주의 선거를 표방하는 단선에 대하여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무수한 인민이 살상 당하였다는 보도가 있는 것은 중세기적 전체 폭압이다. 우리 조선음악동맹은 전국 조선인민과 더불어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 자유신문 1948년 4월 30일

#### 소요중의 제주도 / 동굴속에 잠복 / 식량과 무기도 확보 / 김(金)공안국장 목격담

지난달 23일에 시작된 제주도의 소요사건을 진압하고자 경찰 총지휘관으로 5일 현지에 파견되었던 김정호(金正浩)공안국장은 반달만에 28일 오후에 귀임하였는데 김국장은 제주도의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라산 동굴에 들어 있는 폭도는 약 1,000명 가량 된다고 한다. 이들을 포위 공격할 수도 있으나 그들 중에는 양민이 많이 끼어 있어 직접 공격을 그만 두고 지금 선무공작을 하고 있다. 그들은 처음 집단적으로 500명 정도의 대부대로 습격을 해오곤 하였으나 도리어 손해만 보고 지금은 이러한 대부대 습격을 그만 두고 개인테러와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의 전투작전으로 보아 지휘자들은 이 방면에 상



당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보이고 그들이 기관총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이며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외지와와의 연락도 있으리라 추측된다. 그들은 한라산 동굴에 약 3개월간 견디어 나갈 식량과 탄약을 준비해 두었다 하니 그들의 계획이 벌써부터 조밀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은 공실청야(空室淸野)의 작전을 쓰고 있다. 도민들은 순박한데다 민도가 얇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 협박에 끌려들어 폭도층에 가담한 것이 많다. 우리가 체포한 자들 중에는 백정 기타 전과 7범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그들은 제일선에 내세워 살상 파괴 습격 방화를 하고 있다. 양민에 희생자를 내지 않도록 폭도층과 양민을 구별시키는 것이 긴급한 문제이다. 폭도들은 어선을 타고 제주도를 탈출해 나가는데 그때 그때 손해를 보는 것은 어부들이다. 지금까지의 피해상황은 상부에 보고하였는데 희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양민들이다.”

■ 한성일보 1948년 4월 30일

공옥청야(空屋淸野)작전을 계속 / 김공안국장 제주도 소요근황 담

험악한 제주도사태에 따라 경무부로부터 지난 5일 동도에 증원부대와 함께 급거 파견된 이래 진압을 총지휘하여 오던 공안국장 김정호(金正浩)씨는 28일 오후 4시 반 비행기로 귀임하였는데 동도 치안상황에 관하여서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찰부대는 제1기 작전으로 경찰지서의 습격을 방지하고 제2기 작전으로 5~600명씩 집단행동하는 폭도를 100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분산시키고 다시 제3기 작전으로 약 20명 내외씩으로 재분산시키어서 현재는 통신, 교통의 단절과 개인 테러를 주로 하고 있다.

경찰로서는 양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총공격은 주저하고 있는 바 일본군대가 한라산 중턱에 파놓았던 동굴을 근거로 하고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서 공실청야(空室淸野)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식량, 탄약 등 약 3개월 분 가지고 있다 하고 일본군 그대로의 장비를 하고 있고 기관총까지 가지고 있다.

---

# 1948년 5월

■ 대동신문 1948년 5월 3일

제주도 소요 약화 / 경비대 행동개시 선언

【제주 2일 발 함동】 이번 소요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육군중령은 약 1주일 동안에 걸쳐 수차 산록일대에 비행기로 빠리를 산포하여 “사건 계속은 이 이상 유해무익이므로 향토의 평화회복을 위하여 하루바삐 손을 잡자”는 뜻을 피력하고 그들의 민족적 양심에 호소한 바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산중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회답이 없었으므로 이에 국방경비대 특별부대는 사건의 최후적 결말을 짓기 위하여 지난 27일 상오 10시경부터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였다 하며 동 연대장은 다시 하(下) 요지 다음과 같은 전단을 비행기로 산록 일대에 산포하였다 하는데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형제 제위여, 본관이 제위의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고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수차에 공한 권고문과 교섭은 (원문중략) 형제 제위의 지도자의 무성의에 의하여 수포에 귀하였다. 국방과 치안의 중책을 쌓건에 짊어진 국방경비대는 사건 발생 후 2순 이상을 은인자중하여 왔다. (원문중략) 본관은 전투를 개시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본관은 동족상잔은 어디까지든지 원치 않는다. (원문중략) 지금도 늦지 않다. 동족상잔을 원치 않거든 속히 귀순 투항하라. 연락원을 급속히 파견하라.”

(같은 기사 서울신문·자유신문 48. 5. 3 / 독립신보·동광신문·우리신문 48. 5. 4)

■ 서울신문 1948년 5월 3일  
경찰관서 등 23처 피습

【제주 2일 발 합동】 제주경비사령부에서는 지난 4월 3일 도내 소요사건이 발생한 이래 동 25일까지의 피해 통계를 29일 경찰청 공보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피습 : 경찰관서 23, 경찰관 24, 관공서 1 △납치 : 경찰관 3, 동 가족 1, 관공리 1, 양민 13 △테러 : 경찰관 13, 동 가족 4, 관공리 6, 양민 84 △사상 : 경찰관 사망 7, 부상 11, 동 가족사망 3, 부상 1, 양민사망 27, 부상 51, 관공리 사망 2, 부상 5, 폭도 사망 47, 부상 71 △무기피해 : 총 8, 탄환 119 △무기회수 : 총 14, 탄환 4 △방화 : 경찰관서 3, 동 사택 6, 양민가옥 14 △파괴 : 경찰관서 7, 동 사택 2, 양민가옥 3, 도로 3, 교량 4, 전주절단 78(현재 완전복구), 전선절단 127(현재 완전복구) △봉화 84, 뼈라 9, 검거인원 233.

(같은 기사 동광신문·독립신보·우리신문 48. 5. 4)

■ 조선일보 1948년 5월 3일  
제주도의 소요 화평교섭? / 국방경비대서 행동을 개시

지난 4월 3일 소요사건 발생이래 이미 한 달이 되는 제주도 소요사건은 그 후 진정되지 않고 점차 게릴라전으로 변하고 있다함은 기보한 바 있거니와, 그 후 전하는 바에 의하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동족상잔을 극력 피하려고 자중하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도 지난 달 27일부터 폭도들이 반거한 한라산 산록일대에 향해 행동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지난 2일 발 UP통신사 서울특파원은 “미국 당국에서는 제주도의 좌익 게릴라대는 우익측과 화평교섭을 개시하였고 경찰이 무장을 해제하고 폭압행동을 취한 경관들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습격을 정지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5월 10일에 실시예정인 UN 감시하의 선거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 일인데, 꽃피던 4월 초순부터 녹음이 무성하는 현재까지 처참한 소요의 선풍이 그치지 않는 제주도의 사태의 금후 추이는 극히 주목되는 바 있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 48. 5. 3 / 독립신보 48. 5. 4)

■ 독립신보 1948년 5월 4일

피로 물들인 제주도를 주시하자! / 쓰러져 가는 제주인민 빨리 구출하자! / 민전서 애국인민에 격(檄)

성스러운 조국의 땅이 또다시 일제 아닌 새로운 침략자들 손에 넘어가려는 중대한 이 마당에 있어 제주도의 애국인민들은 지난 달 3일 분열과 예측을 초래하는 망국적 단선단정에 반기를 들고 과감하게도 무장봉기를 일으켰거니와 사태는 나날이 험악하게 발전하여 다수의 경찰과 국방경비대, 심지어는 청년단체까지 동원되어 봉기한 인민군에 향하여 총알을 퍼붓고 있어 평화향 제주도는 인민들의 흘린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다. 왜? 그네들은 죽으면서 왜 싸우는가. 우리는 제주도의 사태를 주시하자!

민전 사무국에서는 제주도 동포들을 구출하자고 지난 2일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민족을 분열시켜 동포상잔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토를 양단하여 조국의 반부(半部)를 외제(外帝)의 식민지 군사기지화 하려는 단선단정을 3천만 동포가 한사(限死) 반대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인민들은 전국에 걸쳐 광범하게 치열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제주도 인민들이 4월 3일을 기하여 이에 반대 쫓겨간 것은 가장 애국적 구국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것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실로 천인공노할 사실이며, 이와 같은 마침내 제주도 인민으로 하여금 정당방위적 무력반항으로 발전시켰다. 우리 3천만 인민은 제주도 인민의 이 영웅적 구국투쟁을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도벌적 탄압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전취하기 위하여 더욱 영웅적인 거족적 구국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기사 우리신문 48. 5. 4 / 조선중앙일보 48. 5. 5)

■ 독립신보 1948년 5월 4일

통행증의 도민을 / 참혹! 경관이 사살

【제주 2일 발 함동】 제주 경비사령부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로 변경하고 위반자는 총살에 처한다고 포고한 바 있는데 지난 24일 하오 9시경 도내 애월면 □□리 고창무(高昌武·30·목공)

와 조천리 문홍목(文洪睦·21·농업) 양인은 조천리 김만여(金萬女) 집으로부터 귀가하는 도중 순찰하는 경관에게 사격을 받아 전기 문(文)은 즉사하고 고(高)는 중상을 당하였다 한다.

(같은 기사 우리신문 48. 5. 4)

■ 동광신문 1948년 5월 4일

무고한 노유(老幼)만 죽이는 제주폭도의 만행 / 경무부 선무사 김대봉씨 귀래담

【목포】 이번 제주도폭동사건에 조(趙)경무부장 특명으로 동지에 선무공작대로 파견되어 많은 공적을 남기고 귀임 도중에 있던 중앙청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金大奉)씨는 부하 3명을 대동하고 지난 29일 목포에 도착하였는데 동씨는 여정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29~30 양일에 걸쳐 일반 부민(府民) 및 청년단체, 각 중등학생들에게 이번 총선거에 대한 강연을 마치고 재목(在木) 기자단 회견석상에서 제주도 진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동지(同地)의 폭도들은 무자비하고 잔학무도한 야만적 행동으로 경관은 물론이나 그 중 양민의 유아 및 60~70 노인까지 살상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남로당 세포조직하에 일제가 남겨두고 간 한라산의 암굴(岩窟)을 이용하여 게릴라전으로 부락을 야습(夜襲)하여 양민의 식량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백정(白丁)같은 사람을 돈으로 매수, 지명살해를 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굴속에서 출몰하고 있는 폭도들은 대개가 추측 500~600명으로 일본에서 훈련을 받은 학병도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팔로군 운운은 사실 무근이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으로 귀순자가 속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 진압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우리 경찰은 양민의 공복(公僕)일 뿐으로 전 생업을 다하여 분투하고 있으니 만큼 부민(府民) 여러분의 일층 협력을 바라는 바이다.”

■ 서울신문 1948년 5월 4일

제주소요 격심 / 미(美)부녀자를 소개(疎開)

【재서울 UP특파원 제임스 E. 로퍼씨 제공 조선】 미 주둔군 당국은 소요에 잠긴 제주도로부터 8명의 미인(美人) 부녀자를 철퇴시켰는데 동지에서의 공산당 신공

세는 미소(美蘇) 긴장상태를 전 조선을 통하여 발생케 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미인 가족의 전원인 부인 4명 아동 4명은 C47로써 동도(同道)를 떠났는데 각자는 무사하기는 하나 미국 친척들에게 근심을 줄 것을 염려하여 주둔군 당국은 성명 발표를 거절하였다. 남조선 미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은 제주도의 미군 및 조선측 관현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히 공로(空路) 동지를 여행하였다. 동도로부터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좌익 폭민은 교량을 파괴, 전화선을 절단, 화북 촌장을 납치하고 우익 영수 이승만씨를 암살하라는 전단을 산포하였다. 제주도 조선국방경비군은 급거 동 촌락을 포위하고 남자 전원에게 대하여 폭동과의 관계 유무를 조사하였다. 한편 소 점령 북조선으로부터의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북조선 정부는 남조선을 포함하는 전조선에 대한 약헌(約憲)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고 시사하였다. 여사한 처치는 5월 10일 미점령 지구내 총선거를 포위하고 있는 국련(國聯) 및 미국을 무시하는 것이다. 북조선 방송은 소련식 헌법이 북조선을 미(美) 압박자로부터 구제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헌법채택으로 선포된 전조선 정부는 즉시적 소(蘇) 인정을 받으리라고 시사하였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조선중앙일보 48. 5. 4)

## ■ 우리신문 1948년 5월 5일

### 제주도 사건 조사 거부에 민전 담

제주도소요에 대하여 민전에서는 4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우리 민전에서는 전 인민의 의사와 절실한 요청을 대표하여 사건의 진상을 구명하고자 각계를 망라한 강력한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군정 당국과 누차의 교섭을 전개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의 노력에 대하여 정의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민전대표 최태용(崔兌龍)씨는 27일부터 연일 교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에 이르기까지 언(言)을 좌우하여 책임자와의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당국의 무성의한 처사는 조선인민의 중한 투쟁을 묵살하여 버리려는 배짱 이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당국의 무성의에 대하여 항의하는 동시에 고립무원의 제주도 인민의 염원을 승리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 조선인민은 조국의 주권을 방위하고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5일

민전 조사단 파견 / 당국 아직 불허가

민전에서는 제주도에 조사단을 파견키로 준비 중이라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이에 관하여 군정 당국의 양해와 신변보장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코자 민전 외교부차장 최태용(崔兌龍)씨는 지난 27일부터 연일 딘 군정장관과 면담코자 교섭하였으나 동장관과 미인(美人) 비서는 조사단 파견 곤란을 운운하여 지난 30일까지 면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이에 대하여 민전에서는 이와 같은 당국의 무성의에 대하여 묵하 동도에 전개되고 있는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 경향신문 1948년 5월 6일

귀순자도 다수 / 제주 성내는 평온했다 / 선무공작 갔다온 김(金)공보실장 담

제주도 소요사건을 진압하고자 선무공작대로 현지에 갔다온 경무부 경찰공보실장 김대봉(金大奉)씨는 현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순전히 폭도로 인정할 만한 수는 200~300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부락민과 학생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그들의 전술은 중국 팔로군의 그것과 같으며 최근에 와서는 게릴라 전술로 변하였다. 이들 중 귀순한 자도 40~50명 있는데 조사한 후 석방했다. 그들은 ‘단정반대’ ‘UN 나가라’, ‘양군철폐’ 등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순전히 살인 폭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참혹하기 짝이 없다. 가장 심한 곳은 화북이며 제주 성내는 대체로 평온하여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 48. 5. 6)

■ 우리신문 1948년 5월 6일

제주도 사건에 반일구원회 담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5일 반일(反日)운동자구원회에서는 “일체 외세의 철폐로 모든 문제를 조선인민에 일임하는 데서만 근본적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단선단정 반대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제주도 인민을 구출하고 조국의 통일

민주독립을 하루속히 쟁취하여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민주학련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민족반역도배들의 단선단정을 위한 등록 강요에 대한 선량한 애국인민의 당연한 항쟁인 것이다. 야만적 파쇼 반동 탄압에 결연코 항거하여 조국독립의 고수와 민족 생존을 위한 애국인민의 자위적 항쟁이다. 경찰과 군대 당국은 탄압을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 ■ 조선일보 1948년 5월 6일

##### 제주 소요 의연 계속 / 군·민정 양(兩)장관 공로로 현지 시찰

지난 4월 초순에 발발한 제주도의 폭동은 그 후 당국의 선무진압 공적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총선거를 앞두고 금후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데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과도정부측에서는 소요사건의 실정을 시찰하고자 단 군정장관과 조(趙)경무부장이 5일 오전 7시 비행기로 김포비행장을 출발하여 제주도 현지에 향하여 실정을 시찰 후 동일 오후 5시 경 귀착하였는 바 제주도 소요사건의 금후 귀추는 각 방면의 심대한 주시를 받고 있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독립신보·서울신문·우리신문·현대일보 48. 5. 6)

#### ■ 조선일보 1948년 5월 6일

##### 불원 진압될 터 / 공보실장 귀임담

4일 제주도로부터 귀임한 김대봉 공보실장은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폭동에 팔로군이 참가하였다는니 기관총을 가지고 있느니 하는 풍설이 있었으나 그것은 전연 낭설이고 폭도들은 주로 제주도민이고 그 수효는 약 300 내지 400명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한라산 중북에 왜놈들이 파놓았던 동굴을 이용하고 있으나 불원 진압될 것이며 이미 40~50명은 투항하여 왔으므로 관대히 처분하였다. 이번 폭동에 있어 그들 폭도는 현상금을 걸어 경관을 살해하였는데, 경관 살해는 또 그들이 반감이 있어 그랬다 치더라도 그 부모·형제야 무슨 죄가 있으랴. 어느 동리에서는 경관의 늙은 아버지를 목을 매고 총으로 쏜 후에 다시 칼로 배를 가르고 사



지까지 찢었으니 이런 잔악한 행동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허되지 못할 일이다. 이번 폭동에 그들은 단정반대, UN단 배격, 인민공화국 수립 등을 부르짖고 있는데, 물론 폭동원인에 경찰도 과실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어느 데에서 경관의 고문에 의한 치사사건이 있고 또 경찰이 청년단체에게 경관행세까지 하게 방임한 것 등 경찰의 결함은 솔직히 시인하는 바이나 이론투쟁은 하지도 않고 그들이 취한 그 치열한 행동은 타기할 문제이다.”

(같은 기사 자유신문 48. 5. 6)

#### ■ 조선일보 1948년 5월 6일

##### 제주도와 각 항(港)간 항행시간을 개정

운수부에서는 그간 제주도과 남조선 각 항구간의 정기항로의 운행 시간표 개정을 준비중이었는데, 지난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실시중이라고 한다.

운행시간 부산발 화요일 오후 6시, 제주착 수요일 오전 11시, 제주 발 목요일 오후 4시, 목포착 금요일 오후 5시, 제주착 금요일 오후 5시, 제주 발 토요일 오후 3시, 부산착 일요일 오전 8시.

그리고 운임은 제주~목포간 330원, 제주~부산간 620원인데 부산~제주간 1주야를 요하는 동안 하부 선장의 다다밧방을 제외하고는 침대와 식사의 준비는 없다고 한다.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6일

##### 편의대(便衣隊) 활약으로 곤란 / 제주도에서 김공보실장 귀환담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金大奉)씨는 제주도 사태의 선무차 지난 16일 제주도로 향하였던 바 어제 4일 귀임하였는데 동씨 담에 의하면 방금 제주시내의 치안이 확보되고 있다 하며 치안 일체는 국방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어 도 밖에서 들어온 모모 청년단체원들의 활동은 일체 금지되고 있다 한다.

폭도들의 연락같은 것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찰측보다도 빠르고 상당한 지도급의 인물 1~2인이 체포되었으나 일체 함구하여 말하지 않는 것과 신문 「혈화(血火)」 「정보(情報)」 등이 무수히 배포되고 있는 것등을 보면 상당한 혼란을 □□□□같다고

하며 폭도들과 국방경비대와 대전하고 있는 중간부락민들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다 한다. 이곳은 47년 전에 소위 ‘이좌수난’이 있었고 52년 전에는 소위 ‘방성칠난’이 있었던 곳인데 일본측 방송에 의하면 산중 폭도는 200~300명 정도가 아닌가 추측된다 하며 소위 편의대(便衣隊)들이 활약하고 있어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 한성일보 1948년 5월 6일

##### 제주도폭동 계속 / 게릴라대의 활동 격화

【UP특파원 제공】 미군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또다시 게릴라대의 2회의 습격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 보고에 의하면 4월 중 미(美)점령지대에서 폭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154명인데 그 내용은 경관 45명, 폭도 32명, 양민 77명이라고 한다. 최근의 제주도내 습격사건 중 첫번째는 100명의 게릴라대가 소울(音譯) 읍에 습래하였으며 두번째는 60명의 무장대가 회드르(音譯)에 습래하였다. 5월 10일의 남조선 선거가 가까워옴에 따라 활동선전방송을 격화하였다.

평양방송은 “미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화 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을 기만하기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은 해방의 이름으로 일본인을 계승한 데 불과하다”라고 방송한 바 있는데 이는 조선인<sup>3)</sup>에 대한 조선의 씻을 수 없는 적개심에 비추어 미국인에 대한 조선인으로부터의 최대의 모욕이다.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국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의 주장은 허구망언이라고 말하였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독립신문·조선중앙일보·조선일보 48. 5. 6)

#### ■ 경향신문 1948년 5월 7일

##### 제주 선거위원 4명이 또 피살

【제주】 소요를 계속하고 있는 제주 도내에서는 또 다시 희생자 4명을 내었다. 즉 4일 늦은 밤 제주읍 화북리 투표구위원장 임형권(任亨權·60)씨 외 3인은 폭도의 습격으로 사살되었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독립신보·조선중앙일보·한성일보 48. 5. 7)

---

3) 일본인의 오기(誤記)인 듯.

■ 대동신문 1948년 5월 7일

제주소요는 도외(外)서 온 공산분자의 선동 / 딘 장관 담

딘 군정장관은 지난 5일 공로로 안(安)민정장관 조(趙)경무부장 송(宋)경비대총사령관과 함께 제주도의 소요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왔는데 6일 상오에는 기자회견과 회견하고 동 소요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서울에 있는 일부 신문에서는 제주도는 인민의 피로써 물들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그 신문을 믿는다면 제주도에서는 밤에 경관들이 인민을 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곳의 건전한 애국자들과 총선거를 지지하는 애국적 인민들이 밤에 습격을 받는 경우는 없다. 5일 우리 일행이 제주도에 도착하자 오전 중에 각각 각도를 달리하여 독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하였다. 그래서 하오 1시경에 집합하여 각자가 조사한 것을 교환하였다. 그래서 그 보고를 조사한 결과 이번 폭동은 도외(道外)에서 침입한 소수의 공산분자들의 모략에 선동되어 양민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현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소수 불순분자가 산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분위기는 평온하였다. 이 사건도 경찰과 경비대의 노력으로 곧 회복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도민들의 절대다수는 평화리에 자기의 직책을 다하려고 하고 있으며 당국에서 이 사건을 속히 진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 동광신문 1948년 5월 7일

딘 장관 일행 제주향(向)

【서울 5일 발 합동】 딘 군정장관, 안(安)민정장관 및 조(趙)경무부장 일행은 제주도 지방의 소요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5일 상오 7시 김포비행장을 출발하였는데 동일 오후 5시경에 귀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같은 기사 현대일보 48. 5. 6)

■ 동아일보 1948년 5월 7일

소(蘇) 테러전술로 선거 파괴를 기도 / 미지(美紙) 제주도 폭동 평(評)

【뉴욕 6일 발 UP조선】스크릴스 하워드계 신문은 그 사설에서 제주도 폭동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스탈린씨는 국련(國聯) 감시하의 5월 10일 조선선거 방해공작에 유격전술까지 가하고 있다. 공산당은 조선에서 적색 군사단체가 회랍 및 기타 지역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테러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의 소련제도화(化)는 소 점령지 내에서 열린 적색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것이며, 만일 스탈린씨가 인민의 자유투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차(此) 문제에 관하여 국련을 무시하는 극단적 태도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스탈린씨는 국련 조선위원단을, 그리고 미주둔군을 위협(威嚇)하지는 못하였으며 그 결과로 그는 남조선의 민주주의 선거를 살인 공포수단으로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 동아일보 1948년 5월 7일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 ‘피의 제장(祭場)’으로 변모한 남해의 고도 제주

바야흐로 불빛이 짙어가는 4월 3일 한라산 기슭에 울린 때아닌 한밤의 총소리는 마침내 전도에 미쳐 시에서 읊어지고 노래에 불리던 남해의 고도 제주는 이제 싸움터로 변모하여 초토화하고 말았다. 사태는 극히 중대하고 시급을 요한다. 더욱이 긴박한 총선거를 앞두고 주위 630리(253km)의 이 거대한 섬에 거주하는 30만의 인명·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더 한층 관심이 심각 아니해질 수 없다. 이에 기자는 이 섬을 찾아서 총탄 아래를 헤매며 기자의 눈으로 보고 기자의 귀로 듣고 그리고 기자 자신이 체험한 것을 기초로 하여 4·3사건의 생생한 진상을 밝혀 오늘의 사태수습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자칫하면 그릇되기 쉬운 여론을 바로잡으려 한다. 【정선수 본사 특파원 발】

△평화스런 낙토에 파괴책동의 선펡 : 이조(李朝) 4백년 래 본토와 거의 두절상태에 빠진 제주도민은 고 부 양(高 夫 良) 3씨의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고려 말엽부터 이조 중, 초기에 이르기까지 간신배들에 몰려 유형을 당한 자손들로 개중에는 악인도 없지 않으나 그 태반은 선량한 핏줄기를 이어받은 사람들 뿐으로 정부를 싫어하는 소위 무정부주의자는 있을망정 공산주의 정부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적(史的)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각도를 달리하여 볼 때 제주도 도

민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주민과 조정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조상으로 아  
는 동시에 오랫동안 중앙문화와의 교류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천하만사를 다 잊어버  
리고, 어부·농부 또는 초부로서 그날 그날의 생계를 영위해 나가고 있어 순박한 이  
섬 주민들의 재산정도를 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균등상태를 이루고 있다.

공산주의의 궁극목적이 재산균등을 말할진대 이 섬에서는 이제 비로소 공산주의  
화 하려는 사회적 개혁 내지 경제적 개혁은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사상 미증유의 피비린내나는 무자비한 폭동이 이 섬에서 폭발하였는가? 커다란 의  
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원인의 하나로써 남조선 각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조국을 적화하여 소련의 위성국화 하려는 극좌분자의 책동과 좌(左)도 아니요 우  
(右)도 아니며 요행히 정권을 탐내는 소위 중간파의 호응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유독히 제주도의 폭동이 심한 근본원인은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는 그러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으며 그 조건이 날로 성하여 마침내  
그네들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환경과 조건은 무엇이나?

**△도정(道政) 불철저로 폭도의 온상화** : 그 첫째는 공산계열의 모략선전이 교묘  
한 것으로 이를 사회적으로 비판할 때 도정이 철저히 못하여 민심악화를 조장하고  
파괴분자의 온상이 된 것, 교통 통신의 불편과 주민의 단순성을 이용한 파괴분자의  
선전책동이 치열한 것,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다는 것, 진정한 여론을 대변할  
언론기관이 없었다는 것, 지방유지의 정치□□가 부족하여 대개가 기회주의적 회색  
분자인 것 등과 아울러 패망 일본이 패전 당시에 허다한 무기와 탄약 등을 매장한  
것을 헤아릴 수 있고, 지리적으로 볼 때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침입과 도피가 쉬운  
것, 깊은 풀숲과 돌담이 많고 20만 대군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군대의 유물인 방공  
진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 폭도배의 게릴라전에 용이한 것 등이다. 그리고 둘째는 치  
안을 담당할 경찰이 미약한 것이다. 도민출신의 경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고립한 섬 안에서만의 혈통 교류관계로, 따지고 따져 보면 사돈의 8촌이니 무  
어니 해서 대개가 인척 그렇지 않으면 친지관계로 부지불식간에 기밀이 누설되고  
처단이 깨끗치 못한 경찰이념의 박약과 아울러 자존심과 배타심이 강한 도민출신  
경관과 육지출신 경관의 알력, 그리고 경찰내부의 일부인사의 불공평 등이 마침내  
경찰력을 무언중에 박약하게 하지 않은가 한다. (계속)

■ 조선일보 1948년 5월 7일

700만원 사건 발표할 수 없다 / 제주소요는 일반적으로 평온화 / 단  
장관 담

작(昨) 6일 단 군정장관은 기자단과의 정례회견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하였다.

(문) 제주도 소요사건 시찰 감상은?

(답) 서울에서 공산계열 신문을 보면 제주도는 인민의 피로 물들이고 있다고 게재해 있어 경찰이나 관공리가 인민을 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믿게 될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5일에는 안(安)민정장관과 조(趙)경무부장 국방경비대 송호성(宋虎聲)씨 3인과 동반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것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결론을 맺었다. 대체로 소요의 원인은 제주도 외에서 들어온 좌익지도자에 오도된 소수의 좌익분자가 산중에 숨어서 선거위원과 이를 적극 지지하는 양민 공무원 경찰관 등을 야간에 공갈협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평온화하여 도민은 착착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불원간 원만 회복될 것이다.(후략)

(같은 기사 독립신보·독립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자유신문 48. 5. 7)

■ 동아일보 1948년 5월 8일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 중죄범 관대 처분 / 좌익세력 날로 증대

폭동 발발의 셋째 이유로는 도민출신의 경찰관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관과 심판관이 대부분 도민출신이기 때문에 적극적 처단이 곤란시 되는 것 같다. 이 말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곳 제주에서는 ‘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관은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단했겠지마는 결과로 보아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사건에 그다지 중형을 받은 사람은 없다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비합법적으로 도량하는 파괴분자를 상당한 수속을 밟아서 합법적으로 체포하려는 데는 난색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도민의 태반이 외지서 온 불온배 : 넷째, 해방 당시 제주도민의 총수는 약 16만~17만을 세던 것이 요즘은 30만을 세고 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늘은 13만~14만이라는 다수의 사람은 그동안 생도(生道)를 찾아 대부분이 대관(大阪), 신호(神戶) 등지의 공장 사업장 등에 노동 품팔이를 갔던 사람들로 이미 그 당시에 적색 지하

운동을 해온 자들로 질적으로 보아서 민족관념이 박약한 자가 태반이다. 도민의 거의 반수나 되는 그들 비민족적 분자가 순박한 도민을 선동하여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뿌리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그밖에 군정 직계 관청에 불온분자가 다수 침입하여 사정에 어두운 도민을 능히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도정 총책임자가 민독당 출신으로(종래는 한독당) 견고한 민족사상이 박약하고 자파에 속하는 사람만을 등용하는 한편 특권도 자파에 속하는 사람에만 주기 때문에 명예욕과 재욕의 본능을 가진 사람인지라 자연히 그에 이부하고 그에 충성을 맹세하게 되니 가히 그 행정부면의 혼란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일반 민중은 관(官)에 대한 신뢰감을 버리게 되어 관민은 대립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도내 극좌분자는 잘 이용하고 포섭하여 총선거를 계기로 마침내 폭동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그러면 그네들은 어떠한 폭거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우리의 동포를 어떻게 살해하는가?

**△최고 100만원의 ‘현상살인’ 지령, 극악 무자비한 폭상(暴狀) :** 유격전을 전개하여 경찰관 가족을 살해하며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케 하고 우익측 요인을 암살하여 미군정의 신뢰감을 박약케 하며, 공포주의로써 적화사상 제패를 기도하는 동시에 자파의 세포를 강화함으로써 총선거에 의한 남조선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소위 인민공화국의 전진 기지화를 피하여 제주도의 포기를 꿈꾸는 그들이 (4월 30일 현재) 경찰관서를 습격한 것이 25개소, 경찰관과 그의 가족 그리고 경찰에 협력하는 양민 등을 납치 살상한 것만 하더라도 115명을 내고 그리고 또 경찰관서 또는 그의 관사·양민 가옥 등을 46개소나 불살라버리고 파괴하였다는 나타난 숫자만을 보아도 그 폭거의 정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격화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동족살상이 인민항쟁인가 :** 아아! 그들 사이에는 생명을 빼앗고 빼앗을 그 이상의 원한이 있었던가? 과연 그 폭동을 그들이 말한 바 소위 인민봉기라고 백번 천번 곱혀서 찬미를 하자. 인민봉기를 했으면 했지 총탄에 맞아 거꾸러진 시체를 다시 칼로 난자하고, 목을 매고, 심지어는 귀를 자르고 코를 깎아버릴 뿐 아니라, 임신부의 배를 찌르지 않으면 안될 원한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도 어제도 제주도에는 기자가 아는 상식과 용어로는 그 처참한 광경을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그만큼 비참하고 무자비한 살해사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조직체를 가지고 어떠한 전법을 쓰고 있는가 흥미있는 일

이다. 남로당전라남도위원회에 속한 제주도인민위원회에는 대중단체인 합동노조, 농민위원회, 민주여성위원회, 민애청과는 따로 군사부로서 인민해방군이 조직되어 각 읍면에 중대(中隊)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부 최고 간부급에는 과거에 일본 군대에서 그리고 팔로군 등에서 상당히 훈련을 받은 자도 있어 그들은 각 읍면 촌락에서 강징한 청년을 일선에 몰아 세우고 팔로군 등이 산악지대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소위 '나와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총인원 수는 약 1,000명을 셀 수 있는데 그들의 협박 공갈로 말미암아 또는 모략선전에 빠져 후일의 살 길을 찾아 행동을 같이 하는 자를 합하면 2,000여에 달하리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제일선에 이러한 부대를 편의대로 내세우고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금테두리(경위 이상) 3만원씩(개중에도 경찰 유력자는 100만원)의 살인 현상금을 걸고 살해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읍면 촌락에는 후원대를 조직하여 물자를 공급케 하고 목표에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는 선전술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밖에 그들은 등사판과 종이를 준비하여 방공진지 안에서 빠라 신문까지도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자의 실전에 참가한 일기의 한 토막을 소개하려 한다. (계속)

#### ■ 우리신문 1948년 5월 8일

#### 요구는 단선 중지 / 제주도 봉기사건에 UP보도

【서울 UP특파원 발 조선】 남조선 미군정장관 윌리엄 F. 딘 소장은 4월 2일 이래로 유혈폭동과 살인소동으로 사자 약 60명을 낸 제주도를 시찰하고 5일 밤 귀경하였는데 6일 기자들에게 그의 시찰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조선 공산군 간자(間者)가 5·10선거에 반대하는 테러전에 종사하는 게릴라를 지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나와 남조선 관헌이 별개로 행한 조사는 다 같이 외부 간자가 오해를 가진 청년들을 교사하여 선거찬동자를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을 소각하게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 촌락은 두 부대가 양면에서 습격하고 있는데 이 두 부대는 철퇴하고 다시 합류하여 산중으로 퇴각하고 있는데 이 습격상태를 보건대 동 습격은 동도 내에 있는 북조선 군인이 무전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산중에는 200명 이상의 이단분자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나 공산당계 신문들은 1만명이라고 축하고 있다. 나는 비행기로 동도 상을 비행하였는데 소산에 있는 폭도 7명 이상을 발견할 수는 없



었다. 남조선 경찰관 2명은 일간 미국 군법회의에서 동도에서의 포학행위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한 사람이 구타로 사망한 사건에 관련한 것이다. 동도 공산주의자 지도자 반란인들의 주요 요구는 선거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동도 치안 회복에 파견된 20명의 경관 중 반수는 5일간의 훈련밖에 받지 않았으며 이 결과로 지나친 행위를 하였을지 모른다. 제주도는 현재 평온 무사하다. 일중(日中)의 동도 평온상태를 보면 야중(夜中)에 다소 살인자들이 선량한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것이다.”

■ 경향신문 1948년 5월 9일

제주도 치안문제 / 조(趙)경무부장 수습 대책 담

조(趙)경무부장은 제주도 사건의 치안수습 대책에 관하여 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2월 7일 이래 남로당 계열의 총선거 방해공작을 전개중 인명과 재산 손실에 있어서 제주도가 그 절정에 달하게 되도록 양민 살해 25, 경찰관 살해 11, 경찰관 가족 살해 6, 방화 25건 등의 참극이 연출되었고 아직도 폭도들의 만행이 종식되지 아니하여 제주 도내 동포들이 공포의 환경 속에서 전전공공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음에 대하여 치안담당자로 중대한 책임감과 통분의 눈물을 아울러 금치 못한다. 조선경비대와 국립경찰은 치안 수습에 관한 각자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공동작전의 태세의 진으로 돌진할 것이며, 불원한 장래에 치안이 전적으로 수습되리라고 확신한다. 국립경찰은 치안의 당면문제와 영구문제를 아울러 해결하려고 실시 혹은 입안(立案) 중에 있다.

1. 당면 치안의 수습책

(1) 한달 전에도 응원부대를 파견하였거니와 그 일부와 교대하기 위하여 경찰전문학교의 정예부대를 출동시켰음.

(2) 종전에 동 형사대를 파견하였거니와 유능 형사대를 재편하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잠행운동의 전면적 퇴치를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 관내에 상당한 기관을 주재케 하였음.

2. 제주도 치안수습의 영구적 조치

(1) 제주경찰학교를 강화하여 현존 경찰 직원의 재교육을 실시하겠음.

(2) 지방사정에 적응할 인사재편을 단행하여 경찰 사기와 능률을 양양하겠음.

(3) 경찰 정원을 증가하는 동시에 동제주와 서제주의 양 요해지(要害地)에 경찰 본서를 신설하여 경찰력이 산간벽지까지 침투하도록 경찰기구를 강화하겠음.

(같은 기사 대동신문·서울신문·자유신문·한성일보 48. 5. 9)

#### ■ 대동신문 1948년 5월 9일

##### 제주경찰 고문사건 / 지서장 등 체형 벌금 언도

【제주 8일 발 합동】 지난 3월 6일 제주도 조천지서에서는 구금 중이던 김용철(金用哲·21)을 고문치사케 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간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되어오던 바 금반 중앙으로부터 메로 소좌가 내도하여 제주지방심리원에서 군정재판을 한 결과 지난 6일 재판장 메로 소좌는 지서장 이하 각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언도를 내렸다.

△경관 정대용(鄭大用) 징역 5년 벌금 100만원 △경관 정명옥(鄭明玉) 징역 5년 벌금 100만원 △경관 김천일(金天一) 징역 5년 벌금 100만원 △지서장 조한용(趙漢龍)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경관 백옥윤(白玉允)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5. 9)

#### ■ 독립신보 1948년 5월 9일

##### 형제 구출하자 / 제주도 유학생 고향

8일 서울에 있는 제주도출신 유학생 일동은 대표 김용문(金用文)군의 명의로 제주도의 부형을 구출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국이 통일이나 분열이나,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이때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를 목살하겠습니까? 우리 부모와 형제를 구출해 주십시오. 조국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진대 나라 잃고 부모형제를 잃게 되면 우리만 살아서 무엇하리오. 단선 분쇄에 나갑시다. 동포들이여. 조국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인 단선 분쇄 전열에 다같이 섭시다.”

■ 동아일보 1948년 5월 9일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 5월 1일 메이데이에도 농민 참살의 비극

【정선수 본사특파원 발】 이제 기자는 사선을 넘으며 수첩에 기록했던 단편적 일기의 한 토막을 공개하여 이곳 제주에서 양상을 일반에 알리려 한다. 5월 1일 오늘이 메이데이이다. 노동자의 날이다. 만국의 노동자는 이날을 노동자일로 정하고 서로 즐겨하며 기뻐하고 이날을 축하하는 것이다. 이날 제주도에는 그와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무고한 노동자 농민을 몰아세우고 노동자 농민 자신들의 집을 불살라 버리고 노동자를 학살하고 노동자 농민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다. 과연 누가 피해를 입으며 누구의 손해인가? 따지고 따져 보면 결국 그네들 자신의 손실일 것이다. 그들 자신의 손해는 결국 조선의 손해가 아닌가? 아! 통탄할 노릇이다. 이날도 역시 어제나 그제에 다름없이 이곳 제주에는 동족살해의 참상이 전개된 것이다.

△출동 준비 : 하오 2시 반. 100여 명의 폭도가 오라리를 습격중이라는 정보를 접한 제주감찰청 박근용(朴根容) 부청장은 엄숙히 명령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장 용감하다고 알려진 간부 후보생으로 편성된 1소대는 박계현(朴桂鉉) 소대장(경위)에 인솔되어 트럭 두 대에 편승하여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다. 기자의 동행도 허락된 것이다. 때마침 이들의 장도를 전송하려고 나왔던 백전 노장 100만원의 현상금이 걸린 문용채(文龍彩) 제1구 서장은 트럭 가까이 달려와서 자신의 권총을 기자에게 내주며 “만일을 위하여...”라고 친절을 보여준다. 권총을 돌려메니 벌써 몸소름이 끼치고 머리털이 선다.

서남으로 약 20분 달리니 언덕너머에서는 인가가 불타는 듯 각처에서 검은 연기가 맑은 하늘에 오르고 있다. 일동은 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대기하다 앗! 그 부락을 들어가는 고개 아래에 다다랐을 때 일동은 무의식중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불바다로 화한 오라리 부락 : 우리가 지나가는 도로에서 5m쯤 떨어진 밭에 피투성이가 된 중년 이상 되는 이 목을 잘라 매이고 넘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넘어져 있는 부인의 시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가에는 얼마전의 소란하던 것을 말하는 듯 광주리에 담았던 비기 그릇 밥상 옷데기 등의 살림살이가 곤주박주가 되어 산산이 깨져 흩어져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을 거들 여가가 없는 일행은 그대로 고개를 넘어서 부락 한가운데에서 멈추어 하차를 하여 1대는 앞으로 나가고 1대는 좌우와 후방의 경계를 맡았다. 이러한 순간 어디서인지 총소리가 ‘팡!’하기 시작하더니 연달아 폭도측의 발사가 계

속된다. 기자도 ‘하마터면’ 하는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팽!’하는 기분 나쁜 울림을 내며 총알은 기자의 모자를 스치고 그리고 또 양 귀를 깎을 듯 지나가는 총탄 아래서 기자는 들었던 붓대를 동맹이치고 허리에 찼던 권총을 내뿜아 안전장치를 풀었다.

교전 3시간. 그동안 기자는 총탄에 맞아 거꾸러지는 폭도배를 인정하였다. 이 때 기자의 머리는 무거워졌다. 경찰에서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경찰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아! 가엾다. 제주도 민은, 아니 조선인은! 하루바삐 제주의 땅, 아니 우리의 땅에도 화평의 신이 찾아와 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땅 이 겨레에 독립의 영광과 행복이 누리어 주시기를! (계속)

#### ■ 동아일보 1948년 5월 12일

#### 남조선 전역 93%의 호(好)성과

지난 11일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10일 총선거의 각도별 투표 성적은 다음과 같다 한다. (중략)

△제주 : 등록자수 8만 5,517, 투표 비율 90% (후략)

#### ■ 한성일보 1948년 5월 12일

민주정치에의 시련! / 투표율 90.82% / 10일 오후 7시 기하여 투표 일제 완료

새조선 건설과 새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획기적인 새기원을 이루려는 사상 초유의 총선거는 만국인사의 이총환시 아래 지난 10일 아침 7시를 기하여 개시되었다. 902명의 입후보자 중 정원 200명을 선출하려는 788만 4,095명의 등록유권자는 1만 3,407개소의 투표장을 통하여 영예의 승리자는 과연 누구일 것이냐고 흥분과 초조 중에서 개표결과를 가슴 졸이는 가운데 고대하고 있다. 10일 오전 7시부터 개시하여 오후 7시까지 마감한 투표상황은 서울시의 92%를 비롯하여 전 조선의 투표율은 다음과 같이 90.82%라는 성과를 거두었다(숫자는 등록자수, 괄호는 백분율).

△서울시 568,291(92%) △경기 1,084,467(90%) △충북 461,399(94%) △충남 794,392(93%) △전북 802,694(93%) △전남 1,101,136(92%) △경북 1,228,097(90%) △

경남 1,286,557(96%) △강원 467,545(98%) △제주 85,517(70%) 계 7,884,095(90.82%)  
(후략)

■ 대동신문 1948년 5월 15일

제주도는 개표 중 / 당선결과 무소속이 다수

조선의 3천만 겨레가 한마음으로 갈망하던 자주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역사적인 초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5월 10일 성공리에 완료하고 제주도의 정원 3명을 제외한(아직 입전이 없음) 각 선거구의 당선자 197명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거니와 이번에 각 선거구에서 당선한 의원들의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소속별은 다음과 같다.

△무소속 83 △독촉 56 △한민당 29 △대청 13 △민족청 6 △조민당 1 △한독당 1 △조선공화당 1 △단민당(檀民黨) 1 △노총 1 △기독교 1 △교육협회 1 △15구락부 1 △민통 1 △대성회 1 계 197

(같은 기사 자유신문 48. 5. 15)

■ 동아일보 1948년 5월 15일

제주간 경찰간부 후보생 1명 피살, 1명은 납치

남해의 우리 팔도 제주도에는 총선거를 반대하는 반민족적 도배들이 몰려들어 소동을 일으키고 동포 형제를 살상하는 불상사를 빚어내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로 치안을 담당한 국립경찰은 폭력도배들을 소탕하고 하루속히 명량한 제주도의 건설을 위하여 수많은 경찰관과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면서 폭동 제압을 계속 강행중인데, 지난 7일 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손병주(孫炳柱) 경사는 폭도의 수류탄에 넘어지고, 1명의 다른 경사는 폭도에 납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조(趙)경무부장은 그의 공적을 찬양하여 2계급 승진으로 경감을 발령하는 동시 애도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 자유신문 1948년 5월 15일

남방의 도원경 제주 / 소요는 어찌됐나 / 한라산에 2,000명 잠복 / 게릴라전을 연출하고 출몰 폭행

【목포 조선】 제주도 사건 조사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특파된 형사대 일행은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목포기자단과 회견하고 제주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 폭동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답) 직접원인은 단선단정 반대 구호 밑에 남로당 계열의 지시에 의한 것, 간접원인은 경찰관 인사문제에 있어 타도인이 많이 들어가 본도인의 감정을 □□시킨 것과 약 3개월 전부터 폭도들의 조직적 훈련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찰치 못하였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문) 근번 폭동사건의 규모는?

(답) 인원수 2,000여 명이 조직적 계획적 무장봉기를 하여 실전의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지휘하고 있다. 무기는 죽창 일본도 기관총 장총 소총 지뢰 수류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독와사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군(日軍)이 최후적 저항을 목적으로 약 25만명 가량이 한라산에 있었는데 퇴각시 일부 은폐하였던 무기를 발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 작전상 느낀 점은?

(답) 제주도는 습관상 밭(田) 경계선에다 돌담을 쌓아서 폭도들로서는 천연의 방색(防塞)이 되며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굴이 수천개소나 있어 상당한 곤란이 있다. 국방경비대는 경찰과 별개로 비밀리에 작전중이며 현재는 경찰만이 폭도들과 대항하고 있다.

(문) 작전상 식량공급선을 차단하면 유리할 것인데?

(답) 그것은 도민이 폭도측에 동정하며 모뽕을 구성하고 있고 폭도측에서 게릴라 전술을 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남로당 계열은 제주읍내에만 72개의 세포망을 가지고 있었다.

(문) 폭도들의 작전은?

(답) 폭도들은 지식층 청소년이 많이 있고 경찰관 우익계 인사를 납치 살상을 하며 건물을 파괴 소각하고 있으며 심한 것은 목을 베어 걸어놓는 만행을 하고 있다. 봉화를 신호로 매일 2~3개소씩 습격해오고 있다. 5·1 메이데이에는 폭도들의 주동

으로 성대한 식을 하였다 한다.

(문) 경찰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떠한가? 5·10 총선거는 시행되었는가?

(답) 경찰은 현재까지 30여회 교전하여 폭도 약 500명을 검거하고 무기 다수를 압수하였다. 쌍방 사상은 100여 명이나 있었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48. 5. 15)

#### ■ 현대일보 1948년 5월 15일

##### 제주 치안의 꽃 손(孫)경감 순직

역사적인 총선거 실시를 방해하려고 공산 비적의 폭동이 각처에서 발생하였다 함은 보도한 바이거니와 특히 제주도에는 대규모의 폭동이 발생되어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 후보생 200명을 출동시켜 진압 중이던 바 손병주(孫炳柱) 경감이 치안의 제단에 거룩한 순직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공적에 의하여 특히 2계급으로 승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오는 20일 상오 10시 국립경찰학교장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한다.

#### ■ 자유신문 1948년 5월 16일

##### 소요 중이던 제주도 선거

15일 중앙선위(中央選委)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소요중인 제주도에서는 10일 총선거 투표를 실시하였다는데 14일까지 관명된 개표결과는 북제주 갑구의 등록인수 3만 3,100명중 투표자 1만 1,110명(무효투표 940명)으로 최고득점이 독촉(獨促) 양귀진(梁貴珍) 3,647표, 을구는 2만 800명 등록인중 9,788명(무효투표 1,115명)이 투표하여 최고득점이 대동청(大同靑) 양병직(梁秉直) 3,776표라 한다. 그리고 남제주는 아직 하등의 보고가 없다. (후략)

#### ■ 조선일보 1948년 5월 16일

##### 남제주군은 제외 2개구 당선결정

제주도의 선거 결과는 그간 연락의 두절로 보고되지 않았는데 15일 경무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3개 선거구 중 남제주군을 제외한 2개구의 총중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제주군 갑구 양귀진(梁貴珍·41·독촉) △동 을구 양병직(梁秉直·40·대청)

(같은 기사 동아일보 48. 5. 16)

#### ■ 자유신문 1948년 5월 17일

#### 제주 소요로 희생자 또 9명 / 건물도 15동 전소

【주(駐)서울 INS특파원 휴스 여사 제공 합동】 15일 경무부 발표에 의하면 좌익측 습격으로 인하여 14일 밤 9명의 사자를 내었다 한다.

즉 (1) 38선 전곡지서는 북조선으로부터의 월경습격대의 공격을 받고 경관 1명이 사망하였으며 (2)제주도에서는 유격군의 습격으로 인하여 경관 1명 폭도 7명이 사망하였고 가옥이 14동 관청건물 1동이 연소되었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우리신문 48. 5. 18)

#### ■ 동아일보 1948년 5월 18일

####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 / 폭동에 현로(顯露)된 공당원의 의도와 전술 / 잔인한 동족살해가 ‘인민봉기’?

4월 3일을 기하여 제주도에서 발발한 폭동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본사에서는 이미 특파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생생한 진상을 보도한 바 있었거니와 20여 일을 체재하며 선무공작으로 폭도진압에 노력한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씨는 본보에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폭동의 개황** : 제주도 폭동은 지난 4월 3일 상오 2시를 기하여 도내 14개소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총격 투탄 방화로 경찰관과 그 가족을 참살한 데서 발단된 남로당계의 폭동이다. 이것을 좌익분자의 여러 신문과 뼈라에서는 ‘인민봉기’라는 공산주의 용어로 표시하여 잔인한 이 폭도들을 영웅적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폭도의 손에 참살된 경관이 5월 3일 현재 12명, 그 가족이 6명이요, 중경상자가 경관 21명, 그 가족 3명이며, 민간 사망 37명, 중경상 58명, 관공리 사망 5명, 부상 9명,



방화 45건, 납치 경찰관 2명, 양민 19명이 있었다.

이 폭도들은 제주도를 동서로 종관하는 한라산의 동서 양단 선흘 금악 등지에 일 본인이 구축한 지하진지에 의거하여 밤이면 무기를 가지고 출동하여 소요를 계속하고 있다.

폭도의 실수는 세간에 선전되는 바와 같이 다수는 아니요, 수괴 15~16명, 그 외 약 500~600명으로 추정되는데 사건 발생이래 당국에서 인명살상을 피하여 선무공작으로 그들의 귀순을 기다렸으나 다소의 부화뇌동한 자들의 귀순을 제하고는 악착 무자비한 공산당 지도자들의 사수로 회오의 빛이 없으므로 선무와 동시에 무력으로 탄압하기로 결정되어 이미 경비대가 출동하고 정예 경찰관을 교대 중에 있어 머지 않아 이 폭도들은 귀순하거나 소탕될 것이다.

**△폭동의 잔인성** : 이 폭도들의 제1목표는 살인이다. 경찰관을 참살하는 외에 그 가족도 참살한다. 4월 18일 신촌에서는 경찰관의 육순이 넘은 노부모를 죽이되 목을 자른 위에 수족을 절단하였고, 그 외 가족 2명을 중상시켰으며, 4월 20일 선흘에서는 임신중인 경관의 아내를 죽이되 배를 갈랐다. 4월 19일 애월에서는 경관의 6촌 형을 살해하고 현금 7만 8,000원을 강탈하였으며 동지 대동청년단 지부장을 살해하였다. 4월 22일 모슬포에서 면서기 2명을 살해하고 또 경관의 부친을 총살한 위에 그 수족을 절단하였다. 그들은 부락민의 식량 가축을 강탈하고 주류, 금품을 제공케 하며 부녀를 매음시켜 금전을 조달한 실례도 있다.

**△제주폭동의 목표** : 얼른 보기에 쓸데없는 유행인 듯한 제주 폭동은 모스크바의 눈으로 보면 크게 의미가 있고 이익이 있는 것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회랍 북부 산악지대의 게릴라 폭동에 대비할 것이다. 제주폭동의 목표는 결코 제주를 점령한다거나 정말 그들 소위 ‘단선 단정’을 좌절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되었으면 그들에게 좋겠지마는 그렇게 안될 것은 ‘모스크바’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유행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는 선전재료를 만드는 것이다. ‘보라, 조선인민은 죽음으로써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프라우다지(紙)의 논평 1편과 모스크바 방송의 하룻밤 자료를 공급하자는 것이 크레믈린 음모가들의 의도요, 이 의도를 조선출신 소련인들이 충성스럽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동포의 아까운 혈육을 스탈린의 회심의 미소를 사기 위한 한 접시 찬거리로 진상하려는 것이다.

둘째로는 남조선의 민심을 동요시키고 될 수 있으면 남조선 각지에도 제2, 제3의

그들 소위 ‘인민봉기’를 보이자는 것이다. (계속)

■ 조선일보 1948년 5월 18일

제주도 소요 격화 / 수도청 형사대들도 현지 향발

침차로 격렬화하는 제주도 사건은 쌍방의 사상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금(今) 18일 새벽 0시 00분 서울을 출발하는 특별열차로 수도경찰청(首都廳) 최난수(崔蘭洙) 경감 이하 형사대 00명과 철도경찰관(鐵警) 000명이 제주도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 독립신보 1948년 5월 19일

경찰정예부대 제주도 향발

조(趙)경무부장은 제주도 폭동을 진압시키기 위해 작(昨) 18일 중앙에서 동도에 상당한 수의 경찰 정예부대를 파견하였다는데 불일 내에 폭동이 진압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자유신문·한성일보 48. 5. 19 / 동광신문·우리신문 48. 5. 20)

■ 조선일보 1948년 5월 19일

선거불능구(區) 과반 / 제주 선거상황 홍순재씨 보고

제주도 선거위원 홍순재(洪淳宰)씨는 국회 선거위원회에 동도의 선거 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지시를 얻고자 17일 공로로 상경하였는데, 씨는 18일 제주도의 선거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제주군 갑구 : 73투표구 중에서 겨우 33투표구의 투표함 32개가 들어왔는데, 그중 2개 투표함은 공함(空函)이었다. 따라서 결국 43투표구의 선거가 실시 못한 것으로 양귀진씨가 3,000여 표로 나타난 결과로는 최고점이나 등록자 3만 7,040명 중 과반수가 투표치 않았으므로 북제주군 을구 양병직씨의 경우와 함께 국회 선위(選

委)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북제주군 을구 : 61개 투표구 중에서 31투표구만이 선거를 실시하였다.

△남제주군 : 87투표구 중에서 86투표구가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현 입법의원 오용국(吳龍國·44·무소속)씨가 1만 6,000여 표로 당선되었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 48. 5. 19 / 우리신문 48. 5. 20)

### ■ 동아일보 1948년 5월 20일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 / 국가가 주는 자유, 파괴행위에 역용(逆用) / 민족주의의 가면 쓴 좌익

△결론 : 여기서 우리는 공산주의 전술에 대하여 재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는 그들이 3종의 가면을 하였다는 것이다. 겉으로부터 제1의 가면은 입기향종 가속이라는 복면이다. 그들은 민족의식이 강한 민족 속에 처음 들어갈 때는 민족주의자의 가면을 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간판을 붙인 것이 그 예다. 김일성(金日成)은 조만식(曹晩植)씨 기타의 민족주의자에게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고 단언하였고 기림리 민중대회에서도 같은 선언을 하였다. 술개미가 핥을 보고 “자기는 육식을 끊었노라”하고 마른 풀잎을 뜯어먹더라는 동화의 고지(故智)와 같다. 그러면서 불평도(不平徒) 명예욕이 왕성한 자들을 모아 상당수에 달하면 그제는 이것이야말로 ‘인민 전체’라 하고 제1가면을 벗고 분홍색인 제2가면을 쓰고 나가서 민중을 향도하려드니 이 모략에 걸린 무리가 곧 좌우합작 중간파라는 무리다.

△허울좋은 민주과업 : 이리하여 세력을 증대하여 가는 김일성(金日成)이가 평양에서 한 모양으로 포장하였던 손톱과 이빨을 드러내어 이른바 민주과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민주과업이란 독재적 폭력에 의한 그들의 소위 ‘토지개혁’과 숙청이다. 토지개혁이란 것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요, 숙청이란 것은 인민이 아닌 자, 즉 공산당원이 아닌 지식계급 유산계급을 학살 투옥 유배 추방하는 것이다. 이 민주과업이 일단락을 고할 때에 그들은 소위 민주헌법을 실시하고 민주 선거를 거행하여 민주인민공화국 건설 공정(工程)을 마치는 것이니, 그들이 사용하는 민주라는 말은 소련 휘하 공산당 독재라는 뜻이다. 이번 평양 연석회의는 술개미의 풀 뜯어먹는 회의요, 거기 몰려갔던 동무들도 좌중에 몇 마리의 핥들이 되었으니,

그는 솔개미는 육식하는 새가 아니더라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와서 다른 꿩들에게 솔개미와 같이 놀기를 권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솔개미는 결코 마른 풀을 먹는 새는 아니다. 공산주의의 정체를 보려거든 평양 모란봉 극장에 가지 않아도 제주도의 형편을 보면 알 것이다. 수족 잘린 노인들과 배 갈린 태모(胎母)를 보면 알 것이다. 그들은 ‘인민’ 이외에는 모두 원수로 본다. 원수인지라 윤리가 없고, 자비가 없고, 오직 전략 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진영은, 또 정부는 아직도 그들을 상급도 동포로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다. 국가가 주는 자유를 그들은 국가를 파괴하기에 12분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의 신문과 행동을 보면 알 것이 아닌가. 제주의 비극이 남조선 각지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민족 진영의 결속 강화가 필요하거니와 특히 대중에 대한 선전력의 증대가 긴급하다. 신문 기타 민족진영의 무기력이 지금과 같고는 이 소련계열의 모략을 파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는 둘째 요건은 국립경찰력의 강화와 국민과 경찰의 협력의 증진이다. 이번 제주사건에 경찰관은 은인과 용기를 둘 다 보여준 것은 감격할 일이다. 복부 관통 총상을 받고도 무기를 빼앗으려 덤비는 폭도와 응전하여 이를 격퇴한 것이나, 참살당한 가족의 시체를 매장할 새도 없이 눈물을 뿌리고 다시 출동하는 광경을 목격한 필자는 우리 경찰관에 대하여 눈물겨운 감사와 마음 든든한 신뢰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끝)

#### ■ 조선일보 1948년 5월 20일

#### 북제주 재선? / 무효선포 건의

정원 3명의 제주도 선거는 소요로 인하여 북제주군 갑을 양구의 투표가 원만히 시행되지 못하여 드디어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군정장관에게 무효 선포를 건의하였다.

즉 북제주군 갑구는 73투표구 중 31개구가 투표되었고(등록유권자 2만 7,560명, 투표자 1만 1,912명), 을선거구는 61투표구 중 32개구의 투표(등록한 유권자 2만 917명, 투표자 9,724명)가 시행되었음을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18일 선거법 제44조에 의하여 해(該)선거구 선거무효 선포를 군정장관에게 건의하였는데 추후 재선거 날짜가 공포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남제주군에서는 과도입법의원 오용국씨가 당선되었다고 한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서울신문·한성일보 48. 5. 20)

■ 서울신문 1948년 5월 21일

제주에 경찰 응원대 / 목포서도 다수 출발

【목포지국 특전】 제주도 폭도 진압을 위하여 철도관구 경찰관 350명과 제8관구 및 제6관구 경찰관 100명 총합 450명이 경무부 당국 지령에 의하여 전투응원대로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19일 아침 목포를 출발 제주도로 향하였다.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5. 22)

■ 우리신문 1948년 5월 21일

항거하의 제주도 선거 / 전도민의 불과 5할만 투표

북제주군 갑을 선거구는 동도의 소요 관계로 갑구의 73 투표구 중 31 투표구만이 선거를 실시하였고 을구의 61 투표구 중에서는 32 투표구만이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에 국회 선거위원회에서는 18일 제주도 선거위원 홍순재씨 보고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토의한 결과 선거법 제144조에 의거하여 갑구에서 최고득점자 양귀진, 을구에서 최고득점자인 양병직 양씨의 당선은 무효로 인정하고 19일 이를 군정장관에게 건의하였다. 북제주 갑구는 2만 7,560명 중 등록자 1만 1,912명이 투표하였고 동 을구는 2만 917명의 등록자 중 9,724명이 투표하였던 것이다.

■ 자유신문 1948년 5월 21일

제주에 응원대 증파

제주도 소요진압차 20일 하오 경찰응원대 ○○명은 무장도 굳게 단속하고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하였다.

(같은 기사 한성일보 48. 5. 21)

■ 한성일보 1948년 5월 22일

제주도 소요확대 / 진압까지 상당시일 소요

【광주 21일 밤】 검찰총장의 명령으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소요 실정

조사차 현지에 출장 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김희주(金禧周) 검찰관은 귀청 후 현지 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요사태는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쌍방에 매일같이 희생자를 내고 있다. 발단 원인으로서는 5·10선거 반대가 직접 원인이 되고 있으나 간접으로는 관민을 막론하고 도내인 특유의 배척심리가 각 방면에서 발발된 점도 있다고 본다. 즉 일례를 들면 서북출신 경관들의 과도한 태도에 분개한 인민의 반항도 관계되고 있는 듯 하다.

△한라산에 본거를 두고 주야로 각 부락에 출몰하는 폭도들은 기관총과 사제수류탄, 죽창 등으로 경관이나 우익요인을 살해하고 있는데 본토에서는 상상 못할 만한 산림이 방해가 되어 그의 토벌은 실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근근 경관측의 응원부대가 파견되어 진압할 것이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 같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싸여있는 양민들의 희생은 날로 심각하여 가고 있으며 시장에는 겨우 보리, 조 등이 간혹 한 말 정도씩 매매되고 있는 형편으로 도민생활은 극도로 피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급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현대일보 48. 5. 22 / 경향신문 48. 5. 23)

#### ■ 동광신문 1948년 5월 23일

악화일로의 제주사태 / 통신도 두절 / 경비대 전원 철거 / 정예경관대를 파견

【서울 21일 발 조선】 제주도 경비대가 철거하고, 경관대를 증파한 것으로 보아 동도의 사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직접 동도의 경비대 전원을 극비밀리에 군함으로 철거시켜 본토로 송환시켰다 하며 한편에는 경관부대를 □□ 파견하고 있는데 그 수는 4,000여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최근 동도와의 통신은 전면 두절되고 있으며 경무당국은 동도 사태에 관한 □책 일로를 보□하고 있다. 최근 동도 □□□원과 관계로 일을 마치고 19일 공로(空路)로 서울에 올라온 모씨는 특히 그의 □□□ □□것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의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어느 부락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자, 전 부락민이 대성통곡을 터뜨리고 호응하여 1,000여명 군중이 산으로 집단 이동을 하였다. 그 사람들은 단선·단정이 조선을 망치고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할 뿐이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2줄누락) 취하지 않고 있다. 경비대

대표는 산중의 집단대표와 (1줄 누락) 실패해 돌아와 □한 것이며 산중이 집단은 때  
일같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경관을 죽이면서도 그네들은  
경비대원에 대해서는 일절 발포 않는다□ □□□□□ 무효 선언되었는데, 재건은 현  
상태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하다.

■ 한성일보 1948년 5월 23일

제주도에 사법관을 특파

기묘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사태는 어느 때에나 진정이 될는지 예측키 어려운 채  
공기는 점점 험악의 도를 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형사사건이 많아 현지의 심리원과  
검찰진으로서는 도저히 사건을 신속히 처결할 수 없음에 비추어 사법부에서는 응원  
차로 심판관과 검찰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심판관으로서  
서울고등심리원 심동구(沈同求) 심판관과 지방심리원 양원일(梁元一) 부장심판관을  
비롯하여 최동욱(崔東旭), 황성희(黃聖熙), 김상묵(金常默) 심판관 외 서기 3명과 검  
찰관으로서는 박근영(朴根榮), 이주신(李柱臣), 안희경(安喜慶) 3검찰관과 서기 3명을  
파견하기로 되었다 한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5. 23)

■ 노력인민 1948년 5월 25일

구국전선의 선봉대로 단선단정 분쇄에 사투 / 반동숙청에 영웅적 혈  
전 벌어진 제주도 (상) / 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  
투하는 제주도 애국동포를 구출하자!

국토양단과 민족분열로써 우리 조국을 식민지 군사기지화 하려는 미제의 침략정  
책, 단독정부 수립을 한 걸음 앞에 두고 이 민족의 피를 받고 이 땅에 삶을 누리는  
자 그 어느 누구인들 애국의 정열이 북받치며 순국의 피가 튀지 않을 자 있으랴! 조  
국과 민족을 구출하려는 성스러운 구국투쟁은 이 강산 3천리 방방곡곡 흔들리지 않  
은 곳이 없고 이 민족 3천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어서지 않는 자 없이 피의 항  
쟁에 돌입한 이 때 비록 이 제주도가 남쪽바다 외로운 섬이라 할진대 노도와 같은  
구국의 열정이야 다룰 수 있으랴! 아니! 도리어 열정적이면서도 가장 강직한 이 땅

의 인민들이야말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들 전통의 피를 계승하여 전조선 인민의 선두에 서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자기 희생적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음모하는 단선단정 분쇄투쟁에 혈전을 전개하고 있으니 아래에 구체적 사실을 소개하기로 한다.

#### (1) 사건의 원인 동기

그러면 어째서 제주도 인민들은 오늘날 이 역사적 성전을 전개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과거 3년 간 미제의 침략정책과 그 앞잡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착취와 폭압, 학살,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성숙된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1일 평화인민의 시위 행렬에 대한 경찰의 불법발포로 인한 학살사건으로 일어난 3·1사건, 단선단정 반대, UN조선위원단 추방의 2·7구국항쟁 등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동경찰, 강도테러단 합작의 야만적 폭압 학살이 계속되었으니 이것이 이 제주도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인민들의 원망의 적(的)이 되어있는 반동경찰이 3월 1일을 기하여 수많은 인민들을 예비검속하며 다시 나아가 망국멸족의 단선등록을 강요하여 고문학살을 자행하자 참다참다 참지못한 인민들은 앓아 죽느냐? 일어나서 싸워 이기느냐? 기로에 서서 조국을 구출하자는 일편단심으로 일치단결, 마침내 4월 3일 일어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번 제주도의 위대한 구국투쟁의 직접 동기가 된 것이다.

#### (2) 구국 인민유격대의 위용

△구성 : 민주운동, 특히 UN배격 2·7 항쟁으로 반동경찰의 추공을 받고 피신하고 있는 민주진영 지도자 ○천명으로 구성되어 학병(學兵) 중병(中兵)출신의 민애청원을 중심으로한 청장년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도 이채를 끄는 것은 이번 투쟁이 시작되던 4월 3일 맹휴로 들어간 제주농업학교, 제주중학교 생도들이 과감하게 참가하여 철석같은 진용을 구성하고 있다.

△무장 : 일제가 전시 20만 대병의 군비로서 은폐 저장하여 두었던 무기 탄약과 미군상륙 후 바다에 집어넣었던 무기 등을 꺼내어 확보한 것 등이라는데 죽창, 철모자, 일본도는 물론이요 권총, 장총, 기관총도 있고 대포까지 가지고 있다 한다. 그리고 탄환, 수류탄 등도 거의 무진장이라고 한다.

△보급과 정보수집 : 이 제주도 30만 인민들이 장구한 시일 이 섬에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고 하는 동안 친척이나 연척이 아니 닿는 자가 없을 만치 서로 엮혀 있다. 친부자가 아니면 족숙(族叔), 족숙이 아니면 생서(甥婿) 또는 사돈, 사돈의 사촌, 이렇게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적 관계도 있어 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서도 모든 편의를 도와줄 것이거늘 항차 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구출하



고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하려는 대의명분에서 나온 거사임에 있어서라! 이렇게 인민들과 인민유격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치 정보제공은 물론 식량공급, 무기공급, 기타 일용품까지 무엇이든지 인민유격대가 필요한 것은 도민들이 자진하여 알선 제공하고 있어 30만 도민과의 강철같은 접합으로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

△훈련과 전술 : 규율이 엄격함은 물론이요 매일 전투훈련을 시켜 일상불란의 강철같은 조직을 만들어내었고 학병 중병의 실전에 경험을 가진 훌륭한 부대들이 많이 있어 백전백승의 전과를 거두고 있어 반동경찰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한다. 그 유도작전의 일례를 들면 먼저 제1진 약 10여 명으로 구성된 소부대가 나타나서 경찰을 습격한다. 그러면 경찰이 이것을 추격하여 사격거리에 이르면 이 소부대는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다시 약 20명 되는 제2부대가 나타나서 교전한다. 그러나 경찰이 다시 이것을 추격하여 사격거리에 이르면 이 제2부대도 또한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조금 더 큰 부대, 제3부대가 나타난다. 경찰은 이제는 자기 힘이 부족함을 알고 퇴각하려 하나 이 때에는 이미 퇴각할 길이 차단되고 포위상태에 빠져서 허둥지둥 전멸되고 만다.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그 민활한 동작과 교묘한 작전은 항상 경찰에 타격을 줄 뿐이고 인민유격대에는 손상이 없다 한다. (계속)

[노력인민 1948년 6월 3일 정정 : 전호 제주도 기사의 '인민유격대'는 '인민자위대'의 오식이기로 정정함.]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25일

##### 무력으로 해결은 부당 / 제주도 사건에 각계에서 성명

어제 24일 사민(社民) 유련(儒聯) 반일과학기련(反日科學技聯) 등에서는 제주도 소요사건에 대하여 각각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당국이 무력으로써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침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 ■ 자유신문 1948년 5월 26일

##### 제주에 사법관 파견

사법부에서는 긴박한 제주도 사태에 비추어 사건의 현지처리를 목적으로 서울지방심리원 양원일(梁元一)심판관 외 5명, 동 검찰청 검찰관 박근영(朴根榮) 외 2명을

오는 26일 현지로 파견하리라 한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5. 26 / 동광신문 48. 5. 27)

■ 자유신문 1948년 5월 26일

법조 기자단 시찰행

금번 법조기자단에서는 오는 28일 긴박한 제주도 실정을 조사할 목적으로 현지로 향할하기로 되었다.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5. 27)

■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26일

무력해결 부당 / 제주사건에 각계 담

어제 25일 문맹(文盟) 미맹(美盟) 여맹(女盟) 음맹(音盟)에서는 각각 제주도 소요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하고 이를 “즉시 중지하라”고 주창하였다.

■ 조선일보 1948년 5월 27일

북제주 양구(兩區)는 재선거 / 래(來) 23일 시행 / 딘 장관 발표

지난 5월 10일 총선거시에 제주도 북제주군의 갑을 양 선거구는 선거반대파의 폭동으로 인하여 투표가 전투표구의 반수 이상에 달하지 못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당해 양구의 당선인 양귀진(梁貴珍·갑구), 양병직(梁秉直·을구) 양씨의 당선무효를 군정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었거니와 26일 딘 군정장관은 당해 양구의 선거무효와 재선거에 관한 포고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1948년 3월 17일부로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거하여 1948년 5월 10일 제주도 북제주군 갑 선거구와 동군 을 선거구에서 시행한 선거는 자(茲)에 무효임을 선포함.

(2) 국회의원선거법 제44조에 의하여 국회선거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1948년 6월

23일 전기 갑을 양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자(茲)에 지시함.

(3) 전기 갑을 양 선거구는 반동분자의 방해로 전투표구의 반수 이상이 투표를 행하지 못하여 완전히 민의를 표현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該) 갑을 양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 바임.

1948년 5월 24일

군정장관 미국 육군소장 윌리엄 F. 딘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조선중앙일보·현대일보 48. 5. 27 / 동광신문 48. 5. 28)

■ 한성일보 1948년 5월 27일

무효된 북제주 선거 / 6월 26일 재개

지난 5·10선거에 있어서 제주도 북제주군 갑을 양구는 투표자수가 유권자수의 2분의 1이 못되므로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무효로 선포할 것을 군정장관 딘 소장에게 요청하고 있던 바 동 장관은 동 위원회와 협의한 후 지난 24일부로 전기 양구의 선거결과를 작(昨) 26일 무효함을 선포하는 동시에 선거법 44조에 의하여 오는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작 26일 공보부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 한성일보 1948년 5월 27일

제주행 회피로 철경(鐵警) 군재(軍裁)회부

철도관구 경찰청 근무 장만호(張萬鎬·28) 경사, 심방은(沈方殷·25) 순경 유시흠(柳時洽·24) 순경, 박봉철(朴鳳哲·27) 순경은 지난 17일 철도관구 경찰청으로부터 제주도 특별경비 응원출동의 명령을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동일부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은신, 도피중인 것을 18일 시내 모처에서 동 경찰청 사찰계원이 체포하여 그동안 엄중 취조하여오던 바 지난 20일 동 경찰청에서는 이들 4명을 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종로경찰서 안에 있는 군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한다. 그리고 동 군정재판소 측 답에 의하면 이들 4명에 대한 재판은 27일 오전 9시부터 동 재판정에서 열게 될 것이라 한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현대일보 48. 5. 27)

■ 대동신문 1948년 5월 29일

제주도 소요 더욱 확대 / 4월이래 사망자만 160

제주도의 소요사건은 날이 갈수록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경비사령부에서는 4월 3일 이래 5월 25일까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습격 : 경찰관서 25건, 경찰관 8건, 관공서 3건, 선거사무소 18건 △납치 : 경찰관 4, 경찰관가족 4, 관공리 2, 양민 289 △행방불명 : 경찰관 3 △테러 : 관공리 2, 양민 1 △사망 : 경찰관 23, 경찰관가족 3, 양민 2, 관공리 3, 폭도 119 △부상 : 경찰관 29, 경찰관가족 2, 양민 65, 관공리 6, 폭도 8 △무기회수 : 총기 8, 탄환 249 △방화 : 경찰서 4, 동 사택 4, 관공서 8, 양민가옥 223, 관공리가옥 3, 경찰가옥 3 △파괴 : 경찰관 사택 2, 동리(洞里) 3, 교량 4 △검거인원 101 【제주 발 합동】

(같은 기사 자유신문·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48. 5. 29)

■ 조선일보 1948년 5월 29일

제주행 회피 철경 / 군재(軍裁)서 집유(執猶) 언도

기보한 바와 같이 제주도 경비 응원과견 회피로 군정재판에 회부된 철도경찰청 근무 장만호 경사 이하 8명에 대한 군정재판은 27일 상오 9시부터 종로서안 군정재판장에서 열렸는데 이들 8명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정태선(鄭泰善·순경) 1년 징역 4년 집행유예, 장만호(張萬鎬·경사), 심방은(沈方殷·순경), 유시흠(柳時洽·순경), 박봉철(朴鳳哲·순경), 김□석(金□石·순경), 김재환(金在桓·순경), 김인석(金寅錫·순경) 이상 각각 5년 집행유예.

■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29일

제주도 사건에 반일(反日) 과학(科學)에서 성명

반일운동자구원회와 과학동맹에서는 제주도사건에 대하여 무력으로만 해결하려는 의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당장 □□을 철회하고 미소양군은 철퇴하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한성일보 1948년 5월 29일

조(趙)부장 부산에 / 30일 귀임 예정

작(昨) 5월 28일 경무부 경찰공보부실장 발표에 의하면 조경무부장은 치안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금(今) 28일 상오 9시 공로로 제주도에 향하였다가 귀로 부산에 들러 경찰청 개청식에 참석한 후 30일 귀임할 예정이라 한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 48. 5. 29)

---

# 1948년 6월

## ■ 경향신문 1948년 6월 3일

제주 하곡수집 철폐한다 /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 발표

【제주】 제주비상경비사령관 최천(崔天)씨는 동지구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좌와 회담한 후 지난 27일 요지 다음과 같은 포고를 발표하였다.

- (1) 절단 당한 전주 복구공사는 부락별로 출동 촉진할 것.
- (2) 금년도 하곡수집은 철폐함.
- (3) 하산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양민에 대하여는 관용 포섭함.

(같은 기사 대동신문·서울신문·자유신문·조선일보·한성일보·현대일보 48. 6. 3)

## ■ 노력인민 1948년 6월 3일

조국의 식민지화 분쇄전에 전도 순국 열정으로 작렬! / 반동숙청에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 (중) / 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동포를 구출하자! / 망국 단독정부를 결사 분쇄하자!

### (3) 전투경과

△행동개시 : 4월 3일 오전 2시를 기하여 전도 인민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였다.

먼저 전신, 전화선을 차단하고 교량을 파괴한 후 반동경찰의 거점인 민의 원부(怨府)인 도내 13 경찰지서를 일거에 습격하여 인민의 학살을 일삼던 악질경관 50여 명을 통쾌히 숙청한 다음 테러단의 두목과 매국노의 괴수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여 당야(當夜)에만 30여명이 소탕되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비록 악질반동의 집이라 하더라도 무고한 노유 부녀자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 후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하루 한 건 정도는 반동경찰을 숙청하고 10여 일이 지난 후에는 악질 반동분자 숙청에 노력하여 왔는데 그간 소위 경찰토벌대와 접전은 수십 회에 이르렀으나 연전연승 빛나는 전과는 항상 인민자위대에게 있었으니 그 중 중요한 전투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봉개봉의 전투 : 4월 14일 비로소 제주읍 남부 약 15리 지점 봉개봉에서 제8관구에서 파견된 웅원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소위 ‘경찰토벌대’와 접전하였는데 미국계 소총, 기관총으로써 무장한 반동경찰대는 여지없이 패배되어 사상자 수명과 행방불명 20여 명을 내었고 화물자동차 1대를 빼앗긴 채 도망하여 버렸고 인민자위대는 개선의 봉화를 봉개봉 산상에 올리는 동시에 인민항쟁가를 높이 불러 그 우렁찬 소리와 봉화의 큰 불꽃은 반동의 소굴인 읍내를 완전히 위협하여 이들을 전전공공케 하였다.

△애월 부근에서의 전투 : 손(孫)경감이 지휘하는 소위 강력한 기계화부대와 조우전은 5월 초순 애월 부근에서 벌어졌다. 적은 미국계 기관총과 기타 무기로 무장하였으며 그 수에 있어서도 훨씬 우세였다. 그때 우리 인민자위대에게는 소총과 수류탄이 있을 뿐이며 수에 있어서도 열세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자위대에게는 조국을 구하려는 대의와 침략자 및 그 앞잡이에 대한 치열한 분노와 증오와 함께 만만한 투지가 불타고 있었다. 적에게는 돈에 팔려 죄를 범하는 자의 비겁이 있을 뿐이다. 전단(戰端)이 벌어진 지 불과 수 분 인민자위대가 발사한 한 방의 탄환은 적의 기관총의 기수를 넘어뜨렸으며 이어서 수류탄은 적의 기관총을 부셨다. 이것을 보자 적들은 그만 혼비백산하여 사망으로 흩어져서 도망하였다.

△교래 사건 : 무수한 전투 속에는 이 교래 사건과 같은 빛나는 무용의 사건도 적지 않다. 교래는 20호 밖에 안되는 촌락인데 지난 4월말 경 이곳에 50~60명의 경찰과 향보단원 놈들이 집결 주둔하고 있었다. 그날은 달밤이었다. 인민자위대의 한 병사가 이를 정찰하러 파견되었다. 사면은 고요하다. 정찰병은 몰래 다가가서 일본도를 빼들고 부근에서 파수보고 있는 향보단원을 위협했다. “입을 열면 죽인다” 향보

단원은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있다. 경찰병은 단신으로 대담하게도 적중으로 돌입했다. 놈들이 세상모르고 잠든 창문 앞에는 두 놈의 무장경관이 파수를 보고 있다. 경찰병은 놈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착 엎드려 그들을 겨냥한다. 그러나 파수는 인기척에 눈치를 채고 “누구나?”고 소리쳤다. 그는 잠자코 있었다. 두번 세번째 “누구나?” 소리가 떨어질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이어찌 행운이나. 한 방의 탄환은 두 놈을 단번에 뚫어 놓았다. 총소리에 놀라 깬 50여 순경 놈들은 서로 짓밟으며 야단이 났다. 그들은 맹탄을 퍼부었다. 이 소동하는 무리들의 속에 경찰원은 황인탄(黃磷彈)을 던졌다. 경관놈들은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 이튿날 경찰놈들은 교래에 다시 와서 민가에 방화하여 9호를 회진함으로써 분풀이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일부 교래 촌민들까지도 남녀노소 양식을 걸머지고 인민자위대에게로 몰려 와서 자기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용감히 싸워달라고 격려 지지하고 있다.

#### (4) 5·10 망국 단선 분쇄투쟁

제주도는 남북 양군으로 나누어 있는데 단선 분쇄투쟁은 북군에서 더욱 치열히 수행되었다. 당일에는 비가 내렸는데 일반 인민들은 투표소로 가지 않고 인민자위대가 있는 산악으로 올라왔다. 인민들은 갈대를 엮어 임시로 지붕을 삼고 그 밑에 혹은 1,000여 명 혹은 400여 명씩 모여 비를 피하고 있었다. 이곳에 자위대 선전대원들이 내려와 ‘왜 우리는 단선단정을 반드시 분쇄하여야 하며 남북통일 자주독립을 전취하여야 하느냐 또는 인민과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자위대란 어떤 것이냐를 친절하게 해설하였다. 인민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환희는 산하를 뒤덮는다. 대원들은 인민들의 구체적인 불평불만과 자위대에 대한 인민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들었다. 이날 연기가 나는 곳에는 어디나 인민들이 모여 있었으며 인민이 집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선전대원의 활동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각 투표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 △제주읍

반동이 총집결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재판소 등 놈들의 권력기관이 모여있는 ‘성내’를 빼놓고는 완전히 투표를 보이콧하였다. 당일 투표소로 지정된 읍사무소 주위는 그야말로 철통처럼 경계망을 둘러쳤으나 놈들인들 어찌 뜻하였으랴. 수류탄이 투척되어 투표소는 파괴되고 읍사무소는 산산이 부서졌다. 전날부터의



풍설도 있고 해서 반동놈들의 공포와 전율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는 필시 신병이 아니면 기□이라고 대경실색하였다. 놈들은 인민자위대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고 구역의 책으로 읍사무소 직원들을 검거하고 이는 남로당의 음모라고 선전하였다.

#### △조천면

한 표의 투표도 없었다. 선거 전날인 9일에 제출된 선거위원들의 총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으나 선거위원들은 당일에 한사람도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총검거하여 감시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투표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면 무엇 하느냐고 거부하자 경찰은 당신네만이라도 투표하라고 강압하는 것을 “우리가 투표하면 매국노라고 인민들에게 맞아 죽는다”라고 하며 이것마저 거부하였다.

이 면에는 5월 10일 이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미군정의 모 요인이 면내 투표소의 설비상황을 순회시찰차로 왔다. 그 자는 면사무소에 ‘투표상’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보자 성을 내며 그 이유를 문책하였다. “가져간댔자 받을 사람도 없고 또 가져갈 사람도 없다”는 것이 면사무원의 대답이다. “그래도 지정장소까지 갖다 두어야 한다”고 강요하므로 부득이 그 자는 소사를 시켰으나 거부되고 할 수 없이 외지사람을 400원에 사서 들러 보냈다. 동리 사람들은 남녀노유가 곤봉을 들고 나와서 이 투표상을 가져온 자에게 “이놈아 그것이 무엇인데 가지고 다니느냐. 아무리 돈벌이라 하지만 나라 파는 그릇을 짊어지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하여 쫓아보냈다. 제3차로서 청원 4명을 매수하여 지어 보냈는데 그자들은 짐을 지고 나간 채로 행방불명이 되어 종적을 모른다고 한다. 10일날 동민들은 낮에는 산으로 올라가 자위대와 같이 지내고 밤에는 부락으로 내려왔다. 이날 산봉우리마다 봉화가 하늘을 찔렀으며 동민들은 부락부락에서 시위하였다.

국방경비대도 투표강요에 동원되었는데 그들의 출동을 본 인민들은 숲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다. 경비대는 인민들에게 어서 나와서 투표하러 가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못나가겠다!” 인민의 대답이다. “못 나가면 쏘겠다” “쏘아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몰살당해도 원망마라.” 이것이 경비대의 최후의 말이었다. 인민들은 숲 속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가슴을 헤치고 경비대원의 총칼 앞에 내밀었다. “쏘아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라를 팔아먹는 그놈의 투표를 어찌 한단 말이냐!” 경비대는 이 단호한 인민의 기개에 놀려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러자 “인민공화국 만세!”의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 △애월면

9일 밤 9시에 일제히 봉화가 올랐으며 당일의 투표는 거의 보이콧하고 북군의 한림면과 남군의 대정면도 거의 보이콧 하였다.

불법선거의 일례를 들면 이도리(二徒里) 구장은 투표를 거부하고 쫓겨가다가 체포되었는데 놈들은 이 한 사람을 시켜서 120명의 대리투표를 강행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투표는 10%도 될 수 없는 것을 70%나 되었다고 발표하고 방송하는 매국반역 도배들의 파렴치한 기만에 대하여 전도 인민의 적개심은 더욱 더 높아지며 반동이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놈들의 기만과 모략은 그치지 않을 것을 이해하는 인민들은 오직 멸족망국 도당을 완전분쇄하기 위하여 투쟁을 더욱 더 강화할 뿐이라고 굳은 결심을 새로이 하고 있다.

#### (5) 자위대와 인민과의 결부상황

작년 3·1학살사건에 뒤이어 3·22총파업이 있는 뒤 이에 경악 전율한 매국 반동세력은 경찰 사법 등 일체의 권력기관에서 양심적인 사람을 모조리 내쫓고 흡혈기와 같은 악질도배 서북인들로서 그들의 진용을 정비하여 도민폭압의 토대를 쌓았다. 그놈들은 전 도민 27만 중 8만은 남로당원이라고 말하며 제주도의 청장년은 닥치는 대로 무단히 검거 구타하면서 민주진영의 지도자를 내놓으라고 족졌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인민들은 아무개 때문에 우리까지 못살겠다고 오히려 민주진영의 지도자를 원망하기까지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매국 반동세력은 서청원을 매 부락에 10명 내지 20명씩 배치하고 기금을 내라, 담요를 내라, 밥을 내라 하여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가축을 함부로 도살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도록 두들기고 부수고 하여 실로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인민들은 하루도 마음놓고 살 수 없었다. 이제까지 중립이라고 자칭하고 반동이라고 지목되는 사람들까지 원성은 높아졌으며 이래서는 못살겠다는 인식이 깊어졌다. 그러나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속으로만 끓어 들어갔을 뿐 놈들의 야수와 같은 탄압 밑에 위축되어 쫓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2·7 총파업이 터졌다. 인민들도 격양하여 이에 호응 쫓기하였다. 그러나 야수적 탄압은 일층 강화되어 이 사건에만 1만 5,000명을 잡아다 두들겨 뺐으며 3,000명을 유치시키고 3월 중에만 3명을 고문으로 죽였다. 부상자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인민에게 총애를 받던 김용철 청년은 조천지사에서 놈들의 악독한 고문에 쓰러졌다. 이것이 인민의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이 폭발하는 기회가 되어 자위를 열망하는 인민의 소리는 생명의 요구로써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4월 3일 오전 2시를 기하여 인민자위대의 행동이 개시된 것이다. 민족

청년단은 즉시로 해체하여 이에 합류하고 맹휴 중의 중학생도 이에 합류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자위대는 인민의 속에서 인민의 전위로서 인민의 열망의 구심체로서 탄생된 것이다. 제주도 인민들이 인민자위대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남편, 오빠와 같이 위하고 지지하며 전력을 다하여 그를 원조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계속)

■ 대동신문 1948년 6월 3일

제주 경주 양처 소요에 대청원 60여명 순사(殉死)

대동청년단 발표에 의하면 총선거를 전후하여 좌익계열의 테러 파괴 등을 방지하고자 분투하다가 희생된 제주도 및 경주군하 대동청년단원의 5월 2일<sup>4)</sup> 현재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다.

△제주도 사건 : 피살자(판명분) 50여명, 부상자 60명, 소실 파괴가옥 250여호, 납치당한 자 미상. (후략)

■ 서울신문 1948년 6월 3일

소요진압에 노력 / 제주사태에 유(柳)부장 담

제주도 소요사건과 경비대의 활동에 관하여 유(柳)통위부장은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육해군 경비대는 긴밀한 협동하에 해안경비대 특무함대로써 폭도와 육지간의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방경비대 병력을 현지에 증파하여 4월 27일 폭도 토벌의 전화를 열었다. 작전개시 이래 연일 무수히 구축된 동굴과 천연의 요해를 이용하는 폭도를 포위 공격하여 치명적 타격을 주고 5월 27일까지 판명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전과를 얻었다.

(1) 폭도측 손해 : 포로와 귀순자 3,126명(권고·유인·협박에 의한 가담 다수), 사망 7명, 유기시체 1명, 노획 철모 17, 죽창 12, 99식 소총 3, 수류탄 15, 청룡도 5.

(2) 아방손해 : 5명

---

4) 6월 2일의 오기인 듯.

이상과 같이 동족간의 무자비한 살상을 피하고 극렬분자와 불연한 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급적 포로와 투항자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간에서 경비대의 행동이 소극적이라든가 혹은 좌익에 대하여 동정적이라든가 하는 낭설이 유포되고 있는 듯 하나 이는 피상적 관찰 또는 일부 불순분자의 모략이다. 육해경비대는 엄연한 군사력으로 좌우익 내지 □□노선을 높이 초월하여 오로지 국가적 정부의 지상명령 아래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여하한 내외세력이라도 이를 단연코 분쇄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같은 기사 자유신문·현대일보 48. 6. 3 / 조선중앙일보 48. 6. 4)

#### ■ 조선일보 1948년 6월 3일

##### 저지리 1부락 전소 / 700 이재민 산중에서 노숙

【제주 합동】경찰당국 언명에 의하면 지난 12일 북제주군 한림면 저지리에서는 부락민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부락 전체에 방화한 사건이 있어 가옥 식량 및 의류까지 소실당하고 150여 호의 부락은 단지 4호 밖에 남지 않았다는 바 약 700명의 남녀노소 부락민들은 뒷산에서 공포와 굶주림에 떨며 노숙하고 있는 것이 27일에야 경찰에 발견되었다 하는데 그 중 4명의 여자는 한림병원에 입원가료 중이라고 한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자유신문 48. 6. 3)

#### ■ 현대일보 1948년 6월 3일

##### 불원 진정 기대

【제주에서 이종선 합동 특파원 2일 발】제주지구 미군 사령관 브라운 대좌는 현하 제주도의 정세에 대하여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약 10일 전에 부임하였다. 내가 오기 전에는 경찰과 육해군 사이에 서로 협력을 안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온 후부터는 그러한 일은 없어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즉 (1) 경찰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도로로부터 4km까지 사이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2) 국방경비대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무를 각각 분담한 것은 첫째 경찰은 치안 행동을 취하게 하

고, 둘째 국방경비대는 산중에서 전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3) 해안경비대는 하루에 두 번씩 제주도 일대 해안을 순회하며 밀선의 왕래를 방지하고 있는 한편 국방경비대의 수송에도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작전 목적은 백성들이 산중으로부터 내려와서 안전하게 하곡을 수확하고 새 곡식을 심도록 하기 위함이고, 약 20명 가량으로 보이는 산중의 두령들을 체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안을 회복하고 관공리들이 돌아와서 평화스럽게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5·10 선거 때에는 성적이 좋지 못하였는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6월 23일 재선거 시에는 자유롭게 자기네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될 것이다. 여하간 사태는 6월 23일까지에는 진정될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은 자기네의 동료와 가족들을 살해당함으로써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에 대한 소감 여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어느 경찰관이든지 그러한 일을 했다는 말이 있으면 그 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제주도를 떠나게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말이 있어 그 진상을 조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증거가 나타난 일이 없다.”

#### ■ 경향신문 1948년 6월 4일

##### 제주법원장 대리에 양원일(梁元一) 판사가 취임

【제주 3일 합동】 지난 26일 제주에 도착한 서울지방법원 합의부 부장판사 양원일(梁元一)씨는 5월 25일부로 제주지방법원장 대리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6월 1일부터 실시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전(前)원장 최원순(崔元淳)씨가 정년 퇴직하게 된 때문이라 한다.

#### ■ 동아일보 1948년 6월 4일

##### 포로 귀순 3,000 쌍방 사망자 9명 / 유(柳)통위부장 제주폭동 사건 진상 담

제주도 폭동 사건에 대하여 유통위부장은 육해경비대가 5월 27일까지 거둔 진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폭도에게 준 손해는 포로가 3,126명이며 사망자가 7명, 유기 시체 1명이다. 그런데 포로 중에는 폭도 측의 권고 협박 등에 의하여 강제 가담을 당한 무고한 양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노획품은 철모 17, 죽창 12, 99식 소총 3, 수류탄 15, 청룡도 5 등이다. 한편 경비대 측의 손해는 부상자 5명이다.”

#### ■ 서울신문 1948년 6월 4일

#### 불안 속의 제주 / 진압시기는 속단 불허

【제주도 조선】 4월 3일 미명에 돌발한 제주도 사건은 날이 갈수록 힘약의 도를 가(加)하고 있다. 구름 속 높이 솟아있는 한라산 속 무수한 동굴에는 당지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불려지고 있는 조직부대가 출몰하고 산간부락에는 끊임없이 총성이 은은하다. 읍(邑)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은 거의 그들의 세력 하에 있으며 이를 소탕하는 경비대와 경찰의 전투는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30만 도민은 지금 분화구 어귀에 서 있는 불안 가운데 있다.

1읍 12면의 경찰지서는 그 대부분이 습격을 받았고, 그들의 가족 및 우익계열 인사들에게 대한 습격은 집중(接腫)하였으며 또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연일 증가되는 경비대와 경찰 무장부대는 각기 소탕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진압의 시기는 속단을 불허하는 상태이다. 한편 경찰과 경비대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제주읍은 밤이 되면 죽음의 거리로 화한다. 이 모퉁이 저 구석에서 남북의 야기(夜氣)를 진동시키고 터지는 총성은 살기찬 이 섬의 공기를 더 한층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한성일보 48. 6. 4)

#### ■ 서울신문 1948년 6월 4일

#### 아직도 해결의 서광없는 제주도 사태 이모저모

【제주지국 특신】 본도 사태를 답사하기 위하여 기자는 브라운 대좌와 함께 읍내에서 산길 밀림지대로 서귀포를 향발하였으나 산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으며 울창한 산림 속에는 들리는 산새소리 뿐 처참하리만치 괴괴하였다. 하오 3시 반 경 서귀포를 출발하여 표선리를 경유하여 또다시 산길로 성읍 종달리를 통과하여 밤 10시 경에 귀환하였는데 일부 부락민은 차차 자기 부락으로 귀환하였다고 한

다. 그런데 본도 사태에 대한 치안책임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제주군 파견 부대장 답 :** “본 부대는 토평리에 주둔한 지 1개월 가량 되었으나 접전한 사실은 없다. 치안은 유지되어 남제주군의 각 학교는 벌써 개교하였으며 피해상황은 남제주군<sup>5)</sup>에 비하여 소부분이다. 포로 인원은 670명이나 무기는 없었으며 연대사령부로 송치하였다.”

**△제2구경찰서 경무주임 답 :** “사태 진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종종 사건이 발생하여 지난 19일 하오 2시경에 대정면 구역리에서 윤상오 윤예수 두 명이 피살 당하였고 의복과 식량도 약탈 당하였으며 시체는 21일에 보성리 목장에서 발견하였다. 남군 일대에 전신주 40여 본 절단한 것은 복구되었다.”

**△송당리 주둔 경비대장 서(徐)대위 답 :** “부락으로 복귀하는 자가 있으며 귀순자도 10명이 본대에 자수하였다. 구좌 조천면에는 피해가 있었으나 성산면에는 평온하며 농민들은 근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 조천면 선흘리에서 40명의 포로를 잡았는데 그 중에 지난번 도피한 경비대원도 1명이 있었으며 그 전과는 다음과 같다.

죽창 44, 철모자 333, 소총 19, 실탄 3,775, 전화기 1, 일본도 26, 현금 6,000원, 서류 약간.”

**△삼양 주둔 모슬포부대장 답 :** “삼양같이 청년이 많은 곳은 처음 보았으며 산군에 가담한 자도 많다고 추측한다. 제주읍 어승생 목장에서 29명을 체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연대 사령부에 송치하였다. 여성동맹에서도 관련한 사실이 있어서 부녀자 10여 명을 방금 조사하고 있다.”

**△제1구경찰서장 답 :** “본관은 경관 시체를 수사하려고 감찰청원과 1구서원을 대동하고 북촌리(조천면)에 가보았는데 어느 주택 마당에 천연굴이 있어서 들여다보니 속에 사람이 있기로 빨리 나오라고 하니 7명은 나왔으나 2명은 죽어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므로 3시간을 기다려도 종래 나오지 않기로 할 수 없이 경관이 굴속에 들어가서 붙들고 나왔으며 소지품은 수류탄 1, 화약과 뼈라 약간이다.”

**△브라운 대좌 감상담 :** “1개월 전이면 산길 통과는 가능성이 없었으나 오늘 여러분이 본관과 동행한 바와 같이 아무 위험성이 없이 교통은 복구되었다. 도민은 직장에서 부지런히 생산에 노력하기를 바란다. 촌농민들은 경관을 보면 공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일부 악질경관들로 말미암은 것으로 안다.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여 평화로운 제주도를 만들고자 노력하련다.”

---

5) 북제주군의 오기인 듯.

■ 조선일보 1948년 6월 4일

#### 4·3폭동 공판 / 사형 등을 구형

【제주 합동】 지난 26일 서울로부터 공로 제주에 도착한 양원일(梁元一) 최동욱(崔東郁), 황성희(黃聖熙) 김상묵(金相默) 제(諸) 심판관과 박근영(朴根榮), 이주신(李柱臣), 안기영(安基永) 3검찰관은 31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날 양원일 심판관은 과거에 볼 수 없는 초속도로 공판을 진행시켰는데, 4·3 폭동 사건 관계 4건의 심리를 마치고 사형 1명, 10년 징역 1명, 7년 징역 2명, 5년 징역 1명 등 검찰관측 구형이 있었다.

■ 조선일보 1948년 6월 4일

#### 군은 작전 경찰은 치안 / 소요 처리에 이(李)참모총장 담

선거개시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소요사건은 그후 점차 확대되어 응원경찰의 과격만으로는 진압키 곤란하게 되어 드디어 경비대의 출동까지 보게 되었음은 기묘한 바이나 현지 군경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진압하고 있는지 또 본의는 아니면서도 폭도측에 가담한 동족에 대한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지 다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바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李亨根) 대령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폭동이 진정되지 않아 경비대와 경찰이 출동하고 있으나 그 임무에 관해서는 현지 군경 사이의 협정으로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경비대는 오로지 작전행동만을 하고 있으며, 경비대와 경찰 간에 서로 지휘 명령을 받는 일은 전연 없다. 현재 포로와 귀순자들은 비행장에 집결시켜 놓고 폭도와 양민을 엄격히 구별하고 폭도는 법에 의하여 처단을 받도록 될 것이나 일단 군에서 조사한 결과 완전히 양민이라고 인정되어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재조사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기로 되었다. 그리고 진압시간에 대해서는 확인은 할 수 없으나 약 1개월이면 현지 질서도 회복되고 선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4일



## 제주의 밤은 죽음의 거리 / 산간부락에는 끊임없이 총성이 은은 / 1 읍 12면의 경찰지서 대부분이 피습

【제주도에서 조덕송특과원 발 조선】 4월 3일 미명에 돌발한 제주도사건은 날이 갈수록 혐악의 도를 가하고 있다. 구름 속 높이 솟아있는 한라산 속 무수한 동굴에는 당지에서 인민해방군(일명 한라산부대)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조직부대가 출몰하고 산간부락에는 끊임없이 총성이 은은하다. 읍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은 거의 그들의 세력 하에 있으며 이를 소탕하는 경비대와 경찰의 전투는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30만 도민은 지금 분화구 어구에서 있는 불안 가운데 있다. 1읍 12면의 경찰지서는 그 대부분이 습격을 받았고 그들의 가족 및 우익계 인사들에 대한 습격은 집중하였으며 또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연일 증가되는 경비대와 경찰 무장부대는 각기 소탕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진압의 시기는 속단을 불허하는 상태이다. 한편 경찰과 경비대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제주읍은 밤이 되면 죽음의 거리로 화한다. 이 모퉁 저 구석에서 남북의 야기를 진동시키고 터지는 총성은 살기찬 이 섬의 공기를 더 한층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 ■ 조선일보 1948년 6월 5일

#### 사설 : 제주사태 수습에 관하여

(1) 육해경비대 출동 이후 제주도 사태에 관한 2일부 통위부 발표에 포로 귀순자 3,100여 명이었던 숫자를 보고 사태가 점차로 진정되어 가는 듯한 감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소위 폭도측의 인원수가 전하던 이상 뜻밖에 많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통위부장 발표문에 '그 완강한 행동은 날로 증세해 갔다'고 했으니 그 증세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민의 혼인이 대부분 도민간에 많다는 특수 사정으로 보아 도민 중에는 폭도측 청년 중에 어느 누구나 대부분이 친척이 아니면 소위 '사돈의 8촌' 짝이라도 척분(戚分)을 가진 사람이 폭도측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고도(孤島)의 특수한 전통생활에서 가져온 자도민(自道民) 우선 혹은 비호의 소극적 배타심도 도와서 도민들이 흔히 폭도측 청년에 대하여 동정적 경향에 있었을 것을 심분 짐작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이미 2개월에 다수한 인원이 어떻게 산중 농성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그들이 약탈에 능

했다 하더라도 다수한 주민의 실효있는 동정적 무엇이 없이는 용이(容易)히 가능치 못했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의 동정적 감정이나 직접 간접의 응원적 태도를 가산한다면 제주도의 사태는 일종의 반란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그리고 통위부장 발표문 중 다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바는 폭도측에서는 ‘단선폐지, 경찰무장 해제 등 무리한 요구를 표방’ 하였다고 했으니 그 많은 폭도 청년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단선반대론에 투철했을까. 과연 남로당 계열의 책동이랄까 또 공산세력이란 것이 제주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사를 결(決)하려고 할만큼 열렬하게 삼투(滲透)되어 있었을까. 우리는 그러했으리라고는 성큼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째서 그 세력은 ‘날로 증세’해 갔을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일반은 이에 크게 궁금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금후의 진압, 처리에도 이 점을 구명할 것은 제주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토 전민중의 인민을 명랑케 하는 데 더 필요할 것이다. 다시 통위부장 발표문을 인용하니 “육해경비대는 신성한 건국초기에 동족상잔의 애사(哀史)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은인자중하여 왔다는 것”과 부득이 행동을 개시케 됨에 ‘사살주의’가 아니고 ‘생금주의’로 임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그 태도의 온당함을 느끼는 것이다. 오늘의 경비대는 앞으로 국군의 기초가 될 것이어서 건군의 역사를 위하여 더구나 비록 폭도나 반란의 진압이라 하더라도 동족상잔의 피의 기록을 최대한 피하고 또 막을 수 있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군이라는 명예로써 해도 국방 즉 외적을 가산한 국가보위에 그 주정신·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국내치안에 동원되어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물론 본의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번같이 출동치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 할 때라도 ‘동족상잔의 애사’를 남기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앞으로 발전될 어느 기간까지의 정세를 살핀다하면 군의 전략선이 국토 중심부에 치중되어야 할 경향에 있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경비대가 제주도 사건에 동원되어 그 조처가 어떠했는가 하는 기록은 금후 건국에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3) 제주도사태 수습에 대하여 제주 비상경비사령관은 전신시설의 복구, 금년 하곡수집의 철폐, 그리고 하산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양민을 관용 포섭할 것의 3개 항목의 포고를 내렸다고 현지통신이 전하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동 사령관은 행정 사법에 대한 광범위의 권한이 부여된 듯이도 보이는데, 사태수습에 기민(機敏)을 위하

여서는 그러한 비상조처도 필요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과 권한이 어떤 것인지 아직 미확하므로 이에 대하여 더 논의할 수는 없으나 지금 사태수습을 위하여 군과 경찰이 협동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또 사태의 완전 진정까지는 아직 더 시일을 필요하리라는 관측으로 보아 이제라도 비상사태를 총괄 처리할 책임자를 가장 유능한 자로서 최고장관으로부터 특명하고 동시에 광범위의 권한을 부여하여 시의에 적절한 처리를 하게 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문제는 법에 의하여 처단될 주동자에 대한 거기에 있다느니 보다는 다수한 부화자(附和者)에게 있을 것이니, 실로 하루바삐 ‘하산하여 생업에 종사할 양민에 대하여 관용 포섭할 것’, 거기에 금후 수습책의 중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평상시의 심리로 돌아가 안심하고 일하도록 할 것이다. 거기에 실로 예로부터 일러온 목민의 길도 있을 것이요 위정자의 활달자재(闊達自在)한 수완도 있을 것이다. 믿고 바라거니와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남해 고도의 그들의 평화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군정당국은 만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뜻하지 않은 불상사로 인한 경찰관이며 인민이며 생명재산의 손실을 슬퍼할수록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 동아일보 1948년 6월 5일

##### 인민군 사령부 소탕전 제주도에 전개 / 국경대(國警隊) 맹활동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준동 중인 공산당 계열의 반동분자들을 소탕 중인 국방경비대는 지난달 31일 하오 8시 반 동도 남제주군 대정면 동굴속에 있는 인민군 사령부를 공격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포로 10, 사망 2, 99식 소총·죽창·대검·전화기·각종 탄약·화약뇌관 등 다수. 중요서류 41권 피복 취사도구 식기 등 다수.

(같은 기사 대동신문·서울신문·자유신문·조선중앙일보· 48. 6. 5)

#### ■ 한성일보 1948년 6월 5일

##### 전소(全燒) 부락도 다수 / 도로 교량은 모두 파괴 / 제주도 현지보고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과원 발 조동】 현지 시찰기자단 일행은 항상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국방경비대 장교 안내로 교전지구를 거쳐 피해당한 각 부락을 시찰하였다. 도중 무수한 도로와 교량은 모두가 폭도들의 방해공작으로 파괴되었다. 무수한 전주는 배어진 채로 밭고랑에 넘어져있으며 절단된 전선은 마치 광녀(狂女)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처럼 바람에 너풀거리고 있다. 비교적 제주읍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촌락은 경비대와 경관들의 보호지구이다. 산간부락은 순전히 폭도측 세력 하에 있는 것이다. 경관들은 주로 해안선을 방위하고 내외 연락을 두절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있으며 경비대가 주력이 되어 산악지대를 소탕하고 있다. 어느 부락이나 첫인상은 비참 그것이다. 전부 산에 들어갔다가 귀순한 부락, 경찰측과 폭도측의 중간지대에서 공포에 싸여있는 부락, 그들은 모두가 백지처럼 묵묵하고 무표정이다. 어떤 부락은 150호 중 불과 45호를 남기고 전소되었으며 또다른 부락은 강아지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소탕전은 계속 진척되고 있으며 연일 늘어가는 폭도측의 포로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폭도측의 수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폭우를 무릅쓰고 전진하는 경비대와 같이 기자단 일행은 바쁜 여정을 쫓아 일선을 넘어가며 이 민족적 참사를 살피고 있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48. 6. 5)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6일

보리는 익어 가는데 농부의 그림자도 안보이는 들판 / 상공에는 미군기(機) 해안에는 미 군함(艦) / 제주도 현지보고

【제주도에서 조덕송특과원 조선】 작전 전투지구인 한라산록을 살핀 기자단 일행은 2조 12명<sup>6)</sup>으로 된 소란의 제주도를 주야를 무릅쓰고 일주하였다. 비교적 남군(南郡)이 북군에 비하여 피해가 적은 편이나 어느 한 마을이고 평온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가장 경찰의 경비가 잘되었고 군소재지에 가까워서 피해가 적었다 하는 성산면이 6명의 사자(死者)를 내었으며 3동의 가옥이 파괴되어 있다. 격심한 곳으로서는 부락이 전소한 데가 있으며 부락민이 소위 인민군과 합류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는 곳도 있다. 12면을 통하여 제주전도에 걸쳐 한군데도 전주가 제대로 서 있는 곳이라고는 없다. 제주도 명물인 석다(石多)의 돌과 바위는 폭도들의 뼈라 게시관화 하고

6) 2군 12면의 오기인 듯.

도로 장애물 구축시 이용되고 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소각된 경찰지서 면사무소 주민가옥 등의 잔해가 이곳 저곳에 험상한 꼴로 나타난다.

경찰의 보호아래 항보단이 조직되어 철야 경계를 하고 있으나 폭도들은 모르는 사이에 내습하여 바람같이 사라진다. 또한 경찰의 응원대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희생된 경찰의 유골과 부상자를 실은 배가 육지로 돌아간다 한다. 상공에는 미군정 찰기가 날고 제일선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미군의 지프가 질주하고 있으며 해양에는 근해를 경계하는 미군함의 검은 연기가 끊임 없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 농번기인 제주도에는 황금빛 같이 익어가는 보리가 그대로 말라가고 농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들 판은 한산하기 짝이 없다. 폭동으로 불안한 이곳에 또한 두고도 못먹는 기아의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6. 6)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6일

#### 최초의 출진(出陣)이 동족에겐 유감 / 민중동맹 담

5일 민중동맹(民衆同盟)에서는 제주도 사건에 대한 통위부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고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동족상잔의 세기적 비극이 드디어 제주도에서 시발하였다. 이번에 통위부에서는 제주도에 정식으로 출동 공격하여 그 전과를 ‘통위부 발표’로서 공표함으로써 돌연한 전쟁의 양상을 제정(提呈)하고 있으니 진한 피가 서로 영겨있는 이 땅 형제 사이에 이 무슨 슬픔이란 말인가. 외관(外寇)에 대해서만 빛나는 전투력을 발휘한 국방 경비대로서 그 최초의 출진이 우리 동족에게 감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인 것이다. 당국은 모름지기 이에 대한 전투를 즉시 중지하고 뜨거운 동족애로써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전력하여 주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이다.”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8일

#### 제주도사건과 각 정당들의 태도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일반 인민들은 심심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각당에서는 다

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근민당(勤民黨)** : “우리 민족의 생명 재산 보호를 그 성업으로 자인하는 국방경비대가 제주도민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은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며 더욱이 그 출동 이후 전과 운운의 발표는 마치 동족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민족적 원수를 토벌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실감을 주는 것이니 민족의 영예와 민족적 양심을 위하여 이와 같은 동족상잔의 반민족적 거사를 즉시 중지하기를 엄숙히 요구하는 바이다.”

**신진당(新進黨)** : “제주도 사건에 관하여 동족상잔의 참극을 즉시 중지할 것을 전민족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5월 31일 국방경비대의 출동을 보게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민족간의 분열을 심화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민족정기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더욱 신중한 행동을 요망하는 바이다.”

**사민당(社民黨)** : “금반 야기된 제주도민의 봉기는 해방 이후 국내 최대의 사건으로 오인(吾人) 삼천만 전민족의 관심은 이에 총집중되고 있는 이 때 국방경비대의 발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심사(深思)케 하고 있다. 그들의 제1출동이 동족간 분쟁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심통(心痛)케 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 민족애로써 탈(脫)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믿는 바이다.”

**민주한독당(民主韓獨黨)** : “(1) 제주도민의 봉기는 부패된 관리의 행정상 과오로 기인이 된 것이다. (2) 생을 위하여 봉기한 인민에 대하여 선도하는 것이 당국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이거늘 경찰과 경비대를 출동시켜 인민을 상대하여 전투적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큰 죄과라 아니할 수 없다. (3) 이 사건을 무마키 위하여는 친일파의 부패관리를 숙청하고 제주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주의자를 등용하는 때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8일

사건원인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 뿐 / 최고지휘관 브라운 대좌  
기자단에 답변 / 제주 현지보고

【제주도에서 조덕송특파원 발 조선】 현지시찰 기자단 일행은 제주도 치안행정의 최고지휘관 브라운 대좌를 찾아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하였다.

(문) 귀관의 내도목적은.

(답) 딘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약 10일전에 왔는데 본도 치안복구가 나의 사명이다.

(문) 치안회복에 성과가 있는가.

(답) 온 지 한 열흘밖에 안되어 자세히 모르겠다.

(문) 귀관의 치안방침은.

(답) 산에 들어가서 있는 양민을 속히 귀촌시키는 것, 하곡추수를 □□시킬 것, 그리고 그 곡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 지방민의 여론은 소요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것이 정평인데.

(답) 속히 진압시키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나의 계획대로 나간다면 약 2주일이면 대개 평정되리라고 믿는다.

(문) 경찰과 국방경비대간에 알력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답) 내가 온 후로는 잘 협력하고 있다.

(문) 현재까지의 진과는.

(답) 확실한 정보를 못하였으나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많이 부락으로 돌아왔고 무기 압수도 많다.

마지막으로 동 대좌는 이번 폭동사건의 원인을 구명하여 보았는가하는 기자단의 질문에 “나는 원인에 대하여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시키는 것 뿐이다. 내가 평정에 성공한 다음 다시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조선인 행정기관의 책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제주도 하곡수집은 철폐되고 있다. 이것은 도민의 심리상태의 안정을 꾀한 것이라기보다 사실 탈곡식을 거두어드릴 농부가 없다는 것이 직접 원인일 것이라고 지방유지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다.

#### ■ 경향신문 1948년 6월 9일

부녀자폭행 후 생매(生埋)까지 / 이렇다, 제주도의 인민항쟁 진상 / 조(趙)경무부장 담

조(趙)경무부장은 공산계열이 감행한 만행의 진상에 대하여 8일 대략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질서를 교란하고 치안을 파괴하여 북조선과 같이 소련에 예속시키려는 공산계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무자비한 폭동

만행은 총선거 실시에 따라 민중에 대한 공포심 주입과 단말마(斷末魔)의 최후 발악으로 더 한층 포악과 잔인성을 나타내었으니 그 일례를 제주도 폭동에서 들면 다음과 같다.

폭동이 일어나자 1읍 12면의 경찰지서가 빠짐없이 습격을 받았고, 저지리 청수리 등의 전 부락이 폭도의 방화로 타버렸을 뿐 아니라 그 살상 방법에 있어 잔인무비하여 4월 18일 신촌서는 육순이 넘은 경찰관의 늙은 부모를 목을 잘라 죽인 후 수족을 절단하였으며, 대동청년단 지부장의 임신 6개월 된 형수를 참혹히 타살하였고, 4월 20일에는 임신중인 경찰관의 부인을 배를 갈라 죽였고, 4월 22일 모슬포에서는 경찰관의 노부친을 총살한 후 수족을 절단하였으며 임신 7개월 된 경찰관의 누이를 산 채로 매장하였고, 5월 19일 제주읍 도두리에서는 대동청년단 간부로서 피살된 김용조의 처 김성희(金性姬·24)와 3세 된 장남을 30여 명의 폭도가 같은 동리 고희숙(高熙淑) 집에 납치한 후 십수명이 윤간하였으며, 같은 동리 김승옥(金承玉)의 노모 김씨(60)와 누이 옥분(19), 김중삼(金仲三)의 처 이씨(50), 16세 된 부녀 김수년(金水年), 36세 된 김순애(金順愛)의 딸, 정방옥의 처와 장남, 20세 된 허영선의 딸 그의 5세, 3세의 어린이 등 11명을 역시 고희숙의 집에 납치 감금하고 무수 난타한 후 ‘눈오름’이라는 산림지대에 끌고 가서 늙은이, 젊은이를 불문하고 50여 명이 강제로 윤간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총창과 죽창, 일본도 등으로 부녀의 젖, 배, 음부, 볼기 등을 함부로 찢러 미처 절명되기 전에 땅에 생매장하였는데 그 중 김성희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폭도들은 식량을 얻기 위하여 부락민의 식량 가축을 강탈함은 물론 심지어 부녀에게 매음을 강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천인이 공노할 그 비인도적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동아일보·한성일보 48. 6. 9)

#### ■ 조선일보 1948년 6월 9일

귀순권고에 혈서반항 / 경비대가 말하는 인민해방군 / 제주도사건 현지보고(4)

【제주도 발 조통】 짧은 여정의 기자단 일행은 중대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방경비대 출동 부대를 따라 최전선으로 진출하였다. 선진부대에 붙잡힌 폭도측 포로들이 도보로 혹은 자동차로 연달아 호송된다. 60격의 노인도 있으며 12~13세 되는 소년



도 있다. 가끔 여인네들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다. 군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경비대 장정들의 용모는 전사의 그것이다. 조국의 방위에 몸을 바친 장정들. 그 누가 뜻하였으랴. 그들은 지금 남명의 고도에서 소위 인민해방군을 평정하기 위하여 동족상잔의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젊은 장교 한 사람이 호령을 지르는 사이사이에 일행에 말한다. 경찰에 대하여서는 결사적으로 싸우는 소위 인민군이 경비대가 출동하면 대개 도망친다. 무차별 사격을 삼가고 있는 경비대의 두통거리의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한 것이다.

거미줄처럼 무수히 과놓은 한라산 굴속에 인민해방군의 총사령부가 있다 한다.

한 마을을 통과할 때 “여기가 바로 인민군 부락사령부가 있었고, 인민재판소가 있었고, 인민보안서까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마을은 폐허된 고도처럼 고요하기 짝이 없다.

경비대의 귀순 권고에 대한 그들의 회답은 전후 3차에 걸쳐 경비대의 양심적인 민족적 행동을 요망한다고 강조하고, 무장경관 해산, 테러단체 즉시 해산, 단정반대, UN조위(朝委) 철폐, 통일정부 수립 만세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 친애하는 장병이 왜 우리가 총을 들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 원인을 몰라 한다면 우리 인민군은 정의의 이름 앞에 백만군이 오더라도 싸울 것”이라고 혈서로 선고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경비대는 적극적 태세로 나서게 된 것이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중앙일보 48. 6. 9)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0일

#### 불안에 싸인 그들, 묵묵하고 활기없다 / 제주현지보고

【제주도에서 조덕송특파원 발 조통】농림기임에도 들판에서 볼 수 없는 촌민을 만나러 일행은 부득이 마을로 들어갈 수 밖에는 없었다. 철갑 군대무장을 빌려입은 일행의 모양을 무엇으로 인정하였는지 길에 서있던 마을사람들은 피하는 듯 집안으로 들어간다. 순박하여야 할 그들의 표정이 왜 이다지도 공포와 회의의 빛에 말없이 어두우냐. 이 마을 역시 한번 산으로 올라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다.

간신히 일행의 신분 목적을 알린 다음 더듬더듬 대답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다시 부락으로 돌아왔지만 옷을 벗고 밤잠을 잔 적이 없었다. 눈 앞에도 거두어드릴 곡식을 두고도 무서워서 밭에 갈 수 없고 산사람이 오면 또 언제 산으로 올라가게

될는지!

그들은 되도록 말하기를 피한다. 한라산을 중심한 폭도들을 그들은 누구나 ‘산사람’ 이렇게 부른다.

국방경비대나 경찰이 주둔하면 그들은 양민이 되고 산사람이 내려오면 또한 그들 자신도 산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누가 이 고도에 옛날의 평화가 다시 오기를 원하지 않으리요, 누구보다도 도민 자체의 암담한 가슴이 이를 더 아프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소” 기자가 묻는 말에 “그리말수다’(글썩을시다)”하고 다시 말이 없다.

그들은 확실히 동란의 화중에 있으면서 그들 자신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 48. 6. 11)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0일

#### 재선(再選) 불능 상태 / 제주선관위 재연기 요청

【제주도에서 이□□특파원 9일 발 합동】 오는 6월 23일 시행하기로 된 북제주군 갑을 양구의 국회의원 재선은 상금도 시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제주선거위원회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하여 재선거일 재연기를 요청하였다 하는 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한다.

(1) 제주도내 2군 1읍 12면에 1,206명의 선거위원이 있었는데 그 중 15명이 살해당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남제주 선거위원들은 피신중에 있는 사람도 많으나 대부분은 후환이 두려워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다.

(2) 북제주군내 133개소의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명부는 거의 그 절반이상이 탈취 혹은 방화 등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지 못할 현상에 있다.

(3) 5·10선거에 입후보하였던 북제주군 갑구의 4명과 을구의 4명은 한사람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으니 무투표 선거로 할 수도 없는 현상이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일보·현대일보 48. 6. 10)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0일

살상 말라 / 학병거맹(學兵拒盟)서 담화

학병거부자연맹에서는 8일 제주도 사건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 “즉시 살상을 중지하라”고 주장하였다.

■ 한성일보 1948년 6월 10일

제주도에 이변(異變) / 미인(美人) 살인미수사건

제주경찰청 내에서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판명된 바에 의하면 당지 미군 모기관에 근무중인 미인 메리트는 지난 5일 밤 12시경 제주경찰청내에 침입하여 사찰과 김명성(金明星·25)형사를 권총으로 쏘아 하복부에 중상을 입힌 다음 지프를 타고 도주한 사건이 있어 미군당국에서는 6일 특별비행기로 피해자를 부평(富平) 미 육군병원에 입원시키는 한편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취조 중이라 한다. 【합동 제공】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6. 10)

■ 노력인민 1948년 6월 11일

망국 단선단정 분쇄전의 영웅적 혈전 벌어진 제주도 (하)

이리하여 인민자위대의 활동지역에는 인민위원회가 나서고 농민위원회, 민애청, 여맹 등 민주주의 사회단체가 급속히 발전하여 마치 해방구와도 같아서 전 인민의 결속은 더욱 더 굳고 전 인민의 사기는 더욱 더 높아가고 있다. 인민과 자위대와의 연결을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곳에서는 한 개 조그만 예에 불과하다. 한 도민이 경찰지서에 달려와서 “폭도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죽이고 있으니 어서 와 주시오”하고 호소하였다. 무장경관 30명이 곧 동원되었다. 도중에서 “내가 폭도들을 유인해 올 것이니 당신들은 이 숲 속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도민은 자기 집개로 달려갔다. 그 찰나! 지뢰가 폭발되어 그들은 전멸되고 말았다.

5월 10일 인민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산에 모였을 때 한 노인이 인민자위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군들은 힘을 합해 가지고 도내 전 지서를 일제히 쳐부숴라. 그러면 우리 인민들은 쌀과 나무와 모든 생활필수품을 읍내 반동놈들에게 보내

지 않음으로써 그놈들을 자멸시킬 것이다. 이 전법은 우리 인민들이 ‘이제수 민란’때에 사용하여 성공한 전법이다.” 이에 대답하여 인민자위대 선전원은 “우리는 그런 전법은 쓰고 싶지 않다. 읍내에는 반동 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도 있으며 농민들은 나무를 팔아 성냥 등을 산다든가...여러 가지 생활상 필요로 읍내와의 거래를 끊을 수는 없다...” 노인은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국가의 흥망을 결하고자 전 조선 인민이 총궐기하였고 전 도민이 죽기를 한하고 싸우는 이 마당에 그까짓 읍내와의 거래를 생각한단 말이나”고 고함을 쳤다 한다.

이와 같이 자위대는 매국멸족의 단선단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총궐기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완전히 체현함으로써 인민 자신의 무장세력으로서 인민과의 철석같은 결속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과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인민의 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 (6) 반동진영의 동향

(가) 경찰 △긴급조치 : 경찰은 이 사건이 발발되자 당황 낭패하여 본래 있던 경찰 약 500명으로는 손도 못대므로 급거 응원대 800명과 경비대 1,000명을 청하여 왔으나 겨우 방비태세를 갖추고 요소 요소를 경비하는 정도의 역할과 제주도 전체를 외부와 차단(?)하는 동시에 도내 각 부락을 차단(?)하여 인민들과 자위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고 하는 정도밖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 아닌 전시체제 경비총사령부 설치 : 이 사건에 당황한 반동경찰은 제주경찰청장을 이동시켜서 극악질인 인천서장 최천(崔天)이를 파견하는 동시에 10월 인민항쟁 당시 그 진압의 공로자(?)이라는 공안국장 김정호를 경비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강압태세를 갖추는 한편 제주도 출신 공보실장 김대봉이를 보내어 선무공작(?)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경관과 반동청년단과의 합작의 폭압 : 사건이 발발되자 남조선 각지에 있는 극악한 강도 테러단 서청, 청충, 대청, 독청 등 약 800명을 동원하여 경찰과 일체가 되어 각 부락에 침입하여 부락청년들을 납치하여 해변 또는 산으로 끌고 가서 총살학살을 감행하는 동시에 방화, 파괴, 약탈, 강간, 가축도식 등 갖은 야만적 난폭 행동을 다하여 인민들의 놈들에 대한 증오는 골수에 사무치게 되었다. 한림면 금악리 민가, 제주읍 화북리 민가의 방화는 모두 반동들의 비행의 그 일례에 불과한 것이다.

(나) 경관 반동청년의 탈출자 속출 :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매국 반동세력의 단말마적 폭압과 발악적 횡포가 극심할수록 인민들의 놈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와 분격

은 더욱 높아지며 인민들의 자위대에게로 쏠리는 마음은 더욱 커져 자위대의 조직과 세력은 강대해질 뿐이다. 인민자위대의 거래와 조국을 위하는 그 숭고한 정신과 영웅적 투지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렇게도 극악 무쌍하던 악질경관과 강도 테러 단들도 이쯤 와서는 무슨 구실이든지 잡아서 이 섬을 탈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순경들은 복장을 버리고 도망하고, 서정원은 몽둥이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으며, 반동분자로 지목되던 농업학교 학생 4명까지도 이미 도망쳐 버렸다. 순경은 사직원을 냈다가 피검되는 형편으로 일본으로 가는 밀선(密船)에는 나날이 인민에게서 완전히 유리된 이런 놈들의 도망꾼으로 상황을 이루고 있다.

(다) 국방경비대의 동향 : 응원경비대는 상륙하자 휴전 귀가의 권고빠라를 뿌려 회유책을 취하였으나 이 사태의 동기가 경찰의 극악 잔인한 폭압에 있으며 인민자위대의 중심목표가 매국멸족의 단선단정을 분쇄하려는데 있음과 인민자위대의 위대한 순국정신과 이를 열렬히 지지하는 인민의 힘찬 동향을 보고 그들도 일정한 지역에 주둔만 하고 있을 뿐이다.

(라) 미국 군대 : 사태의 중대함을 보자 하지는 미군을 직접 출동하여 경찰까지 시켰다고 한다. 순국열정에 불타는 인민자위대의 행동이 과감하고 인민의 지지가 강대함을 본 그들도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7) 인민자위대에게 영광을 드리며 단정수립을 사전에 분쇄하자!

이상이 오늘까지 우리 손에 들어온 제주도 상황의 개관이다. 제주도 인민의 위대한 애국정신과 영웅적인 투쟁력은 이제 전세계 인민 앞에 유감없이 선양되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침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멸족으로써 사욕을 채우려는 이승만 김성수 조병옥 등의 매국도당들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악질 반동경찰을 미국제 무기로 무장시켜서 대량 동원하여 제주도 인민을 대량 학살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은, 아니 전조선 인민은 이제 순국의 열정에 불타고 있다. 양군 철퇴에 의한 조국의 완전독립을 전취하려고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인민들을 구하자는 전인민의 절규는 단정분쇄 투쟁구호와 함께 조국의 지축을 뒤흔들고 있다. 전 애국인민은 이미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만일 미제의 기치로 제주도 애국인민들에 대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남조선 전 인민은 총궐기할 것이다. 반동은 소수이며 인민의 힘은 무진장한 것이다.

형제 자매여! 친애하는 동포들이여! 제주도 27만 동포를 구하는 투쟁에 총궐기하

자! 제주도 동포들의 투쟁은 적들을 공포 속에 처박았다. 3천만 동포의 총결속 총궐기는 반동을 완전히 제압할 날도 멀지 않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제주도의 영웅적인 구국투쟁을 전국적으로 연결시키고 강화를 발전하여 단정음모를 완전히 분쇄하자! 미국군대를 철퇴시키자! UN조선위원단을 내쫓자! 이 길만이 우리 3천만이 사는 길이며 이 길만이 제주도의 우리 영웅적인 동포형제들을 구출하는 길이다.(5월 20일 기(記))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1일

#### 조선의 축도판 / 원인제거가 급선무 / 제주소요 현지보고

【제주도 발 조통】 제주도 사건 재판 관계자로 서울로부터 내도한 모변호사는 재판을 통하여서 본 제주도사건의 동태와 그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기자단 일행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폭도측의 소위 책임자는 하나도 구속되지 않았고 지금 재판에 회부된 자는 대개가 19세 내지 25세 정도의 청년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행동한 자들이다. 범정은 매일 울음의 바다로 변화였고 도민들의 고통은 지금 절정에 달하고 있다. 무고한 도민들이 폭도와 경찰의 중간에서 통탄의 희생이 되고 있다. 폭도측에서 요구하는 자금이나 식량을 제공하면 경찰은 그들을 처벌하고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기부금을 내면 폭도측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억울한 처지에 있으며 제주도에에는 지금 일대 복수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감정적 대립이 우심하고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살아나온 제주도의 급변 사건은 그 근본원인을 적출 해결치 않고 무력 제압만으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사건 해결책으로는 이것이 근본책은 못될지언정 외지에서 들어간 사설단체를 일체 해산시키고 제주도 출신자로 신망있는 자를 치정책임 부서에 등용함으로써 도민의 감정을 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접 살인 방화를 선동 교사한 외의 기계적으로 움직인 도민들을 처벌하지 말 것이다.

행정당국은 과거의 제주치정 상태를 인식하여야 하며 도민의 신망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폭도들에게 준 정치적 구실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역사적인 조선의 축도판이 급변의 제주도다. 끝으로 한마디 우는 어린애를 운다고만 꾸중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우는지 그 율게 된 원인을 없애주어야 할 것이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일보 48. 6. 12)

■ 현대일보 1948년 6월 11일

국방경비대 계속 활약 / 제주 폭도 소탕전 진행

국방경비대 정예부대는 제주도 한라산 주변 밀림지대와 민중에 잠복하여 준동을 계속중인 인민해방군 유격대의 소탕전을 실시중인 바 지난 6월 4일 정오 이후 7일 까지 다음과 같은 전과를 거두었다 한다.

포로 41명, 살상 3명, 초사(哨舍) 소각 1개소.

(같은 기사 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 48. 6. 11)

■ 경향신문 1948년 6월 12일

제주지사(濟州支社)서 소요 이재민 구호

조선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는 금번 소요사건으로 인한 이재민을 구호하고자 서울 본사로부터 의약품, 위생재료, 위안물자와 구호물자 등을 받아 가지고 현지로 출발 하여 많은 이재민을 구호하고 있다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2일

무장 경관 800여 / 날이 갈수록 살기 창일(漲溢) / 제주도 현지보고

【제주도 발 조통】 4월 3일 미명 12면의 각지서 습격을 군호로 벌어진 제주도 소요도 이제 두 달을 넘었다. 그동안 육지로부터 속속 파견된 무장경관 부대는 800을 넘고 남조선 각 지구에서 선발 집결된 국방경비대는 수천을 헤아리고 있다. 현지에는 미군인이 최고 지휘관으로 해경 국경 경찰을 통솔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간 기설 사설단체까지도 총을 메고 경찰의 대오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소요는 평정의 날을 엿보기조차도 어렵게 지금 요원의 불처럼 전도에 뻗쳐 꺼질 줄을 모르고 불어가고 있다.

경비대와 경찰에 붙잡힌 폭도는 약 6,000. 그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파견

된 판검사는 6월 1일 이후 연일 2~3건의 재판을 처리하고 있다. 소요가 끝나는 날이 또한 이 역사적인 재판이 끝나는 날이다. 대체 얼마나 되는 숫자의 도민이 이 법정에서 서게 될 것인지? 최천(崔天) 경비사령관 아래 경찰은 해안선에서 4km이내 지구의 수비와 치안에 당하고 있으며 각 지서에는 모래가마니로 구축된 바리케이드가 어머어마하다.

소요 당시 제주에는 제주도출신 청년으로 편성된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있었다. 일시 경비대에 대하여 여러가지 풍설이 많았다. 그동안 이 제주도출신 경비대 9연대는 육지의 다른 곳으로 이동되고 지금 혼성으로 편성된 제11연대가 산악지대의 소탕에 당하고 있다. 한라산을 포위 섬멸하기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의 수행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창일하여 가는 살기와 침예화하여 가는 도민의 감정이다. 살육의 참사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겠으나 이러한 것이 다시금 포화점에 이르기 전에 제주도는 평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6. 12)

#### ■ 서울신문 1948년 6월 13일

#### 북제주의 선거 무기 연기키로

단 군정장관은 거(去) 5월 24일 북제주도(島) 갑을 양구에 있어서의 투표가 5할에 미급(未及)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동시 재선거를 래(來) 6월 23일 시행하기로 명령한 바 있었는데 이 재선거를 무기연기 하겠다고 거(去) 10일부로 행정명령 제22호를 발표하였다.

#### △ 행정명령 22호

제1조 : 1948년 3월 17일부 국회의원선거법 제44조에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중앙선거위원회의 추천으로서 본관은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북제주도(島)의 갑구 및 을구 선거의 투표가 파괴분자의 행동과 폭력으로 인하여 해(該) 양 선거구의 5할에 미급한 투표구에 한하여 행하여졌기 때문에 1948년 5월 24일 그 무효를 선언하였음. 동시에 본관은 해(該) 양 선거구에서 1948년 6월 23일 재선거를 행하도록 명하였음. 제주도에서 파괴분자는 공중치안과 질서의 교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북제주도의 갑구 및 을구의 선거인에 대하여 해(該) 양구(兩區)



인민의 의사를 진정히 대표할 수 있는 평화롭고 혼란없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관은 자(茲)에 해(該) 양지구의 재선거를 무기연기할 것을 명함.

제2조 :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군정장관 윌리엄 던

(같은 기사 경향신문·한성일보 48. 6. 12 / 동아일보·조선중앙일보·현대일보 48. 6. 13)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3일

### 감정의 악화가 금반 사건의 도화선 / 제주도 현지보고

【제주도 발 조통】 옛자취 찾아볼 바 없이 폐허화한 제주도에 산울림이 아니라 또 한방 터져나오는 총성-무엇을 저주하는 군호의 소리인가.

육지에서 머느리를 데려오기는 하나 딸자식을 섬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도민들은 누구나 다 일가이며 친척이다. 오랜 피에 매어있는 그들 혈족의 생활전통은 한사람의 이해가 곧 전도민의 그것이 되는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봉건세력이 발달되지 못한 이곳에는 착취층이 없다. 누구나 지주이며 또한 누구나 다 일꾼이다. 그들의 생활이 균등한 탓으로 언제나 평화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형무소가 필요없는 곳이며 일제시 35명 외인 관리가 능히 치정할 수 있었던 곳이다.

작년 3·1 제주도 총파업 사건은 이러한 도민의 공통성과 단결성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을 것이다. “금반 사건의 도화선은 순전히 도민의 감정악화에 있다. 무엇 때문에 제주도에 서북계열의 사설청년단체가 필요하였던가. 경찰당국은 치안의 공적도 알리기 전에 먼저 도민의 감정을 □발시키는 점이 불소하였다. 왜 고문치사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거리에 놓고 있는 어린아이를 말굽으로 밟아 □□고도 말없는 순경에 도민의 눈초리는 매서워진 것이다. 직접 원인의 한 가지로 당국자는 공산계열의 선동모략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원인의 한가지로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33만 전도민이 총칼앞에 제가슴을 내어밀었다는 데에서 문제는 커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진정시키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에는 당국자의 참으로 애족적 □□와 현명한 시책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 광란을 통하여서 제주도의 참다운 인식을 하여야 되며 민심을 유린한 사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자단 일행이 들은 도민여론의 종합보고이다. 경찰과 경비대 그 앞에 서

는 폭도들 어느 편이 딴 나라의 민족이었다라면 문제는 지극히나 단순하련마는 제  
발 치안당국이 언명하는 짧은 시기에 이 참극이 끝나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1948년 6월 15일

제주도 사건 원인 / 첫째는 민심과 경찰 이반(離反) / 해결엔 무력보  
다 행정력 / 현지 시찰한 박(朴)검찰관 담

지난 5월 26일 서울로부터 제주도로 파견된 판검사 일행은 사건처리를 끝마치고  
지난 12일 공로(空路)로 무사히 귀경하였는데 검찰관을 대표하여 박근영(朴根榮) 검  
찰관은 14일 다음과 같이 그 실정을 말하였다.

“제주도에는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가 많은데 그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섞여 있으  
나 이번 사건이 전적으로 공산당의 지령에서만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 원인  
은 경찰이 민심과 유리된 것인데 사건이 발생하면 민중은 경찰에 신고를 아니하고  
방관하며 심지어는 반항까지 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경찰이 제주도 특수사정에 대한  
사찰을 등한시한 시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최고책임자는 사건 해결을 단시일내  
로 수립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 수습은 무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민심  
을 수습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경찰력과 행정력을 통일하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  
하다. 그리고 사설단체를 경찰력으로 이용한데 대하여 사설단체에 대한 비난이 높아  
가고 있다.”

■ 동아일보 1948년 6월 15일

덕망자 등용하라 / 박(朴)검찰관 제주시찰 담 / 폭도는 일본서 돌아온  
공당원(共黨員)

제주도 폭동사건에 관련된 피고들을 신속히 판결하기 위하여 당지에 출장하였다  
가 12일 귀임한 서울검찰청 박(朴根榮) 검찰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폭도 중에는 일본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공산당원들이 대부분  
이다. 이번 폭동은 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경찰이 민심동향에 대한 사찰이 불  
충분한 것과 민중의 협력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 최대의 결함일 것이다. 더구나 사  
설단체를 경찰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사건수습에는 무력도 필요하지만 도내에서

가장 덕망이 있는 인사들이 등용되어 경찰행정을 통괄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 서울신문 1948년 6월 15일

사태수습은 어렵겠다 / 박(朴)검찰관의 제주도 소요 시찰담

제주도 소요사건의 임시재판에 응원대로 파견되었던 서울지방검찰청 검찰관들은 지난 11일 전부 공로로 귀임하였는데 작(昨) 14일 박근영(朴根榮) 검찰관은 제주도 귀환담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사건의 도화선은 물론 공산당 계열의 책동에 있다고는 하나 원인(遠因)은 경찰관의 제주도민에 대한 그릇된 행동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제주도는 육지와 멀 뿐더러 생활조건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단결력이 굳고 배타심이 극히 강한 곳인데, 이러한 곳에 8·15이후 경찰관을 전부 타도 사람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언어 풍속이 다른 제주도민의 풍정을 인식치 못하고 매양 육지에서 하던 행동을 그냥 계속하였기 때문에 경찰과 민중이 대립하였고, 애당초 문제가 발단될 때 그들이 좀 더 아량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사태가 악화는 안되었을 것이다. 사태수습에 대하여서는 나는 자신을 못가졌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라산 주위가 600리나 되고 특히 곳곳에 바람막는 돌담이 구축되어 있어 지리적 조건이 극히 나쁘기 때문이다. 복안이라고 하면 이곳을 행정 특수구역으로 제정하여 행정 사법을 병합하여 명령계통을 단일화하여야만 강력한 도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5일

일인(日人) 내조(來朝), 제주도 문제에 / 기자회견서 하지 중장에 공개 질문장

5·10선거를 전후하여 남조선각지에는 제주도 사건을 비롯하여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겹쳐서 최근에는 조선민족의 철천지 원수 일본인이 또다시 이 강토에 나타나 커다란 의혹과 격분을 사고 있는 바 이는 조선민족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여 문제의 진상을 해명하고자 조선신문기자회에서는 미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제시 요청한 공개질문서를 14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좌기 2항의 사실은 우리의 민족적 중대사실로 기관의 책임있는 해명을 얻고자 조

선언론인의 대표적 집단인 본회로서는 귀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출하오며 단기간내에 진상의 발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제주도사건을 진압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점령군 소관기구일지라도 집단무력을 행사함은 민족전체가 반대하는 바이거늘 소문에 의하면 일제당시 제주도 요새구축 공사에 참여하였던 일본인으로 구성된 무장대 200여명이 토벌대로 참여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실이온즉 점령군 사령관의 책임에서 그 진상을 명시 발표할 것.

(2) 일제말기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조선통치기구에 중요한 책임지위에 있었던 수전(水田·일제총독부 재무국장) 염원(鹽原·동 학무국장), 강(岡·동 경기도 경찰부장), 뤄호(瀨戶·동 경기도지사), 유하(有賀·식은두취(殖銀頭取) 군도(君島·조은(朝銀)부총재) 소림(小林·광업사장)등의 내조(來朝) 목적 동기 점령군과의 관계 등을 천명할 것.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6. 15)

#### ■ 경향신문 1948년 6월 16일

**포착(捕捉)만 3천 수백 / 군은 동족애를 견지한다 / 제주도 사건 통위부 발표**

통위부에서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경비대를 파견하고 있는데, 그 간의 경위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폭도들의 만행은 묵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정의의 힘을 폭도측에 시사함과 동시에 재삼 귀순을 권고한 바 있었으나, 그들은 허세를 호창(呼唱)하며 군의 진의를 무시하고 더 한층 잔악한 폭위를 발휘하였다.

건국사상에 동족상잔의 애사를 피하려고한 군의 부단한 그 노력은 도리어 폭도대의 세를 조장시킬 뿐임에 귀착되었으므로 4월 27일을 기하여 부득이 군은 단호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시일관 민족적 정신으로 사살을 피하고 포착(捕捉)작전을 계속하므로 그 성과에 있어서 3천 수백 명 포착에 비하여 죽은 자는 수명에 불과함을 볼 때 과연 군의 진정한 지향이 자명케 된 것이다.”

#### ■ 대동신문 1948년 6월 16일

## 악질관리 행동이 큰 원인 / 이(李)검찰총장 제주도사건 담

검찰총장 이인(李仁)씨는 작 15일 출입기자단과 회견하고 혼란상태에 빠지고 있는 제주도 폭동사건 발생 근본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였다.

“내가 작년에 제주도를 시찰할 때에는 동도의 공산주의자는 불과 15명에 달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그 정도에 불과할 것인데 그와 같이 경민 사이가 악화되어 파괴적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은 제일 첫째로는 동지에 임명되어간 관공리측이 부패하여 관리의 근본적 정신을 떠난 모리행동을 선결문제로 하기 때문에 도민은 관리의 부정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경민간에 대립적 상태를 보이고 있던 한편 이들 도량(跳梁)하는 공산분자의 책동이 심하여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 사태에 비추어 동지내의 관공서(감찰서 검찰청 재판소 수뇌부의 인물) 개선문제가 가장 긴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악조건이 구비되고 모든 해결문제에 있어서는 도민의 성격에 초점하여야 하며 종래에 책동하던 극렬분자만을 근절하고 굴속에 잠복한 폭도의 신변을 보호한다면 폭도측은 응할 것이다.”

■ 서울신문 1948년 6월 16일

### 관공리의 개편뿐 / 제주도 사건에 이인씨 담

제주도 파견 검찰관들의 상세한 현지보고를 청취한 이인(李仁) 검찰총장은 작(昨) 15일 제주도 사태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제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것은 시정방침에 신축성이 없었다는 것과 관공리가 부패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제주도라는 곳은 워낙 살기 어려운 곳이고 특히 관공리들은 제주도에 가는 것을 무슨 정배(定配)나 가는 양으로 생각함으로써 인재될 만한 사람은 제주도로 안가고 보니 명예나 돈이나 바라는 친구들이 어찌 옳은 시정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부패상은 작년에 내가 갔을 때 이미 역력히 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계열에서 바늘로 이를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먼저 관공리의 인적 재편을 단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극히 용이한 일이다. 우선 사법·행정·경찰의 3수뇌부를 갈피 가장 양심적이고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임명하면

폭도들측에서도 안심하고 하산할 것이고 특히 굴속에 숨어 있는 소위 좌익지도자들도 무슨 구실이든간 찾아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으니 반드시 선정(善政)을 베풀 것을 당국에서 표시만 하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요는 인재를 얻는 곳에 있다고 나는 믿어 마지 않는다.”

■ 서울신문 1948년 6월 16일

제주도 전과 / 통위부서 발표

통위부 발표에 의하면 4월 3일 제주도에 폭동이 발생한 이래 국방경비대 xx연대 본부에서는 동족상잔을 없애고자 민족정신을 발휘하여 사살을 피하고 폭도 포획 3천 수백명에 대해 사자(死者) 불과 수명을 냈을 뿐이라는데, 폭도 둔영소(屯營所) 수개처를 소탕함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요간부 다수를 포획하였다 한다.

남로(南勞) 제주위원회 2명, 제주읍위원회 2, 제주특별위원회 2, 북촌자위대 11, 조천 한림 애월 인민해방군 유격중대 30.

■ 자유신문 1948년 6월 16일

요는 민심수습 / 관민이반이 한 원인 / 제주소요에 이(李)검찰총장 담

제주도의 소요사건은 아직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 소요사건에 대하여 이인(李仁)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제주도의 소요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번 소요는 관공리의 부패한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이다. 1년전 내가 동도를 시찰하였을 때 관공리의 부패한 것을 알았는데 결국 공산계열이 이를 미끼로 책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수습책으로는 100명의 경찰관을 보내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유능한 자를 보내어 민심수습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도 폭도들은 생명을 보장한다면 하산할 기세가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이를 포용하려면 동도 각 부문 관리 책임자를 좀 더 유능한 인물로 선출하여야 할 줄로 안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 48. 6. 16 / 조선중앙일보 48. 6. 17)

■ 조선일보 1948년 6월 16일

관공리의 부패가 원인 / 제주사건에 이인 검찰총장 견해

15일 이인(李仁) 검찰총장은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사건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번 제주도 사건으로 말하면 결국 관공리의 부패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1년 전부터 이미 그러한 부패상이 눈에 띄기 시작하여 개혁의 필요를 느끼고 있던 것인데, 금년에 들어 좌익분자들이 파종을 한 셈이다. 원래 제주도란 데는 모리배의 소굴이요, 그 외에 관리도 본토에서 질이 낮은 관리들이 가서 모든 부패한 행동을 취해 왔으므로 앞으로 간부, 인물의 배치도 변경할 것이나 도민들도 그런 현상을 없애야 할 것이다.”

■ 대동신문 1948년 6월 17일

43건을 판결 / 제주도로 파견된 판검사 활동

제주4·3 소요사건 처결차 서울로부터 내도한 판검사 일행 12명은 그동안 축적된 사건 중 피고 37명에 관한 42건을 판결하고 11일 공로 귀경하였다. 금반 재판의 특이한 예는 이쪽이 판례에 보기 어려운 살인미수에 무기징역을 언도한 사실 등이다. 판결사건은 다음과 같다.

△포고령 제2호 위반 32건, 최고징역 3년 최하 6월 △살인 2, 무기징역 10년 △동미수 2, 무기징역 △동 방조 1, 징역 3년 △방화 1, 무기징역 △살인예비 1, 집행유예 2년 △방화예비 1, 집행유예 2년 △왕래방해 2, 징역 2년. 징역 1년 이상 42건에 사건 피고자수 37명(제주 발 조선)

(같은 기사 동아일보 48. 6. 17 / 동광신문 48. 6. 18)

■ 동아일보 1948년 6월 17일

제주폭도 소탕 성과

지난 3일 통위부의 제주도 폭도소탕 성과를 16일 공보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피살 2명 △포로 3명 △노획품 : 99식 장총 1정, 카빈총 1정, 권총 2

정, 미M1 1정, 식량 약간, 식기 약간.

■ 조선일보 1948년 6월 17일

강대해진 인민위원회 / 경찰과 청년단의 과오도 일인(一因) / 제주도 사건에 양원일 판사 담

약 2주일간에 걸쳐 제주도를 시찰한 서울지방심리원 양원일(梁元一) 판사는 제주도 소요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제주도 소요의 원인으로는

(1) 해방 후 그 세력이 강대하였고 사실상 정부행세를 하여 왔던 인민위원회를 도민들이 너무나 과대히 평가하였다는 점.

(2) 경찰이 가혹한 행동을 함으로써 인심을 잃었다는 점.

(3) 청년단원들이 경찰에 협력하는 반면 경찰 이상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혹독한 짓을 함으로써 도민의 원망을 샀다는 점.

(4) 중국 일본 등지와 밀무역 기지가 되는 관계상 정치에는 등한하고 모리에만 열중하였기 때문에 관공리는 일반 도민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여 왔다는 점.

(5) 도민들은 타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있어 강대한 세력에 아부하고 지위와 재산을 보존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점.

(6) 남북협상을 과대평가하고 이에 많이 의지해 왔다는 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좌익은 이러한 정세하에서 도민의 사소한 불만불평을 신속히 포착하고 단선단정반대를 구호로 도민을 선동하였다. 4·3사건을 폭발시켰던 것이다. 금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제주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인측에서 제주도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경찰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군경간의 마찰을 제거하도록 하고 경비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 도내의 관공리를 재편성하는 동시에 정당·청년단체를 편달하고 도민을 계몽하여 사건수습에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7일

경찰 가혹으로 민심 이탈 / 급속 수습못하면 또다른 민요(民擾) 발생



## / 양원일 심판관 제주도 시찰담

약 2주일간에 걸쳐 제주도를 시찰한 서울지방심리원 부장 심판관 양원일(梁元一) 씨는 제주도 소요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제주도 소요의 원인으로서는 (1)해방후 그 세력이 강대하였고 사실상 정부 행세를 하여왔던 인민위원회를 도민들이 너무나 과대히 평가하였다는 점.

(2)경찰이 가혹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심을 잃었다는 점.

(3)청년단원들이 경찰에 협력하는 반면 경찰 이상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혹독한 짓을 함으로써 도민의 원망을 샀다는 점.

(4)중국 일본 등지와와의 밀무역 기지가 되는 관계상 정치에는 등한하고 모리에만 열중하였기 때문에 관공리는 일반도민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여 왔다는 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좌익은 이러한 정세 하에서 도민의 사소한 불만 불평을 신속히 포착하고 단선단정 반대를 구호로 도민을 선동하고 도민을 조직화해 상부조직의 지령 하에 사건을 폭발시켰던 것이다. 남로당의 현세로 보면 제주도는 전남도당부하의 조직체로서 위원장 김유환(金鑾煥), 부위원장에 조몽구(趙夢九) 조직부장에 김달삼(金達三)이 중심되어 수백명의 남로당원과 민애청원들로 구성된 친위대가 주동되어 있는 것이다.

금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제주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인측에선 제주도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경찰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군경간의 마찰을 제지하도록 하고 경비대를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도내의 관공리를 재편성하는 동시에 경찰로서는 민심을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민심수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간 금번 사태를 신속한 기간내에 진압하지 못하면 건국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초를 위시한 여러가지 해산물의 채취 불능으로 인한 수역원의 손실이 있을 것은 물론 하곡수확 불능으로 인한 도민의 식량난은 미구에 또 다른 민요(民擾)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현대일보 48. 6. 17)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7일

지서 습격한 경비대원 / 제주도에서 32명을 체포

제주도에 파견돼 있던 관검사 일행이 현지 국방경비대로부터 입수한 보고에 의하면 4·3사건 당시 대정면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서원을 멸살 소각하는 등의 반란을 일으킨 국방경비대원 32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지명 수배되고 있는 반란 경비대원은 41명이라 하는데 앞으로 이들을 처결하기 위하여 현지에 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된다고 한다.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6. 17)

■ 경향신문 1948년 6월 18일

‘동요기세’ 농후 / 산중폭도도 군의 온정에 감격 / 제주사건에 통위부 발표

통위부에서는 제주도 폭도들이 동요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미 체포된 폭도 3천 수백 명의 처치에 관하여 일반은 의아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 중 살인 방화 약탈 등 포악행위 등 범죄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시설 파괴된 도로 통신시설 교량 등의 복구공사에 수일내로 취업시킨 후 각자 식량을 배급하여 따뜻한 처치로 귀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의 참뜻을 안 무고한 양민은 감격하고 있으며 또한 폭도측에서도 동요의 기세가 보이고 있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6. 18)

■ 자유신문 1948년 6월 18일

면소(面所) 학교 개문(開門) / 경관은 ‘고문철폐’를 서약 / 제주사태 점차 평온

제주도 치안군 최고사령관 브라운 대좌는 현 제주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자에게 말하였다.

“본관이 취임하여 약 2주일이 지났는데 그간 사건은 상당히 진압되었다. 최근 내습하여 오는 폭도의 수를 보면 대개 5명 내지 8명 정도이다. 이 섬은 대체로 안정되었으며 지난 7~8 양일간 도내를 시찰한 결과 각 면사무소는 사무를 개시하였으며 학교도 개학하였고 전화선도 대부분이 복구되어 있으므로 단기일 내에 완전 복구될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전의 상태까지 돌아가기에는 아직 시일을 요할 것이다. 본

사건 진압에 참가한 경관이 양민을 학살하여 여론을 일으킨 일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관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현재 5~6명의 경관을 살인혐의로 구속 취조하고 있다. 한편 도내 전 경관에 대해서는 ‘고문철폐’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민주경찰의 정신으로 사건을 수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

(같은 기사 조선중앙 48. 6. 17 / 동광신문 48. 6. 19)

■ 한성일보 1948년 6월 18일

제주경찰청장 정직처분

【제주 발】 제주도 경찰감찰청장 최천(崔天)씨는 지난 11일부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한다. 동씨는 금번 사건이 돌발하자 경무부 특명으로 인천경찰서장으로부터 당시에 부임하여 왔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동씨는 사건수습처리에 있어서 부하감독 불충분 등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 한다.

■ 동아일보 1948년 6월 19일

제주경찰 신기구 / 감찰청을 경찰청으로 / 2서(署) 신설하고 대량 증원

경무부에서는 동란 중에 있는 제주도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원 현재의 제주경찰감찰청을 경찰청으로 승격하여 경찰장으로 청장을 임명할 것이며 경찰서를 들썩이나 증설하고 경찰관도 증원배치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정직중이던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새로 36세의 활동가 제8관구경찰청 부청장 김봉호(金鳳昊) 총경이 17일 임명되어 18일 현지에 부임하였다. 그리고 전(前)청장 최천(崔天)씨는 정직이 해제되어 경무부 출사로 되었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조선일보·한성일보·현대일보 48. 6. 19)

■ 조선일보 1948년 6월 19일

경비대 숙소서 박진경 대령 암살 / 딴 장관, 직접 조사차 제주행

18일 공보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에 있는 국방경비대 제11연대장 박진경(朴珍

경·27) 대령은 18일 오전 3시 15분경 동 연대본부 숙사에서 암살 당하였다는데 범인은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으며 한편 딘 군정장관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의 총포연구 권위자 2명을 대동하고 18일 정오 공로(空路)로 제주에 향하였다 한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동아일보·한성일보·현대일보 48. 6. 19)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9일

제주사건에 인공당(人共黨)서 담화

17일 인민공화당(人民共和黨)에서는 제주도사건에 대하여 “원인은 모군정법관의 시찰담으로 보더라도 관료의 잘못된 것이 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상잔의 무력토벌은 부당하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 대동신문 1948년 6월 20일

대청 담화 / 질서유지 위해 희생뿐 / 제주청년단에 심판관 담 유감

제주도를 시찰한 서울 지방법원 심판관 시찰담에 관하여서 대청 선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 소요원인의 하나로서 청년단체 행동에 언급하여 단원이 경찰 이상의 경찰권을 행사한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식부족도 유만부동이다.

청년단체는 살육전이 발단됨에 일반민중과 사회질서를 위하여 자진 희생당한 것이므로 오히려 사회적 동정과 후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단체가 경찰에 협력한 것이 과오라면 부득이 이렇게 같이 못하게 한 당국의 불철저한 행정의 책임이 있음을 군정당국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동광신문 1948년 6월 20일

폭동하는 제주 수습에 거물 청장 배치 / 김(金) 8관구 부청장 불일

## 부임(赴任)

천하가 다 잘 주지하고 있는 제주도 사건은 날로 심각하여 가며 동족살상이라는 우리 역사상 볼 수 없는 대참상을 연출하고 있으며 경무부를 비롯하여 국경대에서는 사건 수습에 불철주야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찰은 거듭 실패하고 있음에 비추어 전도가 극히 우려되는 바 금반 경무부 내에서도 굴지의 수재로 명성이 높던 제8관구경찰청 부청장 김봉호(金鳳昊)씨는 조(趙)경무부장의 소환을 받아 지난 15일 상경, 동 18일에 귀광(歸光)하였는데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전기 김부청장은 조경무부장의 특청으로 “제주도 사건 수습에는 당신 외에는 없소”라는 많은 기대 아래 제주도 경찰감찰청장의 요직에 취임키로 되어 불일간 제주도로 향발하게 되었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전기 김부청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소감을 피력하였다.

김봉호씨 담 : “전남에 온 지 불과 2개월이 못되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세만 지고 떠나니 섭섭하기 짝이 없다. 천하가 다 알다시피 지금도 제주도는 우리 역사상 보지 못한 동족살상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 출신인 나는 향토애에 호소하여 우리 경찰 자신의 결점을 시정하고 민간측에 결점이 있다면 시정할 결심이나 지금까지의 정보를 듣고 피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다. 나는 5대차 가게되는데 제주도사건은 조선사람 전체의 주목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바라는 바이다. 나는 사태가 사태인 만큼 생명을 내걸고 치안확보에 노력하겠다.” 운운.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0일

#### 경비대 박대령 제주도서 피습 절명

제주에 부임중인 박진경(朴珍景) 대령은 18일 상오 3시 50분 취침 중에 피습 절명하였다 한다. 그런데 박대령은 지난 15일 그간의 공훈으로 중령으로부터 대령에 승진되었던 것이라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0일

박대령 시체실고 딴 장관 즉일 상경

제주도 경비대 연대장 박진경 대령 피살의 비보에 접하여 18일 정오 공로로 급거 제주도에 내려간 딴 군정장관은 현지 사정을 청취한 다음 즉시 박대령의 시체를 실고 동일 하오 7시 서울에 도착하였다. 동 시체는 서울에서 해부한 결과 진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동광신문·동아일보·자유신문·한성일보 48. 6. 20)

■ 현대일보 1948년 6월 20일

딴 장관 귀임

제주에 주둔하고 있는 경비대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27) 피습 사건을 조사하고자 18일 정오 김포공항을 떠난 딴 군정장관은 당일 하오 7시 반 경 박대령의 유해를 실고 귀임하였다. 저격 범인에 대하여서는 부내인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으나 아직 명확한 판단은 짓지 못한 채 현지에서 각 방면으로 엄중한 수사를 계속 중이라 한다. 그리고 과도정부 당국은 이번 제주도 일대의 소요사건의 수습책의 하나로 경찰책임자와 도지사의 경질을 단행하여 민심 수습에 노력하고 있다 한다. 유(柳)도지사 후임으로는 제주도 산업과장으로 있던 임관호(任琯鎬)씨가 이미 취임하여 시무중이라고 한다.

■ 자유신문 1948년 6월 22일

박대령 장의(葬儀) / 오늘 부대장 집행

지난 18일 상오 제주도에서 피살된 국방경비대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부대장(部隊葬)은 예정을 변경하여 22일 오후 2시 시내 남산동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에서 집행하기로 되었다 하며 공석중인 전기 11연대장으로는 실전의 경험이 풍부한 최경록(崔慶錄·30)중령이 새로 임명되어 이미 현지에서 진압행동을 지휘하고 있다 한다.

(같은 기사 동아일보·조선일보 48. 6. 22)

■ 자유신문 1948년 6월 22일

국경대는 건투(健鬪) / 대내(隊內) 제 사건은 조사중 / 유(柳)통위부장 담

통위부장 유동열(柳東悅)씨는 21일 상오 11시 기자단과의 회견 석상에서 최근 발생한 통위부 관계 제반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안경비대 월북사건은 진상을 조사중이며 박진경 대령 피살사건은 그 범인이 내부에 있는 것인지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지를 목하 조사중에 있다. 한편 제주도의 폭도들은 그 실제행동에 있어 최근 그 실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우려할 바 아니나 상당한 기간 불온한 사태가 계속된 것만은 사실인데 동족간의 일이니 만큼 폭도와 양민을 구별해가며 진압행동을 해야 되는 국방경비대의 고충을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해 주어야 될 것이다. 더욱이 국방경비대와 경찰간의 모종의 알력이 있는 듯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전연 오전(誤傳)이며 폭도측이 국방경비대 또는 경찰관의 복장을 입고 국경(國警)간의 이간행동을 한 일은 있다.”

(같은 기사 동아일보 48. 6. 22)

■ 자유신문 1948년 6월 22일

평화적인 진압을 요청 / 제주출신 제우회(濟友會)에서 건의

제주도 출신인 문장환(文章煥) 박철(朴哲) 제씨 등으로 구성된 친목회 제우회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족상살의 비극을 방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공공연한 토벌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남해고도의 섬 제주도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관민협조 정신을 선용하여 평화적인 제반 민주화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청원서를 관계 방면에 연서로 제출하였다 한다.

■ 조선일보 1948년 6월 22일

정치적 환경 개혁만이 제주사건 해결의 열쇠 / 제우회서 요로에 청원서 제출

제경 제주도인의 친목단체인 제우회(濟友會)에서는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

행한 사태에 대하여 이 해결방법으로 건전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요지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작(昨) 21일 하지 중장을 비롯한 군정관계 각 당국과 UN조선위원단에 제출하였다.

“현재의 제주도 사건은 결코 소수분자의 정치적 충동에 의한 파괴적 음모로만 볼 수 없는 다른 중대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작년 3·1절 기념 행사 때의 경찰측의 경솔한 발포 살상사건을 기회로 하여 폭발된 소위 관공리 총파업 사건을 군정당국이 공정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서 해결하였던들 오늘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정당국은 이 지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국민 전체가 위협한 파괴분자인 것 같이 대처하여 도외에서 이 지방주민과 하등 관련이 없는 인사와 청년단을 대량으로 유입하여 각 부락에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도민 생활에 간섭과 폭행을 자행케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좌익분자를 소탕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경찰과 청년단체의 박해를 면하려는 수많은 청년과 주민으로 하여금 산중의 동굴에 피신케 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벌공작은 의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토벌측은 일반 주민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주민을 폭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산중에 있는 폭도들은 이들의 혈연이며 친지인 이상 토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무력공격의 방법에 포유하고 있는 결함과 이 사건에 복재(伏在)하고 있는 특별한 원인을 고려하여 본 회로서는 제주도의 정치적 환경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만이 급일의 가열한 사태를 수습하는 현명하고 유력한 방법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제해결의 중점을 평화적 방법에 옮기고 현재와 같은 무력공격을 중지할 것에 각별한 유의가 있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6. 22)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2일

#### 살상 적게하고 사태수습할 것이 목적 / 유(柳)통위부장 담

‘동족상잔의 비극 제주도 소요사건의 원인을 살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요청이 치열한 바 있거니와 21일 유(柳)통위부장은 기자단과 만나 금반 경비대 부서의 제주도사건에 대한 태도와 박진경 대령의 살해사건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사건은 폭도측에서 경찰에 대한 반항의 발단으로 보는데 사태수습에 있어서 혹자는 말하기를 경비대가 공산주의자의 편을 든다고 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것은 큰 오해이다. 경비대는 폭도들과 서로 잔인한 살상을 될 수 있는대로 피하기로 하는 것이다. 금후로 살상을 적게 하고 사태수습을 할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박대령 살해사건은 내부에서 일어난 것인지 또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목하 조사 중에 있다.”

■ 한성일보 1948년 6월 22일

고 박대령 부대장(部隊葬) 거행 / 후임 대장에는 최경록(崔慶祿)씨 / 통위부서 기자회견

작(昨) 21일 통위부에서는 제주도사태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 제주도사건의 그간 사태는?

(답) 제주도사태는 점차 진압되어가며 폭도측의 실력은 날로 저하되어 우려할 성질은 안된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불온한 기운이 끌 것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경비대는 제주도 진압에 있어 동족간의 참극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 제주도 연대장의 피살사건 진상은?

(답) 지금 조사중에 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부대에 있는지 혹은 부외에서 침입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알려지는 대로 발표하겠다. 그리고 후임에는 실전에 특히 경험을 가진 최경록(崔慶祿·30)중령이 취임하였다.

(문) 수 일전 해안경비대 소속의 배가 북조선에 표류 도착되었다는데?

(답) 사실이였다. 그러나 상세한 보고는 조사중이므로 후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순직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장의식은 22일 남산동 총사령부에서 거행할 예정이라 한다.

■ 경향신문 1948년 6월 23일

고(故) 박대령 부대장(部隊葬) 엄숙 집행

지난 18일 새벽 제주도 연대 숙소에서 암살당한 국방경비대 제11연대장 박진경

(朴珍景) 대령의 장의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산동에 있는 경비대사령부에서 부대장(部隊葬)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장의식에는 통위부장을 비롯한 부대관 계자와 유가족, 군정장관 딘 소장, 안재홍(安在鴻)씨 등 각계 인사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통위부 차장 송호성(宋虎聲) 준장의 고인을 추모하는 애끓는 조문 낭독에 참여자 일동은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사진은 고(故) 박대령의 부대장의식 광경)

(같은 기사 자유신문 48. 6.23)

#### ■ 동광신문 1948년 6월 23일

#### 경비선 월북은 사실 / 통위부장 기자단 회견 담

【서울 31일 발 조선】 통위부장 유동열(柳東悅)씨, 동 참모부장 이형근(李亨根) 대령은 금일 12시 출입기자단과의 첫 회견에서 국방군 육성을 위하여 언론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말하고 기자단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문) 월북한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 령순호 사건 진상은?

(답)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이 월북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 내용은 목하 조사중에 있으므로 불일 발표하겠다.

(문) 제주도 주재 11연대장 박진경(朴珍景) 대령의 살해 진상은?

(답) 박대령이 피살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범인이 부대내의 인물인지 외부 침입인지, 기타 진상에 관하여 조사중이다.

(문) 제주도 사태의 그 후 상황은?

(답) 국방경비대는 여전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폭도측의 실제 행동, 실력이 저하되는 것 같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불온한 공기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쪽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끝으로 수일 전에 새로 부임한 통위부 고문 W. A. 로버츠 대장의 조선 육성에 대한 견해와 인사의 말이 있었다.

#### ■ 동아일보 1948년 6월 24일

#### 폭도 귀순은 가장(假裝) / 장기항전을 기도 / 최(崔)경감 제주도 시찰담

제주도사건 수습차 두 번째 현지에 출장한 최난수(崔蘭洙) 경감은 21일 중간보고

를 하려 서울에 돌아왔는데 동씨는 제주도 현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제주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중앙의 검찰관 등도 폭동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해방직후 경찰행정 책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좌익 진영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모든 조직체 훈련을 방임하고 제주도를 공산혁명의 저수지로 만들게 하여 사상 정치 경제적 혼란을 이용하여 민중의 불평불만을 그때 그때의 투쟁형식으로 폭발시켰다. 그와 같이 도민은 대소 폭발사건으로 투쟁의 세력과 조직체를 완비하였다. 부패한 경찰은 모리배와 결탁하여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이를 미연에 방지치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

현재의 수습상황을 말한다면 폭도들은 5월 20일 이후 투쟁방법을 변경하여 일부(약 2,000명)는 귀순을 가장하고 일부 정예부대는 수개 부대로 분산하여 무장한 채로 산중에 도피 잠적중이다. 말하자면 ‘장기항전’에 돌입한 모양이다. 현재 제주도 경찰은 국경 1,000여 명과 운수경찰 수백명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 완전수습을 하려면 대다수의 강력 무장부대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현대일보 1948년 6월 24일

제주 폭동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음모 / 은위(恩威) 병행으로 수습에 노력 / 조 경무부장 담화 발표

제주도 폭동사건에 대하여 세간에서는 행정·사법 기관의 인사행정의 편파와 경찰관의 비민주주의적 과오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여 물의가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경무부장은 2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 치안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책임자 또는 정치사회 단체 혹은 언론기관에서 그 의견을 발표함에 있어 폭동이 발발하고 치안이 교란 파괴된 원인을 행정 사법기관의 인사행정의 편파 혹은 처사의 원만성 결여 등에 대한 불평불만 및 경찰관의 비민주주의적 과오 등에 돌려 추상적이고 값싼 동포애를 고조하고 인정론을 부르짖는 바 있으나 여사한 제론은 사고와 판단의 착오 및 피상적 관찰에 기인한 본말전도의 유견(謬見)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물론 여사한 제론(諸論)은 폭동의 간접적 또는 보충적 원인을 지적함에는 족(足)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제주도의 역사적 특수성과 도민의 배타심과 그리고 경찰 말단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하여 범한 과오도 그 원인의 일부로 사료할 수 없는 바는 아

니다. 이는 보충적 원인에 불과하다. 그 근본 원인은 조선의 소련 연방화 내지 위성 국화를 기도하는 공화당<sup>7)</sup>의 남조선 파괴공작이 강행될 그 일단으로 총선거 방해 공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 유래가 요원하고 규모에 있어 방대하고 치밀하니 만큼 북조선을 그 세력 하에 두고 남조선을 규시(窺視)하는 소련이 그 야심과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사한 폭동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남조선 일대에 전파 만연될 것으로 당분간 남조선에는 정상적 치안의 복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치안 수습책은 법을 무시하고 살인 방화 등 파괴 만행에 전념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독립을 방해하는 자는 엄중 처단하고 무지몽매로 인하여 부화뇌동한 자는 선무, 선도하는 방침 외에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법을 범한 자라도 변연(幡然) 회오하여 자수 속죄하는 자는 사법당국에서 그 정상을 작량하여 형을 관대히 처리하는 것이다. 국립 경찰은 이 원칙에 의하여 제주도 경찰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과 경찰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경민의 융화를 두텁게 하여 경찰과 사회의 원만한 소지(素地)를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므로 제주폭동 만행 수습의 근본 방침은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거듭 성명하는 바이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 48.6.24 / 동광신문 48.6.25)

■ 동아일보 1948년 6월 27일

이(李)검찰총장 제주 시찰행

제주도 사태 수습의 실정을 조사하고자 검찰총장 이(李仁)씨는 박(朴宗根) 검찰관과 맹(孟)법무관을 대동하고 금월 말경 공로로 제주도로 가리라는데 출발에 앞서 작(昨) 26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 사태 수습에 대하여서는 때때로 들어오는 보고로 간접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나 약 4일 동안 현지에 머물러서 공포에 떨고 있는 도민들의 안도낙업(安堵樂業)의 길을 발견할 근본적 대책을 연구 조사할 작정인데 아무리 폭도라고 할지라도 같은 피를 가진 동족으로서 열과 정성으로 대하면 해결치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자유신문 48.6.27)

7) 공산당의 오기인 듯.

■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7일

경관 2명 또 피살 / 제주소요 언제 해결?

【제주 발 조통】 제주의 소요사건은 아직도 진압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16일에는 우도지서원들이 공무를 띠고 조천면 북촌리에 상륙하는 찰나에 정채 모를 괴한 한 명이 돌연 나타나 동 지서원 2명(경사 1명과 순경 1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탈취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한다.

이 정보에 접한 제1구 경찰서에서는 22일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서원을 총동원하여 경관□□□ 수색하였는데 북촌리에는 집집마다 무수한 지하굴이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한다. 현재 발견된 지하굴은 12개소나 된다고 하며 그곳에 잠복한 9명의 소요민이 체포되고 화약과 수류탄도 약간 압수되었다 한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자유신문·조선일보·한성일보 48. 6. 27)

■ 노력인민 1948년 6월 28일

제주도 인민대중에게 드림 / 미제의 분할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민족주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자 /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한

친애하는 제주도 인민대중들이여! 조국해방의 전사들이여! 우리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국주의 침략자 및 그 주구들이 음모하는 단선단정을 쳐부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항쟁하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끓는 형제적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인민의 생명을 파리목숨과 같이 여기고 자유와 인권을 신썩같이 짓밟는 악독한 친일 반동경찰과 반동 테러단의 무리한 검속 고문 투옥 테러 학살에 참다 참지 못하여 생명과 자유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며 미제국주의 침략자와 그 주구들이 음모하는 망국멸족의 단선단정을 분쇄하여 미제의 분할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민족주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꺾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싸움은 참으로 정의의 싸움이며 구국의 성스러운 항쟁입니다.

여러분은 테러와 폭압과 대량해고를 반대하기 위하여 일어난 작년 3월 총파업에 있어서도 솔선 꺾기하여 위대한 단결력을 보여 이 거대한 총파업의 전개에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번 단선단정 반대투쟁에 있어서도 참으로 여러분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문자 그대로 원수놈들의 단선을 가루가 되도록 쳐부셨습니다.

그리하여 철면피한 미제와 국내의 주구들까지도 제주도 투표의 무효를 선언하지  
아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여러분의 투쟁은  
참으로 희생에 찬 피투성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젊은 인민영웅들은 육탄으로써 원한  
의 투표소를 쳐부수고 투표함을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뱀보다 싫어하는 반동경찰  
과 악질 반동분자들을 철권으로 응징하였습니다. 전 인민들은 한줌도 못되는 친일파  
인 미국사냥개 이외에는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어민이건 학생 지식문화인이건 소시  
민이건 또한 관공리이건 할 것 없이 모두 한 사람과 같이 일어나서 투표를 보이콧  
하고 파업과 태업을 단행하였습니다. 젊은 인민자위대들은 한라산 골속에서 갓은 고  
난을 극복 돌파하며 원수의 총화를 무릅쓰고 존귀한 생명을 바치며 피의 항쟁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인민들은 인민자위대를 위하여 식량을 운반 공급하며 어린  
여학생들은 인민영웅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도 인민이 거족적으  
로 위대한 구국항쟁에 총궐기하여 강철같은 단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  
의 싸움이야말로 조국해방 투쟁사를 길이 빛낼 것입니다.

친애하는 제주도 형제자매들이여! 그러나 적들은 단정조작의 악랄한 생각을 버리  
지 않고 있습니다. 5·10단선이 남북 조선인민의 거대한 투쟁에 의하여 중대한 타격  
과 파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성공’을 기만 자랑하고 이 소위 범죄적 강  
제 사기선거에서 임명된 친일파 매국노들을 굶어모아 외람히도 국회를 참칭하여 남  
조선 단독 위조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위 ‘국회의장’인 국적 이승만이가 식사  
(式辭)중에서 미군의 영구주둔과 고문단 초청을 애원한 것은 이 단독 위조 ‘국회’의  
성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인과 그 주구들은 이에 범죄적 위조국회를 바탕으로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파 매국노들이 독재하는 허수아비 단정을 만들려고 미치광이  
같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이 단정을 쳐부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에는 구국 순국의 정신과 애국적 영웅주의가 일찍이 보지 못한 정도로 넘쳐흐  
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희동 2가 투표소를 습격하여 원수의 무기를 뺏아 반동경찰을  
응징하고 투표소를 분쇄한 다음에 반동경찰과 테러단에 포위되어 흉탄에 쓰러진 김  
해산, 강홍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영웅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  
민영웅들의 뒤를 맡아 반드시 단정을 파탄시켜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원수 놈들의  
음모대로 단정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일제시대 이상의 억압과 착취를 당할 것이며  
오늘 하곡수집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인민의 전 식량은 약탈당할 것이며 전력문제

에서 경험하듯이 미국인의 의식적 파괴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산업경제는 총파괴될 것이며 암흑화 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미국놈의 노예가 될 것이며 아사와 유혈 폭압의 도탄에 신음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어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단정을 쳐부수지 않으면 우리 자손만대에 불행의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제주도 형제자매들이여! 조국해방의 전사들이여!

당신들은 오늘 위대한 조국해방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는 구국의 뜨거운 피가 끓고 있으며 여러분의 팔뚝은 영웅적 항쟁의 공격정신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선분쇄에 발휘하신 그 고귀한 순국 구국정신과 애국적 영웅주의를 단정분쇄 투쟁으로 발휘하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피에 굶주린 원수들은 여러분에게 야수적 총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토벌적 학살을 감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국 주권방어의 초소를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남북조선의 전 인민은 여러분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낼 뿐 아니라 여러분의 뒤를 따라 전국적 구국투쟁을 더욱 광범히 더욱 높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친애하는 제주도 동포들이여! 우리의 싸움은 정의롭고 우리의 남북의 민주역량은 위대하며 전 세계 민주진영은 우리를 열렬히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는 인민에게 고립되어 한 줌도 못되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조국을 침략하려는 미제국주의는 닥쳐오는 대공황을 앞두고 화산 위에 앉은 것 같으며 역사적 몰락의 운명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또 승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돌진합시다!. 우리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용감하게 싸울 것입니다.

- (1) 위대한 구국항쟁에 돌진하는 제주도 인민에게 승리와 영광을 드리자!
- (2) 단선분쇄 투쟁에 육탄돌격을 감행한 인민영웅들의 뒤를 따르자!
- (3) 망국멸족의 허수아비 단정을 철저히 쳐부수자!
- (4)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 주권방어를 위한 구국 인민항쟁 만세!
- (5)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 완전 자주독립만세!

1948년 6월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

# 1948년 7월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일

### 각지 제주도인 쫓기 / 평화적 해결을 당국에 진정

4월 3일 폭발이후 3개월을 넘도록 종식되지 않고 민족의 유혈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 사태에 감하여 재경제주인은 지난번 이의 평화적 해결을 각계당국에 호소 청원한 바 있었거니와 전남 광주에 있는 제주도인은 지난 24일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제주도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해결에 기여코자 변호사 2명과 광주기자를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대전 제주인들도 전원 연서하여 당국에 평화적이며 급속한 해결을 진정 호소하였다 한다.

## ■ 조선일보 1948년 7월 2일

### 제주사건 수습 / 광주제우회에서 제주청장에 청원

동족살상의 피비린내 나는 제주도 사건을 하루바삐 수습하여 도탄에 빠진 향토민을 구하라고 광주제우회(光州濟友會)에서는 지난 19일 신임 제주도경찰청장에게 요지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 △무력적 처리 방침을 버리고 평화적 방법을 취하여 극도로 무기 소지를 제한할 것.
- △도민의 생계를 보장할 것.



- △테러하는 사설단체를 즉시 해체할 것.
- △해상교통 특히 제주~목포간의 증명제도를 철폐할 것.
- △고문치사, 폭행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중앙 48. 7. 2)

■ 한성일보 1948년 7월 3일  
 제주도문제를 제우회(濟友會)에서 건의

서울 제우회(濟友會)에서는 다시 제주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여 지난 1일 한독(韓獨), 민독(民獨), 근민(勤民) 등을 비롯한 40여 정당사회단체에 대하여 (1) 각 애국정당단체를 망라한 제주도사건 대책간담회를 개최토록 할 것 (2) 각 애국정당단체를 망라한 현지조사단의 파견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 (3) 각계각층의 지도적 인사로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의 정치적 해결을 위하여 군정책임자와 절충할 것 등의 건의서를 보내고 시급한 해결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 48. 7. 3)

■ 현대일보 1948년 7월 3일  
 제주치안은 회복 / 브라운 사령관 시찰 답

【제주 2일 발 함동】 지난 22일 제주도 치안 최고 사령관 브라운 대좌는 제주도 신문 기자단을 대동 출장하여 도내 치안 사태를 시찰한 바 있었는데 귀임 후 사령부에서 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하였다.

(문) 금일의 순시에 있어서 귀관의 감상 여하?

(답) 여러분이 친히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통과한 길은 약 1개월 전에는 위험해서 통행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도내 도로, 전선은 모두 복구되고 있으며 얼마쯤 치안도 회복되었다고 본다. 그네들은 지금 해산 상태에 있으며 대중적 행동을 못하고 있고 각지마다 군경민 삼자 일체가 되어 치안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문) 포로 중에는 무고한 사람은 없는가?

(답) 후송해온 포로에 대해서는 3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범죄 사실이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있다.

(문) 직접 행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답) 조선인 법정에서 조선인 법관이 적당히 처분할 것이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자유신문 48. 7. 3)

#### ■ 조선일보 1948년 7월 4일

#### 제주작전 대체로 종결 / 민심수습은 치안당국 책임

중산촌에 머물러서 치안에 노력하던 국방경비대는 6월 26일 새벽부터는 북제주 방면에다 무력을 써서 중간산촌 각 부락을 둘러싸고 소요에 가담한 혐의자를 다수 체포하였다. 이번 방법은 해안지대까지 넣은 대규모의 행동이었다. 이날 오후까지 구좌면, 조천면, 제주읍 등지에서 체포된 인원만도 2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소요부대의 간부로 인정되는 2명도 있었고 대부분은 농민이었으며 무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기왕의 3,000여 명 포로는 경비대, 경찰, 미군이 합석 하에 조사한 후 100여 명의 주모 혐의자만 남겨 놓고 전부 석방하였다. 한편 경비대 모 고급장교는 금번 무력행동은 사건 진압에 결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이로써 경비대의 임무는 일단락을 보고 그 후의 민심수습은 치안당국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경비대는 제주도에서 떠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조통】

(같은 기사 대동신문·자유신문·한성일보 48. 7. 4)

#### ■ 대동신문 1948년 7월 6일

#### 어획금지 등 해제 / 제주치안 점차 회복

장시일에 걸쳐 무질서와 혼란에 싸여있는 제주도 치안상태는 그동안 군경민 삼체일위의 협력으로 회복되어가고 있는데 금번 신임한 김봉호 청장으로부터 <30만 도민의 향토애에 호소함>이란 포고문이 발표되는 동시에 지난 1일부터 어획이 해금되는 한편 일반도민의 여행증명제도 폐지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도민들은 자유롭게 각자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도내 치안은 일층 안정되어가고 있다. 【제주도 발 합동】

(같은 기사 경향신문·현대일보 48. 7. 6)

■ 조선일보 1948년 7월 6일

예상보다 양호 / 박대령 살해혐의자 9명 체포 / 이인 검찰총장 제주도 시찰담

지난 6월 30일부터 5일간의 제주도 시찰을 마치고 4일 귀임한 이인 검찰총장은 5일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를 일주하고 상세 조사한 바 예상보다 의외로 한라산 산곡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안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았다. 해방 후 중앙, 지방 관민을 망라하고 제주도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등한하였으며 건국이념이 철저히 못하고 관민이 모두 먹을 것을 바라고 바다만 내다보는 틈에 공산당원이 제주도를 유일한 거점으로 만들고자 허울좋은 단정단선을 미끼로 폭동이 야기된 것인데 경찰과 경비대의 분투로 지금은 양민을 포함한 약 1,100명의 잔당이 심산중에 도피하고 있으나 식량 곤란 기타로 매일 20~30명씩 귀순 혹은 체포되고 있어 불원간 진압될 것이다. 앞으로는 엄직(廉直)한 관공리의 노력과 일반의 발분으로 계몽 선전의 발본색원적 대책이 있어야 하며 진압과 수사에는 종래의 범죄수사의 기술 경험과 지방사정을 잘 아는 수사기관이 이를 전담하여야 진압시일이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박(朴)대령 사건에 관하여는 경비대원과 외부인 등 9명을 30일에 체포하였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대동신문·서울신문·자유신문 48. 7. 6)

■ 동아일보 1948년 7월 7일

철경(鐵警) 제주응원대 / 폭도소탕하고 무기 등 압수

철도관구경찰청 제주 응원부대에서는 동지에 파견된 후 악조건을 무릅쓰고 사기 왕성 치안과 선무공작에 힘써 왔었는데 지난 6일 그의 성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중간발표가 있었다. 즉 6월 10일 동도 조천면 방면에서는 배신한 전(前)조선경비대원인 이두일(李斗一·21)과 인민군의 도주병 박호인(朴浩仁·27) 외 폭도 2명을 체포하고 미식 M1소총 1정과 그의 실탄 약간과 일본 99식 장총과 실탄 20발, 그 외에 비밀서류도 다수 압수하였다 한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상오 9시경 중문면에서 폭도 근거지 2개소를 기습하여 약 50분간 접전을 하였는데 그 결과 폭도측 유기사체 2, 포로 5를 획득하고 99식 장총 1정과 실탄 100여 발, 또 권총 1정, 미식 M1소총

실탄 7발, 수류탄 5발, 미군용 단도 1개, 일본도 2개, 화약 그 외에 비밀문서 100여 점, 식량 4석 등을 획득하였다는데, 동 부대에서는 계속하여 간부 이하 일치단결, 치안의 중책을 다하고 있다 한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 48. 7. 7)

■ 한성일보 1948년 7월 7일

제주대책위원회(委會) / 제우회(濟友會)에서 제안 토의

지난번 제우회에서는 제주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었는데 작(昨) 6일 오후 2시부터 민독(民獨) 한독(韓獨) 등 40여 정당사회단체에서는 민독당 회의실에 모여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한다.

■ 대동신문 1948년 7월 8일

총검 버리고 직장으로 / 경비대 제주 신(新) 사령관 담화

4·3사건 발생 이후 만 3개월이 경과한 최근에는 사건발생 건수가 희소하여졌으며 교통차단 해제, 어획 해금, 통행시간 연장 등으로 민심은 확실히 명랑화 되어 가고 있어 사건수습도 불원이라는 감이 농후한데 경비대 제11연대장 최경록 중령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사건수습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도민의 적극적 협력으로써 평상시와 같이 치안이 복구도상에 있음은 방□를 위하여 기쁜 일이다. 이후는 특수한 경우 이외의 작전행동은 보류하나 경찰 및 각 행정기관에 협력하여 치안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산중과 부락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귀형들의 신원은 절대 보장하니 칼과 총을 버리고 직장으로 돌아가라. 당 부대에 수용 중인 형제들도 불원 전부를 귀가시키겠으니 가족들은 안심하라.” 【합동】

■ 한성일보 1948년 7월 9일

제주사건을 평화적 해결 희구(希求) / 부산 제우회(濟友會) 요로에 진정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족상잔의 참극은 그칠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심각화 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주도 출신의 5만여명의 회원을 포용하고 있는 부산 제우회에서는 이 사태는 도민 전체가 평화를 위한 최후적 방법으로 무장봉기한 것에 틀림없다고 지적한 다음 이 사건 수습에 있어서 무력적 공격을 가함은 도저히 옳지 못한 일이므로 평화적 방법으로서 급속 해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5일 하지 중장을 비롯하여 딘 군정장관, 경무부장, 사법부장, UN조위(朝委)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동회에서는 그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부산 각 신문기자들과 더불어 6일 하오 제주도에 향발하였다.

■ 조선일보 1948년 7월 10일

제주도에 제2차 응원대 파견 / 철도관구청서

제주도 소요 사건 진압차로 철도관구경찰청에서는 지난번 제1차 응원대를 파견하였는데, 이번 다시 제2응원대 300명을 파견하게 되어 그 중 100명은 10일 오전 9시 서울역 발 '서부해방자'호로 출발하고 나머지 200명은 19일 출발기로 되었다. 이제 2차 응원대가 제주도에 도착하면 제1차 응원대는 귀임할 터라고 한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중앙일보·한성일보·현대일보 48. 7. 10)

■ 동광신문 1948년 7월 11일

제주 토벌대 제3차 부대 출발

【서울 10일 발 조선】 제주도 제3차 토벌대가 출발하였다. 10일 새벽 특별열차로 중앙에서는 수도청 근무 주철환(朱哲煥)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되어 이하 ○○명을 대동하고 제3차 토벌대로 출발하였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1일

제주는 울음의 바다 / 죽도 살도 못하는 그들의 심경 / 부락민은 복구공사에 동원 / 제주도 현지보고

【제주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통】 무거운 검정 구름 속 은은한 총소리에 자고 깨인 그 후의 제주는 진압의 과정이나 소강상태이나. 기자단 일행은 되도록 평범한 차림새로 읍으로부터 동으로 제주도 일주의 여정에 올랐다.

처처에 절도된 전주는 그대로 밭이랑 산등성이에 나자빠져 있건만 의연히 엄존하는 경찰지서의 바리케이드만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부락민 40~50명이 지금 경비전 화선 복구와 지서돌담 구축 공사부역으로부터 돌아온다. 맥없이 일행 앞을 지나던 그네들이 제주출신의 일행의 한 사람 말에 순시로 사방을 둘러싸고 울음의 바다를 이루고야 만다. 들고 있던 팽이를 돌 위에다 두드리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다”고 울부짖는가 하면 공포와 울분에 북받친 60노파는 무어라 문표를 가리키며 가슴을 두드린다. 붙어있던 집집 문표가 하룻밤에 없어지자 전부락민이 지서에 인치되어 난타 당하였고 또한 학대받고 있다 한다.

죄는 폭도에 있는 것인가, 부락민에 있는 것인가. 총소리는 잠잠한데 주름잡힌 이 맛살에 왜 이다지도 우색이 가득하며 터질까 염려되는 울분에 잠겨 있다. 지금은 어떠한가 하는 기자의 말에 “먼 곳 총은 무섭지 않으나 가까운 총부리가 무섭수다”라고 고향으로 응수한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한성일보 48. 7. 11)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1일

경찰 불법숙청이 급무 / 무력만으론 해결 불능 / 김(金)청장·최(崔)대장 방침 천명

【제주도에서 천길봉 특파원제공 조통】 금후의 제주도사건 수습의 중책을 등에 지고 지난 24일 부임한 김봉호(金鳳昊) 경찰청장 및 박대령 후임인 최(崔)경비대장은 1일 개최된 전도 읍면장 회의석상에서 금후의 수습방침을 요지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김청장 담 :** “먼저 경찰 자신의 불법 부정을 근절 숙청하겠다. 차단된 교통을 해결하는 동시에 입출입 물자에 대해서는 간섭방해 않겠다. 부화뇌동한 자는 처벌치 않고 귀순하는 자는 양민으로 인정한다. 집무하지 못하는 행정사무소에 경관을 배치하여 보호한다.”

**최연대장 담 :** “작전행동은 계속 중이다. 사태는 무력만으로는 해결지을 수 없다

고 본다. 국방경비대의 방침은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이 아니다. 국가 민족의 적과 국외에서 전투함을 본분으로 삼는 경비대는 본의 아닌 임무에 헌신하고 있다. 금후 경비대의 위신을 손상하는 대원은 철저히 숙청할 것이다.”

(같은 기사 한성일보 48. 7. 11)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1일

제주 제3차 토벌대 출발

제주도 제3차 토벌대가 출발하였다. 10일 새벽 특별열차로 중앙에 수도청 근무 주철순(朱哲純)경위가 경감으로 승진되어 부하 ○○명을 대동하고 제3차 토벌대장으로 출발하였다.

■ 한성일보 1948년 7월 11일

박(朴)대령 살해범 군법재판 개정

【제주 발 조통】 국방경비대 제11연대 고(故) 박대령 살해범 일당은 그간의 취조가 완료되어 9일 오후부터 동 영내에서 군법재판이 개정되었으며 장교급 1명과 수명의 공범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7. 11)

■ 동아일보 1948년 7월 13일

제주도 사태는 일단락 / 통위부 이(李)참모총장 담

통위부 이형근(李亨根) 참모총장은 12일 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중략)

△박대령 사건 : 그간 경비대의 수사망이 맹활동을 한 결과 사건 관계자 8명을 일망타진하였다. 12일 그 범인을 서울에 호송하고자 비행기가 제주도에 갔다. 범인은 특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서울고등군법회의에 부쳐 처단하겠다. 추후 진상도 발표하겠다.(중략)

△제주도 사태 : 대체로 제주도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민심은 안정되었다. 앞으로 종래와 같은 폭동은 없을 것이다. 통위부는 사태에 즉응(卽應)할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 서울신문 1948년 7월 13일

청년없는 마을들, 도민의 회의감은 여전 / 그 후의 제주도

【제주도에서 천길봉 특과원 발 조선】 북제주의 관문 제주항은 한산하기 짝이 없다. 축항(築港) 내에는 수 척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을 뿐 사절(四節)을 가리지 않고 해녀들의 휘파람 소리로 활기있고 다정하던 해변에는 부닥치는 파도소리만이 홀로 소란스럽다. 어부를 기다리는 바닷가 노점은 차마 불 바에 없고 우후(雨後)의 싸늘한 바람에 한 둘의 경관, 경비대가 오락가락할 뿐이다. 대문없고 도적없고 거지없다는 삼무(三無)의 평화경 이곳 제주도는 도민의 보고(寶庫)요 또한 마당인 바다를, 그리고 생계의 근원인 산을 잃은 채 눈앞에 떡을 두고 먹지 못하는 고통에 도민의 생활고는 한결같다. 삼다(三多)의 600리 제주도 주변 부락 부락에는 청년을 구경하기 어렵다. 그들은 무차별 집단 검거를 피하여 소위 인민해방군의 전위대에 몸을 던져 버렸다 한다. 조와 감자 심기에 한창일 들판에는 늙은 노파들의 그림자만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신(新) 경찰청장의 강연에 갔다오던 수백 군중이 일행을 둘러싸고 발버둥치며 백성을 살게 하라고 외친다.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호적에도 없는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는 데는 질색하겠다” 한다. 오늘부터 출어(出漁)허가도 내렸고 동외(洞外)의 통행허가며 여러가지의 납부금도 금지된다고 전하는 지서원의 말을 도시 곧이 듣지를 않는다. 가면 갈수록 준비한 송덕비와 선정비(善政碑)는 그 옛날의 이곳을 말없이 가리키고 있건만 지금 도민은 어떠한 선정비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 자유신문 1948년 7월 13일

군기(軍紀) 숙청 강화 / 박대령 살해범에 중형 / 이(李)참모총장 담

국방경비대 참모총장 이형근(李亨根)대령은 12일 오전 10시 통위부 출입기자단과 회견하고 제반문제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중략)



△고(故)박진경 대령 피살사건 : “그간 경비대 수사망을 맹활동 시킨 결과 사건 관계자 8명을 전부 체포하였다. 12일 그 범인들은 비행기편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서울로 송환될 것이며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특히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엄중한 처단을 내리겠다.” △군기숙청 : “금후 통위부는 육해 경비대를 통하여 반동하는 분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숙청할 것이며 현재 숙청을 실시 중에 있다. 불순분자는 여지없이 극형에 처할 것이다.”

(같은 기사 한성일보 48. 7. 13)

■ 동아일보 1948년 7월 14일

제주도 지사에 임관호씨 취임

제주도 전(前)산업국장 임관호(任琯鎬)씨는 지난 5월 28일부로 제주도지사로 임명되었다는데 동 씨는 당년 49세로 일찍이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남 완도군 장성군수를 역임하였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 48. 7. 14)

■ 서울신문 1948년 7월 16일

민족의 비극 제주사건, 평화해결 바라오 / 제주출신 학생들 진정

서울에 유학하는 제주도 출신 남녀학생의 친목단체인 백록학우회(白鹿學友會)에서는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시급히 평화적인 해결이 있어 달라는 요지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15일 하지 중장, 딘 군정장관, UN위원단 각 고관, 정당, 사회단체에 전달하였다.

“우리 500여 학우회원은 부모형제 친척 친구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금할 수 없으며 교통차단으로 인한 학비두절은 우리들을 기아선상에 헤매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습책은 오직 그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만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도내 실정에 무이해한 도외 출신자를 일체 관공리에서 추방시키며 도내 출신일지라도 일부 악덕 관공리는 추방함과 동시에 무장경관대와 경비대를 소환하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검거 중지한다면 치안은 즉시 회복될 것이다. 사상초유의 이 불행한 동족상잔은 없어질 것이니 이 사건 수습에 대한 귀하

의 힘과 그 귀중한 노력으로 평화적인 해결이 있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7. 16)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6일

양민 사망 292명 / 가옥 소실이 400여 호 / 제주사건 종합보고

사건발생 이후 6월 15일까지의 가옥 소실 양민사상 피해상황을 제주 12개 면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대요 다음과 같다.

△가옥소실 : 한림면 174호를 필두로 421호 전소 △양민 사망 : 조천면 61명을 최고로 292명이 사망 △양민 중경상 : 조천면 48명을 수위로 98명이 중경상 △납치 : 한림면 12명을 합하여 525명. (제주 발 조통)

(같은 기사 대동신문·조선일보 48. 7. 16)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7일

제주사태 변모 / 사형(私刑)의 복수전이 자행

【제주 발 조통】 4월 3일에 돌발하여 꼬박 석 달 동안 주고받는 피의 응수로 처참하던 제주도가 이제야 겨우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그동안 폭도들이 파면을 요구하던 유(柳)도지사(柳)가 바뀌어졌고 경찰청장이 정직처분을 받은 후 제주출신의 인사가 새로 오게 되고 국방경비대 박대령이 암살을 당하는 등 폭동 이면의 변모도 적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변모가 소강회복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는지.

신임청장을 맞이한 최근의 경찰당국의 사찰 완화방침과 행정당국의 민심수습에의 부심, 그리고 국방경비대의 특수 경우를 제외한 작전행동의 보류로 어느 정도의 안온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간헐적인 폭도측의 공세도 소극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폭동이 지나간 뒤의 이곳에 다른 불안이 대치되고 있으니 사형(私刑)을 자행하는 관민간의 복수전이다. 기사단 일행이 일반 세화(細花)부락에서도 일부 경관이 휴가를 얻어 경관가족 친척에 대한 가해혐의자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소위 복수 사형을 가하다가 상부에 발각되어 엄중 단속을 받고 있는 일단이 있다. 이러한 복수전의 희생이 되었는지 부락민 한 사람이 이유 모르게 사망하자 자살이나 타살이나 또 하나의 고통에 부락의 공기는 전전공공하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7일

목포~제주간 여행증 폐지

제주도감찰청장은 해상교통 해제에 관하여 제1관구 청장에게 14일 다음과 같이 통달하여 왔다.

1) 7월 5일부터 목포~제주간 정기연락선으로 여행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여행증 명서 발급을 폐지함.

2) 기간 부산~제주간 연락선 여행자와 도외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종래와 동일히 증명급 허가제로 함(인천지사)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7. 18)

■ 경향신문 1948년 7월 18일

제주도 이모저모 / 양기하(梁基河)

내가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나쁘나 좋으나 나를 낳아준 고향이며 조선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실시된 총선거에 동 지역에서 입후보하여 진 부락을 실지로 답사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그 진상을 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실정을 사실대로 파악함과 동시에 하루바삐 동 사건을 해결하여 무고한 양민을 구하고 골육상쟁의 비극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다.

△동기

(1) 제주도민이 해방 전에 일본국에 건너간 숫자를 보면 정확치는 못하나 약 10여만을 산(算)하였고 그들은 대판시(大坂市)를 중심으로 신호(神戶), 경도(京都), 내양(奈良), 동경시(東京市) 등에 거주하여 왜인들의 갖은 압박과 지독한 차별대우 등의 불리한 조건 하에도 일인(日人)과 정당하게 경쟁하여 타방면에서도 그렇지만 상공업계에서는 대판 상공인을 압도할 만큼 활동하여 해방전후 그들 중에는 수천만원의 재산가도 한 사람 두 사람뿐이 아니었다. 해방이 되자 수많은 일본 재류 제주도 동포도 타지방의 동포들과 같이 본국에 귀환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애로가 있었다. 즉 수십년간이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을 여하히 운반하여다 조선에서의 생활기초로 하느나는 문제였다. 규정은 1인당 1,000원씩의 현금 이외에 가지고 돌아

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해방된 고국의 땅에 하루빨리 돌아오고는 싶었지만 원수(怨讐)의 재산반입이 그것을 용허(容許)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들 중에는 비합법적인 줄 알면서도 그들 자신의 기선(汽船) 혹은 발동기로서 비밀리에 제주도까지 반입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거래에 대한 당국의 처리가 다소 명확하지 못하여 도민의 감정이 명량하지 못하였다.

(2) 행정의 실패 : 항상 민주주의 정치 원칙 하에는 행정은 인민과 유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주도 실정을 잘 모르는 인사들이 당도에서 행정을 담당할 때 사건 발생의 원인이 있다. 혹독한 왜인들도 제주도민에게는 과도한 압제를 쓰지 못하였다. 제주도는 원래 해산의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인심이 순박하기로 누구든지 근로만 하면 충분히 살게 되는 자급자족하기 좋은 표본적(標本的) 지역이다.

그러므로 결식인(乞食人)이란 볼 수도 없고, 외출시에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다. 울 적에는 같이 울고, 웃을 때에는 같이 웃는 것이 공통된 관습이다. 이런 것이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다.

요즈음 도시에 있는 경찰관의 소질(素質)은 대단히 양호해졌으나 제주도에선 극히 일부이겠지만 교양이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경찰관리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일반인민의 악감정을 유인(誘因)시켰다.

(3) 총선거 반대운동 :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극좌계열과 합류하여서 총선거 반대운동에 호흡을 같이 하여 전율할 실천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다. 즉 그것이 거(去) 4월 3일에 일어난 소란의 시초이고 그 후 경찰력 우익세력이 완전하지 못함을 기화(奇貨)로 저 조선 팔경의 제일로 손꼽는 한라산을 그들이 근거지로 하여 각처에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기백(幾百)의 동족을 상살(相殺)하게 되었다. 산부대(山部隊) 소위 인민군의 공격 목표는 (A) 경찰관 (B) 대청 및 서청단원 (C) 군정관리 (D) 선거위원 및 입후보자 또는 그들의 가족인데 그 죽이는 방법도 조선식은 아니고 개량식(改良式)이다. 실례로 남원지서 근무 고(高)형사 외 1인을 죽인 것을 보면 가마니를 덮어서 휘발유에 불을 붙임으로써 철저한 화장(火葬)을 한 것이다. 이와 흡사한 방법으로 피살당한 수는 일일이 매거(枚擧)하기 어렵다. 교통은 차단되어 신문 한 장 볼 수 없는 형편이며, 전신주란 전신주는 모두 파괴당하여 외부와의 연락조차 없다(읍을 제외한 구역).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유언비어도 합하여도민들은 어제 저녁엔 모 부락에서 사람이 몇몇 죽고 방화가 몇 건이고, 그저께 저녁에는 경찰관과 그 가족이 몇 죽고 또 선거위원이 몇 죽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만

나기만 하면 살인 소문과 공포심을 느낄 불안한 화제뿐이다.

연산(年産) 수백만원을 초과하는 치용(稚葺)도 재배는 하였지만 딸 수 없는 형편이며,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신탄(薪炭)은 물론 보리농사까지 안심하여 수확이 될는지 의문이다. 제일 많이 나는 생선까지 못 먹을 형편이었다. 이렇게 된 환경에서 어찌 목침을 높이 하고 안면(安眠)할 수가 있으며, 살아 나아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

###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지금 제주도는 문자 그대로 파괴의 도를 지나서 황폐(荒破)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사건 발생의 동기가 행정, 특히 경찰행정과 인민이 유리(遊離)한 데서 발생되었다고 보지만 이론적으로 정당하게 하지 않고 왜 동족을 살해하며 귀중한 물자를 파괴 소멸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여사한 점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나 우리는 이론이 상반된다고, 이데올로기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동족을 상살(相殺)하며 귀한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써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는 (1) 행정수반(제주도)과 또 관련성 있는 간부 및 직원을 일소(一掃)함과 동시에 신임(新任)에는 실정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아는 인물을 대치하여 재차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근본 정책과 (2) 산부대, 소위 인민군에 대한 온정적이고도 일면으로는 냉정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아무 판단력 없이 당국의 적당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간 양민에게는 무조건 귀순과 석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8할 내지 9할을 점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선동자와 지도자에게는 아무리 관용한다 하여도 1,000여 명에 근당(近當)한 희생자를 낸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며, 양심적이라면 그들은 자진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각도로 적극 추진한다면 사건 해결은 단시일에 온다고 확신한다. 동백꽃 피고 피꼬리 우는 한라산, 오렌지 나고 불로초 나는 바다의 섬, 하루바삐 평화를 찾기를 간망(懇望)하노라.

■ 서울신문 1948년 7월 20일

동란의 제주도 사건 전모 / 이도(吏道) 부패가 원인 / 사설단체의 가령주구도 성행

【제주에서 본사 광주지국 조(趙)기자 발】 이미 중앙에서 현지를 시찰한 판·검사

및 변호사 제씨가 이번 4·3사건의 한가지 원인으로 관공리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광범위하였던 것으로써 김청장과 임도지사도 이를 솔직히 행정 경찰의 각 부문에 걸쳐 일부 외래인사들의 부정행위와 권력남용은 오랫동안 독특한 생활환경에서 조성된 도민의 생활감정을 유린하였고 이와 뇌동한 사설단체의 월권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였던 것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 탐관오리들은 각 부문을 자기 사람들로 짜서 방약무인한 태도로 사복을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가담치 않는 자는 모조리 모략 중상으로 축출하여 왔다는 것이다(도청 내의 내무 산업 양국장을 제외하고는 수뇌부는 모두가 외래인이었으며 도 상공과장의 사임사건 등은 이를 증명한다). 그들은 일본에서 돌아오는 수많은 도민의 재산을 밀수품으로 규정하고 몰수하였으며 수십년간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왜놈의 갖은 방해로 무릅쓰고 실어오면 세관 물가감찰서 항무청 기타 무수한 관청을 거쳐 나오는 동안에 벌써 손에 남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설단체원들은 가택수색을 빙자하여 귀중품을 탈취하고 금품을 강요하며 불법구타 폭행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2·7이후 실시된 통행증은 최하 30원으로부터 100원에 이르는 요금으로 배부되었고 그들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모조리 ‘빨갱이’로 지목되어 갖은 박해를 받아왔던 것이라 한다.

**△박대령의 암살내막** : 11연대장 박대령의 피살사건은 항간에 일대 충격을 주었거니와 여러가지 관계로 아직 그 내막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기자가 각 방면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경위는 여좌하다.

박대령을 살해한 일당은 제주출신의 강중위 이하 하사관을 포함한 8명으로 전기강은 박연대장의 사건수습책에 불만을 가져왔고 진급의 지지(遲遲)함에 불평을 품게 되어 드디어 박대령의 살해를 결의하기에 이른 것으로 부하 8명과 함께 살해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라 한다. 때마침 살해하던 그날 밤 박대령이 외출하였다가 새벽 1시경에 돌아와 취침하자 3시 15분경 하사관 1명을 그의 침실에 잠입시켜 소지한 M1소총 1발로 그를 즉사케 한 것으로 총탄은 좌견에서 넓적다리를 관통하였다 한다. 그러나 경호원들은 이것을 외부의 총성으로 오인하고 근방을 수색하다가 4시경에야 비로소 박대령이 피살된 것을 발견하였다 한다. 이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30만원 2계급 승진의 현상을 내걸고 범인 체포에 불철주야의 노력을 주하고 있던 중 본대에서 모슬포 방면으로 도주하는 병졸 1명을 체포 문초한 데서 그 단서가 드러났다 하는데 이들을 체포한 공로자인 군기대장은 전기 강중위와 항상 침식을 갈

이 하던 유일한 친구였다 한다.

**△인명피해 800여 명, 소실 가옥 420호** : 지난 7월 1일의 읍면장 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4월 3일 이후 6월 15일까지의 피해는 소실 가옥 421호, 양민 사망 292명, 동 부상 98명, 납치 35명인데 그 중 특히 피해가 심한 곳은 저지 금악 오라리 함덕 도두리 등으로 면별로 보면 한림 조천 구좌 대정 제주읍 등이다. 그 중 한림면 저지부락 180여 호가 전소되었고 20명의 사자와 2명의 중상자를 내었다 하는데 이 참사의 발단은 저지지서 습격 주범으로 지목되는 현(玄)모 일족 18호가 4월 8일 전소된 데서 시작된 것으로 지금 800여 명의 이재민이 가로에 방황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기자가 방문한 곳곳에서 행방불명자가 수다한 것을 들었는데 지난 6월 중순 북촌이라는 마을에서 행방불명된 5명의 시체가 7월 6일 오라리 근방 한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한다.

**△공포 속의 도민생활** : 동족상잔의 민족적 참극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 사태는 이제 제2단계에 들어선 감이 있다. 일시 치열히 전개되었던 전투는 5월 20일을 경계로 하여 거의 종식되어 7월 1일에 도내 교통이 해제되고 7월 5일에 육지와의 교통도 해제됨에 이르러 극도로 긴장하였던 공기는 현저히 완화된 듯하다. 읍내 주변 바다에는 하나 둘의 어선과 해녀의 모양도 간혹 볼 수 있고 상점은 문을 열어 손님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없고 삼엄한 경계망은 여전하여 통행금지 구역과 거리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무장경관이며 관공서 주변에 돌로 쌓아올린 바리케이드 등 이 섬의 침울한 공기는 보는 사람의 가슴을 답답케 한다.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경찰이 아니면 경비대의 트럭으로 일반의 자동차는 모조리 징발된 채 도내 교통은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거리에는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는 부대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무장대의 시위군가 소리며 절격거리는 총검 소리가 바늘 끝 같은 이곳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한다. 더욱이 읍내를 지나는 이<sup>8)</sup>는 볼 수 없고(이는 산사람의 활동을 용이케 하고자 부락민이 죽여버렸다 한다) 젊은 청년이란 그림자도 볼 수 없다. 역센 파도와 싸우던 용감한 어부와 돌 많은 땅에서 곤란한 농사를 짓던 근면한 농부들은 모두 어디 가고 주인 없는 어선만이 쓸쓸히 매어지고 잡초 우거진 밭고랑에 늙은 할머니의 한숨만이 서리는 것인가.

---

8) 개의 오기인 듯.

■ 조선일보 1948년 7월 20일

### 제주사건 / 경찰의 무장해제 등 소요측서 조건을 제출?

제주도가 지난 4월 3일 미명에 한라산의 봉화로 개시된 소요로 인하여 이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거듭하면서 전도가 묘지화할 우려까지도 있는 듯이 보였으나 김봉호(金鳳昊) 신 청장의 완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도내 각 부락에는 점차 명랑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 기자단 일행이 수집한 정보로 한라산 깊이 숨어 있는 소요측 동정을 살펴보면 아직도 약 1,000에 가까운 주력부대가 건재하고 있다 하며 그들은 김달삼(金達三·28)이라는 총사령장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1) 도민 생활의 안전을 복구시키는 당국의 적절한 시책

(2)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찰의 무장해제

(3) 경찰관의 권력남용의 엄금 및 모모 사설단체의 숙청 등의 요구조건을 걸고 이 현실 문제의 해결이 실현되지 않는 한 최후까지 도내 전 인민의 생명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재궐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당국의 대응책 여하가 자못 주목되며 제주도의 운명을 좌우시킬 관건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 제주도를 싸돌고 있는 무거운 구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 발 합동】

(같은 기사 자유신문 48. 7. 20 / 조선중앙일보 48. 7. 21)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0일

### 제주도 사건 그후의 변모 / 학교는 둔영(屯營)으로 / 학동들까지 ‘산사람편’

【제주도 발 조통】 동란의 화는 결코 이 섬의 평화만을 깨뜨리고 씻어가지는 않았다. 빈부의 차를 모르고 특수계급을 볼 수 없는 균등한 제주도의 자제들은 누구나 배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더욱이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은 육로에서 볼 수 없는 공동부조로 1부락 1국민학교, 1면 1중학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간 3개월의 참혹하고도 치열한 동란의 불길은 배움의 집을 병정의 둔영(屯營)으로 변하게 하였고, 민정(民情)의 불안으로 학교란 학교는 거의 다 폐문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기자단 일행이 방문한 이 곳 북촌(北村)국민학교의 아담스럽던 돌담은 어느덧 모진 비바람에 허물어져가고 돌보지 않는 교실에는 산산편편이



흩어진 책상 걸상이 어린 주인공을 잃어버린 채 음산하게 쭈그리고 있다.

교정에는 잡초만이 무심하게도 무성하고 군데군데 피어나는 코스모스가 임자 없는 교정을 홀로 지키고 있다. 조천(朝天)리의 학교에도 국방경비대가 숙소 삼고 주둔하고 있을 뿐 아동의 그림자는 찾아볼 바 없다.

학교를 지키는 두 명의 선생에게 수업상태를 물으니 “교원이나 아동이나 공포에 싸여서 나오지를 않고 있소. 가정교육의 철저한 소치인지 어린 아동까지 ‘산사람’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있소”하고 말한다. 확실히 이변 있는 옛날의 도원정에 홀로 화를 피할 수 있던 것은 허물어진 돌담 밑에 무성한 잡초뿐이더냐!

#### ■ 국제신문 1948년 7월 21일

#### 민익 수습 / 오리(汚吏) 단속 / 제주지사 소신 담

【제주도에서 서두성 특과원 20일 발 합동】 점차 민심은 안정되어 가는 한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주전투에 대하여 각 책임당국은 이 기회를 타서 사태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과 민심의 안정책에 대하여 임(任)도지사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1) 민심지도에는 민의의 참다운 소리를 존중하여 사태의 급속 수습을 기하겠다. 방금 각 지방에 순회좌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있다.

(2) 금반 사태로써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제책으로는 중앙으로부터 국고의 보조를 받아 이재민구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한 구호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3) 청년단체의 탈선행위에 대하여는 경찰당국과 긴밀한 연락으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일반 양민에게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동을 엄금하겠다.

(4) 일반 행정관청은 물론 경찰 내부에까지 잠복하고 있는 탐관오리의 숙청을 기하여 일반 민심을 안정시키며 일반적으로 하여금 신임을 받을 관도를 세움으로써 국민 일체화를 추진하겠다.

(5) 초·중등학교가 모두 복구하였으나 아직 출석률이 40% 내지 50% 밖에 되지 않는 현상이므로 앞으로 학부모의 협력을 얻어 조속히 종전의 상태로 복구시킬 방침이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현대일보 48. 7. 21)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1일

요즘 제주사태 / 아직도 불안한 정세

【제주도 발 조통】(전략) 지난 9일 현지에 당도한 부산기자단 일행은 10일·14일 2차에 걸쳐 국방경비대 연대장 최(崔)중령과 회견하고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하였다.

(문) 앞으로도 토벌을 더 계속 할 터인가.

(답) 필요시에는 하겠다.

(문) 현재까지 체포된 폭도의 수효는 얼마나 되는가.

(답) 실제 전투에 종사한 정예부대는 아직 하나도 체포되지 않고 중간 연락대원과 물자운반 등에 종군한 자를 현재까지 1,454명 체포하여 모두 석방하고 약 80명만 송청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문) 팔로군이나 북조선인민군이 다수 가담하고 있다고 하며 또 포로도 있다는데.

(답) 그런 일은 전연 없다.

끝으로 동 중령은 폭도수효를 확실히 모르나 정예부대가 약 200명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일반도민은 적어도 3,000명은 넘을 수효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폭도 정예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자는 28세 되는 학병출신으로 대정면 태생 이승진(李承晋)이라고 하며 김달삼 이상길(李相吉)등 두 가지의 가명을 쓰고 있다 한다. 폭도측의 완전 기동부대는 이 자가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도민들은 그를 인민해방군 사령이라고 부른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한성일보 48. 7. 21)

■ 한성일보 1948년 7월 21일

여전히 항전 계속 / 사령부에는 400 여명의 폭도 수용 / 제주소요 속보

【제주도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통】겨우 소강상태로 들어간 불안한 정세 아래에서도 시절은 가고 와서 지금 제주도 들판은 조와 감자심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뜬 뜬이 쟁기갈이도 안한 채 황무지 그대로 버려둔 밭이 눈에 띄니 이것은 소위 폭도들이 규정한 반역자의 밭들이라 한다. 그들은 부락별로 이러한 논밭의 소유자까지도 치밀히 조사하여 반역자라고 규정한 자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즉시로

집중공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소극을 면치 못하는 그들의 출몰이나 김달삼이라는 28세의 학병출신의 청년이 지휘하는 폭도들은 경찰에 대하여서 여전히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다. 국방경비대가 출동하면 대항 없이 종적을 감추는 그들이 “친애하는 경비대여, 김정개(경찰관을 이렇게 부른다)를 타도하라”는 뼈라로 경비대에 대한 태도의 일단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극도로 폭도측의 증오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동란의 제주도를 떠나 혹은 일본 등지로 나간다 하는 말도 결코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현지 국방경비대 사령부에는 지금 400여 명의 폭도측 포로가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경비대 경찰 그리고 미군 조사기관의 문초를 받고 석방이 되고 또는 법정으로 송치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심의 끝에 형무소로 줄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다. 기지단 일행이 이곳을 떠나는 날도 2·7사건 관계로 7명의 청년이 포박 당한 채 바다 건너 목포형무소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무허가집회, 뼈라 침부 등으로 2~3년 내지 3~4년의 징역연도를 받은 포고령 2호 위반자들이라 한다. 섬에서 감옥으로 가는 자식과 형제들, 또한 말없이 보내는 부두의 가족들, 오늘도 어제도 2·7, 4·3 사건 관계자들이 산란한 파도를 건너 멀리 육지로 죄값의 귀양살이를 간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48. 7. 21)

■ 국제신문 1948년 7월 23일

박(朴)대령 살해용의범 불일 군법회의 회부

동란의 제주도에 출동중인 통위부 육상경비대 제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을 살해한(1줄 누락) 감금 중에 있는데 취조도 일단락 짓게 되어 불일 군법회의(통위부 심사기관)에 회부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전(前) 제9연대장(제주도 주둔)이던 김익렬 중령도 구금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중령의 구금이유는 박대령 살해사건과는 별로 관계 없는 것이라고 통위부 측근자는 언명하였다. 그러나 소위 인민해방군 사령 김달삼(28)과 직접 면담도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김대령의 구금은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3일

제주도 그 후 사태 / 유기시체 처처서 발견

【제주 발 조동】 폭풍 가라앉은 뒤 가리어져 있던 지난날의 몸서리치던 상처가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다. 기자단 일행은 가장 큰 희생을 내었고 또한 쌍방의 교전이 치열하였던 애월면 하귀리를 찾아 이곳 중학교의 교원과 생도에게서 당시의 정경을 들었다.

“눈앞에 선한 당시의 실상을 지금 얘기만 하려도 몸서리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약 1개월 후에 경찰응원대가 폭도들을 소탕한다고 하여 70노인과 소학생까지 포함한 18명의 도민을 마을에서 사살하였습니다. 피살자 가운데에는 경찰에 협력하는 사상을 가진 자도 있었으나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사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어린 두 학생이 그 당시 무참히도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입술들은 떨렸다. 다시 기자단 일행은 부락민을 찾았다. “그때 이 앞 신작로에는 시체가 즐비하였수다. 피가 흘러서 길이 아롱이 졌고…” 말하는 부락민 가운데에는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노모가 우두커니 서 있다.

5·10선거 전후 경찰에 인치되어간 다수의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자 국방경비대나 경찰에 그들의 행방조사를 의뢰했으나 소란 가운데 찾지를 못하였다. 그런데 한사람이 불덩이가 꺼지자 무참히도 여기저기에 유기된 시체로 나타나고 있다 한다.

관민이 유리된 탓이라 할까. 도민의 억울한 사정은 호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한림면 저지와 조수국민학교에서는 7월 초순 경찰응원대가 개최한 계몽강연에 모인 군중 앞에서 1명의 경관과 동 후원회원이 교장과 교원 1명을 “경찰에 협력한 일이 있느냐”고 빈사상태에 이르도록 구타하였다 한다. 피해자는 전치 2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부락민은 다만 실색하였을 뿐이었다. 경찰청장도 이를 긍정하였고 가해자는 구속 문초중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제발 이 곳 뿐이기를 제주도민 어느 누가 원하지 않으리오!

#### ■ 서울신문 1948년 7월 24일

#### 선처 없으면 재발 위험 / 제주사건 대위회(對委會)에서 성명

지난 18일 민주독립당 회의실에서 한독당 민독당 등 20여 정당 참집하에 조직된 제주도사건 대책위원회 준비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금번 제주도 사건은 각종의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로 작년 3월 1일 기념행사시 경찰의 과도한 위압적 방침으로 경관 발포사건(양민 7명 사살)을 발생케 한 것

이 직원인이고, 둘째로는 과거 1년 동안 수백명 사설단체원이 지방에 배치되어 테러와 강제기부 등으로 지방민심을 극도로 자극시킨 것, 셋째로 경찰과 각 행정기구의 중요 지위에서 제주민을 일소한 것이 금일의 사태를 낳게 한 원인이다.

최근의 당국 발표로는 사건이 수습되어가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의 현재 상태를 두 가지 이유로 더욱 중요시하는 바이다.

즉 첫째는 사건의 근본적 해결이 없으면 재악화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둘째로 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보복적인 잔인행위와 엄벌주의가 애족정신을 유린하고 무고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7. 24)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4일

#### 제주도 사건 진상조사단 20여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

처참한 동족상잔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 사태는 우리 민족의 최대 불상사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사건 발생이후 현지에는 경민(警民)간에 무력전이 전개되고 있어 겨레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해방되었다는 이 나라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통분사가 자행되어 수개월이 경과된 오늘날 의연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전 인민들은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치열히 요청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장구한 시일을 끌게 되는 것인가? 따라서 사건의 전모를 냉정한 입장에서 규명 파악함은 사건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사건을 옳게 수습하는데 견마지역(犬馬之役)을 담당 하자는 견지에서 한독당(韓獨黨)을 비롯한 20여 정당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8일 ‘제주도사건 대책위원’을 구성하였다는 바 그 첫 사업으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제주도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하기로 되었다 하는데 조사단 멤버와 파견일자는 추후 발표하리라 한다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4일

#### 제주도 사건 대책위원회 성명

제주도사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된 제주도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23일 다음

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하(現下) 제주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족상잔의 처참한 사태의 원인은 각종의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로는 작년 3월 1일 기념행사의 경계로 수백 응원경관대의 파견, 이러한 과도한 위압적 방침이 마침내 그 당시의 경관 발포사건(양민 7명 사살)을 발생케 하여 금반 사건의 직접 원인을 조성하였음은 이미 세인이 주지하는 바이다.

둘째로는 과거 1년간의 수백 사설단체원이 이 지방에 배치된 사실이다. 즉 이들 사설단체원들은 일종의 관권력을 행사하여 제주도 각 부락에서 테러와 강제기부 등으로 이 지방의 민심을 극도로 자극시켰던 것이다.

셋째로는 경찰과 각 행정기구의 중요한 지위에서 이 지방출신을 일소하여 국민의 소격(疏隔)과 마찰을 격화시킨 것을 들 수가 있다.

이상의 사실 전체가 금일의 사태를 양성(釀成)한 중요한 원인으로 되는 것이다. 최근의 당국 발표로도 사건이 수습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의 현재 상태를 두 가지 이유에서 더욱 중요시하는 바이다.

그 하나는 사건의 근본적 해결이 없는 한 재악화의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점과 그 두번째는 이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보복적인 잔악행위와 엄벌주의가 애족정신을 유린(蹂躪)하고 무고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파괴할 위험성이 포유돼 있는 점을 경고치 않을 수 없는 바이다.

그리고 측문에 의하면 아직도 사설단체원으로 하여금 무장훈련을 자행하게 하고 소위 피해자 가족으로 하여금 경찰에 우선 채용한다니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작금의 각 신문보도를 통하여서도 제주도 경찰당국의 적절한 시책은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바이다. 우리는 40년 간의 야수적 일제정(日帝政) 시대에도 보지 못한 동족상잔의 참극에 대하여 이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으므로 애족적 정신에 입각하여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코자 하단 각 정당 사회단체가 지난 18일에 참집(參集)하여 제주도사건대책위원회 준비회를 구성하고 그 제1차 사업으로서 제주도사건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체 무순)한독당 민독당 근민당 신진당 사민당 근대당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불교청년당 삼균주의청년동맹 자주학련 건청 대한의열단 전국불교도총연맹 학병거부자동맹 자주여맹 우국노인회 조선민족대동회 조선민족해방연맹 조선농민당 조선건민회 삼균주의학생동맹

(같은 기사 국제신문·한성일보 48. 7. 24)

■ 국제신문 1948년 7월 28일

군형(軍刑)으로 4명 총살 / 제주사건 관계의 경비대원들

동란의 제주도에 출동중인 남조선 육해(陸海) 양 경비대 대원 중 반란 도망 군기 누설 등의 경비대령(令)에 저촉되어 현지와 서울에서는 각기 군법회의를 개최하고 준엄한 문초를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언도 판결이 내린 대원들을 수감 송청 중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현지와 서울에는 약 20여 명의 수감자가 있고 약 14~15명의 언도를 받은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언도를 받은 자들 중에는 약 4명의 총살을 받은 대원도 있다고 하며 통위부측에서는 그 성명과 인원수며 그 집행기일 등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8월 2일까지에는 총살집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탐문한 바에 의하면 총살형을 받은 이들 4명은 극히 불순한 동기로 경비대에 입대하여 금번 제주도 사건의 모종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위부측 고급장교단측 언명에 의하면 박진경 대령 살해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1945년 8·15이후 남조선에 있어서의 총살형은 금번이 처음인 만치 자못 주목을 끌고 있다.

■ 현대일보 1948년 7월 28일

제주 파견 연대 귀환

【수원 27일 발 합동】 제주도 소요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0일 현지에 파견되었던 국방경비대 제○○연대는 연대장 최경록 중령 인솔 하에 지난 25일 밤 전원 무사히 수원에 귀환하였다. 그런데 이제 ○○연대는 금후 수원 교외에 주둔할 것이라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9일

동란의 제주도 현지보고(1) / 무력만으론 해결불능 / 최(崔)국경비사령관 기자단에 역설

【제주도발】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의 현지답사를 목적으로 대구 법조기자단 일행이 부산을(13일 오후 8시) 출발하여 제주읍 항에 도착한

것은 15일 오전 9시경이었다. 일행은 무장경관의 엄밀한 검사를 받고 향하였다. 요 소 요소에는 무장경관·국방경비대원들이 삼엄한 경계진을 펴고 있다. 이곳은 제주 도의 수부(首府)로 도내 모든 행정수반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중앙여관에 여장을 풀 일행은 즉시로 '국방경비대 제주도방면사령부'를 찾아 최경록(崔慶祿)사령 관을 만난 바 씨는 기자단 일행에 다음과 같이 소요사태를 말하여 주었다.

(1) 4월 3일 사건 발생이후 7월 15일 현재까지 사령부에서 취급한 부로(俘虜) 수 는 약 1,800명 내외인데 그 중 석방자가 약 1,600명 가량이고 현재 부로수용소에 수 용된 사람이 약 150명 가량이며 송청자가 46명이다. 송청자 46명은 주모자로 인정되 는 사람들이며 그 중에는 여성이 약간 명 있다. 여성들은 대개가 가정부인인데 지식 정도가 모두 고녀(高女)출신이다.

2) 지금까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토벌을 4회 한일이 있었는데 산사람들을 체포할 수는 없었다.

3) 한라산에는 약 4개 연대(1개 연대 약 120명)로 약 600명이 잔존하고 있다.

4) 국방경비대원으로서 현지 재판관을 받은 사람은 43명인데 그중 사형이 5명이고 10년 징역이 10명이다.

5) 국방경비대가 산에 올라가면 산사람들은 발포하지 않고 경찰관이 산에 올라가 면 발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6) 산사람들의 연령을 보면 소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되어있는데 소년은 12세로 부터 노년은 60세까지 있다. 그 중 청년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장년과 소년이요 제3 위는 노년이다.

이상과 같은 단편적 담화를 기자단에 말해준 사령관은 끝으로 제주도사태 수습에 있어서 무력해결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다음 우리 일행은 최사령관의 안내로 내리는 소낙비를 맞아가며 산사람들로부터 압수하였다는 무기창고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일본군총 권총 일본군도 와사(瓦斯)탕 기 화약기구 죽창 톱 의류 전화기 미싱기 기타가 있었다. 전화기는 한라산 속 수많은 인조동굴에 칩거하고 있는 산사람들이 동굴과 동굴간에 전화설치가 되어있어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신문을 실증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싱기계는 산속에서 의복 을 수리하고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창고의 견학을 마치고 부로수 용소를 찾았다.

부로수용소는 육지에 있는 형무소와는 판관으로 평탄한 운동장에 야영용 천막을



친 것으로 겨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습기가 차 올라 바닥에 깔 가마니는 축축하고 주위에는 무장한 국방경비대원이 감시하고 있다. 천막수용소는 2개소로 수용인원은 약 40명인데 연령으로는 목하 20세의 청년, 최고 60세의 노인도 있었다. 이들은 산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락에서 농사에 종사 중 붙들려온 것으로 “지금 이게 석달째요”하고 기자단 일행에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30일

동란의 제주현지답사(2) / 산사람 요구는 경찰의 무장해제 / 김봉호 경찰청장과 일문일답

일행은 다시 제주도 경찰청장 김봉호(金鳳昊)씨를 찾아 본도 난(亂)에 관하여 일문일답 하였다.

(문) 금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답) 대요(大要)해서 세 가지 있다고 본다. (1)과거 경찰관의 도민에 대한 비행 (2)관공리의 악질배 도량(跳梁) (3)모당(某黨) 모략에 주민이 선동되고 있는 것.

(문) 현재 제주도에 배치된 경찰관의 총수는.

(답) 본도내 정상원수 약 500인, 타도 응원대원수 약 1,500인 계 약 2,000인이다.

(문) 현재까지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답) (1)대정면 : 5월 20일 밤 국방경비대원 약 40명이 대정지서에 응원하러 왔다고 하며 어두운 밤중에 입초경관을 포위하고 일제 사살하여 경관 4명을 즉사케 하고 도피한 후 익일 산사람들이 와서 지서에 방화하여 전소시킨 곳 (2)한림면 저지리 : 5월 5일경 산사람들이 동부락에 와서 우익과 경찰협력자로 지목하는 주민들 집에 방화하여 호수로 136호, 동수로 약 300동이 전소하였다.

(문) 산사람들측의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답) 그들이 산에서 「혈서(血書)」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신문을 통해 보면 요구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본다. (1)경찰관의 무장해제 (2)단정반대의 자유 허여(許與) (3)일체 사설단체의 즉시 해산 (4)제주도내에 모든 행정관리의 기용은 풍속과 관습을 이해하는 본도민으로 하라는 것 등이다.

(문) 산사람들의 활동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

(답) 각지에 출몰하던 소위 유격대가 지금은 자위대로 변하여 각자 부락에 돌아와서 경찰의 동향을 엿보고 있는 것 같다. 한라산에는 약 600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문) 사태 수습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답) (1)비행경관의 내부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2)최소수의 폭도를 체포하는데 최대다수의 양민을 희생하는 우책(愚策)을 쓰지 않겠다 (3)모당의 선전술에 주민이 재차 선동되지 않도록 민주경찰의 본의를 주민에게 선무하며 경찰관이 주민에게 쌀 한 알, 계란 한 개라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 4·3사건 이래 지금까지의 피해상황은?

(답) △습격 : 경찰서 25, 경관사택 8, 관공서 4, 선거사무소 18 △파업 1 △납치 : 경관 4, 경찰관가족 16, 관공리 2, 양민 293 △테러 5, 관공리 2, 양민 2 △방화 : 경찰서 2, 경관사택 4, 경관 가족주택 4, 관공서 3, 양민가옥 233 △파괴 : 경찰관서 2, 경찰관사택 2, 도로 3, 교량 5 △사망자수 : 경찰관 25, 경찰가족 25, 양민 82, 관공리 3, 폭도 171 △부상 : 경찰관 35, 경찰관 가족 35, 양민 69, 관공리 7, 폭도 14 △무기피탈 : 총기 23, 탄환 489 △무기회수 : 총기 14, 탄환 489 △행방불명 : 경찰관 6, 검거인원 282.

---

# 1948년 8월

## ■ 국제신문 1948년 8월 5일

### 관공리 부패가 주인(主因) / 제주사태에 원(元)검사 시찰담

서울지방검찰청 원택연(元澤淵) 검사는 약 10여 일간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지난 2일 귀경하였는데 현지사태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담화가 있었다.

“도민들의 당국에 대한 민심 이간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이 전하여지고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적색분자의 책동보다도 일반 관공리들의 부패가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도 한라산 산중에는 약 500여 명의 폭도들이 출몰하고 있으나 대체로 전의(戰意)는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도로에는 경찰의 경호가 없이도 여행할 수 있으나 아직도 완전 진압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새 정부가 서서 현지사태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8. 5)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5일

### 제주도 사태 / 사람없는 마을 / 유격대는 다시 공작개시 / 김(金) 3대 장 담

【수원에서 본사기자 심덕순 발】 제주도 소요사건 발생직후 파견되었던 국방경비

대 제1여단 제11연대 약 3,000명은 제9연대와 교대하고 수일전 수원 본연대에 돌아왔는데 전리품으로 장총 수십정, 장검 10여개, 수류탄 등이 있으며 사망자 8명, 부상자 약간 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소요현지로부터 귀환한 김용주 제3대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지에 출동한 것은 4월 20일경이었으나 경비대는 하등의 전투를 개시하지 않고 사태여하를 방관하고 있다가 5월 30일에야 전투를 개시하였는데 무차별 사격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부락에는 가축만 남아있고 대개가 산으로 도망하고 없다. 이는 경찰의 탄압과 폭도들의 유인이 원인인 것이다. 전투는 7월 초순부터 평온상태에 들어갔는데 유격대는 다시금 지하공작으로 들어가고 있다.”

■ 한성일보 1948년 8월 5일

소요 점차로 미약 / 원택연(元澤淵) 부장검사 담 / 제주도 근황

2주일간에 걸쳐 제주도 소요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지난 2일에 귀임한 원택연 부장검사는 현 제주도사태에 관하여 4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사건은 당국의 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시정(施政)이 큰 원인이 된 것이다. 한라산 산속에는 아직도 약 500명의 소요부대가 있으나 그 세력은 미약하며 그 주동자는 부분적으로 출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제주도 주변도로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 정부수립 후에도 제주도사건에 대하여는 심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경비대와 경찰 대립 운운은 전혀 거짓말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7일

제주도에 2차 응원대 파견 / 1관구청서

제1관구경찰청에서는 동청에서 앞서 제주도로 파견한 제1차 응원부대와 교대할 〇〇명의 경관대를 6일 오전 현지로 파견하였다.(인천 발 조통)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8. 8)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8일

### 무장한 산사람 다시 출몰 / 제주도 소요 아직도 불안정

일시 소강상태로 잠잠하던 제주도 소요사건은 또다시 재연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2일 3시반 경에 무장한 78명의 산사람들이 안덕면 ‘서도리’에 잠복한 것을 탐지한 동면 경찰지서원들은 이들을 공격하고 약 30분 동안 교전한 끝에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혔다.

체포 1명, 유기시체 2명, 99식 장총 2정, 탄환 54, 철모 3, 총검 1, 탄대 3 【제주 7일 발 조통】

(같은 기사 한성일보 48. 8. 8)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8일

### 제주 관공서원 피검 / 구국투위(救國鬪委) 관계로

제주경찰 특별수사대에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제주관재처를 비롯하여 북국민학교 제주측후소 언론기관등 광범위에 걸쳐 16명을 검거하였다.

체포의 원인은 분명치 않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5월 상순경부터 구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하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하며 전기 16명은 지난 8월 1일 전원 송청되었다. 【제주 7일 발 조통】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8일

### 경비대원 3명 총살형 집행

경찰서 습격과 살인 방화 등 범죄사실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준전시(準戰時) 군법에 의하여 총살형 언도를 받았던 경비대원 6명에 대해서는 그 후 통위부장으로부터 3명에 대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이 지시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3명 하사 강운경, 하사 이영배, 이등병 도인송은 지난 8월 3일 하오 3시 통위부장이 승인한 장소에서 제9연대장 및 2명의 미군장교, 제주 신문기자단 등 입회 하에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제주 7일 발 조통】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8. 8)

■ 한성일보 1948년 8월 8일

박대령 암살사건 공판 / 9일 군기대사령부에서 개정

7일 통위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경비대사령관 고(故) 박대령 암살사건 공판은 오는 9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동 군기대사령부에서 고등군법회의 재판장 대령 이응준(李應俊) 주심 하에 개정되리라고 한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조선중앙일보 48. 8. 8)

■ 국제신문 1948년 8월 10일

박(朴) 대령 살해범 / 고등군법회의 개정

한때 사회의 이목을 놀래던 조선경비대 제주도지구 총지휘관이며 제11연대장인 박진경 대령 살해범 문상길(文相吉·중위), 손선호(孫善鎬·하사), 배경용(裵敬用·하사), 양회천(梁會千·이등상사), 이정우(李禎雨·하사·도망 중으로 訴外人), 신상우(申尙雨·하사) 등의 고등군법회의는 작(昨) 8월 9일 상오 9시부터 통위부 고등군법회의실에서 이응준(李應俊·대령) 군법재판장 주심으로 고등군법회의의 검찰관 이지형(李智衡·중령), 서울지검 검찰관<sup>9)</sup> 김양(金養)씨 등 입회 아래 엄숙히 개정되었는데 이지형 군법회의의 검찰관으로부터 기소문의 낭독이 있는 다음 사실심리가 있었는데 상오 11시 일단 휴정하였다가 13시 정각부터 또 다시 속개하기로 되었는데 기소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11연대 부관인 문상길(중령<sup>10)</sup>)은 지난 5월 20일경 배경용(하사·제주 폭도와 내통)의 알선으로 제주도 폭도사령 김달삼(金達三·24)과 회견하고 모종의 결의를 한 다음 5월 15일 제2차 회담에서 연대장 박진경(朴珍璟·대령)의 살해할 사촉을 받고 수차 하수를 계획하고 있던 차에 5월 17일<sup>11)</sup> 박대령의 진급 축하연이 제주읍 옥성정(玉成亭)에서 개최되자 문상길 등 5명은 박대령 살해할 것을 모의하고 18일 상오 3시 30분 손선호는 권총으로 박대령을 살해하고 배경용은 전지(電池)를 흔들어 범인을 도망케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같은 기사 동광신문·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48. 8. 10)

9) 변호사의 오기.

10) 중위의 오기.

11) 6월 17일의 오기인 듯.

■ 경향신문 1948년 8월 11일

박(朴)대령 암살범 군법회의

제주도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범에 대한 군법회의는 9일 오전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되었다. 이지형 검사로부터 사건 총지휘자 김달삼과 두 번이나 만난 문상길(23) 중위와 저격범 손선호(23) 하사와 이를 도와준 배경용(19) 외 4명에 관한 청취서류의 낭독으로 이날의 공판을 끝마쳤다. 그리고 제2일인 10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준(李應俊) 대령 재판장으로부터 사실심리가 있었는데 이날 변호인측은 전일 검사가 낭독한 조서는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는 반박 변론이 있는 후 증인심문으로 들어가 당시 제주도 군기대장 이풍우(李豊雨) 중위와 5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으나 고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였으므로 변호인측은 이번 재판은 법정 중심이 아니라 검사중심이었다는 이의를 제출하고 오전 11시 30분 휴정하였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11일

제주관공서원에 벌금형

전번 제주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 검속되어 8월 1일 송청된 제주신보 기사를 비롯한 관재처 북국민학교 제주측후소 직원등 16명은 5일 벌금형 최고 1만원으로 전원 석방되었다.

■ 한성일보 1948년 8월 12일

증인으로 유동열씨 지명 / 박대령 암살공판 제3일

박진경 대령 암살범에 대한 군법회의 제3일은 11일 오전 9시부터 개정. 먼저 검사로부터 정극서(鄭極徐) 소위 외 1명에 대한 6월 18일 박대령 암살 당일의 전후 관계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는 다음 변호인으로부터 피고들에게 대한 증인 김직철(金直喆·2등상사), 이길하(李吉河·1등상사) 양인의 심문이 있었다. 이날 민간변호인 김양(金養)씨는 제주도사건에 관한 경비대의 근본방침에 따라서 피고들을 심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 증인으로 통위부장 유동열씨를 지명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검사 이지형(李智衡)중령의 반대가 있어 약간 의

논의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유씨를 출두키로 하고 11시 반 휴정하였다.

■ 경향신문 1948년 8월 14일

박(朴)대령 암살범 군법회의 계속

박대령 암살사건 공판은 13일도 계속하여 오전 9시 반 개정되었다. 제4일인 12일의 공판은 피고 문상길 중위 외 4명의 피고에 대한 심문이었거니와 이에 대하여 각 피고는 박대령이 취임후의 경비대원의 비행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13일 공판은 김익렬(金益烈) 중령의 증언과 당시의 제주도 총참모관인 정일권(丁一權) 대령으로부터 5월 3일 이후 직접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였다는 증언이 있었고 또 작전부장이던 임부택(林富澤) 대위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던 후 12시 10분 일단 휴정하였다.

■ 국제신문 1948년 8월 14일

“지령받은 일 없소” / 박대령 살해범 3회 공판정서 진술

박진경 대령 살해범 공판 제3일.

13일 상오 9시부터 개정되었는데 제2일인 12일 주범 문상길 중위의 기소문은 전 기고문 끝에 눈을 막은 후 조서에 대한 기록여하를 모르고 강제적으로 무조건 날인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심리서를 낭독하고 계속하여 공범인 신상우의 사실심리에 들어갔는데 신(申)은 모두가 2등상사 양회천(도망으로 起訴外人)의 사촉과 실지행동이 라는 진술을 하여 군법회의 장내는 일시 소란하였다. 한편 전 제9연대장(현 제13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모든 군사행동은 당시 최고작전회의 참모이던 드루스 미군대위의 지휘였고 박대령 살해는 전혀 자기는 모른다”는 중대 증언으로 상오 군법재판은 일단 휴정하였다(11시 20분).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14일

박대령은 도민을 무조건 탄압 / 문상길 중위 진술 / 박대령 암살 제4회 공판



박대령 암살사건의 제4회 공판은 지난 12일 동 장소에서 상오 9시 반부터 개정되었는데 문상길(文相吉)중위에 대한 심문이 개시되자 문중위는 소위 산측 사령관 김달삼과의 관계에 대하여 전후 2회에 걸쳐 만난 일은 있으나 암살지령에 대하여는 이를 단연 부인하였다.

문중위는 검사 심문에 정연한 태도로써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월 3일 제주도 소요가 봉기된 이후 전 11연대장<sup>12)</sup> 김종령 재임시와 박대령 부임 후의 대내 공기는 전반적으로 변하였다. 경찰의 폭도와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하여 김종령 지휘 밑의 경비대는 도민을 선무하기에 노력하여 그들의 신뢰를 받았으나 박중령 부임 후로는 경찰과 협력하여 소요부대에 무조건 공격명령이 내려졌으며 도민도 탄압하기 시작했으므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경비대 내부공기도 동요하였다. 나는 김종령의 동족상잔을 피하는 해결방침에 찬동하였으며 처음으로 김달삼을 만난 이유는 김종령과 회견시키기 위하여서였고 두 번째는 박대령 부임 후였는데 그때 김달삼은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동시 심리조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전기 고문 끝에 눈을 막은 후 조서에 대한 기록내용 여하를 모르고 강제적으로 무조건 날인한 것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그 조서날인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8. 14)

#### ■ 한성일보 1948년 8월 14일

#### 사건심문을 계속 / 박진경 암살공판 제4일

기보한 조선국방경비 파견 전(前) 제주도 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범 제4일 고등군법회의는 12일 오전회의에서 증인심문에 이어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속개되었다. 먼저 피고 6명중의 최고계급자인 문상길(文相吉)중위의 계속 사실심문이 있었고 이어 범행 현장지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정우(李禎雨·미체포)와 범행당시 행동을 같이 했다는 신상우(申尙雨)의 사실심문이 있었다. 그는 “박진경대령은 동포를 학살하고 진급했다” “미군인이 직접 위장(位章)을 달아주었다” 등등 흥분된 어조로 진술하였으며 다음 양회천(梁會千), 강승규(姜承珪), 배경용(裴敬用) 등 피고의 사실

12) 9연대장의 오기.

심리를 펼한 다음 카빈총으로 박대령을 저격하였다는 손선호(孫善鎬·22·하사관)가 법정에서 나서자 법정은 한층 더 긴장해졌다.

그는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를 말하러 함에 태연자약한 태도로써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천만을 위해서는 30만 제주도민을 다 희생시켜도 좋다. 민족상잔은 해야한다고 역설하여 실제 행동에 있어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며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방경비대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박대령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양민을 학살하고 압박한 구체적 사례를 들면 많다.

전 연대장 김익렬(金益烈) 중령이 있을 때에는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뼈라 등으로 선무공작을 했었으나 박대령이 내임하자 직접 공격명령을 내리고 만약 부락민이라도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살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민이 들로 일하러가다 경찰에 피살된 사실, 그 시체를 가지러 간 아들의 피살, 또 오라리라는 부락의 참상, 경찰의 사측으로 살인과 방화를 감행한 박근택의 무죄석방, 경비대원들의 전투중의 비행, 음식을 제공하고 안내까지 한 사람의 사살, 부락민을 체포해 가지고 폭도라고 하여 포로로 하는 사실 등등이 박대령 내임 후의 사태이라고 하고 이에 분격해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부언하였다.

이어서 제5일 공판은 13일 오전 9시부터 개정되어 강승규(姜承圭)의 재심문이 있었고 다음 전 연대장 김익렬중령의 재임당시의 방침상태, 명령계통 등에 관한 증언이 있었고 이어서 총사령부 총참모장 정일권(丁一權) 대령의 5월 3일 이후 브라운 소장, 단 군정장관 등의 현지 지휘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단시일 해결책으로 단연 공격작전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다음 당시 작전부장이었던 임부택(林富澤) 대위의 증언으로 오전심문을 끝마쳤다.

#### ■ 경향신문 1948년 8월 15일

#### 총살 체형 등 언도 / 박(朴)대령 암살범 고등군법회의

박(朴)대령 암살사건 제6회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속개되었는데 이날 전 피고 8인 중 황주복(黃柱福·24)과 김정도(金正道·25)에 대하여는 사실심문에 있어서

증거 불충분과 기소이유 불명확으로 재판장 이응준 대령으로부터 무죄석방의 언도가 있었고, 잠시 휴정하여 심판관 전원의 판정평의(判定評議)와 판결평의(判決評議)가 있는 다음 11시 20분 문상길(23) 중위 및 신상우(20), 손선호(23·저격범), 배경용(19) 등에 대하여 총살형에, 양회천(梁會千·25)은 일체의 급료 몰수와 무기징역, 강승규(姜承圭·22)에 대하여는 급료 몰수와 5년 징역에 처한다는 판결을 각각 내리고 11시 30분 박대령 암살사건 고등군법회의는 끝마쳤다.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15일

#### 제주 경계 다시 강화 / 지하선거 실시도 사실

【제주 발 조동】 8·15를 앞두고 제주도의 경계는 다시 엄중의 도를 가하였다. 당지 경찰청에서는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목포~제주간 여행증명제도를 다시 복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8·15 및 8·25 북조선선거에 대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상경계는 8월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장 김봉호씨는 산중 폭도측 동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확언키는 어려우나 폭도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는 쓸만한 것이 약 50정 가량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로서는 만일에 대처하여 만반태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당지에도 지하선거가 실시되었다는 데 대하여 동 청장은 그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불일상세히 발표하겠다고 말하였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 48. 8. 15)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15일

#### 4명에 총살형 / 박대령 암살사건 언도

박대령 암살사건에 대한 고등군법재판이 드디어 14일 오전 11시 반 문상길 중위(23) 신상우(1등상사·20) 손선호(하사·22) 배경용(하사·19) 4명에 대하여 총살을 언도하고 또한 양회천(2등상사·25)에 무기, 강승규(1등중사·22)에 5개년 징역을 언도하였다.

제4일째인 12일 피고 문중위의 심리진술에 이어 동일 오후에는 직접 하수자 배경용 손선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피고 배는 조직 전후의 진상을 상세히 진술한 후

민족상잔을 감행한 박대령의 암살은 당연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손선호는 태연자약하게 유창한 말로 암살 동기와 목격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박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공격은 전 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선무 작전에 비하여 볼 때 그의 작전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그릇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 우리가 화북이란 부락을 갔을 때 15세 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하였다. 또 5월 1일 오라리란 부락에 출동하였을 때 수많은 남녀노소의 시체를 보았을 뿐인데 이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 경찰의 비행임을 알게 되었다. 사격연습을 한다 하고 부락의 소(牛) 기타 가축을 난살(亂殺)하였으며 폭도의 있는 곳을 안다고 안내한 양민을 안내처에 폭도가 없으면 총살하고 말았다. 또 매일 한사람이 한사람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는 등 부하에 대한 애정도 전연 없었다. 박대령을 암살하고 도망할 기회도 있었으나 30만 도민을 위한 일이므로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 하나의 생명이 30만의 도민을 위한 것이며 3천만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달게 처벌을 받겠다.”

한편 이번 언도된 총살형은 통위부장을 거쳐 군정장관의 인준이 있는 후에 비로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 ■ 한성일보 1948년 8월 15일

#### 4명에게 사형언도 / 박대령 군법회의 일단락 / 암살공판

박대령 암살사건 제5일 고등군법회의는 오전 증인심문에 이어 오후에는 취조관의 증인심문이 있었다. 증인심문이 끝난 다음 변호인으로부터 무죄석방 해달라는 중간 재판요구가 있었으나 각하되고 재판은 계속되어 이지형(李智衡) 검찰관으로부터 범 죄사실의 범위와 실행요건에 대한 결론과 그릇된 민족지상 이념에서 군대의 생명인 규율을 문란케 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도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 이어서 관선변호관 김흥수(金興洙) 소령의 문중위 이하 각인은 산사람의 지령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무슨 사상적 배경도 없고 다만 민족애와 정의감에서 나온 범행이었으니 특별히 고려해 달라는 변호가 있는 다음 김양(金養) 민선변호인으로부터 “금번 제주도 소요사건의 직접원인이 일부 악질 경관과 탐관오리의 비행에 인하였다는 것은 이미 각 책임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해방된 이 땅에서 제주도민들이 가진 그 모든 불평과 분노 아닌 민족상잔에서 쓰러진 동포의 죽음을 본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하고 30만 도민을 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어리석고 좁은 판단이나마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뼈아픈 각오로 이러한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물론 박대령을 암살한 것은 유죄요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또 오늘날 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사회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8·15정권이양을 앞두고 바야흐로 완전 자주독립 하려는 이때 외세가 재무장하고 이 땅을 다시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으니 이러한 용감한 젊은 생명은 살려두었다가 차라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죽을 기회를 줄 것을 바라며 또한 그들은 반드시 민족을 위하여 싸울 것을 믿는다”는 변호가 있어 변호인의 말끝마다 묵묵하던 방청객의 얼굴에는 눈물이 호수같이 밀리고 감개는 물 끓듯이 용솨음쳐 보였다. 이날로 끝나치려고 애쓰던 동 회의를 14일 다시 제6일 공판으로 들어갔다. 극도로 긴장된 법정에는 곧 언도가 내리어 조선 경비법 제35조에 의하여 문상길(장교), 손선호, 배경용, 신상우(하사관)의 4명은 사형, 양회천(하사) 무기징역, 강승규(하사) 5년징역, 황주복(黃柱福·하사) 무죄, 김정도(金正道·하사) 무죄가 전달되자 방청석은 다시 슬픈 눈물에 잠겼다(하오 0시 반).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18일

쌀이란 구경도 못하는 제주 / 물가고로 도민의 생활고는 극도 / 학교는 교원 없어 황폐

최근 제주도로부터 돌아온 귀환자는 근간의 제주도 사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제주도사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놓여 있으나 조천면 등 몇몇 면리(面里)에는 아직도 폭도가 출몰하고 있으며 부락은 대부분 텅 비어 있다. 교통은 해제되었지만 시장에 쌀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일용품은 여전히 외래품에 독점되어 있으며 나날이 폭등하는 물가고로 도민들은 극도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방면에 있어서도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각 학교는 재개되어 겨우 아동들은 수업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장 이하 교원이 돌아오지 않아 황폐되어만 가고 있는 학교도 있다. 또한 중앙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란 도무지 볼 수 없으며 도내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신문인 제주신보는 지난번 종업원의 검거로 그나마 휴간상태에 빠지고 있다.” 【광주 발 조통】

■ 한성일보 1948년 8월 19일

총살형은 흑심(酷甚) / 요로에 감형진정서 / 박대령의 암살공판

제주도사건 진압차 파견되었던 조선경비대 제11연대장 박대령 암살사건에 대한 고등군법회의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피고에 대한 사형언도가 내리었다. 기쁨에서 맞이한 4년 전의 8·15민족해방은 건설을□ 사회혼란과 흥분에만 넘쳐 민심은 극도로 불안정하였다. 미군 정하에서 조직된 남조선 경찰은 인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이에 뚜렷이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사회의 혼란은 관공리에까지 미치어 곳에 따라서는 직분을 망각한 경관들이 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경민(警民)일체는 각 지방을 비롯하여 제주도에서 극심히 침식되었다. 자타가 공인하는바 일부 경관과 탐관오리의 비행에서 발단된 4월 3일의 제주도민 봉기는 나날이 확대되어 조선경비대의 출동에까지 이르렀으며 또한 금번의 고등군법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니 애초의 사건동기와 저간의 결과에 대하여 사회의 이목은 바야흐로 총집중되고 있으며 금번 민선변호인이었던 김양(金養)씨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였다.

“언제든지 범죄에는 범행동기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법에 의하여 범죄의 공정한 처단을 기할 목적으로 재판이 존재하는 것이며 결과를 초래한 동기와 원인이 중시되어 심리되는 것이다.

금번 암살사건 관계자의 범행동기가 사심사리(私心私利)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민족정기에 살고 죽으라는 국방경비대 자체의 신조에서 나온 애족적 신념의 조치라는 것은 엄숙히 말하는 피고들의 진술에서 명백하다. 또한 증인인 박대령의 참모인 임부택(林富澤) 대위의 진술을 보면 박대령 부임 전 평화복구를 목적으로 선무하며 그들과 다정하여진 피고들은 ‘①조선민족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②양민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는 등 타국과의 전쟁을 연상케 한 박대령의 명령에 피고들은 불응하였으며 민족□□사로서 살해를 결행한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 대사건이었던 2·26, 5·15사건에 있어서도 가해군인에 사형이라고는 없었다. 설마 애족애국적 신념의 발로 결과가 사형으로 보상된다면 사람을 나무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떼어버리는 격이 된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동 사건의 감형을 다시 주장하며 또한 국방장관과 딘 군정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20일

### 문중위 총살형 언도 / 각계에서 철회를 요망

과반 발생한 제주도 국방경비대 박대령 암살사건 군사재판은 14일 문상길 중위의 3명에 대한 총살형 언도로 폐정되었는데 총살형은 너무나 가혹하다 하여 일반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니와 이번 재판에 민간 변호인으로 종사하였던 김양태(金養泰)<sup>13)</sup> 변호사는 동 사건의 감형을 각계에 진정하는 한편 동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번 암살사건 관계자의 범행동기가 추호의 사심사리에 출발한 것이 아니고 민족 정기에 살고 죽으려는 국방경비대 자체의 신조에서 우리나라 애족적 신념의 소치라는 것은 피를 토하는 듯한 피고들의 진술로 명백하다고 도민의 생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박대령의 암살이 애족적 신념의 발로라는 것을 천명하여 각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터인데 19일 민주학련(民主學聯)에서 동 사건 언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당국의 언도철회를 주장하였다.

“조국의 예속화를 반대하고 쫓겨난 제주도 애국인민에 대하여 학살을 강요하고 동족상잔을 감행한 박대령의 반민족적 행동을 반대하고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며 수호한 문중위 등의 애국적인 의거에 총살형을 언도하였다. 우리 전 애국학생들은 전 인민들과 더불어 이를 한사코 반대하며 형의 언도를 무조건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 조선일보 1948년 8월 21일

### 지서장 또 피살 / 제주소요의 여파

한동안 잠잠하던 제주도에서 또 경찰지서장이 무장 소요인들에게 살해되었다. 19일 오전 0시 30분경 한림면 월령리에 소요부대가 출몰하고 있다는 정보에 접한 한림경찰 지서장 이(李)경위는 지서원 4명과 함께 급거 출동하는 도중 협재리에서 돌연 무장한 피한 10명에게 습격을 당하여 이(李)지서장은 현장에서 살해되었다. 【제주 조통】

(같은 기사 독립신보·서울신문·조선중앙일보·한성일보 48. 8. 21)

---

13) 김양(金養)의 오기인 듯.

■ 한성일보 1948년 8월 21일

해상에 괴선이 기총쏘며 도주

【제주 발 조통】 동란의 제주도 해상에 괴선 출몰 : 17일 새벽 4시경 본도 한림면 비양도 해상을 초계 중이던 해안경비대 경비정은 부근 해상에서 정체 모를 괴선 한 척을 발견하고 즉시 정지를 명하였는데 그 괴선은 도리어 2정의 기관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경비정으로 돌진하고자 하다가 북방으로 달아나 버렸다 한다.

경비정은 즉시 기지로 연락하고 기지에서 미군측에도 통보가 되어 미군에서는 김포비행장으로 가서 연락을 하는 등 비상조치를 하였다 하며 급거 출동한 미군비행기는 장시간 근해를 탐색한 듯 하나 그 후 소식은 불명하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전 기 괴선은 청백 2색기를 단 쾌속주정으로 백색에는 두 개의 붉은 별이 그려있었다 한다.

(같은 기사 서울신문·조선중앙일보 48. 8. 21)

■ 국제신문 1948년 8월 24일

제주 검거 977명

20일 중앙에 귀임한 제3차 제주도사건 토벌대장 수도청 근무 주철순(朱哲淳) 경감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 사건은 현재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락 지서 습격사건 같은 국부적 소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한다.

또한 지난 4월 3일부터 8월 3일간의 폭도 검거수는 977명인데 그 중 436명을 송청하였다 한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동아일보·조선중앙일보 48. 8. 24)

■ 동광신문 1948년 8월 25일

목포~제주 여행증제 부활

【목포】 지난 7월 5일부로 목포~제주간 정기 연락선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증명제를 폐지하여 한때 교통 완화를 도모하던 바 지난 13일부터 또다시 여행증이 필요하게 되었다는데 이에 대하여 목포경찰서에서는 당분간 목포~제주행 여객에 대하



여 당지로부터 발행한 여행증을 제시하여야 선표를 구입하게 되었으니 여객은 명심하여 틀림없도록 주의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다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25일

인민대표 대회 제2일 김달삼(金達三)씨 등단하자 박수우뢰

【공동통신】(전략) 제주도 대표 김달삼씨가 등단하자 제주도 인민투쟁의 총지휘자 김달삼을 환영하는 우리같은 박수소리로 장내가 떠나 갈 듯하며 회장의 인사들은 오래 계속되는 박수에 xx에xx의 경의를 표하였다. 김달삼씨는 제주도인민 항쟁과 이번 선거투쟁 무장봉기대와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피를 뿜는 듯 자세한 보고 마디마디에 찬양과 □□의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로써 오후 7시 제 2일의 대회는 전부 종료하고 각 대표는 최승희(崔承喜)무용단의 무용을 관람하였다.

■ 조선일보 1948년 8월 27일

박대령 살해사건 총살형은 부당 / 법학가동맹 견해

법학가동맹에서는 고(故) 박대령 살해사건에 관련하여 26일 “제주도민 30만을 위하여서나 또는 민족적 정기에서 보더라도 가해자 손선호(孫善鎬) 등 4명에 대하여 총살형에 처한다는 것은 범행동기를 전혀 무시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음을 법학도의 입장에서 강경히 주장한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 국제신문 1948년 8월 28일

제주도 상(尙) 미평온 / 현지에서 온 두 인사의 말

최근 제주검찰청으로부터 서울지검에 전근된 2명의 검찰관은 이즈음의 제주도 사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현지의 사태이므로 언제나 완전히 해결될 지 모르겠다. 지금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 무장한 폭도들이 아직도 산중에 은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달삼이가 해주에 갔는지 안갔는지는 모르

며 우리가 제주를 떠나기 얼마 전에 폭도측 대표 5명 또는 7명이 해주로 향해서 떠났다는 말은 들었다. 제주도 사태는 참 암담하기만 하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28일

문중위등의 총살형 철회 요구 / 민애청과 법학자동맹 성명

무고한 제주도 인민을 무자비하게 토벌하는 제주도 경비대 대장 박대령 암살사건은 그 동기가 애국애족의 지경에서 우리나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해범 문상길 중위 등에 대한 총살 언도는 너무나 민족정기에 거슬리는 처사라 하여 각계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바, 27일 민애청 법학자동맹 및 민애청 서울시위(市委) 등에서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박대령은 그 생모가 왜녀이며 대동아전쟁 당시 여성학병에 자원 참가하여 미영(美英)격멸에 위훈을 세운 알짜 친일파로 제주도에 파견되자 무고한 애국인민에 대하여 천인공노할 야수적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반역도인 박대령을 정의의 총탄으로써 처단한 문중위 등의 의거는 실로 민족정기의 발현임에도 불구하고 총살형 언도는 언어도단으로 즉시 총살형 언도 철회를 강경히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 서울신문 1948년 8월 29일

박대령 살범(殺犯) 감형하라 / 인권옹호연맹에서 성명

경비대 박대령 암살 피고인 문상길(文相吉) 외 3명에 대한 총살형 언도에 대하여 28일 인권옹호연맹에서는 “이번 제주도 사건에 있어 사실을 통해 볼 때 피고인들은 결코 사감(私感)에서가 아니라 실로 민족을 사랑하는 정의감에서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의 양정(量定)은 반드시 범죄의 동기를 참작한다는 행형상(行刑上) 대원칙에 의거하고 민족정의를 수호하는 견지에서 감형의 재결이 있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독립신보·조선중앙일보 48. 8. 29)

■ 조선일보 1948년 8월 29일

### 문(文)중위 등의 총살형 보류 / 감형여부 주목

전(前) 국방경비대 박진경 대령 암살사건 군재(軍裁)결과는 문상길(文相吉) 중위 외 3명이 총살형 언도를 받았거니와, 형의 집행은 정부 최고책임자의 심리가 있을 때까지 보류되고 있다.

그동안 각계에서 판결언도가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거니와, 동 사건 민간담당 변호사 김양(金養)씨는 감형진정서를 이미 딴 군정장관, 통위부장에게 제출한 바 있어 최후심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 김변호사 말에 의하면 오는 31일 사건관계자의 감형 가망 여부가 변호사에게 알려질 것이라 한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조선중앙일보 48. 8.29 / 동광신문 48. 8. 31)

■ 조선일보 1948년 8월 29일

### 제주사건 진상조사단 / 제우회(濟友會)에서 파견

서울제우회(濟友會)에서는 제주사건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 규명함으로써 그 결과를 전 민족 앞에 공개 호소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세우기 위하여 현지에 '제주도사건진상조사단'을 28일 파견하였다 하는데 참가단체는 신진당 사민당 외 7개 정당과 사회단체라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29일

### 경관 응원대 제주도에 파견

제주도에 응원경관대를 파견하는 수도경찰청에서는 제주도 사건 토벌대에 응원대를 파견하기로 되어 관하 경찰관 중 약 100여명을 선발하여 28일 아침 급행열차로 파견하였다. 이날 서울역두에는 윤내무장관 외 많은 경찰관들이 나와 특파응원대를 환송하였다.

(같은 기사 동아일보 48. 8. 29)

■ 한성일보 1948년 8월 29일

### 제주도사건 조사단 출발

작(昨) 28일 신진당, 사민당 등 7개 정당 사회단체를 규합한 제주도사건진상조사단은 일로 현지에 향하였는데 출발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내외 주시 하의 제주도사건은 발생 이후 5개월이 되어도 미결상태이고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다.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여 제주도 30만 동포를 구출함은 민족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실태에 관하여서는 종합적인 발표가 되지 못하는데는 극히 유감이며 이를 과학적으로 조사 규명하여 본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현지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조선중앙일보 48. 8. 29)

■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31일

### 문중위 등의 총살형 철회하라 / 신진당서 담화

저간 각계에서는 문중위의 총살형 언도에 대하여 그 가혹함을 지적하여 철회를 요구하여 왔는데 30일 신진당(新進黨)에서는 “제주도 사건의 해결은 조선 전 민족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전제하고 “박대령의 반민족적 처사를 중단시키려한 동 중위 이하 제 병사에 대하여 총살형을 가함은 절대 규명치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즉시 철회하기를 강경히 주장한다”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

# 1948년 9월

## ■ 독립신보 1948년 9월 1일

### 문중위 사형 반대 뼈라!

지난 30일 하오 5시경 시내 화신 5층으로부터 돌연 수많은 뼈라가 가두에 살포되었는데 뼈라의 내용은 문중위에 대한 사형집행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한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9. 1)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일

### 응원경관대 800명 도착 / 동포상잔 비극 또 다시 전개 / 제주사건

【목포에서 본사 임동준 특파원 발】 한때 소강상태에 놓여 있던 제주도 사태는 방금 새로운 단계에 돌입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즉 8월 20일을 전후하여 경찰당국에서는 제주도 해안선 봉쇄와 여객출입의 사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 각 경찰관구로부터 제주도 응원 경관대를 증발 파견하고 있다는 바, 그 수는 800명에 달하며 거의 전부가 29일 선(船)편으로 목포로부터 이미 제주도에 입항하였다고 한다.

당지 소식통에서는 금번 응원경관대 증파는 당국의 제주도사태 수습에 대한 평화적 수단의 포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주도 사태는 불원전 면적인 무력소탕전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추측이 유효하여지고 있어

일반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다.

한편 제주도 모 고관의 말에 의하면 금번 조치는 현지 당국에는 전연 사전연락이 없이 당국측이 취한 조치라 하는데 이러한 무력방법으로서는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통된 견해가 되고 있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일

문중위 등 감형하라 / 기독교 민주동맹 주장

어제 31일 기민(基民)에서는 문중위 총살언도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제주도사건을 무력으로 해결 지으려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전제하고 “문중위가 박대령을 암살한 동기는 애국 순정에서 나온 민족정의 수호에 있으므로 사형언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동시 “그 감형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 48. 9. 1)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일

문중위 등 행위는 민족정기에서 / 사형 취소하라 / 재일조련(在日朝聯)서울위(委)서도 성명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5·10선거를 반대하고 봉기한 제주도민의 위대한 애국성을 박대령은 학살과 고문과 총검으로써 전 도민을 소탕하려한 것이다. 이는 박대령이 제2차 대전 중 강도(強盜) 일제에 자진 학병으로 나가 충성을 다하였던 자이며 해방 후는 그들의 새로운 주인에게 그 충성을 드리는 데 전 도민의 무차별 학살로써 진충(盡忠)하였으며 그를 계속하려 하였다. 이에 분연하고 동족살상을 묵과할 수 없는 민족정기에서 문중위 등 제씨는 박대령을 살해한 것이다. 이런 애국애족열에 불타는 의거를 불구하고 사형판결이라는 그 부당성을 재일 60만을 대표하여 지적하고 즉시 취소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는 바이다.”

■ 동광신문 1948년 9월 2일

최대 토벌전 전개? / 특별 응원경관대 도착 / 제주도는 언제나 평화

지가 되나?

【제주 31일 발 조통】 제주비상경비대에서는 지난 26일과 30일의 두 차례에 걸쳐 재차 특별응원대가 도착한 것을 계기로 폭도와 이에 부화뇌동한 자는 속히 귀순하라는 요지의 포고를 발표하고 만약 귀순하지 않으면 최대의 토벌전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였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2일

제주조사단 목포서 지체 / 여행증명 불여의(不如意)로

조선인권연맹 강중인(姜仲仁)씨를 단장으로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 제주도사건 진상조사단 일행 □1명은 28일 당지에 도착하였는데 여행증명이 여의치 못하여 수일 후나 제주도를 향발할 예정이다. 【목포 발 조통】

(같은 기사 독립신보 48. 9. 2)

■ 독립신보 1948년 9월 3일

제주소요 관계 200명 광주지심(地審)에

제주도 소요사건 관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공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 32명이 지난 8월 29일 당지 형무소로 수감되었다. 그런데 다시 계속하여 180명의 미결수가 광주 형무소로 이감되어 당지 법정에서 공판을 받게 되리라고 한다. 【광주 발 조통】

(같은 기사 자유신문·조선중앙일보 48. 9. 3)

■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

제주사태 악화 / ‘토벌전’ 을 재연?

【제주 발 조선】 금반 청장회의 참석차 상경하였다가 귀임한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씨가 말한 바에 의하면 목하 제주도 사태 수습을 위하여 ○○○명의 응원대가 내도중이라고 한다. 이는 종래에 보던 단순한 증원이 아니고 단시일간에 사태의 전면적 결말을 짓기 위함이며 씨가 상경하였을 때는 딴 군정 장관을 비롯한 중앙 권

위층에서 미리 계획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사건 초기에 있어서는 현재 수도경찰청원인 500명에 300명을 증가시킨 800명의 경찰력으로 점진적 수습을 계획하였으나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까닭에 누차 응원대를 파견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사태는 이로 인하여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또 다시 악화될 기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 한다. 중앙권위층에서는 여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1) 과반 제주도 근해에 괴선박이 출현한 것.

(2) 무장 폭도가 재출현하였다는 것.

(3) 한림지서장이 살해당한 것.

(4) 폭도의 지도자 김달삼이가 인민항쟁에 관한 보고차 평양으로 갔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여하간 비상경비사령부에서 발표한 8월 25일부 포고문 중 “최대의 토벌전이 있으리라”는 경고에 비추어 불원간 일대 토벌전이 있을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독립신보·조선중앙일보 48. 9. 3)

#### ■ 조선일보 1948년 9월 3일

#### 제주사건 토벌전 재개? / 상잔(相殘) 화근은 무엇 / 무장응원대 파견설의 귀추 주목

제주도에서 조선통신이 전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찰청장 회의에 참석했다가 귀입한 제주경찰감찰청장이 말한 바에 하여 방금 제주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몇 천명의 무장응원대가 내도 중에 있어 결정적인 토벌전이 벌어질 기세가 보인다고 근거 유력한 듯한 시사를 보도하고 있다. 다시 이렇게 된 경위로서 앞서 제주도 근해에 정체모를 무장 선박이 출몰한 사실과 한때 잠잠하던 폭도가 요즘 다시 나타나 한림면 경찰지서장이 살해당한 사실, 그리고 제주 소요사건의 지도자인 김달삼이가 이미 보도된 바와도 같이 이번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회의에 참석하여 제주도 인민항쟁 상황을 보고하였다는 사실 등 이런 객관적 정세에 비추어 던 군정장관을 비롯한 중앙당국의 수뇌부간에서는 미리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통일 투쟁사상에 골육상잔의 비극으로서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제주도 사건은 그 동안 식자들 사이에 그 발생된 바 원인을 여러 각도로 검토되어 결국 제주



도의 특수한 실정에 비추어 평화적 방법으로 임할 것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았고 군정당국에서도 경비대와 경관대 출동으로 한고비 넘긴 이후 경찰감찰청장을 갈고 관리들도 제주도 사람으로 갈아넣어 인심을 수습하기에 노력한 덕택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가 이 상태로 나가면 무사 해결되리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던 차에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다시금 겨레끼리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화근이란 대체 과연 무엇일까. 단지 위에 말한 ‘객관 정세’만으로 골육상쟁의 불가피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좌익계열의 정치적 암약과 제주도민 30만의 평화와 나아가서는 이 강토의 평화를 아울러 생각해 볼 때 가뜩이나 남북대립이 날카로워 무거운 공기가 떠도는 이 판에서 신정부 당국은 제주도 사태에 대하여 모름지기 대국적 견지에서 심사숙고 신중히 임함이 있을 것으로 다대수의 겨레는 바라마지 않는다.

####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3일

#### 못가게 하는 이유는? / 제주 현지조사단 경찰이 승선 금지

【목포에서 본사 특파원 임동준발】 제주도의 참극이 발생한 이후 수개월에 이르는 오늘날 아직 그 해결책조차 막연함에 비추어 이의 민족적 도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28일 서울을 출발하여 제주도 현지에 향하던 각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현지 조사단은 29일 목포경찰 당국의 용인을 얻어 제주행 연락선을 승선하려던 찰나 돌연 경찰당국에서는 ‘제주도행 응원경관대 총감독의 명령’이라 하여 승선을 금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부득이 조사단 일행은 목포서장과 재교섭한 결과 9월 1일 승선 허가를 받고 1일 하오 2시 승선하였던 바 목포서 사찰계에서는 조사단 일행에 대하여 엄중한 신체수색을 실시한 다음 광주경찰청의 지시라고 조사단 일행의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승선을 재차 금지하였다. 이렇듯 제주도 현지 조사를 금지당한 조사단일행은 목포경찰 당국에 엄중 항의하는 한편 신중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 48. 9. 3)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3일

문중위등 총살형 즉시 철회하라 / 민중동맹 담화

2일 민중동맹(民衆同盟)에서는 문중위 총살형 판결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 “박대령을 살해한 문중위 등의 범행은 그것이 피끓는 정의감과 뜨거운 동족애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일반의 살인과 그 궤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것이 범죄로 구성된다면 이는 이론이 없으나 그의 벌을 생명형으로써 한다는 것은 지나친 판결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총살형 언도를 철회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하였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3일

사형은 부당 / 근대당(勤大黨) 학병거부자연맹서도 성명

근로대중당과 학병거부자연맹에서도 1일 담화를 발표하여 문중위 총살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그 언도 철회를 요청하였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4일

제주 토벌중지하고 문중위 등 사형 철회하라 / 민전 인공 청구 담화

3일 민전과 인공당 천도교청우당에서는 각각 제주도 사태 및 문중위 총살형 언도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금번 제주도에 대한 경찰과 경비대의 지속적인 대량 파견은 제주도 형제들과의 상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제주도 동포에 대한 토벌을 즉시 중지하고 애국의 열의에서 나온 문중위의 총살형은 철회하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역량을 집결하여 외군철폐 조국통일의 민족과업 완수에 총진군할 것을 호소하였다.

■ 서울신문 1948년 9월 5일

제주토벌 중지 요망 / 교협(敎協)에서 담화 발표

조선교육자협회에서는 긴박한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에 또 다시 800명의 무장토벌 부대가 파견되었다고 전한다. 나날이 심각하여 가는 민생고는 본체만체, 수해지 재민의 참상에도 귀를 막고 이게 자주독립의 민족의사가 말살되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파시스트 독일과 일본은 패망하였느냐? 사태를 정시(正視)합시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살상이며, 또 무엇 때문에 동포의 생명이 이렇게 짓밟혀야 하느냐? 말입니다.”

#### ■ 조선일보 1948년 9월 5일

##### 제주사태 긴급을 호소 / 출항제지로 현지조사단 분기(奮起)

제주도 사건 현지 조사단 일행은 목포부두 출발 직전 2차에 걸친 당국의 명령으로 출범을 제지당하여 부득이 현지행을 단념하고 2일 상경하였는데 상경에 앞서 당(목포)에서 요지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28일 목포에 도착하여 2차나 현지행에 승선하려는 찰나에 제지되고 말아 마침내 현지 조사를 단념하고 귀경하지 아니치 못함은 유감이라기보다 비분을 금할 수 없다. 지난번의 경과야말로 제주도의 최근 사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 조사단은 귀경 후 목포 체류 5일간에 견문한 것을 기초로 하여 제주 사태의 긴급화와 그 대책수립을 전 민족 앞에 호소할 것이며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점은 길이 사과하는 바이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9. 5)

#### ■ 조선일보 1948년 9월 5일

##### 제주도 사태에 3개 단체 성명

재차 긴박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4일 조선교육자협회, 전국유교연맹, 조선문화단체총연맹 등 3개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골육상잔의 참극을 발단시킨 경찰은 다시 각 정당단체의 현지 조사단을 하등의 이유도 없이 중도에서 제지하더니 이번에는 또 다시 무장응원대를 다수 파견하여

소위 토벌전을 전개한다 하니 제주도 인민에게 학살로써 임하는 것은 결단코 조선 인민의 의사는 아닐 것이며 평화적으로 해결치 않고 총검으로 무찌르려 함을 3천만 동포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살육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는 동시에 최후 승리를 획득할 순간까지 씩씩하게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5일

제주도 증원부대 파견에 여론 비등 /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 각 정당 단체서 성명 발표

누차 말하거니와 제주도 사건은 우리 민족 전체의 일대 비극이다. 민주통일독립을 지향하는 우리 동포들로서 가장 피하여야 할 동족상잔이란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민들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목메어 부르짖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당국으로부터 최근 또다시 800명의 증원부대가 파견되었다 한다. 그리고 ‘단시일내에 결말’ 운운하는 보도가 전하여지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무력으로서의 ‘일대 소탕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니 이는 곧 인민들이 한사코 주장하고 있는 평화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급기야 각계에서 이에 대한 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는데 4일 각 정당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문련(文聯)성명 :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피를 흘렸는데 다시금 대량적으로 경찰과 경비대를 파견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주도의 형제자매에 대한 동족상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남북통일과 자유와 정의와 삶을 갈망하는 제주도 인민의 요구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무력으로 하려 하므로 우리는 묵과할 수 없으므로 제주도에 대한 살육을 즉시 중지할 것을 10만 문화인은 3천만 인민과 함께 강경히 요구한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제반문제는 남북통일의 중앙정부 수립에 있음은 재연할 필요도 없으므로 우리 문화인은 이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하여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성명한다.”

△민주한독당(民主韓獨黨) : “제주도인민의 봉기를 단순한 파괴를 위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력으로 탄압하여 전도는 거의 황폐화되었는데 또다시 무장경관을 증파하여 ‘근본적으로 소탕’ 운운하니 본당은 애국적인 동족을 한사람이라도 희생시

김을 참을 수 없어 3천만 인민과 더불어 즉시 여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경히 주장한다.”

**△교협(敎協) :**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이고 처참한 민족상잔의 비극이 예상된다. 제주도 인민에게 무력으로써 임하는 것은 결단코 조선 인민의 의사일 수 없다. 사태를 직시하자. 이 참극이 누구를 위한 참극인가를 똑바로 보자. 통일적 중앙정부의 깃발 밑에 구국의 성업을 완수할 시기는 왔다. 단결하여 양군을 철퇴케 하여야 하며 양군이 나가는 날 삼천리 강토에는 독립과 평화가 올 것이다.”

**△민주여맹(民主女盟) :** “우리는 동족상잔의 죄악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전 여성의 이름으로 이를 단연 배격하여 제주도의 토벌 즉시 중지를 강경히 요구한다. 우리 인민들은 외군을 철퇴케 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멸족적 동족상잔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 48. 9. 5)

#### ■ 국제신문 1948년 9월 7일

##### 목포경찰서 갈 길을 막아 / 제주진상조사단 허귀(虛歸)

제주도 사건 진상을 조사하여 제주도 사건 조속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직된 제주도사건진상조사단은 목포에서 목포경찰서의 부당한 제지로 목적지 제주도에 가지 못한 채 부득이 귀경하였는데, “민족상쟁의 비극 제주도 사건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상조사는 해야 하겠다”는 성명을 5일 발표하였다.

#### ■ 독립신보 1948년 9월 7일

##### 30만 제주 동포에 민족적인 구원을 재(再) 호소 / 제주도사건 진상조사단 성명

제주도 문제는 어느 각도로 보든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비참한 참극의 하나이다. 동족상잔의 참극이 이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조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진상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정당사회단체 제주도사건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는데 목포에서 경찰당국으로부터 제지되었다. 이에 대해서 동 조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경위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포 여러분! 전 세계의 주시와 3천만 민족의 절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제주도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정당, 사회단체로써 구성된 본 조사단은 지난 8월 28일 전 민족의 커다란 기대를 짊어지고 현지로 향발하였던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족상잔이란 거래의 참극을 높은 민족적 견지에서 거족적으로 급속 해결할 길을 찾기 위하여 그 진상을 조사, 구명하겠다는 본 조사단의 사명을 감히 반대할 자 누구이며, 그 사명 수행을 감히 저지할 자 누구이겠습니까마는 실제에 있어서 본 조사단은 목포경찰의 승선 제지로 현지행을 저지당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일대 민족적 통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목포경찰은 무슨 이유로써 본 조사단의 승선을 제지하였던 것입니까? 그들은 제1차로 지난 29일 본 조사단이 그들의 승인 밑에서 제주행 연락선에 승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 찰나에 ‘응원경찰대를 인솔하고 현지로 가는 총사령관의 명령’이란 구실로써 승선을 제지하였고, 제2차로는 9월 1일 본 조사단이 정식 수속을 밟고 그들의 정식 허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승선 찰나에 전 단원의 신체의 행장을 엄중 수사한 끝에 제주도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를 수집한 스크랩북을 압수하는 한편 혹은 ‘상사의 명령’ 혹은 ‘신분 불분명’이란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또다시 승선을 제지하였던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본 조사단은 전 민족 앞에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무능을 사과하는 동시에 제주도 사태는 이미 삼천만 민족이 좌시할 수 없는 위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조사단은 위정 당국에 대해서 전 민족이 반대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토벌적인 모든 조치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사건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에 대한 당국의 토벌적인 조치에 반대하여 총궐기하는 동시 보다 더 광범하고 강력한 조사단을 재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제주도 사건 진상 조사사업을 강력하고 급히 추진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본 조사단의 숭고한 임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만이 제주도 30만 동포를 금일의 참극에서 구출할 수 있고, 제주도 사건을 높은 민족적 견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마지않습니다.

동포 여러분! 제주도 동포의 비절하고도 웅대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들에게 하루 속히 민족적 구원의 손을 뻗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전 민족 앞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9. 7)

■ 동아일보 1948년 9월 7일

선무공작으로 민심수습 / 제주도 사태와 군(軍) 방침 / 제5여단 참모장 담

【제주 발 조통】 제3여단 소속 제주도 제9연대가 지난 8월 8일부로 제5여단에 소속되었는데 제5여단장을 대리하여 지난 8월 30일 공로로 당지에 도착한 제5여단 참모장 오덕준(吳德峻) 중령은 왕방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9연대가 제5여단 관하로 소속된 후 본도 순시와 아울러 본도 사태를 조속히 해결코자 함이 본관이 내도한 제일 목적이다.

제주도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으므로 군으로서는 사태수습의 방법을 완화책에서 구할 것이며, 그 단계로 선무 등을 적극 전개하며 동요 중에 있는 도민들의 민심을 수습코자 하고 있는데 벌써 군의 의무반이 농촌에 나가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방의 민심수습에 현저한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동 중령은 본도를 답사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민들의 왕성한 근로정신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나는 앞으로 건군에 있어 근로정신을 모범하도록 할 작정이며 광주로 돌아가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게 할 것이다.”

(같은 기사 동광신문 48. 9. 8)

■ 서울신문 1948년 9월 7일

제주에 응원대 / 토벌전 개시?

【부산】 동족상잔의 유행이 계속되는 제주도는 수차에 걸쳐 진압정책을 기도하여 왔으나 아직껏 소요가 계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육지 각지서 응원부대를 보내고 있는데 경상남도 제7관구 경찰청에서도 〇〇명이 31일 항만청 소속선 ‘영등포호’로 출발하였다.

■ 서울신문 1948년 9월 7일

비극의 섬 제주 / ‘토벌’ 즉시 중지 요망 / 승선 금지된 조사단 귀경 성명

제주도사건 진상조사단 일행은 목포 부두 출발 직전 2차에 걸쳐 당국의 명령으로 출발을 제지당하여 부득이 현지행을 단념하고 상경하였는데 7일 동 조사단에서는 요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주도 사태는 이미 3천만이 좌시할 수 없는 위험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바다. 그러므로 해서 본 조사단은 위정당국에 대해서 전 민족이 반대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토벌적인 모든 조치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는 한편 강력적으로 조사단을 재편성하여 거족적으로 제주도 사건 진상조사 사업을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제주도를 오늘의 참극에서 구출할 수 있고 제주도 사건을 높은 민족적 견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7일

동족상잔 중지하라 / 12정당 단체 성명 발표

6일 인민공화당 민주독립당 근로대중당 조선문학가동맹 조선미술동맹 조선연극동맹 반일운동자구원회 재일조선인연맹서울위원회 학병거부자연맹 민주학생연맹 조선농림기술협회 조선민족대동회등 12 정당 사회단체에서는 금반 경관 증원부대 파견은 민족만대의 유한사(遺恨事) 동족상잔을 감행하려는 것이므로 당국은 하루빨리 무력토벌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요망한다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하였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7일

문중위등 사형 반대 / 교협(敎協)서 담화

조선교육자협회에서는 6일 문중위 등에 대한 사형에 반대함과 동시에 그들의 구명을 인민과 당국자에게 열렬히 호소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 한성일보 1948년 9월 7일

제주진상조사단 승선금지로 귀경



25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당사회단체 제주도사건진상조사단’에서는 지난 28일 서울을 출발하였거니와 당국의 승선금지로 목포에 체류만 하다 지난 4일 아무 성과 없이 서울에 귀환하였다 한다.

■ 국제신문 1948년 9월 8일

제주도 사태에 민주독립당 성명

“일시 소강상태를 보지(保持)하고 있던 제주도 사건은 금반 당국의 토벌대 증파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불원 또 다시 골육상잔의 일대 참극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군(兩軍) 동시철퇴, 완전 자주독립. 이것이 그들의 구호라 하니 이 얼마나 뚜렷하고 숭고한 이념이냐. 남한정부의 당로자(當路者)로서 추호라도 완전독립이란 위국지심(爲國之心)이 있다면 어찌 이에 무력으로써 탄압할 것이며 총검으로써 살육할 것이라. 피차(彼此)가 혈육을 나눈 동족인지라 조국의 통일 자주 독립을 기원하는 성심이야 다를 바 있으랴. 모름지기 당국은 생각이 이에 이른다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자재(自在)하리라고 믿는다.”

■ 독립신보 1948년 9월 8일

무장경관대의 증파 / 제주도 유혈 참극 예고! / 조사단 경찰 제지로 여론 점고(漸高)

기보한 바 제주도 소요사건을 진압할 목적으로 당국에서 응원부대를 파견하였다는 보도는 ‘유혈의 참극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화적 해결을 갈망하여오던 인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비보가 아닐 수 없었다. 급기야 각 정당 단체에서는 이 무력에 의한 해결을 반대하여 연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데 6일 12 정당 단체의 성명에 이어 7일에도 근민(勤民), 전평(全評), 전농(全農), 기민(基民), 과학기술연맹, 건청(建靑) 등 제 정당 단체에서 “무장 응원대 파견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하고 있어 제주도 무력탄압에 대한 여론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주도의 사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당히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지는 목적으로 지난해 파견된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현지 조사단이 목포에서 경찰에 제지되어 현지에 발도 대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동 조사단에서 이미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거니와 정당한 수속을 밟아 출발한 동 조사단이 중도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여론 또한 분분한 바 있다.

**△제지(制止)는 부당하다, 근민당(勤民黨) :** 금번 파견된 조사단의 구성으로 보아도 민족적인 양심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정당하게 해결하려는 의도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단의 상륙을 관헌으로 하여금 제지하였다는 것은 제주도의 실태가 백일하에 폭로될 것을 우려한 데서 나온 수법일 것이다. 우리 당은 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무력으로써 인민을 토벌하는 소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고창한다.

**△낙담(落膽)하였다, 제우회(濟友會) 답 :** 원래 우리 단체는 친목단체이니 만큼 말하기는 거북하나 제주도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느니 만큼 금번 조사단이 제지당하였다는 말에 참 낙담하였다. 그 후 “조사단 구성을 확충하여 기어이 조사를 한다”는 조사단장의 성명 내용을 보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학병거부자연맹 :** 7일 학병거부자연맹에서는 조사단 제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단의 현지행은 사건의 해결에 이바지할 바 적지 않을 것이 기대되었는데 목포서의 이러한 지나친 조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조사단의 일체 행동을 보장하여 진상규명에 □자하도록 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9. 8)

#### ■ 동광신문 1948년 9월 8일

#### 제주 소요사건 기록 / 무려 5,000여 정(丁) / 광주법원서 정식 수리

민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 사태는 아직도 근본적 해결의 서광이 보이지 않거니와 그간 제주검찰청에서 문초를 받고 있던 소요범 32명은 지난 8월 29일 광주형무소에 이감되고 이들에 대한 공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담당케 되리라고 전해지고 있던 바, 지난 4일 광주지방검찰청 부검사장 김영천(金永千) 검사로부터 대법원장 명령에 의하여 동 사건을 제주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되었음에 인하여 사건을 송부한다는 전문과 함께 무려 약 5,000페이지에 달하는 일 건 서류와 더불어 증거물을 송부하여 왔으므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작(昨) 7일부로 이를 정식 수리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합의 재판이 근일 중에 열리게 되었다 한다.

■ 독립신보 1948년 9월 9일

제주도민 무력탄압 중지하라 / 유련(儒聯) 민애청 사맹(寫盟)서 성명

제주도에 무장경관대를 증파하였다는 보도가 전하여지자 기보한 바와 같이 무력 탄압을 중지하라는 인민의 여론은 비등, 연일 각 정당 단체에서 성명 담화를 발표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외치고 있는데 8일 유련, 민애청, 사맹 등에서도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을 즉시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하고 있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9. 9)

■ 조선일보 1948년 9월 9일

사설 : 제주도 사건 재검토

제주도 사건은 4월 초순 발생 이래 장근(將近) 반년에 일시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듯 하더니 최근 다시 경찰에서 토벌대를 증파한다는 사실로 보아 다시 사태가 험악 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거의 전 도민이 관(官)에 대한 불만불평의 증오감정을 본 사건에서 직접 폭발시키고 있는 점에서 돌연히 일종의 반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무력에 의한 토벌 그것만으로는 해결을 기약키 어려운 점은 현지의 국방경비대며 경찰의 책임자가 누누히 지적한 바 있었거니와 우리도 일찍부터 정치적 비상수단을 베풀 것을 군정당국에 경고한 바 있었다. 군정당국에서도 도민의 불평이 과연 뜻 있는 바를 인정하고 지사며 경찰책임자 이하 점차로 제주도 출신을 등용하여 위무(慰撫)에 힘쓰는 듯하였으나 지금까지 별로 효과가 크지 못했던 것은 최근 사태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재작(再昨) 대구사건과 아울러 미군정하의 최대의 불상사건으로 이래 해결을 못 본 것은 군정의 무책 무능을 폭로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제 신정부야말로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안거낙업(安居樂業)케 할 기민한 해결책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경찰로만 토벌을 한다고 하다가 마침내 국방경비대의 군을 출동케 하였을

때 당시 통위부장은 건국초요 또 건군초기에 ‘동족상살의 애사’를 남기고자 하지 않으려는 뜻을 간곡히 국민에게 설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지 작전에 있어서 불법무모(不法無謀)의 반항, 폭거는 단호 제압치 않을 수 없음을 말한 바 있었다. 물론 군을 동원시키기까지의 최후 수단에는 응당 필중(必中)인 비상시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군의 행동은 어디까지 동원된 본정신과 애족애국의 군 본래의 사명에서 사건수습의 주도적 기능을 발휘케 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경비대 작전 중엔 병사로서 상사인 연대장 암살의 불상사가 있었고 군법회의에서 총살형을 언도받은 피고병사는 해(該) 연대장이 무고한 양민을 다수 학살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연 사실인가. 중일전쟁 중 왜군이 비전투원인 중국 인민에게 야만적 학살을 무수히 감행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로 그 영향이 금후 중일 관계에 어떤 역사를 전개케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거니와 더구나 국내사건에 있어서라. 우리는 전기 군법회의에 나타난 피고의 진술을 그대로 시인하지 않는다. 군법회의로써 사실의 진부를 밝혀 국민의 마음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는 신국가의 국군으로 발전하는 군의 명예를 위하는 것이 될 것이요 또 직접 제주도 사건 수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 토벌이란 경찰의 동원이지만 군과의 협동작전으로 볼 것이니 정부당국은 군 행동에 관한 점과 제주도 사건 전반의 수습책에 대하여 속히 국민에게 소신을 밝히며 그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0일

제주사태 은폐말고 조사단 행동 자유주라 / 인공(人共) 기민(基民) 유련(儒聯) 음맹(音盟) 담화

무장경관대 증파 문제로 물의 분분한데다가 제주도 현지조사단이 목포에서 승선 제지를 당하고 목적을 달하지 못한 채 돌아와 일반의 의아는 더욱 심각한 바 있는데 이미 각계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성명 담화를 발표하고 있거니와 9일에도 인민공화당 기민 유련 음맹 등 제 단체에서 담화를 발표하여 “이는 현지의 사태를 우리 앞에 은폐하려 함이요 그들의 지향하는 바 토벌 운운하는 계획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 비난하는 동시 “조사단 행동의 자유를 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 48. 9.10)

■ 국제신문 1948년 9월 11일

제주사건 관계자 40명을 또 이송

제주도 소요사건 관계자 32명이 과반 제주지심(地審)으로부터 광주지심(地審)으로 이송된 데 이어 지난 3일 또 다시 동 사건 관계자 40명이 일건서류와 함께 제주로부터 광주로 이송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광주 발 조통】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9. 12)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1일

제주도 사건 평화해결 요망 / 인공경기당부 불청(佛靑) 담화

인공당 경기도당부와 불교청년당에서도 10일 담화를 발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 48. 9. 11)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3일

제주 증파 경관 즉시 철회하라 / 민중동맹 담화

10일 민중동맹에서도 제주도 경찰대 증파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 “과건경찰대를 즉시 철회하고 이 사건을 원만히 평화리에 해결함으로써 자손만대에 모욕을 끼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 서울신문 1948년 9월 15일

13세 소년을 고문치사 / 제주도에 일어난 경관 만행

【제주 발 조선】 열 세상 밖에 안되는 소년을 소요민의 일원이라 하여 고문치사케 한 전율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읍 삼양리에 거주하는 진인수(13) 군은 산중소요민으로 지목되어 지난 7일 그 동리에 있는 경찰지사로 불들려가서 지서장 민용기(閔用基) 경사와 순경 2명에게 난타를 당하여 그 이튿날(8일) 새벽 1시경에 드디어 절명하였다 한다. 이 보고에 접한 제주검찰청에서는 검찰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시를 하게 하는 한편 즉시 활동을 개시하여 고문에 협력한 두 순경을 체포하고 재빨리 도망간 지서장의 행방을 엄탐 중이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한성일보 48. 9. 15 / 동광신문 48. 9. 17)

■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5일

중지당한 제주도 조사단 / 윤장관에 서한

제주도사건의 평화적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인권옹호연맹 신문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진상조사단은 8월 28일 현지로 행하였던 바 도중 목포경찰당국으로부터 승선할 것을 금지하여 부득이 동 조사단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동 조사단은 윤치영(尹致暎) 내무장관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한 서한을 전달하였다.

■ 서울신문 1948년 9월 22일

구장(區長) 대청원(大靑員) 피살 / 제주사태 다시 협약화

【제주 발 조선】 제주 특별수사대장 주철순씨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9월 16일 상오 3시 경 남제주군 남원면 신흥리 구장집에 장총과 일본도를 소지한 폭도 3명이 나타나 뒷문으로 피신하려는 구장을 사살하고 도주하였고, 15일 상오 11시 반 경 중문면 하원리에도 폭도 4명이 장총, 기타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 동면 도순리 거주 대청 도순□□대장을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한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제주읍 근처 남수각 뒷산을 비롯한 도내 30여 개소에서 일제히 봉화가 올랐는데 조천면 함덕지서 관내에서 현행범 1명을 체포하여 목하 문초 중이라 한다.

■ 국제신문 1948년 9월 24일

제주사건 문(文)중위 등 총살형 집행

제주도 폭동진압 총지휘관인 경비대 육군대령 박경진<sup>14)</sup>씨를 살해한 육군중위 문

---

14) 박진경의 오기

상길 등의 군법재판은 지난 8월 13일 검찰관 이지형 중령 입회 아래 육군고등법정에서 재판장 이응준 대령으로부터 전기 문중위 등 4명에게 사형언도가 있었는데 드디어 그들 4명의 총살형은 23일 하오 3시 시외 수색(水色) 모 산록에서 집행하기로 되었다는데 총살형에 처할 범인들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문상길(육군중위), 신선우<sup>15)</sup>(11연대 군기대장), 손선호(하사), 배경용(하사)

■ 경향신문 1948년 9월 25일

집행 직전에 신(申), 배(裒)만 특사 감형

박(朴)대령 살해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기보한 바와 같이 재판관으로부터 문(文)중위 등 4명에게 사형언도가 있었으나, 23일 집행직전에 일등병사 신상우(申尙雨)와 하사 배경용(裒敬用)은 특사로 감형되었고 나머지 문상길, 손선호 양인만 동일 각각 5발의 총알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에 앞서 손은 홍조된 얼굴로 군가를 높이 부르고 각각 마지막 말과 기도를 올린 다음 유연자약하게 총알을 맞았다 한다.

■ 동광신문 1948년 9월 25일

제주 소요사건 래(來) 1일부터 공판

그칠 줄 모르는 제주 소요로 말미암아 경찰 토벌대측과 산쪽 폭도측 양편에는 인명 및 기타 가옥피해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것은 누차 기보한 바이거니와 산쪽 폭도측의 피검자 중 중요사건 80여 건을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광주지검으로 이송되어 그 중에서 기소된 31건이 이번 10월 1일부터 송화식(宋和植) 부장판사 주심하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이 개시되리라 한다.

■ 자유신문 1948년 9월 25일

총살의 그 찰나 / 비창(悲愴)한 유언

박대령 살해범에 대하여는 문중위 등 4명에게 사형언도가 있었다. 23일 집행직전

---

15) 신상우의 오기

에 1등상사 신상우와 하사 배경용은 특사로 감형되었고 나머지 문상길 손선호 양명만은 동일 각각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 집행에 앞서 양인의 태도는 유연자약 하였으며 각각 최후의 일언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상길 답 : “23세를 최후로 아무 일도 못하고 가는 것은 유감이다. 조선 사람으로서 민족의 비애를 깨닫고 xx의 xx를 받아 민족을 xx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손선호 답 : 먼저 “항상 노래하던 군가라도 부르고 나는 씩씩하게 돌아가겠다”고 말한 다음 홍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 ‘혈관에 과도치는 애국의 핏발, 용진 용진’을 부르다가 형틀에 나서 “오, 하나님이지여!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국방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기도를 올린 다음 동시□ 4분 5발의 총탄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 ■ 서울신문 1948년 9월 26일

비장한 유언 / 문(文)·손(孫) 양명(兩名) 종용(從容)히 취사(就死) / 박대령 암살범 총살형 목격기

【수색에서 조덕송 발 조선】 1948년 9월 23일 하오 3시 35분, 동 45분. 수색(水色) 동방 5리 지점 이름 없는 붉은 산기슭에 터져 나온 10발의 총탄은 두 젊은 생명을 빼앗아 가고야 말았다.

육군 제11연대 육군 중위 문상길(文相吉·23), 일등상사 손선호(孫善鎬·22).

미군장교 2명, 관계인 장교, 그리고 기자 입회 하에 총탄을 받은 문중위 손상사는 지난 6월 18일 오전 3시 동란의 제주도에서 국방경비대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살해하였던 것이다.

애초 사건 관계자는 10명. 그 중 8월 14일 고등군법회의 최후언도에서 총살형이 선고된 피고는 문상길, 손선호, 배경용, 신상우 도합 4명이었다.

그러나 23일 총살형 집행직전 배, 신 양인은 특사에 의하여 무기형으로 감형, 결국 직접 하수인이었던 손상사, 그리고 피고 10명중 단 한 사람의 장교인 문중위, 두 사람만이 그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다. 이날 하오 3시 15분 수색 국방군 제1여단 사령부 정문을 떠난 대형 미군트럭 한 대에는 석 달의 영창생활에 여윌대로 여윈 문중위 손상사가 수갑을 찬 채 군기병의 호위 가운데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자동차는 별거벗은 산과 산모퉁이를 감돌아 준비된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다. 네모로 깎은 말



뚝이 들, 붉은 산기슭에 나란히 서 있다.

그 하나의 말뚝을 향하여 최후의 담배를 피우고 난 허리끈 없는 장교복 문중위가 천천히 걸어간다. 군기사령관인 사형집행 장교에 의하여 총살형 집행장이 낭독되고 마지막 유언의 기회를 준다.

“스물세살을 최후로 문상길은 갑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군대입니다. 마지막 바라건대 xxx의 xx아래 xxx의 xx아래 xx를 하는 조선군대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갑니다.” 외치는 음성도 아니며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다만 청청한 마지막 말에 화답하는 산울림이 영롱할 따름이다.

몸이 말뚝에 묶인다. 하이얀 수건으로 두 눈을 가렸다. 왼편 가슴 심장 위에 검은 동그라미 사격표식이 붙여졌다. 10m의 거리를 두고 다섯 명의 사격수가 쏜 총탄 다섯 발은 기어코 문중위의 가슴을 뚫고야 말았다. 이때 하오 3시 35분. 뒤이어 말뚝을 향하여 다시 손선호 상사가 걸어가며 미소를 띤 얼굴로 상관들에게 일일이 목례를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던 군가나 한마디 부르고 저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발을 멈추고 머리를 하늘 쪽으로 돌려 노래를 부른다.

“혈관에 파도치는 애국의 깃발, 넓고 넓은 사나이 마음, 생사도 다 버리고 공명도 없다. 들어라 우리들의 힘찬 맥박, 천지를 진동하는 승리의 함성……”

사형집행 3분전이다.

끝나자 집행장이 낭독되고 유언으로 “훌륭한 조선군대가 되어 주십시오.” 단 한마디. “겨누어 총.” 이 때 “오! 3천만 민족이여!” 손상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이 말이 사라지기 전에 “쏘앗.” 다섯 발 M1 총알은 손상사의 가슴을 뚫었다. 이때 하오 3시 45분. 1948년 9월 23일 하오 3시 35분, 동 45분, 서울 북쪽 수색 동방 5리 지점에서 일어난 총성은 그쳤다.

#### ■ 서울신문 1948년 9월 26일

#### 약질경관 등 원인 / 제주사태와 춘천 공보원장 담

【춘천 발 조선】 춘천 미국공보원장으로 당지에 부임한 전(前)제주도공보원장 알버트 필립슨 씨는 지난 20일 도청 기자단을 방문하고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의 소요 원인은 본도인의 배타사상과 군정관리의 발호 및 악질경관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도민의 반감을 산 데 기인한 것이다. 그 현저한 예로는 금년<sup>16)</sup> 4월경에 어떤 회합이 있었는데 그 회합을 경호하던 기마순경이 어린아이가 말에 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므로 군중의 한 사람이 투석을 하였다. 그런데 동 순경은 불문곡직하고 그 사람을 직접 사살한 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소요의 발단을 본 것이다. 그러나 김봉호(金鳳昊) 경찰청장 부임 후는 그런 일은 없다. 현재 1,200명의 순경이 있는데 외국인으로 볼 때는 너무 경관이 많은 것 같다.”

---

16) 작년의 오기인 듯.

---

# 1948년 10월

■ 자유신문 1948년 10월 2일

제주 다시 폭동 / 쌍방간의 교전을 전개

제9관구(제주)경찰청으로부터 1일 오전 10시 내무부에 보내온 무전에 의하면 제주도 폭동 사건은 또다시 악화되었다 한다. 즉 1일 오전 7시경 제2구경찰서 남원지서를 폭도가 습격했고 또 때를 같이하여 동 제2구경찰서 중문지서도 폭도가 습격하여 1일 오전 10시경까지 판명된 상태는

△경관(수도청에서 간 응원으로 성명미상) 2명과 양민 1명이 즉사하였고

△폭도측의 피해는 아직 알 수 없는데 근방 지서원의 후원을 받아 교전 중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윤내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진압될 터, 윤내무장관 답 :** “폭도의 내습을 받고 교전중(1일 오전 11시경)이나 곧 격퇴 혹은 체포될 것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주도에는 방금 응원대를 더 보낼 필요는 없다. 서울 시내에서도 동대문 돈암동 등지에서 폭도를 사전에 검거하였고 철통같은 경계진을 치고 있으니 아무 염려없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국제신문·동아일보 48. 10. 2)

■ 국제신문 1948년 10월 3일

13 구장(區長)도 총사직

지난 9월 20일을 전후하여 제주읍 관내 13처 구장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그들은 대개가 읍의 농촌의 구장들이다. 이들은 금반 폭동이 발생된 후 누차 사의를 표명한 바 있었다 한다.

그리고 폭동 발생 후 사표를 제출한 읍 관내 구장은 이를 합하여 2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대개가 ‘신병’이나 ‘가정형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인즉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타격이 중요한 원인이라 한다.

한편 북제주군 관내 각 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군내 5개 면장들도 대부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하며 면장이 관할하는 각 구 구장들은 대개가 이미 사직하였다. 【제주 발 조통】

(같은 기사 동아일보·한성일보 48. 10. 3)

■ 동아일보 1948년 10월 3일

5명이 사상 / 제주서 경관대 귀경

수도관구경찰청에서 제주도 경비에 파견되었던 경비응원대원은 1일 서울에 돌아왔는데 그중 중부서원 2명이 사망하였고 중상자 3명이 있었다 한다.

■ 조선일보 1948년 10월 3일

치안에 적신희 / 제주에 수도청 응원대 급파

작보(昨報)한 바와 같이 한때 잠잠하던 제주도에는 다시 소요가 발생되고 있어 수도청에서는 2일 유충열(柳忠烈) 경감 인솔하의 응원대를 현지에 급파하였으며 한편 통신은 제주읍 관내 13처 구장과 북제주 군내 5개 면장이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타격을 참지 못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고 제주도 상태가 재협약화 함을 보도하고 있는데, 2일 윤(尹)내무장관은 비단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남한 일대의 치안상태에 관하여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1일 밤 계동(桂洞) 부근에서 경관 2명 피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가두에서 불온빠리를 산포하는 찰나에 마침 순회중인 경관이 발견하고 그 정지를 명하였던 바, 청년은 즉시로 권총을 발사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 총공세를 비롯하여 1일 아침 돈암동에서 권총 탄환 등 60여 개를 압수한 것과 인천에서 발생한 경관살해 사건 등 1일 하오 7시를 기하여 총공세 태세를 취하고 있어 제주도에는 2일 아침 국방군 간부가 급거 비행기로 출동하게 되었다.”

■ 한성일보 1948년 10월 3일

경찰과 폭도 접전 / 제주도 사태 재악화

목화 남제주군에서는 소요부대와 경찰대 사이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지난 9월 20일 밤중에는 제주읍내 수 개소에 인민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었으며 범인 1명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 9월 18일에는 성산면 고성리에서 전(前) 구장 오만순(吳萬淳)씨와 김모가 소요인들에게 각각 살해되었으며 이날 읍내에서는 ‘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다수의 빠라가 산포되었다. 【제주】

(같은 기사 국제신문 48. 10. 3)

■ 한성일보 1948년 10월 3일

제주도폭동 대비 작일 군경대를 급파

최근 수도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각지에서 경관이 권총으로 피살당하는가 하면 남한 치안의 암(癌)인 제주도소요는 다시 폭발되었다 한다. 작(昨) 2일 윤 내무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조직적인 폭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10월 1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조직적인 대폭동이 다시 일어났는데 지방군대와 경찰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진압할 수 없었으므로 2일 오전 9시 수도경찰대와 군대를 파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현대일보 1948년 10월 3일

제주사태 재 악화 / 경관과 폭도간 교전

지난 4월 3일을 기하여 발발된 제주도 폭동사건은 토벌대의 맹렬한 활동으로 한 때 완화되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던 바 지난 9월 16일부터는 다시 활발화 하는 경향을 띠어 대청단장의 피살 등 사건이 부분적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10월 1일 상오 10시 내무부 당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0월 1일 상오 7시를 기하여 새로운 사태가 벌어져 경찰측과 폭도 사이에는 맹렬한 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하며 이미 경관 1명 사망, 1명 부상(이상 수도청 파견원) 및 평민 1명 사망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편 제주관구 경찰장 김봉호씨는 방금 서울에 체류 중으로 측문한 바에 의하면 동씨는 불일한 사직할 모양이라 하며 따라서 경찰측에서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 48. 10. 3)

#### ■ 조선일보 1948년 10월 6일

##### 제9경찰청장 경질

제9경찰청(제주도)장 김봉호(金鳳昊)씨는 5일 부로 사임하고 그 후임에는 공안과장 홍순봉(洪淳鳳)씨가 임명되었다 한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동광신문·자유신문 48. 10. 6)

#### ■ 국제신문 1948년 10월 7일

##### 제주 순직 경관 유해 안착(安着)

지난 1일 제주도에서 순직한 경관 김경렬(金璟烈), 김제규(金濟圭) 양씨의 유해가 5일 오후 4시 경에 서울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한남리에 경비주둔 중이던 수도관구경찰청 중부서 응원부대 대장 김경렬 경사 이하 16명은 200여 명의 폭도와 세시간동안이나 교전하여 대장 김경사와 김제규 순경은 드디어 순직하고 말았으며 7명의 부상자까지 났는데 동 부대는 순직한 양씨의 유해를 모시고 5일 오후 4시에 윤(尹)내무장관과 김(金)수도청장 이하 경찰관계자 유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역에 무사히 도착하여서 유해는 따로 모시고 부상자는 백(白)외과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그리고 김경사는 경감으로 특진하였으며 김순경은 경위로 특진하였다 한다.(사진

은 서울역에 도착한 유해)

(같은 기사 경향신문 48. 10. 12)

■ 국제신문 1948년 10월 7일

예상보다 평온 / 제주도서 귀임한 정(丁)대령 담

새로 재연되는 제주도 소요사건을 조사하고 새로운 작전을 계획코자 지난 1일 현지에 출장하였던 국방부 육군총참모장 정일권(丁一權) 대령과 해군총참모장 김영철(金英哲) 대령은 지난 5일 무사히 귀경하여 소속 장관에게 현지 상황을 보고하고 새로운 작전을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근근 왕성한 전투력이 있는 육군병력을 증파하리라고 하며 귀임한 정일권 참모총장은 제주도 사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의 현 사태는 예상하던 것보다도 평온하다. 다만 그들(좌익계열)의 상투전법인 ‘빨치산’전이 이달 초순에 숫자적으로 많아졌을 뿐이다.

군대가 현지에 파견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평온사태를 갖추지 못하여 일반 국민에게 대단히 미안하나 가장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 서울신문 1948년 10월 7일

2명에 사형 / 제주 4·3사건 구형

【광주 6일 발 합동】 제주 3·4사건<sup>17)</sup> 관계자에 대한 제1회 공판은 지난 1일 상오 9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송화식(宋和植) 부장판사 주심, 김영천(金永千) 검사 임회로 개정되어 사실심문과 검사의 구형이 있었는데 언도는 오는 8일에 있으리라 하며 당일 검사의 구형은 다음과 같다.

△김치오(金致五·33) 6개월 △김영필(金英弼·20) 단기 1년, 장기 2년 △한진섭(韓辰燮·20) 1년 △박성선(朴性善·57) 사형 △박남호(朴南昊·20) 사형 △이정백(李正白·23) 5년 △임정길(任正吉·30) 2년 △고태진(高太珍·20) 단기 5년, 장기 7년 △김상호(金尙好·31) 5년 △김태원(金台元·34) 4년 △강한진(康漢辰·26) 6년

17) 4·3사건의 오기인 듯.

△임수혁(任守赫·28) 3년 △현군명(玄君命·20)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

(같은 기사 국제신문·한성일보 48. 10. 7)

■ 국제신문 1948년 10월 9일

제주 순직경관 고별식을 거행

지난 9월 20일 제주도 남원지서 관하 한남리에서 일어난 폭도들의 경찰관 습격사건으로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경감 김경렬, 고(故) 경위 김제규 양인의 고별식을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중부서(中部署) 후정(後庭)에서 거행한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10. 9)

■ 조선일보 1948년 10월 12일

제주 4·3사건 계속 공판 구형

제주4·3사건 관계자 제2차 공판은 지난 8일 상오 9시 30분 광주지원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사실심문에 이어 김영천(金永千) 검사로부터 피고 고완순 외 7명에 대한 구형이 있는 후 정오 12시 10분 일단 휴정하였는데 초만원을 이룬 방청객이 대기하는 가운데 하오 2시 20분 재개되어 지난 1일 구형받은 피고와 오전 중에 구형 받은 전 피고 박(朴性善) 외 23명에 대한 오(吳寬), 김(金在千) 등 양 변호사의 변론이 있는 후 폐정하였다. 그리고 언도는 래(來) 13일로 결정되었는데 이날 오전 중의 구형은 다음과 같다.

△강상준(姜象濬·23) 징역 10년 △김대효(金大孝·20) 무죄 △고정순(高政順·30) 징역 동년 △강형만(姜亨萬·25) 동 3년 △이근병(李根柄·21) 동 3년 △강달진(姜達珍·28) 동 3년 △강달호(姜達浩·33) 동 3년 △강창호(姜昌浩·26) 동 3년. 【광주 합동】

(같은 기사 서울신문 48. 10. 13 / 한성일보·현대일보 48. 10. 12)

■ 동아일보 1948년 10월 13일

제주근해에 괴잠함(怪潛艦) / 함미(艦尾)에는 인공기 계양



【제주 12일 발 합동】 당지 관변 권위측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미국 민사 청장 노엘 소좌는 10월 8일 상오 11시 50분경 성산포 전면 5마일 해상에서 모국 잠수함 1척이 부유 중임을 정찰기로 비행 중 발견하였고 또 동일 하오 1시경 역시 동 20마일 해상에서 부산 방향으로 향하여 항행 중인 잠수함 1척을 발견하였다는데 그 잠수함의 번호는 'C53'이며 함미에는 인민공화국기가 달려있는 것을 기상(機上)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동일 하오 제주항(제주도)에서 북방 50마일 해상에서도 잠수함 1척을 모 기관원이 발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사실은 잠수함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제주도내 각처에서는 다수의 인민공화국기(旗)가 일제히 산포 혹은 게양되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적은 불확실, 김(金)해군참모 담 : 해군 참모총장 김성삼(金省三) 대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군기지로부터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난 8일 상오 9시경 제주도 근해에서 미군 비행기가 정체를 모를 잠수함을 발견한 바 있었고 동일 정오에도 제주도 북방 8마일 해면에 잠수함이 출몰하였으나 국적은 자세하지 않다.”

(같은 기사 국제일보·동광신문·대동신문·조선일보·현대일보 48. 10. 13 / 서울신문 48. 10. 14)

#### ■ 서울신문 1948년 10월 13일

##### 제주 각처에 인공기

【제주】 요즈음 경향 각지에 인민공화국기를 게양하여 일반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주 읍내에서도 여기저기서 게양되었다. 또 지난 30일 밤 제주읍사무소를 비롯하여 오현중학교 국기대에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하며 제주북국민학교 교정에도 난데없는 기가 떨어져 있었다 하는데 경찰당국에서는 즉시 활동을 개시하여 피의자 1명을 체포하고 문초 중에 있다 한다.

#### ■ 동광신문 1948년 10월 15일

##### 제주사건 공판 완결 / 최고 무기징역 언도

기보 : 제주사건의 공판은 송화식 부장판사, 주심 김영천 부검사장 관여 하에 심리를 거쳐 사형구형까지 있어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되던 바 재작(再昨) 13일 오전 9시 광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초만원의 방청객의 주시 아래 최종 공판이 열렸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 언도가 있었다. 괄호는 구형(求刑)

△박남호(朴南昊) 무기징역(사형) △박성선(朴性善) 무죄(사형) △순경 강중우(姜重祐) 15년(10년) △김홍식(金弘植) 10년(10년) △이정백(李正白) 2년 △임정길(任正吉) 단기1년 3년 집유(執猶) △강상수(姜象守) 무죄 △김대호(金大孝) 무죄 △현근명(玄君命) 무죄 △김상호(金尙好) 무죄 △□진섭(□辰燮) 1년 (집유 3년) △김영필(金英弼) 1년 집유 3년 △김치옥(金致玉) 10년 △김태원(金台元) 3년 △임수혁(任守赫) 2년 △강한진(康漢振) 3년 △강수부(姜壽富) 무죄 △강형만(姜亨萬) 동(同) △이근병(李根柄) 동(同) △강원진(姜遠珍) 동(同) △강원호(姜遠浩) 동(同) △강창호(姜昌浩) 동(同) △고완순(高玩順) 3년 △고태진(高太珍) 2년(집유 5년)

#### ■ 조선일보 1948년 10월 15일

##### 접전 후에 격퇴 / 사상자 다수, 제주사태 협약

제주도 14일 발 합동통신에 의하면 남제주 관내에서 행동 중이던 국군 제9연대 제○중대 소속 제○분대장 이하 6명은 10월 6일 하오 3시 반경 중문면 색달리 부근 밀림지대에서 약 160명의 무장한 소요군중의 내습을 받아 과병(寡兵)으로서 이에 대전 중 중대본부로부터의 내원을 얻어 쌍방의 맹렬한 접전이 전개되어 교전 약 45분 만에 이를 격퇴시켰다 한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 동 부대장 금춘수(琴春樹) 이등병사는 전사하였으며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다. 그리고 소요 군중측의 손해는 사망자만 89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상세한 것은 방금 조사중에 있다 한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한성일보·현대일보 48. 10. 15 / 동광신문 48. 10. 16)

#### ■ 조선일보 1948년 10월 16일

##### 폭도측 병기부를 발견 / 쌍방간 치열한 산악전

북제주군 한림면 관내 한라산록 노로악, 적악 부근 산악지대를 행동 중이던 국군

부대의 1개 소대는 10월 9일 하오 4시경 가시오름 부근에서 폭도 부대의 병기부(兵器部)를 발견, 포위하고 무장폭도 45명에 대하여 공격을 가함으로써 치열한 산악전이 전개되어 약 10분간 교전 끝에 이를 물리쳤다 한다. 이 전투에서 판명된 전과는 폭도 사망 1명 부상자 약간을 내었으며 99식 장총 기타 다수 무기를 압수하였다는 데 국군측의 손해는 없었다 한다. 【제주합동】

(같은 기사 경향신문·국제신문·대동신문·동아일보·현대일보 48. 10. 16)

### ■ 조선일보 1948년 10월 16일

#### 불안은 극도 / 독촉 지부장 서한

요즘 다시 험악해가는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그 편린(片鱗)을 짐작할 만한 소식이 제주도 독촉(獨促)지부장 김충희(金忠熙)씨로부터 독촉국민회 부위원장 명제세(明濟世)씨 앞으로 전해 왔는데 그 서한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러하다.

“본도의 사태가 나날이 험악해져서 납치 또는 피살자는 매일 같이 속출되는 형편 일 뿐더러 소위 경비대원이 본부대를 탈출하여 폭도측에 가담하는 자가 적지 않다. 북한으로부터 폭도의 수괴인 김달삼은 수로(水路)로 무기를 만재(滿載) 입도(入道)했다고 하는데 그 탓인지 습격과 봉화사건이 연발하여 민심은 극도로 불안해지고 이로해서 민족진영 지도자들은 요새 본토로 소개하는 인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모양이다” 운운.

(같은 기사 동광신문·현대일보 48. 10. 16)

### ■ 국제신문 1948년 10월 17일

#### 제주 사건 언도

제주도 소요사건에 대한 제3회 공판은 지난 13일 상오 10시 광주지방심리원 법정에서 개정되어 송화식(宋和植) 부장판사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괄호내는 검사 구형) 박성선(朴性善) : (사형) 무죄, 박남호(朴南昊) : (사형) 무기징역, 김태원(金台元) : (4년) 3년 징역, 임수혁(任守赫) : (3년) 2년 징역, 고태진(高太珍) : (단기 5년 장기 7년) 2년 징역 집행유예 5년, 강한진(康漢辰) : (6년) 3년 징역, 고완순(高玩順) : (10년) 3년 징역, 이정백(李正白) : (5년) 2년 징역, 한진섭(韓辰燮) : (1

년) 1년 집행유예 3년, 임정길(任正吉) : (2년) 1년 징역, 김영필(金英弼) : (단기 1년 장기 2년) 집행유예 3년, 강상수(姜象壽) : (4년) 무죄, 김대효(金大孝) : (무죄) 무죄, 현군명(玄君命) : (단기 2년6개월 장기 4년) 1년, 김상호(金尙好) : (5년) 무죄, 김치옥(金致玉) : (6개월) 무죄, 강□□ : (3년) 무죄, 강□영 : (3년) 무죄, 강달호(姜達浩) : (3년) 무죄, 강창호(姜昌浩) : (3년) 무죄, 이근병(李根柄) : (3년) 무죄, 강달진(姜達珍) : (3년) 무죄.

그리고 동 사건에 있어서 양민을 학살한 전(前)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연도가 있었다.

강중우(姜重祐) : (15년) 10년 징역, 김홍식(金弘植) : (10년) 5년 징역 【광주 발합동】

(같은 기사 동아일보 48. 10. 19)

#### ■ 조선일보 1948년 10월 19일

##### 제주읍 관공서에 파업강요 협박장

지난 9월 18일 제주읍내 각 관공서에 인민행동대라는 이름으로 ‘납세반대, 증수한 세금 및 수집한 추곡 반환, 관공리 일제파업’ 등을 강요하는 내용의 협박장을 투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실행치 않으면 목숨이 없으리라’는 등의 위협적 문구도 있어 경찰당국에서는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다 한다. 【제주합동】

(같은 기사 국제신문·자유신문·한성일보 48. 10. 19 / 동광신문 48. 10. 20)

#### ■ 자유신문 1948년 10월 20일

##### 제주사건 공판에 최고 15년형 구형

【광주 19일 발 합동】 제주사건 제4회 공판은 14일 상오 9시 30분부터 광주지방 법원 법정에서 이명호(李明孝) 판사 주심하에 개정되어 사실심문이 있는 후 검사로부터 피고 이정생(李貞生) 외 13명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구형이 있었는데 판결연도는 23일이라고 한다.

이정생(李貞生) 징역 15년, 고원진(高元進) 동 10년, 김석중(金錫宗) 동 단기 5년 장기 10년, 고영수(高英秀) 동 5년, 문창호(文昌昊) 동 1년, 문정영(文晶榮) 동 3년,

홍경문 동 3년, 이달판(李達板) 동 2년, 김건만(金健滿) 동 단기 1년 장기 2년, 김대옥(金大玉), 강한방(康漢邦) 양석구(梁錫龜) 양옥현(梁玉鉉) 김행주(金行柱) 각 징역 3년.

(같은 기사 한성일보 48. 10. 20 / 국제신문 48. 10. 21)

■ 조선일보 1948년 10월 20일

무허가 통행금지 / 제주 송(宋)연대장 포고

문제의 제주도 소요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잠잠하다가는 다시 일어나고, 조용하다가 또 다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요즘에는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군측에서는 또다시 어떠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를 인정하였는지 19일 제주도로부터 들어온 통신은 현지에 있는 보병 제9연대장 송(宋)소령의 17일부로 발표된 다음과 같은 포고를 전하여 왔다.

**△연대장 포고** :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수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히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제주 합동】**

(같은 기사 경향신문·국제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자유신문·한성일보·현대일보 48. 10. 20 / 동광신문 48. 10. 21)

■ 국제신문 1948년 10월 21일

제주서 또 교전 / 폭도 4명이 피살

**【제주 20일 발 합동】** 한라산록을 작전행동 중이던 국군부대는 10월 16일 하오 5

시 20분경, 발이악 부근 동굴속에 잠복 중인 무장폭도 15명을 기습포위코 공격을 가하여 교전 15분만에 이를 격파하였다는데 이 전투에서 폭도 4명이 사망하였고 동굴속에 포기한 기밀서류, 등사판 및 의약품 등 다수를 압수하였고 국군측 손해는 없었다 한다.

(같은 기사 현대일보 48. 10. 21)

■ 동아일보 1948년 10월 27일

제주사건 언도 연기

【광주 24일 발 합동】 지난 15일 제주사건 제5회 공판을 마친 피고 이정생(李貞生) 외 16명에 대한 판결 언도는 지난 23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바 금번 돌발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무기 연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고 아직도 공판을 받지 못한 피고가 약 60여 명이나 있다는데 그들의 공판도 무기 연기되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다.

(같은 기사 한성일보 48. 10. 27)

■ 국제신문 1948년 10월 28일

제주도 의연 소란 / 군 당국 근일 소탕작전 개시호(乎)

근일 국방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의연히 반도가 지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남 여수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제주도지구에 주둔중인 제9연대를 보강하고 있으므로 그리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근일에는 강력한 소탕작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제신문 1948년 10월 29일

제주 무장폭도, 순경 등을 살해

지난 24일 정오 절단된 경비전화선을 수리코자 동료 수명과 더불어 북제주 관내 애월면 수산리 부근에 출장하였던 제1구경찰서 김창순(金昌淳·23·서청출신) 순경

은 전선 수리중 무장폭도 수십명의 내습을 받아 용감히 교전하다가 마침내 순직하였는데 나머지 동료들의 결사적 응전으로 말미암아 교전 약 2시간 만에 이를 격퇴시켰다 하며 나무 위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던 폭도 2명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또 25일 하오 2시 경 제주읍 관내 오등리에서는 제주읍내 거주 양민 2명이 폭도에게 피습되어 1명이 즉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한다. 【제주 발 합동】

■ 국제신문 1948년 10월 29일

제주읍 등에도 내습

지난 23일 상오 9시경 제주읍 남동편으로부터 읍내를 향하여 약간 명의 무장폭도가 시가 외곽에 접근코자 내습하여 왔으나 수비경찰대의 반격으로 교전 수분 만에 도주하였으며 피해도 없었고 읍내는 평온상태에 있다. 또 동일 상오 6시 30분 경 무장폭도 약 40명이 조천면 함덕지서 및 조천지서로 내습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수비경찰대의 맹렬한 반격으로 교전 약 30분만에 도주하였다 한다 【제주】

(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10. 30)

■ 조선일보 1948년 10월 30일

제주서도 교전 빈번 / 아라리서 교전

지난 25일 하오 3시경 제주읍 관내 아라리 부근으로 행동 중이던 국군부대는 동 지역에서 20여 명의 무장폭도가 잠복 중임을 기습하여 이에 맹격을 가하여 폭도는 산으로 도주하므로 이를 추격하여 폭도 7명을 살상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국군병사 1명이 전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한다. 【제주 합동】

(같은 기사 한성일보 48. 10. 31)

■ 조선일보 1948년 10월 30일

승객 버스 피습

지난 26일 하오 3시경 일반 승객을 만재(滿載)하고 남제주군 서귀포를 출발한 제

주자동차회사 정기버스는 애월면 수산리와 신엄리 사이에서 폭도의 피습을 받아 19세의 소년 1명이 즉사하고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수의 필사적 노력으로 버스는 무사히 제주읍에 도착하였다. 【제주 합동】

(같은 기사 동아일보 48. 10. 30)



---

# 1948년 11월

## ■ 국제신문 1948년 11월 2일

### 제주서 소탕전 / 폭도 수십 명을 사살

제주도 사태의 근본해결을 목표로 제주 전역에 걸쳐 작전 중이던 국군부대는 10월 28일 미명 북제주군 관내 한림 외도 방면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애월면 일대에서 양민 학살, 경찰지서 습격 등을 계속하여 오던 무장폭도의 소위 애월 대정 양 지부원 약 100명을 고성리 부근에서 완전 포위하여 철저히 격멸하였는데 이는 현 제주도 사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큰 의의를 가졌으며 그 전과는 다음과 같다.

- (1) 애월지부장 및 대정지부장 등 9명 사살
- (2) 무장폭도 31명 사살
- (3) 포로 20명
- (4) 무기 탄약 피복 기타 폭도용품 비밀서류 일절 압수.

또한 이 전투에서 국군측의 손해는 전무하며 계속 작전 중에 있다. 【제주 발 합동】

(같은 기사 대동신문·한성일보 48. 11. 2 / 조선일보 48. 11. 4)

## ■ 한성일보 1948년 11월 2일

### 민보단은 경찰 일익(一翼) / 조직완료는 경하사(慶賀事) / 수도청장 담

지난 29일 수도청장은 민보단 조직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제 정세가 미묘하여 감에 따라 국내 공산분자들이 지하에 정당을 부식해서 내란을 일으켜 전국을 혼란에 떨어뜨리고 남북을 공산화시켜 타국의 예속을 만들려는 계획이 기왕부터 농후해 가는 것은 세인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 실례를 들면 10·1사건, 8·15사건, 4·28사건, 5·10사건, 제주도사건, 여수순천사건 등이 여실히 현출하고 있다. 여사한 분자들은 개인이나 단체를 물론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이 국내 치안을 방해하고 있는 현 시국에 비추어 국립경찰의 일익으로서 국내 치안 유지에 이바지할 민보단 조직이 완료된 것은 실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강력한 단체로써 적극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교양과 훈련이 절대 필요할 것이다. 민보단에 대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10일 간 철저한 교양과 훈련을 장엄하게 실시하여 수도 민보단의 위용을 경향에 발휘하여 국내 치안을 도모하고 남북통일을 급속 추진하겠사오니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주 각위께서도 본 취지를 양해하시와 민보단원의 충원 및 훈련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력하여 주심을 바란다.”

#### ■ 조선일보 1948년 11월 3일

#### 현지질서 회복 / 제주작전서도 포로 200여 / 반란사건 속보 국방부서 발표

국방부에서는 반란군 사건에 대한 속보를 11월 2일 오전 8시 현재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여수 순천 지구를 거점으로 한 금번 반란은 작전 일순에 종식 진압되었으며 현지는 국군의 보호아래 질서를 회복하고 재건에 궤기하고 있다. 반도는 섬멸되었으며 몇몇 패잔병이 궁한 나머지 비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불과하나 이를 소탕함은 시간 문제다.

(2) 10월 30일 제주도 제9연대장 보고에 의하면 제주읍을 노리고 준동 중이던 무장폭도 수백명이 고성 부근에서 밀회 중임을 탐지하고 포위섬멸의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 작전에서 폭도의 유기시체 수백 명, 포로 200여 명과 무기, 문서, 기타 물품 다수를 포획하였으며 이 작전으로 인하여 외도 애월 부근을 횡행하던 무장폭도는 완전히 섬멸된 것이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대동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자유신문·한성일보 48. 11. 3)

■ 국제신문 1948년 11월 6일  
제주인민군 사령 이덕구 등을 사살

국방부 보도과 5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8일 제주도 고성지구 작전에서 소위 제주도 인민군 사령 이덕구(李德九·32)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전(前)제주인민군 사령 김달삼의 참모장 격으로 김달삼이 북조선 인민공화국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평양에 가자 이덕구는 제2대 인민군사령으로 임명되어 모종 작전을 계획하다가 국군의 급습으로 사살되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성명부지(姓名不知)의 인민군 대정지대장(大靜支隊長) 등 다수 간부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한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이것으로 제주도 소요사건도 일단락을 지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자유신문 48. 11. 6)

■ 노력인민 1948년 11월 7일  
당중앙위원회 메시지에 답함 / 학살과 폭압에 항(抗)하며 제주도 인민항쟁 선두에 선 당제주도위원회 메시지

800만 조직대중을 비롯하여 모든 애국적 역량을 통합 집결한 철의 토대 위에 백만 정예로 묶어진 인민적 민주주의의 초소이며 민족주권의 보루이며 조국방어의 성새(城塞)인 유일한 애국의 당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대하여 제주도위원회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열렬한 동지적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원수들이 집중적으로 퍼붓는 총포화 속을 조국의 민족주권 방어의 깃발을 걸머쥐고 영웅적 인민들과 더불어 학살의 지뢰원(地雷源)을 진격하는 우리들의 대열에 백만을 돌파하여 전달된 메시지를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귀한 메시지를 방방곡곡 모든 항쟁대열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이미 원수들의 총칼에 쓰러진 존귀한 동지들과 인민 영웅들의 무덤에 이 영광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조국방어의 모든 초소, 모든 대열에 일어나는 환호! 충천하는 사기! 그 북받쳐 오르는 감격! 그 열광적 광경을 무엇으로써 표현하겠습니까. 실로 백만의 원군보다도 더욱 힘차게 우

리들의 사기를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생각컨대 4·3 쫓겨 전야의 제주도의 정황은 참으로 가열했던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와 그 국내의 주구들이 기도하는 5·10 매국단선을 100% 수행하기 위한 흥계는 그의 야수적 학살정책을 지도층으로부터 전 인민의 위에 확대시켜 조직적 인민교살 정책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서북계열로 개편된 경찰진과 대청민족청년 서북청년 등 테러단을 총동원한 기동적 학살정책은 인민을 질식시키고 전도는 이른바 곧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민족주권 방어의 초소를 문자 그대로 사수하려는 우리들의 불굴의 투지는 상급당부의 옳은 지도 밑에 인민이 요구하고 지향하는 바에 의하여 총칼로 망국단선을 강요하려는데 대하여 이를 분쇄하는 효과적 성안을 창발하였으며 급박한 정세 하에 행동태세의 완료를 보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4월 3일 오전 2시. 이날 이 시각을 피끓는 영웅적 동지들은 얼마나 고대했던 것입니까. 죽음을 재촉받는 인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멸망의 위기에 놓여있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피에 굶주린 원수들과의 결전! 끊어오르는 흥분을 자제하면서 암흑을 뚫어 전진 대기 돌연 우뢰와 같은 폭음과 함께 원수들에게 육박하는 영웅들! 천지를 진동하는 개가! 이래서 원수들의 포승에 목매어 악몽에 시달리는 30만 도민의 잠꼬대를 깨뜨리고 영웅적 룩푸부대의 투쟁은 순식간에 전 인민적 항쟁태세로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광범한 항쟁대열에서 누가 지도자이며 누가 대중이며 누가 인민이며 누가 군대인가는 구별하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종군하는 70노인, 원수들의 총알을 털어오는 어린이들의 창발적 활동, 위문품을 만드는 부녀자들의 열성, 대중의 면전에서 아지프로 하는 소년소녀들, 단신으로 3명의 서청원을 혁대로 때려 눕혀 이를 포로하고 투표함을 탈취한 인민영웅, 물결쳐 들어오는 국경(國警)장병에게 격문을 배부하는 소학생과 부녀자들의 대담한 투쟁, 단 13명의 소부대로 60명의 기동경관대를 백주에 요격하여 그중 14명을 사살하며 나머지를 교란시킨 무적요격대, 범람하는 빠라의 홍수, 노도와 같은 시위대중, 과연 장엄한 구국 인민행진곡이었습니다. 혁명화한 인민의 위력은 침략자의 사냥개들을 그의 토치가 속에 여지없이 침복시키고 수천의 국경을 제압하여 망국멸족단선을 분쇄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제주도의 항쟁이 “조선인민의 모범적인 항쟁이며” “우리 조선

민족의 영예와 불굴의 애국심을 전세계에 선양하였으며” 따라서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적 폭압과 학살로도 멸할 수 없는 것을 천하에 공시”하는 역할을 놀았다고 평가하여 주신 것은 과분의 영예로 생각함과 동시에 존귀한 지하의 영웅들과 항쟁하는 전사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오늘 전개하고 있는 항쟁이 “조국해방 투쟁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이룰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은 우리들의 항쟁대열에 주어진 최대 최고의 영예이며 이에 의해서 전 항쟁대열의 전투의식은 더욱 양양되었으며 심장에 끓어오르는 피와 열화와 같은 공격정신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열한 시련의 난관”을 완전히 극복 돌파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월여에 공하여 1,000여 명의 기동경관대와 5,000여 명의 국경에 의한 누차의 포위 토벌 전멸작전도 완전히 허실케 만들고 말았으며 원수들의 허위 모략 선전에도 불구하고 인민영웅들은 의연히 견재하고 있으며 원수들이 피붓는 수만 수천만의 탄환 속에서 시련받은 영웅적 30만 도민이 있으며 더욱이 3개월의 시련을 통하여 연마된 전투기술은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웅적 인민들과 함께 어떠한 학살적 폭압에도 굴치 않고 어떠한 단 회유에도 속음이 없이 조국의 민족주권방어의 깃발을 튼튼히 걸머쥐고 “제주도 인민의 존귀한 구국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앙위원회의 엄숙한 선언에 대하여 우리들은 “조국해방 투쟁사상에 불멸의 금자탑”을 이루는 영예를 실지에 관철할 것을 기표로 하여 망국멸족의 단정분쇄의 가열한 초소를 죽음으로써 지킬 것이며 통일독립을 우리의 손으로 전취할 때까지 과감히 투쟁할 것을 확언하고 맹세합니다.

1.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만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948년 7월 일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

■ 한성일보 1948년 11월 11일

제주도서 김씨 피살

11월 10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金斗鉉) 씨는 11월 8일 하오 10시경 괴환에 피살당하였다는데 범인은 방금 수배 중이라 한다.

(같은 기사 독립신문·자유신문 48. 11. 11 / 국제신문 48. 11. 12)

■ 경향신문 1948년 11월 12일

서귀포 방화 폭동 / 양민 가장(假裝) 폭도 100명 사살

【제주 11일 발 합동】 제주도 사태는 지난달 28일 북제주 관내에서 얻은 국군부대의 획기적인 전과를 계기로 동 29일에는 또 다시 폭도측 상급간부 7명을 비롯하여 10여 명을 사살하였고 6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무기 등 다수를 압수하였는데, 국군측에는 손해가 없으며 잔적소탕을 계속 중이고 북제주 관내 즉, 한라산 북면 일대의 폭도를 사실상 완전히 섬멸하여 버렸다. 그 후 잔여 소수 폭도들은 한라산 남쪽에서 방황하여 양민을 가장하고 서귀포 시내 및 부근 촌락에 잠입하고 있다. 11월 7일 오전 8시경에 서귀포 시내에서 불시에 폭동을 일으켜 시내 민가에 방화하는 동시에 양민 살해를 기도하여 수비경찰대와의 사이에 시가전이 벌어졌었는데, 국군부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응급 출동하여 이들을 시가 외부로 축출, 포위하고 맹공격을 가하여 60여 명을 사살하고 무기 다수를 압수하였다. 또 동일 서귀포 주변 3개 부락에도 양민을 가장한 수십명의 폭도가 출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국군부대의 기습공격으로 도합 40여 명이 사살되고 완전 포착 섬멸도 불일간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대동신문·동아일보·자유신문·조선일보·한성일보 48. 11. 12)

■ 자유신문 1948년 11월 12일

폭도 섬멸은 시간문제 / 제주연대장 송(宋)소령 담화

제주사태 진압에 혁혁한 무훈을 세운 국군 제9연대장 겸 당지 경비사령관 송요찬(宋堯讚) 소령은 최근의 전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폭도의 주력은 붕괴되었으며 그들의 지도자 김달삼을 대신하는 폭도의 총지휘자 이덕구가 10월 6일 전투에서 다른 간부들과 함께 사살된 이래 그들의 소수잔당은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닥쳐오는 추위에 떨고 있다. 그들은 최후발악으로 양민을 강압하여 초로전술을 쓰려고 하고 있다. 그들에게서 압수한 지령서에도 이 의도가 발견되었으며 중에는 ‘우리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들어있다’는 문구도 보였다. 그러나 우리 국군은 조금이라도 그들의 발악을 허락치는 않을 것이며 폭도 배들의 완전섬멸은 목전에 박두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대동신문·독립신문·조선일보·대동신문·한성일보 48. 11. 12)

■ 동아일보 1948년 11월 14일

폭도 서귀포발전소 내습

【제주 13일 발 합동】 지난 7일 남제주군 서귀포 시내에 잠복하였던 폭도중 5명이 서귀포 발전소를 습격하였는데 그때 동 발전소는 국군 제○중대 소속 권천석(權千石) 하사 1명이 수비하고 있다가 단신으로 내습하여온 5명의 무장폭도를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투하여 폭도 2명을 사살하고 그 무기를 압수하고 나머지 적을 격퇴시켰다 한다. 권하사의 분투의 결과 발전소에는 아무 피해도 없다. 국군당국에서는 동 하사의 용감한 행동을 표창하리라고 한다. 또 동일, 서귀포 시내에는 방화로 인하여 민가 81호가 소실되었으나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건물은 군경의 신속한 노력으로 하등의 피해도 입지 않았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대동신문·자유신문·한성일보 48. 11. 14 / 조선일보 48. 11. 16)

■ 독립신문 1948년 11월 18일

제주도 파견한 통학(統學)간부 피살

전국통일학생총연맹(全國統一學生總聯盟)에서는 제주도 폭동사건이 발생한 이래 동도 주민에 대한 선무공작이 필요함을 느끼고 계몽대를 파견한 바 있었는데 파견된 계몽대장 백경석(白經錫)군과 문화부차장 김병익(金秉翼)군은 지난 7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폭도의 습격을 받아 불행히 순사(殉死)하였다 한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 48. 11. 20)

■ 한성일보 1948년 11월 19일

3 특경(特警) 1계급 승진 / 제주서의 수훈 표창

제주도사건 진압차 현지에 출동 중인 수도청 특별경비대원 양재홍(梁在弘) 경사와 순경 김정수(金貞秀), 동 박창언(朴昌彦) 3명은 그동안 현지에서 혁혁한 수훈을 세워 제주도비상경비사령관은 지난 15일부로 각각 1계급씩의 특별승진을 발표하였다 하는데 이에 대하여 김수도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무에 충실한 부하는 언제든지 그 공적을 표창할 것이다. 순직한 후의 2계급 승

진보다 살아서의 1계급 승진이 좋을 것은 물론이며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여 앞으로는 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고려하겠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자유신문 48. 11. 19)

■ 조선일보 1948년 11월 20일

제주계엄령은 무근(無根)

이즈음 항간에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19일 국방부 보도과에서는 전연 무근지설이라고 다음과 같이 부정하였다.

△국방부 보도과 담 : “이즈음 모 신문을 비롯하여 항간에 떠도는 말과 같이 제주도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된 일은 없다. 각처에서 폭동이 일어나므로 군에서는 작전상 경계를 엄중히 한 것이 민간에 오해된 모양이다.”

■ 국제신문 1948년 11월 21일

군관계 기사 사전에 검열

국방부에서는 군 관계 여론을 수집하고 군 작전과 군기(軍機)를 보호하며 나아가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이후부터는 군 관계 기사는 사전에 당국의 검열을 받게 되었다 한다.

■ 국제신문 1948년 11월 23일

언론억압 아니다 / 군 기사 검열에 군당국 담

국방부 보도과장 22일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일 발표한 국방부 또는 군 관계기사 검열 문제는 보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번 여수사건만 하더라도 내무부와 공보처, 그리고 국방부 발표가 시간적으로 차이 있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확실한 진상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한 구구한 유언비어가 조성되므로 보도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결코 자유로워야 할 언론을 탄압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아님을 일반은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 조선일보 1948년 11월 26일

폭도 88명 사살 / 제주도 각처서 잔적을 소탕

남제주군 중문면 부근 한라산록 일대의 잔여폭도를 소탕 중이던 국군부대는 11월 21일부터 2일간 도피중의 잔적을 도처에서 포착하여 폭도 88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일본도, 철창, 죽창 및 다이내마이트 등 다수 무기를 압수하였는데, 국군측에는 아무런 손해도 없었다 한다. 【제주합동】

(같은 기사 대동신문 48. 11. 27)

■ 독립신문 1948년 11월 27일

폭도 79명을 사살 / 북제주군서 국군 소탕전

【제주 26일 발 합동】 북제주군 산악지대에서 소탕작전을 전개 중이던 국군 제○○부대는 지난 14일 하오 5시 경 노형리 월산동 부근에 은피하고 있는 폭도집단을 발견하고 이를 포위 공격하여 79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하는 한편 실탄 57발을 압수하였다 하는데 사살된 폭도 중에는 중요간부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며 국군측 손해는 없었다 한다. 그리고 작금 남제주 방면에 있어서는 국군 혹은 경찰대에서 귀순자에 대한 취급이 관대하여서 간부 지위에 있는 폭도들이 속속 귀순하고 있다 한다. 【국방부 검열제】

(같은 기사 국제신문·동아일보·자유신문·조선일보 48. 11. 27)

■ 자유신문 1948년 11월 27일

이 국무총리 제주연대 격려방송

이 국무총리는 26일 하오 8시 서울 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제주도에서 폭도 섬멸을 위하여 감투하고 있는 제9연대 장병에 대한 격려방송을 하리라 한다.

■ 국제신문 1948년 11월 30일

제주 4·3사건 공판

지난 16일 제5회 공판을 끝마친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판은 금번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단 중지되어 있었던 바 사건이 점차 수습됨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상오 10시부터 다시 제주사건 제6회 공판을 광주지방심리원 제1호 법정에서 송화식 부장판사 주심으로 최원옥(崔源玉) 최일영(崔日映) 검사 입회 하에 개정되어 하오 4시 폐정하였는데 이날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사건 관계자를 비롯한 피고 22명에 대한 검사구형은 다음과 같다.

최고 1년 징역 4명, 최하 3년 징역 2명, 그리고 언도는 금 30일이라고 한다.

(같은 기사 동아일보·서울신문·자유신문 48. 11. 30)

#### ■ 자유신문 1948년 11월 30일

#### 제주에 계엄령 / 선무공작의 성과 다대

지난 21일 도내 전역에 계엄령이 실시되고 뒤이어 23일에는 계엄령 포고 제1호로 교통제한, 우편통신 신문 잡지 등 검열, 부락민 소개, 교육기관에 대한 제한, 청소 벌채 및 도로의 수리 보전 및 폭동에 관한 벌칙 등 7종목의 세칙이 발표되었다. 군경부대는 계속 잔여폭도 적출 소탕에 분투중이며 한편 도 당국을 중심으로 군과 관민이 협력하여 지난 22일부터 일반민중의 지도를 위한 선무반이 편성되어 도내 요처를 순회하며 이재민 구제, 시국강연, 좌담회 등을 개최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즈음 폭도들은 그 주력이 섬멸된 이래 충기를 소지한 자는 극소수인 듯하며 지리멸렬된 잔여폭도들은 철창 죽창을 소지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 활동 방법에 있어서도 두 명씩 야간을 틈타서 산간부락 양민가옥에 내습하며 식량 피복 등을 약탈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이미 치안이 회복된 부락을 군경부대가 통과할 때에는 부락민 남녀노소가 도로 연변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짖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한다. 【합동 국방부 29일 검열제】

(같은 기사 국제신문·동아일보·자유신문·조선일보 48. 11. 30 / 한성일보 48. 12. 1)

---

# 1948년 12월

## ■ 한성일보 1948년 12월 2일

### 제주 진압 진척 / 폭도 속속 체포

【제주 1일 발 함동】 잔여폭도의 근멸을 기하고자 북제주 산악지대를 수차 공격 중이던 국군부대는 도처에서 잔적을 포착 소탕하였는데 그 전과는 다음과 같다 한다.

(1). 11월 23일 제○○대는 선흘리 방면에서 은피중 □□ 전단을 발견하고 포위공격을 가하여 5명을 체포하였는데 그 중에는 함덕지구 지도부장급 지구 소대장 1명, 분대장급 3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90식 대검 철창 및 식량 등 다수를 압수하였다.

(2). 11월 26일 제○○대는 도평리 방면을 소탕하여 외도지구 위원장 선전부장급 연락부장을 체포하였다.

(3). 11월 25~6일 양일에 걸쳐 ○○대는 청수리 부근을 소탕하여 5명을 체포하였으며 그들이 소지하였던 무기를 압수하였다. 이상 전투에 있어서 국군 측 손해는 없었으며 계속 작전 중에 있다 한다. 【국방부 □일 검열제】

## ■ 동광신문 1948년 12월 3일

### 식량 노획에 인한 적의 타격 심대 / 제주방면 토벌작전

제주방면의 토벌작전은 식량 노획으로 말미암아 적에 치명상을 주고 있거니와 지

난 29일 제9연대장이 제5여단 사령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 ○○대는 월평리 및 명도암 부근을 수색 공격하여 폭도 5명 사살 및 식량 11가마 노획.

(2) 제○○대는 수망리 적을 추격하여 폭도 사살 9명, 포로 3명, 식량 및 의약품한 트럭분, 중요서류 기타 적의 전용품 다수를 노획하였다고 하며 목하 제○○연대에서는 폭도소탕에 주야불면의 맹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5여단 정보처 검열제】

(같은 기사 국제신문·조선일보 48. 12. 4)

### ■ 동광신문 1948년 12월 3일

#### 제주사건 언도 / 최고 무기 최하 3년 / 제7회

【광주 1일 발 합동】 지난 11월 26일 제주사건 제6회 공판에서 검사논고를 끝마친 피고 김용태(金用太) 외 21명에 대한 최후언도가 작(昨) 11월 30일 하오 3시 개정된 제7회 공판에서 송화식 부장판사 재판장으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 (괄호 안은 검사구형)

김용태(15년) 무기징역, 정동일(鄭東日·15년) 징역15년, 고기화(高奇華·15년) 동, 오순배(吳順培·15년) 동10년, 고윤하(高崙河·10년) 동15년, 김봉수(金奉洙·10년) 동10년, 고두행(高斗行·8년) 동8년, 정양수(鄭亮洙·7년) 동, 김계선(金桂先·7년) 동, 이양호(李洋鎬·6년) 동7년, 박경선(朴景先·6년) 동7년, 김윤보(金潤保·5년) 동5년, 이창옥(李彰玉·5년) 동5년, 강군오(姜君五·5년) 동5년, 김만복(金萬福·4년) 동5년, 구병현(具炳玄·4년) 동5년, 임창범(任昌範·동) 동5년, 이창부(李昌富·동) 동5년, 황계봉(黃桂奉·단기3년, 장기5년) 동상(同上), 문두복(文斗福·3년) 무죄, 한봉준(韓鳳俊·3년) 무죄.

(같은 기사 국제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자유신문 48. 12. 4)

### ■ 자유신문 1948년 12월 3일

#### 폭도 본거 포위 / 제주에서 230명 포로

한라산록 일대의 잔여 폭도 소탕전은 최고조에 달한 감이 있는 이때 조천면 교래리 산악지대를 작전 중이던 국군 제○○부대는 11월 28일 ‘물장오름’(산이름) 부근에

서 드디어 잔적 총병력의 은피 거점이며 제주도남로당 본거지를 발견하여 치열한 포위공격을 가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230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99식 장총 2정, 실탄 15발, M1총 실탄 180발, 미군식 권총 1정, 수류탄 6개, 천막 7, 휘발유 2드럼, 기타 식량 피복 등 다수를 압수하였는데 국군측 손해는 전무라 한다. 국군은 계속하여 부근 일대를 엄중 수색 중에 있다 한다. 【국방부 2일 검열제】

(같은 기사 대동신문 48. 12. 3)

■ 동광신문 1948년 12월 4일

폭도섬멸에 공훈세우고 김(金)중대장 외 전원 개선 / 제8관구청 제주 응원부대

지난 10월 2일 8관구청 수사과 부과장 김영태(金永台) 중대장 이하 52명은 제주도 방면의 응원부대로 출동하여 각지에서 수십 차의 교전을 하여 폭도들의 소탕에 많은 공적을 남기고 대원 중 단 한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뿐 그 외 전원은 원기 왕성히 재작(再昨) 2일 무사히 귀청하였다 한다.

■ 서울신문 1948년 12월 5일

맹렬히 토벌 중 / 제주도내 반도 소탕은 계속

제주도경찰청으로부터 정부 공보처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국군 제9연대 장병은 요즘도 연대장 송요찬(宋堯讚) 중령 지휘 하에 맹렬한 반도 토벌전을 매일같이 계속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현지 작전에 있어서는 군경은 굳게 단결하고 있으며 도민들도 국군의 맹활동을 신뢰하고 협력하고 있다 한다.

■ 국제신문 1948년 12월 9일

안도하라! 국군은 엄존 / 반란사건의 전모 / 이(李) 국방장관 국회서 설명

과정(過政) 3년간의 모순된 정책은 제주도 사건 발발로 비극적인 폭발을 가져오야 말았다. (중략)

## 제주도 사건

△경과(經過) : 원인은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상 해방직후에 소위 인민공화국 모략선전이 존속하고 재일본 제주도 출신 노동자 10여 만명이 좌익사상을 포기치 않고 고집함에 기인한다. 또한 제주도민은 타도출신 경찰관을 싫어하며 남로당과 북로당의 모략과 준동이 있었다.

제주도 사건은 4월 3일 봉기로 시작되어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였다. 국군은 4월 17일부터 응징의 철추를 내리고 있는데 폭도는 제주도의 지세를 이용하여 정공법(正攻法)을 피하며 암약하고 있다.

△처치(處置) : 폭도측의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는 한편 응치 않는 자에게는 철저히 박멸할 방침인데 제주도의 제9연대는 4월 중순부터 장교 〇〇〇명, 사병 〇〇〇〇명으로 진정사업에 노력중이며 한편 제11연대를 편성하였던 것인데 7월 일부 병력을 교대하여 주력을 경기도 수원에 이주케 하였다. 10월 18일부터 금일까지 출동한 함정은 7척, 인원 203명인데 해상봉쇄에 중사 중.

△장래성(將來性) : 무장폭도는 현재 50~60명에 불과하나 도민 다수가 폭도의 정신적 가담자라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인데 제9연대 장병이 주요지점을 확보하고 산간부락민을 해안선에 이주시키고 있으며 보갑제(保甲制) 실시 중. 11월 16일 이후 계엄령 시행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군경관(軍警官)은 일체가 되어 있다.

△종합보고(綜合報告) : 전투회수 102회, 적 병력 무장폭도 1,000명, 일반폭도 2,000명이었으나 현재 50명, 적(敵)포로 5,719명.

## 호남 사건 (후략)

### ■ 대동신문 1948년 12월 9일

국내반란사건 종합 집계 / 잔존 반도 약 300 / 숙청은 민족 양심에 호소

국방부에서 작(昨) 8일 국회에 제출한 지난 4월 3일 이래 현재까지의 국내 반란사건의 종합보고에 의하면 반란분자 세력은 현재 호남지방에 약 200명, 제주도에 약 50명, 강원도에 약 40명이 남아있다 한다. 앞으로 이들 잔존반도의 숙청은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여 귀순케 하는 한편 이에 응치 않으면 철저히 박멸 근절할 방침이라 한다. 동 종합보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중략)

(2) 제주사건

**제1차** : △전투횟수 42 △주둔 및 작전병력 총수 3,045 △적병력 - 최대 무장폭도 1,000, 일반폭도 2,000 △적 이해(移害) - 유기시체 80, 포로 2,015 △아방피해 - 전상 3

**제2차** : 전투횟수 60 △적 현재병력 50 △적 손해 - 유기시체 341, 3,704<sup>18)</sup> △아방피해 - 전사 2, 전상 5 (후략)

■ 서울신문 1948년 12월 9일

제주사태는 점차 호전, 1만여 재민 구호가 긴급 / 임제주지사가 말하는 도내실정

이재민 구제대책과 도(道)기구 개혁문제에 관하여 중앙당국과 절충코자 3~4일전 서울에 상경한 제주도지사 임관호(任管鎬)씨는 최근의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에 있는 집을 죄다 없애라는 북로당 지령에 의하여 폭도들이 방화한 가옥 소실 동수는 무려 3,000동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참상을 이루고 있는 곳은 남원의 300호, 남원면 위미리 부락에 있는 400호의 민가가 지난 11월 하순경 폭도들의 방화로 한꺼번에 전소하여 버린 것이다. 그리고 폭도들의 만행은 지난 11월중이 가장 악랄하여 서귀포 공립중학교, 동 면사무소를 비롯한 해안부락 1,100호에 대한 잔인한 방화는 전부 전달(11월)에 감행된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 폭도들의 방화로 인하여 집을 잃고 헐벗은 이재민의 수가 1만 2,000명인데 그 중 8,000명은 긴급원호를 요하는 요구호자들이다. 그리하여 도 당국으로서는 이재민구호회를 조직하고 폭도의 손에 있던 것을 국군이 압수하여온 식량과 기타 구제미를 양민에게 특배하여 식량문제 해결에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의 치안상태는 계엄령 하에 있다고는 하나 폭도들의 감언이설에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양민들이 부락단위로 자경단을 조직하고 군경당국에 자기들의 주위에 있는 폭도를 속속 고발하고 있어 12월에 들어서서는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으며 본관의 생각으로는 금월 말까지는 폭도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추곡매입은 도민 각자가 자기들의 책임량을 정부에 매도하지 않으면 중앙으

---

18) 포로 3,704인 듯.

로부터 부족한 식량에 대한 원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으므로 계엄령만 해제되면 배정량 매입은 단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앙에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을 당한 현지 난민에게 구호물자를 보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한성일보 1948년 12월 10일

제주 등 잔도(殘徒) 소수 / 3개월 내에 완전 진압 / 이 국무총리 반란 경위 보고

이범석 국무총리는 12월 8일 상오 국회에서 지난 4월 이후의 국내 소란사건에 관하여 보고한 바 있는데 그 보고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제주도사건 : “4월 3일 사건 발생 이후 국군 제9연대장은 경찰과 협력하여 무장폭도 진압에 분투한 결과 1,000명 내지 2,000명으로 추산되던 폭도 수는 현재 약 50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더욱이 11월 16일 계엄령 시행으로 급속도로 사태의 호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4월부터 12월까지의 전투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동 기간 중 육군은 연인원 약 5,000명이 출동하여 1,000명 내지 2,000명으로 추산되는 폭도와 102차에 걸쳐 교전하였는데 적에게 준 손해는 유기시체 421, 포로 5,719 인이며 국군 측의 손해는 전사 3, 전상 8이다. 그리고 해군은 함정 7척, 인원 303명이 출동하여 해상봉쇄에 노력한 바 있는데 그동안의 전과는 선박나포 5척이다.

(2) 호남사건 : (후략)

■ 조선중앙일보 1948년 12월 12일

제주 4·3사건 공판 재개

【광주 11일 발 합동】 지난 8월 제주지방심리원에서 광주지방심리원으로 이관된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판은 그동안 전후 7회에 걸쳐 개정되었다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금번 지연된 동 사건을 다시 연내에 완전히 처리하고자 지난 7~9일 3일간에 걸쳐 피고 양성홍(梁成洪) 외 35명에 대한 사실심문과 구형이 있었는데 그 중 사형 1명, 무기징역 5명의 구형이 있었으며 언도는 오는 14일 16일 17일 3일간에 있으리라 한다. 그리고 지난 9일 하오에는 지난 10월 제5회 공판에서 구형이 있는



후 금번 반란사건 발생으로 그 언도를 일시 중지하고 있던 피고 이정생 외 17명에 대한 최후언도는 최고 5년징역 1명과 최하 무죄언도 5명이 있었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 48. 12. 14)

■ 대동신문 1948년 12월 17일

제주소탕전 진척 / 창 가진 시민 3,000명도 협력!

【주서울 AP특과원 무어씨 16일 제공 합동】 대한민국 국군사령부는 16일 제주도의 주요한 소탕전에서 반정부군 반도 105명이 사살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제주도사령관으로부터의 내전에 의하면 창을 가진 약 3,000명의 시민이 소탕전에 있어서 정부를 원조하고 있으며 동 시민들은 제주도의 3시항(市港)으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한라산을 향하여 추격하였다 한다. 그런데 신(新) 표고(標高) 1,950피트<sup>19)</sup>의 한라산은 4월 이래로 부락을 간창적<sup>20)</sup>으로 내습하여온 반도들의 본거지였다. 북한 선전은 때때로 이 제주 반도를 소위 인민정권을 위한 애국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좌익분자들이 5월 10일의 국회 선거를 방해할 수 있던 남한의 유일한 지역이었다. 동 내전(來電)에 의하면 국군측의 피해는 없으며 일본식 총 10정, 식량품 약간을 포획하였다 한다.

(같은 기사 한성일보 48. 12. 18)

■ 독립신문 1948년 12월 18일

제주사건 9회 공판 / 강성인(姜性仁)에 무기 언도

【광주 18일 발 합동】 지난 8일 제주사건 제9회 공판에서 김영천 검사로부터 구형이 있었던 피고 강성인 외 11명에 대하여 지난 16일 이명호(李明孝) 판사로부터 최후언도가 있었는데 그 중 강성인은 무기징역, 김평옥 양규석 양인은 각각 10년 징역의 판결이 있었으며 특히 김영희 송창선 김재규 3명에 대하여서는 무죄 언도가 있었다.

(같은 기사 동아일보 · 한성일보 48. 12. 19 / 국제신문 48. 12. 22)

---

19) 미터의 오류인 듯.

20) 간헐적으로의 오기인 듯.

■ 자유신문 1948년 12월 21일

흔돈은 언제 종식되나 / 함양·북제주 등지에 반도 내습(來襲)

여수사건 이후 국내치안은 아직 완전히 평온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로 때때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19일에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 한다. (중략)

△19일 오후 5시 반 경 북제주(신엄) 지서에 약 100명의 폭도가 내습하였는데 그곳 경찰당국은 이를 격퇴하고 방금 추격 중으로 대요 다음과 같은 피해와 전적이 있었다.

(가) 서원 1명 사망, 양민 10명 사망 (나) 30호 전소 (다) 전리품 : 추격포 1정, 기관총 1정, 탄환 다수.

(같은 기사 독립신문 48. 12. 21)

■ 서울신문 1948년 12월 23일

내무장관 증명서가 제주도 여행에 필요

【목포】 제주도 여행증명 수속이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각 소관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던 것이 이번에는 제주도 일대에 계엄령이 공포되어 일반 여행자는 반드시 내무부장관 및 각 소관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상륙을 허가하게 되어 지난 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8년 12월 24일

제주4·3사건 계속 언도

【광주 23일 합동】 지난 24일 제주4·3사건 제11회 공판에서 심사 구형이 있었던 피고 강문동(姜文東) 외 9명에 대하여 21일 광주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지(池)판사로부터 징역 8년 2명, 징역 7년 3명 등의 판결언도가 있었다.

(같은 기사 국제신문 48. 12. 26)

■ 조선중앙일보 1948년 12월 29일

제주파견 철경(鐵警) 귀환

철도관구경찰청 제주도 응원파견부대 ○○명은 지난 11월 3일 출발이후 제주도 치안수습에 그 공로가 다대함이 있어 현지 경비사령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아 지난 21일 전원 무사 개선하였다 한다.

■ 경향신문 1948년 12월 31일

제주도 계엄령 31일로 해제

작일 공보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반란사건으로 인하여 그간 계엄령이 실시되고 있던 제주도 전 지구는 12월 31일부로 계엄령은 해지되었다 한다.

(같은 기사 자유신문 48. 12. 31)

■ 국제신문 1948년 12월 31일

제주치안 점차 회복 / 계엄령도 금명간 해제 / 채(蔡) 준장 담

국방부 보도과장 이창정(李昌禎) 소령은 30일 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이 채 참모총장 담화를 발표하였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일 반란지구 토벌에 출동중인 군경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것을 결의하고 24일 정식으로 전달하여온 바 있었는데 군 당국은 이를 즉시로 현지 사령관에 전달하여 사기를 고취하였다. 또한 국회의 반란지구 순찰반이 현지에 도착하여 사기 고취, 상병(傷兵) 위문 등으로 다대한 성과를 낸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 제○유격전구로 되어있는 제주도의 근황은 매우 평온하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국군장병의 절대한 노력으로 제주도민을 선무하여 스스로 폭도를 진압 또는 은거(隱居) 거부를 하며 애국적인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국군의 폭도 진압전에 종군하여 절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성과는 국군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 이하 여러 장병의 애국적인 활약의 표현이라고 하여 군 당국은 정월 초순경 송중령 이하 장병을 표창하겠다. 한편 폭도

의 진압이 일단락을 지었으므로 수삼일 내로 계엄령을 해제하겠다.”

■ 대동신문 1948년 12월 31일

### 제주사태 양호! / 채(蔡)참모총장 담화 발표

참모총장 채병덕 준장은 30일 제주도 사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1) 국회에서 군경에 감사문을 송달한 데 대하여 : “조국 치안확보의 중책을 쌓건에 짊어지고 일야 분투하고 있는 군경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는 토벌 현지 군경에 대한 감사결의가 있었다. 또한 동월 24일에는 정식으로 감사결의문이 군에 전달되었다. 국사다단한 우리 국회에서 이와 같은 감사의 뜻을 보내준 데 대하여 국군으로서는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즉시 현지부대에 전달한 바 현지 장병은 진실로 감사 감격하여 주야 불민불휴 공비토벌과 자국민 보호의 결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바이다. 또 과반 국회를 대표하여 수반으로 나누어 의원단이 협시각처에 일반선무와 군경위문차 출장한 바 있음에 대하여는 그 성과가 매우 컸으며 특히 현지 장병을 잘 인식하여 주었고 상병자 등을 위문하여 준 것은 현지 장병들로 하여금 그 기를 일층 왕성케 하였음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 제주도 작전에 대하여 : “종래 제주도 주민들은 독자적인 도민성을 보존하고 있었고 또한 남로당 조직이 잘 되어 있어 과거에는 국군과 경찰에 적대행위를 했으나 현재는 도민의 심경의 변화가 현저하여 대체로 극히 우호적이며 도민들은 자유스럽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경을 돕고 최근에는 국군이나 경찰에나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즉 최근 제주도 작전에 있어서 소수의 국군장병에 인솔된 보조 무장도민 3,000명이 한라산 무장폭도 측에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하고 다수의 무기와 식량을 나포 압수하였으며 12월 11일 하오 6시에는 제9연대의 1개 중대는 도령리 부근의 1,000명의 주민을 인솔하고 폭도 측에 105명의 사상을 내고 무기 장비를 나포 압수하였다. 제주도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 및 장병들은 최초의 적대적인 도민들로 하여금 진실로 국군을 신뢰케 하고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협력을 획득하였으며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군경을 자기들의 보호자로 인식케 하고 결코 반도나 폭도들에게 식량이나 피신 은닉장소를 제공치 않게 되고 제주도는 착착 평온리에 원상을 회복 중에 있다. 특히 송소령의 공적은 논상(論賞)할 바가 크다.”

■ 한성일보 1948년 12월 31일

제주사태 완전진압 / 도민의 협력도 다대

제주도 근황에 관하여 국방부에서는 30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때때로 속출되던 제주폭도들은 국군의 철통같은 방위와 성의있는 도민의 협력으로 완전 진압되었으며 한라산에 집중된 폭도에 대하여 도민이 공격을 가하여 3,000명의 무장폭도들을 100여 명이나 격멸하였다.

---

# 1949년 1월

##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일

### 전(全) 제주 계엄령 31일 해제

지난 11월 17일 이후 실시되고 있는 제주도지구의 계엄령에 관하여는 제주도 사태가 날로 평온화 되어감에 따라 이를 금년말 내로 해제하겠다는 채병덕(蔡秉德) 참모총장의 누차의 언명도 있었거니와 12월 30일 하오 2시 30분 공보처에서는 12월 31일부로 동 지구의 계엄령을 드디어 해제키로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주도지구의 계엄령은 12월31일 부로 해제키로 되었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 48. 12. 31 / 독립신문·동광신문 49. 1. 1)

##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일

### 제주사건 공판 3개월만에 결심(結審)

지난 8월말 제주도로부터 이관된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판은 10월부터 12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송화식(宋化植) 부장판사와 이명효(李明孝) 판사 주심으로 전후 15회에 걸쳐 계속하여 왔는데 지난 24일 제15회 공판으로 피고 양성홍 외 113명에 대하여 결심을 마쳤다.

그 중에는 검사 불복 상소와 피고불복 공소가 수 건 있다 하며 심리건수는 70건

에 달하며 그 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형 1, 무기징역 4, 기타 유기징역 최하 8개월 최고 15년 82명, 집행유예 8명, 무죄 19명. 【광주 발 합동】

■ 한성일보 1949년 1월 3일

최고에 무기 징역 / 제주 4·3사건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당지 법정에서 개정된 제주도 4·3사건은 객납(客贖) 29일의 공판을 최후로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12월 29일 판결 언도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다. △김종규(金宗圭) 징역 15년 △정동화(鄭東和) 징역 10년 △현상순(玄商淳) 징역 10년 △장성봉(張性鳳) 징역 8년 △김경홍(金京弘) 징역 3년 △김성연(金性연) 무기징역 △윤공삼(尹公三) 징역 5년 △이양규(李良圭)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 △강동수(康東守) 징역 5년 △강남수(康南守)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 △강서수(康西守) 징역 1년 △홍영삼(洪榮三) 징역 1년 △윤좌생(尹佐生) 징역 1년 △김국홍(金國洪) 징역 1년 △이근석(李根錫) 징역 1년 △이성우(李性宇) 징역 10년 △강태홍(康泰洪) 징역 6년. 그런데 당지 법정 발표에 의하면 동 사건에 대한 조서는 무려 1만 5,000여 페이지이며, 총 건수는 74건, 피고수는 131명에 달한다고 한다. 【광주】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9. 1. 4)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6일

제주도청 전소(全燒) / 원인은 조사중

내무부에 들어온 무전에 의하면 제주도 도청청사가 지난 3일 오후 8시경에 발화되어 전소되었다는 바 그 발화 원인과 손해는 목하 조사중에 있다.

(같은 기사 독립신문·조선일보 49. 1. 6 / 동광신문·동아일보 49. 1. 7 / 서울신문 49. 1. 8)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6일

전소설 비상사령부 부인

5일 제주도지사로부터 공보처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3일 하오 8시경 제주읍내에 있는 제주도청 본관에 불이나 전소되어 방금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5일 비상경비사령부에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 ■ 동광신문 1949년 1월 7일

##### 국적불명의 잠수함 제주도 근해에 출현

【서울 5일 발 합동】 내무부 소속 비상경비사령부에 들어온 보도에 의하면 지난 달 31일로써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제주도 일부에 소란이 계속되어 있는 곳도 있고 더욱 고금도(古今島)에 있는 경찰지서는 3일 하오 8시경 무장폭도에 습격되어 전소되었다 한다.

그리고 한림 앞바다에 3일 하오 2시경 국적불명의 잠수함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뒤 별다른 행동은 없었다 한다.

#### ■ 동광신문 1949년 1월 7일

##### 제주 평정부대를 목포 시위(時委)의 위로

【목포】 제주동란사건 평정에 혁혁한 무훈을 남기고 사기 왕성히 개선한 국군 ○○○명은 지난 31일 오전 6시 관민 환영리에 보무도 당당히 목포항에 상륙하였는데 목포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경찰서와의 협력 아래 그 노고(勞苦)를 위로코자 동 부대에 대한 식사 일절의 준비와 사과, 과자 등의 성의를 다한 위문품을 증정한 바 있어 군인을 감격시켰다고 한다.

#### ■ 독립신문 1949년 1월 12일

##### 제주 명덕리서 격전! / 아직도 계속되는 한라산 전투

【제주 발】 지난 12월 28일 본도에 상륙한 이래 침묵을 지켜오던 국군 제2연대는 지난 1월 6일 상오 3시를 기하여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고 도처에서 적의 주력을 격파하였는데 6일 상오 6시 반 명덕리(明德里, 제주읍서 약 8km)에 도착한 국군 ○○



부대는 무장폭도 약 70명과 철창, 죽창 등을 소지한 무장폭도 약 250명으로 추산되는 적 주력이 잠복 중임을 발견하여 연대장 직접 지휘하에 지형적 악조건을 극복하며 총섬멸을 위하여 적을 완전 포위하고 점차 포위망을 압축하는 동시에 적진의 정찰 및 내부소탕을 목적으로 연대장 자신이 단신 삼엄한 적의 보초선을 뚫고 적진에 잠입하여 교묘히 폭도를 행세하고 폭도의 1인과 상면하여 폭도가 쓰는 암호를 사용하였으나 암호가 통하지 않아 결국 위기일발의 경계에서 적진을 탈출하고 돌아와 맹렬한 일대 포위섬멸 작전을 개시하여 약 4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드디어 적을 완전 섬멸상태에 빠지게 하고 다음과 같은 혁혁한 전과를 획득하였다.

적의 유기시체 153, M1소총 1정, 탄약 500발, 일본도 및 죽창 다수, 피복, 선전빨라 다수 압수, 국군 피해 전사 3명, 부상자 5명 【현지 군 검열제】

(같은 기사 대동신문·동아일보·자유신문·조선중앙일보 49. 1. 12 / 동광신문 49. 1. 13)

#### ■ 조선일보 1949년 1월 12일

##### 제주사태 재악화 / 오용국 의원 현지 시찰담

제주도의 반란사태는 호전되어 지난 12월 31일부로 계엄령이 해제되었는데 오용국(제주도 출신) 의원은 그간 고향인 동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최근의 사태에 관하여 9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회가 휴회하는 동안 귀향해서 제주도의 실정을 보고 왔는데 매일같이 도처에서 습격사건이 끊일 사이 없이 발생하고 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사태는 더욱 험악하여지고 있으며, 내가 돌아올 적에 계엄령이 다시 실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제주도의 치안상태에 관하여는 12일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상세히 보고하려 한다.”

(같은 기사 자유신문·조선중앙일보 49. 1. 12)

####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2일

##### 선무공작 보고 청취 / 미곡매상에 경찰력 행사는 불가 / 신년벽두의 첫 국회 개회

(전략) 오용국 의원은 제주도의 반란이 진압되었다면 여수 순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 혼란한 문제의 정치적 사상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 의원의 보고 요지는 여좌하다.

오용국 의원 : 제주도는 각 지구에서 방화 습격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반란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악화하고 있으며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2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 일체의 20만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요새지이며 이로 말미암아 제일 많은 피해와 희생을 입은 것이 제주도민들이다. 30만 도민은 참혹한 동족상잔 속에 살고 있다. 제주도의 반란이 급속히 진압되었었다면 여수 순천의 반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것이 계속된다면 남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사태의 진압이야말로 최대의 급무인 동시에 이를 해결함으로써만 혼란한 정치적 사상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반란에 의한 피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관공서 전소 55동 약 2억3,000만원
- 2) 통신기관 전주 5,191본, 전선 72만 4,300미(米), 부속품 1만 3,829개 약 2억3만 1,000원
- 3) 일반 민중관계 전소가옥 6,277동(한동당 5만원 평가) 3억1천3백85만원
- 4) 사상자수 9,539인, 이재민 2만 4,527인, 피해총계 7억4,388만 1,000원 (후략)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5일  
군(軍)의 기사는 헌병서 검열

헌병사령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군에 관한 일체의 보도는 정식 발표를 제외하고 헌병사령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방첩(防諜)에 대한 총책임을 헌병사령부에서 맡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며 방첩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도 초안을 기초 중에 있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49년 1월 16일  
신(申)내무장관 제주 부산 등 시찰

내무장관 신성모(申性模)씨는 12일 비행기로 서울을 떠나 제주도와 부산, 대구 등 각지를 전격적으로 시찰을 끝마치고 14일 귀임하였다.

■ 경향신문 1949년 1월 18일

공산당에 주민들은 목침(木枕), 방망이 들고 대항 / 제주도 시찰한 신(申)내무장관 담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한 각지를 시찰하고 돌아온 신(申)내무장관은 시찰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제주도 사태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의 주민이 경찰이나 국군보다 많이 살상된다고 하여 마음에 대단히 불안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비행기로 가보았다. 주민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말을 들으면 공산당들은 무기를 가졌는데 100명 내지 400명은 된다고 하며 산림지대의 굴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 이 굴은 전부 16개소나 되는데 한 굴에 2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들 공산당들은 밤이면 동리에 나와 양식 의복을 빼앗아 가는데, 과거 3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면 곧 인민공화국이 서게 되고 그네들도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던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UN에서 승인까지 하게 되고 보니 공산당들이 말하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자 주민들은 크게 깨닫고 밤에 공산당들이 부락에 내려오면 목침, 방망이, 식도, 팽이, 낫, 무엇이고 손에 닥치는 대로 들고 나가 싸우기 시작하였다 한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공산당들의 모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를 맨손으로 물리치게 되면서부터 주민의 살상이 경관이나 국군의 살상보다 더 많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주민의 원하는 바는 의복도 보내고 식량도 보내야 되겠는데 해군도 보내서 가끔 나오는 소련배를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 지금은 눈이 많이 쌓여 눈으로 막을 수 있으니 1~2개월 안에 다 숙청시켜야 되고 숙청될 것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8일

제주도 등 시찰 / 내무장관 귀경 담화

제주도를 비롯하여 각 지방을 순시하고 돌아온 신성모 내무장관은 17일 제주도 사태와 지방행정 관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사태 : “제주도에 간 것은 경찰과 국군보다도 일반주민의 사상(死傷)이 많다는 정보를 보고 대통령을 대신하여 간 것이었다. 해방 후 만 3년 간에 걸쳐 황

폐된 제주도 도민의 실정이란 말할 수 없이 험한 것이었다. 현재 무장하고 있는 공산당원은 100명 내지 400명이라고 추산되는데 그들은 한라산 산중에 뚫어 놓 16개 동굴 속에 숨어있는 듯하다. 이들은 1~2개월 내에 숙청할 수 있다. 그들은 부락주민에게 식량을 요구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최근 일반 인민들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를 않으니 폭행을 가하게 되어 일반도민의 사상이 격증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능이 우수한 군함을 파견하여 해상으로 들어오는 폭도의 원조를 막아야겠다.(중략)

(같은 기사 대동신문·자유신문·조선일보 49. 1. 18)

■ 경향신문 1949년 1월 20일

제주검사 봉변

판검사에 대한 수차의 불상사에 이어 이번에 대구검찰청에 부임 도중의 제주도지청 채(蔡)검사에 불상사가 발생하여 과연 사법권은 안재한가 하여 일반에 의아를 갖게 하고 있다.

즉 대검찰청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채검사는 대구검찰청에 부임 도중 이리역 차내에서 제주도에 있는 모 순경에게 조사할 것이 있으니 제주도로 동반할 것을 강요당하였다 한다. 그러나 채검사가 이를 거절하자 순경은 국군에 연락하여 채검사는 이리에서 묵고 있었다 한다. 이 급보를 접한 대검찰청에서는 총장의 이름으로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통첩하여 채검사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하는 바 4~5일전 국군의 호송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한다.

그런데 순경의 대동 이유는 채검사가 좌익분자에 대하여 신변보증을 하였다는 것이라는데 검찰청에서는 진상을 조사코자 불원 검사를 제주도에 파견할 것이라고 검사총장이 말하였다.

■ 자유신문 1949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50호로 제주에 2개 서(署) 증치(增置)

제주도에는 아직껏 제주경찰서와 남제주서를 두었었는데 그곳 경찰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개 서 증설을 위한 대통령령 제50호가 18일부로 발표되어

즉일 실시되었다.

△모슬포(제3구)경찰서 (가) 위치 : 남제주군 대정면 (나) 관할 : 남제주군의 안덕면, 대정면, 북제주군의 한림면

△성산포(제4구)경찰서 (가) 위치 : 남제주군 성산면 (나) 관할 : 남제주군의 성산면, 표선면, 북제주군의 구좌면.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9. 1. 20 / 동광신문 49. 1. 21)

■ 동광신문 1949년 1월 22일

소지(蘇紙) 제주도 근해 잠수함설 부인

【모스크바 19일 발 AFP합동】 소련 해군기관지 라니프르트지는 18일 소련잠수함이 제주도 근해에 출몰한 일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한정부 대변인의 최근 성명은 허위이며 남한정부는 2개월 전에 공포하여 작년 12월에 해제하기로 된 제주도의 계엄령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미군은 상금(尙金)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미 독점 자본가들의 한국에 관한 계획과 일치되는 것이다.”

---

# 1949년 2월

## ■ 동광신문 1949년 2월 1일

### 제주에 식량부족 / 본도서 4,000여 석 원조

주고받는 총탄으로 자고 깨인 제주4·3사건도 이제 해를 바꾸어 꼬박 열 달째이다. 산과 바다의 생계 근원을 잃은 30만 도민의 생활고가 자못 우려되던 바 춘궁기를 석 달 앞둔 동도는 이제 심각한 식량기근에 봉착한 듯하다. 즉 종전 제주도에서는 매년 약 3만 석 이상의 식량을 타도에 의존해오던 상태이던 것이 꼬박 열 달 동안 총탄의 세례를 받은 틈에 일체 생산은 총과탄의 구덩이 속에 함입하여 동도 지사 임관호(任琯鎬)씨는 인접 도인 본도에 식량원조를 호소하였다 한다. 본도에서도 국부적이거나 소요사건으로 인하여 여의치 못한 식량사정 중에서도 지난 1월 8일에 5,170석의 원조와 이번 또 다시 3,000석을 원조, 반출기로 하였다 한다.

## ■ 조선중앙일보 1949년 2월 9일

### 제주서 육해공 공동작전 / 사살이 360 포로 130명

지난 4일 상오 3시를 기하여 제주읍 봉개지구에서 함병선(咸炳善) 연대장 지휘 하에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전개되어 방금 무장폭도와 치열한 격전을 하고 있다 하는 바, 그동안 제2대대 제7중대의 과감한 용사들은 소위 인민군 재판장姜태문(姜泰文)

암살대장 박응수(朴應洙)등을 비롯한 폭도 간부들을 체포하고 제3대대에서는 반란군 1등중사 고영준(高英俊)을 체포하는 등 다대한 전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판명된 전과는 다음과 같다.

사살 360명 포로 130명 기타식량 의류등 다수압수(국방부 검열제) 【제주 발 합동】  
(같은 기사 대동신문 49. 2. 9)

■ 경향신문 1949년 2월 15일

지리산 등지의 폭도, 근간 완전소탕 개시

국군 당국에서는 지리산과 제주도 방면에 준동하는 폭도를 단시일에 완전 소탕하기 위하여 불일간 신 작전을 단행할 것이라 한다. 모 소식통에 의하면 폭도들의 행동은 UN위원단이 입국함을 계기로 약간 활발하여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군은 단숨에 완전 섬멸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탕작전을 전개하기로 되었다는데 육군의 모 고급장교가 일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할 것 같다고 한다.

■ 대동신문 1949년 2월 18일

사태는 호전 일로 / 남(南)제주지사의 도내상황 담

【광주】 서울로부터 귀임 도중 내광(來光)한 남제주도지사는 경비령 발표 하의 근간의 제주도 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 동란 중에 소실된 가옥은 7,000호에 달하며 이로 말미암아 속출한 이재민은 5만 명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시급한 구호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육지 동포의 따뜻한 손길만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5개 면사무소, 22개의 국민학교, 2개의 중학교도 소실되었으며 지난 1월 3일 도청 본관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상급 본도에는 작년 말의 계엄령 해제와 동시에 경비령이 발표되었는데 폭도들은 현재에도 집요히 출몰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는 약 600명으로 추산되는데 한라산봉의 흑한으로 대부분은 조천면 부근과 해안지대에 잠복 출몰하고 있는 형편이나 군경의 활동으로 사태는 호전되고 있다.”

(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9. 2. 18 / 독립신문 49. 2. 19)

■ 대동신문 1949년 2월 19일

평화통일을 염원 / 제주사태는 3월까지의 결말 / 이(李)참모장 광주서  
담화

【광주】 제주도 시찰을 마치고 17일 광주 비행장에 내린 육군총참모장 이응준(李應俊) 소장은 제5사단장실에서 기자와 회견하고 대요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하였다.

(문) 국군도 월북하는 적극적 행동을 취할 것인가?

(답) 우리는 정당방위의 행동으로써 월남해 오면 이에 대항할 따름이다. 밀고 들어갈 생각은 없다. UN을 도와 평화리에 남북을 통일함이 우리의 염원이다.

(문) 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주 내습할 것으로 보는가?

(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경전을 속행할 것은 사실이다.

(문) 제주도 시찰 소감은 어떤가?

(답) 아직도 무장폭도가 준동하고 있는데 오는 3월까지의 적극적인 토벌과 병행하여 선무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문) 전남사태 수습에 대한 방침은?

(답) 장기적인 폭동사건은 호남지방의 불□이 아닐 수 없다. 무식한 백성으로서 폭동에 가담한 자라도 전비를 뉘우치는 경우에는 포섭할 방침이다. 듣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강력한 방침을 계속 발동하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

(같은 기사 독립신문 49. 2. 23)

■ 대동신문 1949년 2월 20일

34명을 사살 / 제주서 폭도 토벌

지난 16일 제주도에서는 34명의 폭도를 사살하고 2명을 체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당국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400명의 게릴라부대가 일소부락을 습격하였는데 경찰은 퇴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6명의 부락민이 피살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경찰측 피해는 없다.”(서울 발 AP합동)



---

# 1949년 3월

## ■ 경향신문 1949년 3월 1일

준법정신을 기만 / 부임검사 또 피검 / 소속장관의 사전연락이란 말 뿐

국가치안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사회악을 용서없이 처단하고 있고 신분까지 보증된 검찰청 검사에 대하여 연달아 일어나는 불상사는 최근에 이르러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반의 큰 관심사의 하나로 되고 있다.

즉 검사시보를 끝마치고 26일 법무부령으로 제주도검찰청에 부임하려던 양을(梁乙) 검사가 28일 오전 모 기관에 체포되어 즉시 서울발 급행열차로 제주도에 압송되었다 한다.

검사의 체포에 대하여는 물론 법무부장관의 사전연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통례였었다 하는데 금번 돌발사건은 소속장관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다 하여 사법계에 일대 파문을 던지고 있다 한다.

동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는 비상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검사총장 권승렬(權承烈)씨는 28일 법무부장관을 방문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검찰청장 최(崔)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양을 검사가 피검되어 압송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번 반란지구인 순천 박(朴)검사는 총살당하였는데 대하여서도 검찰청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 검사의 체포에 관하여서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연락이 없었다는 점이 매우 유

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는 알 수 없으나 검사의 신변보호에 유감없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1949년 3월 4일

양(梁)검사 체포 해제를 시달

지난 28일 서울에서 제주도경찰청 경관에 피검된 양을 검사의 체포사건은 사법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는데 대검찰청에서는 치안국과 연락하고 2일 제주도검찰청과 경찰청에 동 검사의 체포를 해제하고 즉시 대검찰청에 돌려 보내줄 것을 전문으로 시달하였다 한다.

한편 검찰청에서는 양을 검사 구속영장은 여하한 수속을 밟아 발부된 것인가를 내사 중에 있다 하며 원래 구속영장은 검사의 검열 후 판사의 교부로 발부되는 것이라 하는데 특히 검사의 구속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의 사전연락과 소속장관은 이를 검사총장에 보고하여야 하나 검사총장은 동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에 접하지 못하였다 한다.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4일

경찰이 검사를 체포 / 제주서(濟州署)서

그동안 서울지검에서 시보(試補)로 있던 양을(梁乙)씨는 금번 시보의 기간을 수료하고 제주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던 중 지난 26일 돌연 제주도경찰서로부터 상경한 형사대에 체포되어 제주도까지 인치되어 갔다는 바 이 사실을 안 대검찰청에서는 목포경찰서에 전기 양(梁)검사를 즉시 석방하여 상경시키라고 엄중 시달하였다 한다.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8일 **근고(謹告)** : 본사는 3월 4일부 ‘경찰이 검사를 체포’ 기사에 관하여 5일부 김(金)내무차관 담화 중에 그 체포전말과 기사출처에 대한 언명이 있는 바 그 기사 출처는 후일에 명백하여질 것을 믿으나 책임당국의 언명을 확인하고 일단 해당기사를 취소함을 일반 독자에게 고함.]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4일

2만여 호가 회진(灰塵) / 400 부락이 105부락으로 감소 / 상경(上京)대표가 말하는 제주도

작년 4월이래 피투성이가 된 제주도는 갖은 비극을 계속적으로 연출하는 아직도 평온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최근엔 군경민 합작으로 최후적인 소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일 밤 제주과건 부대의 작전주임 김명(金明)대위와 홍순재(洪淳宰) 박우상(朴雨相) 김인선(金仁善) 김재능(金在能)씨는 민간을 대표하고 도청 총무과장 홍순원(洪淳元) 동사회과장 이인구(李仁九)씨는 함께 서울에 와 여장을 시내 □□에 풀고 1일 국무총리와 내무부 등 관계 각 방면을 역방하고 제주도 수습에 대한 정부당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한편 사회단체에 탄원을 하려고 한다. 이들 대표들은 제주의 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의 딱한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불 탄 가옥만 해도 2만 여호에 400부락 중 현재 남은 부락이 105부락 밖에 안되니 참으로 딱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비극의 사태를 수습해야 하겠다. 이번 우리들이 온 것은 다음의 여러 가지 점을 들어 요로에 전하고 힘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가) 국군 경비강화 (나) 지방청년의 호국단 결성 (다) 경찰력의 강화(1부락에 20명 내지 40명 주재) (라) 현실 정의 재검토 (마) 재민(災民)에의 의료(衣料) 식량 건축재(建築材) 공여.”

(같은 기사 동아일보 49. 3. 4)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6일

검경(檢警)간 기사문제에 / 김효석(金孝錫) 내무차관 담화 발표

지난 4일 내무부차관 김효석씨는 지난 4일부 도하 몇몇 신문지상에는 양을(梁乙) 검사대리를 경찰에서 불법 검거하였다는 기사 게재되었는데 이는 신문사의 잘못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근무 양을 검사 대리는 제주도 거주 당시 단기 4281년(1948년) 10월 말일경 모종 범죄사건의 관련자로 판명되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정식 구속영장을 제주도 경찰국원이 수령 후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월 4일부 도하 몇몇 신문 보도를 검토컨대 ‘현 법무

장관 지시를 무시 경찰이 현직검사를 불법 체포' '양검사 체포해제를 시달' '경찰이 검사를 체포' 등의 제목을 게재 부연하여 진정 협조 하에 치안확보에 매진중인 검찰·경찰 양 진영간에 무근한 알려감을 암시하였으며 불법체포 운운으로 경찰위신을 손상함은 물론 일반 민중에게 부여하는 경찰의 불신감이 다대함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기사출처는 별도 조사중이니 일반은 사실을 왜곡한 신문보도에 유혹치 말고 국립경찰에 일층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 49. 3. 6)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10일

제주도 대표 수습진정차 상경

제주도 군관민 대표들이 관계 요로에 수습대책 등을 진정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목하 상경 중에 있는데 이들을 맞이하여 동도 선출 국회의원 오용국씨 및 재경 제주도민 유지들이 주동이 되어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저축은행 회의실에서 재경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하리라 하며 이 대회에서는 전기 대표들로부터 동란의 와중에서 불안에 싸여있는 도민들의 실정 보고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오랫동안 계속되는 참변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늘어가는 이재민들의 참상에 대한 원호대책을 협의하리라 한다.

(같은 기사 동아일보·자유신문 49. 3. 11)

■ 동아일보 1949년 3월 12일

선무군악대 18일 제주에 파견

국방부 10일 발표에 의하면 방금 제주도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폭도들을 소탕시키고 있는 육군 장병들과 지방민들의 선무공작을 위하여 52명으로 구성된 육군군악대를 김(金判基)대위 인솔 하 약 2주일간의 예정으로 오는 18일 제주도에 파견시키기로 되었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49년 3월 12일

비참한 제주도 / 진정(陳情)온 흥(洪)씨 읍소

남해의 고도 제주도는 재작년 3월 1일 반란폭도의 파괴사건 이후 산과 산을 중심으로한 폭도는 오늘까지 각처에서 준동되고 있어 당지의 피해는 형언키 어려울만한 참상을 이루어 30만 도민은 당국의 구호대책이 없이 사선에서 방황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참상을 정부에 보고하여 시급한 구호대책을 요청하기 위하여 도민대표 홍순재(洪淳宰)씨 외 6명은 정부에 진정차 상경하였는데 씨는 현지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제주도의 폭도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 6만 호 가운데 연 3년 두고 2만 호가 소실되고 400부락 중 105부락만 남은 형편이며 식량의 공급이 없이 소·돼지 등을 잡아 먹고 있는 형편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실된 가옥이 1만 2,985호이고 동수(棟數)로 2만 6,337동이다. 그리고 이재자의 총수는 6만 4,378명이 노천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피해는 전도 초·중등학교 107교 중 남은 것이 73교이며 34교와 181학급이 소실되고 초등학교 이재학생이 9,800명, 중등학교 이재생도가 590명이나 된다.

그리고 폭도는 현재 무장한 폭도가 약 500명 가량 있고 이에 뇌동한 폭도가 약 수천명 있는데 이들은 전부 최근에는 부락에 내려와 식량만 강탈하고 부락을 불사르고 있을 따름이다. 중앙당국의 시급한 구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민은 전부 기사(飢死)하고 말 참상을 이루고 있다. 다만 주요도시의 치안은 경찰과 국군으로 확보되어 가고 있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조선중앙일보 49. 3. 11 / 동광신문 49. 3. 12)

#### ■ 자유신문 1949년 3월 12일

회신(灰燼)으로 화한 제주 / 살인 방화는 다반사 / 인민은 자유와 평화 애원 / 재경 제주도민 대회

평화향 제주도는 일제말기에 발악하는 일병(日兵)에게 무참히도 짓밟혀 30만 도민은 비참한 사경에서 신음하다 8·15 해방을 남달리 감회깊이 맞이하여 마음속으로부터 평화와 자유를 구가하여 왔다. 그러나 누구랴 뜻하였으리. 해방의 구가도 꿈인 듯 작년 봄부터 또다시 비애와 참혹과 고민이 섬사람의 다정한 가슴을 유린하고 있다. 작년 4월 뜻하지 않은 반란이 야기되어 동포끼리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재산을

소모하는 등 과거 어느 시대에도 유례를 보지 못하던 민족 천추의 비극이 발발된 지도 어언 11개월! 그동안 현지 4,000여<sup>21)</sup> 부락이 150부락으로 줄고, 2만여 호가 잿더미로 되어 버렸으니 현지의 비참한 광경은 가히 추측되는 바로 신음하는 선량한 도민에 동정심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많은 국군과 자재를 들여 현지 진압과 선무공작에 노력중이나 양민에 대한 구제책 특히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였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만큼 현지의 사태는 급(急)을 요하며 시시각각으로 변모하여가는 현상으로 당국은 더욱 긴급 적절한 조치를 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민중을 구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평화를 구가하며 사랑하는 향토를 기름지게 건설할 수 있게 하여줄 것이 요망되고 있다.

천리타향에서 고향과 친지의 무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재경 제주도민들은 11일 제주도를 구하려는 애끓는 마음에서 시내 저축은행 회의실에서 오후 2시 20분부터 국회의원 오용국씨를 비롯한 대표 200여 명이 모여 진지한 구호대책 결성대회가 있었는데 먼저 오씨는 “일반은 제주도의 비참한 상태는 보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임을 모를 것이나 가옥파괴, 살인, 방화 등의 피비린내 나는 참경은 실로 말로나 붓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일반은 공산주의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규명치 못하기 때문에 그 방지와 박멸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현재와 같은 참경을 이뤘었다고 하겠는데 이는 우리 자신들도 반성, 명기하여야겠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우리 자신들을 제주도 출신이라는 데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들의 노력으로 오해를 씻고 도민을 구제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어서 일반의 공작과 복구대책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었다. 그리고 회의는 동 4시 30분경까지 계속되어 전원일체로 제주도 사건의 진압과 도민구제에 관한 탄원서를 정부 요로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은 대회 광경)

#### ■ 자유신문 1949년 3월 12일

제주문제 해결책 / 정부 국회 합심 노력하라 / 민주국민당 담

방금 처참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 사태에 언급하여 민주국민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21) 400여의 오기인 듯.

“제주도의 사태는 일반이 상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참상을 연출하고 있으니 전 도내 40여 부락 6만호 중 300부락 2만호가 소실되고 도청을 위시하여 관공서 학교 소실이 무려 40여 개, 살상자 불가승수다. 도민의 중요식량인 고구마 감자는 수확하지 못한 채로 지중(地中)에서 부패하고 있고 추맥은 파종치 못하여 춘궁기에 먹을 양식이 없다. 군경이 일치협력하여 무림기 전에 반도를 숙청해야 할 것은 가장 급무 거니와 6만 5,000의 유이민의 거소와 식량을 해결하는 것은 섬비작전과 불가분의 긴급사이다. 제주도민 대표가 방금 상경하여 요로에 진정 중이거니와 정부 국회가 일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 49. 3. 10)

■ 경향신문 1949년 3월 15일

폭도소탕 강행 / 육군참모장 담화

제주도와 호남지방의 폭도 토벌작전 강행에 관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총참모장 이응준 소장은 14일 국방부 보도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와 호남지방의 패잔 폭도들은 아직도 각처에 출몰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 지방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각하의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군 당국으로서도 크게 근심하는 바 있어 최근 이 지방에 간부진영을 강화하여 일대 소탕작전을 개시하고 있다.

금일까지 아직 전멸시키지 못한 것은 소수의 폭도는 소위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적진아퇴 적퇴아진(敵進我退 敵退我進), 적주아교 적피아타(敵駐我攬 敵避我打)’의 16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국군부대가 나아가면 적은 삼삼오오 흩어져 무기를 감추고 양민으로 가장하여 우리가 소부대로 분산하면 적은 한곳에 집중하여 군대를 피하며 경찰과 촌락을 습격하는 집산이합(集散離合)의 비상전법을 쓰고 있다. 폭도 소탕에 있어 첫째는 일반이 절대로 협력하여 폭도의 행동을 빨리 군경에 보고하는 동시에 군의 행동을 절대로 폭도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폭도에게 식량의 보급 등 편의를 주지 말 것이고 군 장병의 비행을 엄금할 것은 물론이며 일반 행정관청과 민족진영의 민중조직과 계몽운동을 비롯하여 선무공작, 이재민 구호사업과 후생대책 등이 긴급하니 이 작전지구의 관공리는 이상 요건에 절대 협력하여 주기 바란다.”

■ 경향신문 1949년 3월 15일

### 국방부 발표 주간 전과

호남지구와 제주도지구의 주간 전과에 관하여 국방부 보도과에서는 14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중략)

#### 제주도지구

△폭도 출몰 6회(6개처) △전과 : 폭도사살 97명, 부상 10명, 포로 64명, 귀순자 80명, 무기 14개, 철창 13개 외 문서 의류 다수 압수 △진압중 국군 8명 전사, 4명 부상, 경관 3명 부상 △민간 사자(死者) 3명, 부상 1명. (중략)

(이상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과)

■ 동광신문 1949년 3월 15일

### 제주사태는 호전 / 이(李)총리 목포서 답변

【목포】 정무에 다단한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은 제주도 시찰을 끝마치고 귀임 도중 해군 514호 특무함정으로 지난 10일 하오 6시 40분경 원(元)제5여단장 정(鄭)해군목포기지사령관, 이(李)도지사, 김(金)경찰국장을 비롯한 관민, 유지, 다수 환영리에 목포에 상륙하였는데 해군사령관 숙소에서 1박의 여정을 푼 다음 군경 관계당국과 요담을 마치고 12일 오전 9시 20분 특별열차로 광주로 향하였는데, 이(李)국무총리는 목포 일선기자단과 회견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었다.

△시찰의 용무 : “첫째로는 가장 근로적이고 단결력으로 능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주도민의 불행을 살피고, 둘째로는 잔비 철저소탕을 지도하고 민중을 위문하여 제주도 재건을 촉진코자 한 것이다.”

△치안의 현상여하 : “대단히 양호하다. 그 도(度)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민중협력이 요망되고 있는 이때 민중은 이제야 비로소 공산도배들의 정치적 음모와 허위 선전을 깨닫고 군경에 적극 협력으로 방금 한라산정을 포위하고 대규모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락의 자위시설을 위하여 도민들의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 부흥기상은 약동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급진적으로 민중이 정부에 협력 태세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식량문제 : “그렇게 긴박하지 않은 것을 느꼈다. 폭도들의 위협으로



약탈당한 식량을 산중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민중에게 이를 공급하고 잡곡을 위주로 한 지역산 감자 등이 상당히 저축되고 있다. 단 문제의 군경 식량보급은 수일 전 농림부에 지시 명령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원활화 할 것이다.”

■ 동아일보 1949년 3월 15일

각처서 귀중한 희생 / 38선 제주 등 소탕전과

국방부 보도과에서 14일 발표된 3월 5일부터 12일까지에 걸친 38선을 비롯하여 호남과 제주도 각 지구의 주간 전과 (1줄 누락) 추전을 위시로 장전리, □□리, 신엄, 4개 지구에 출몰한 적의 총병력 □4명이 대응하여 아방에서는 군 78명과 경관 221명이 출동하여 적 사살 2명, 부상자 1명을 주는 한편 아방은 경찰 측의 전사 2명과 납치 1명, 군 측 부상자 1명을 보았는데 이번 전투로 말미암아 양민 3명의 사망자와 가옥소실이 1동 있었다고 한다. △ 적 출몰 29회(□□□□□)의 총병력 1,988명에 아방군 21명과 경관 480명이 응전하여 적사살 41명에 포로 18명, 그리고 카빙총 2정과 실탄 135발탄 수류탄 2개를 □취하는 한편 경찰 측의 전사자 10명과 부상자 32명, 그리고 군측에서 8명의 부상자를 보았는데 각 지구의 소전투로서 양민 4명이 사망되었다. △ □□□□□ 적 출몰 6회 (1줄 누락)에 응전하여 97명의 사살자와 부상자 10명에 포로 64명, 귀순자 80명에 총 14정과 철창 13개, 장도 1개 기타의 유품과 서류 다수를 압수하였는데 아방의 손해로는 군 측의 전사 8명에 부상자 4명, 그리고 경찰 측에 부상자 3명, 민간 측 전사자 3명에 부상자 1명을 내었다고 한다.

■ 독립신문 1949년 3월 16일

1부락 721호 파괴 / 도민의 생활상태는 극도 / 외인 선교사가 말하는 제주근황

제주도에 있는 외인 선교사 오스틴 스위니 씨는 최근 외인에게 제주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 왔다.

“우리는 제주도민을 구제해야 할 큰 계획이 목전에 있습니다. 1만 호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고 가련한 인민은 매일같이 큰 곤란에 부대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부락이 721호가 반도에 의하여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도민은 곤란한 생활을 하고 하

루에 ‘고구마’ 한 개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지대 각 부락은 부락 주위에 성벽을 쌓고 병정들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경찰 청년단체는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전연 불가능하고 군대도 최소한 5대의 차량으로 충분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과거 2개월 간에 도로 근방에 잠복하고 있는 폭도에 의하여 130명이 피살되고 100여 명이 이상이 부상당하였습니다. 그간 200개의 소총과 3개의 기관총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천주교 교인은 2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사 자유신문 49. 3. 16)

■ 동광신문 1949년 3월 16일

폭도섬멸 주간 각지 전과 / 국방부 제2국 보도과 발표

국방부 제2국 보도과 발표에 의하면 주간 (3월 5일~동 12일) 각 지구 폭도전과는 다음과 같다. (중략)

△제주도 : 적 출몰수 6, 병력 불명 / 전과 - 사살 97, 부상 10, 포로 64, 귀순자 80, 무기 14정, 철창 13, 장도 1, 문서 의류 다수, 군전사 8, 주민전사 3, 군부상 4, 경찰부상 3, 주민부상 1. (후략) 【서울발 고려】

■ 자유신문 1949년 3월 16일

먼저 민심수습 하라 / 이총리 제주도서 연설

【제주 15일 발 합동】 제주도지구 사태 시찰차 신내무장관을 대동하고 지난 10일 오후 1시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는 폭도들로 말미암아 무참히도 파괴된 도내 각 방면의 시설을 시찰하는 동시에 육군병원을 방문하고 부상한 국군장병을 위문한 후 도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환영대회에서 도내 관공리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였다.

“군은 강력한 토벌작전을 강행하고 있으니 경찰은 전력을 다하여 치안확보에 노력하고 관공리는 물질적 정신적 모든 애로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그 창건기에 있어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한 결정(結晶)으로서 목적을 완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창건기에 있는 만큼 현존해 있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민주국가 건설에 노력한다면 몇 십 년 후에는 강력하고도 평화롭고 자유로

운 국가가 될 것이니 여러분은 이를 인식하고 분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본도의 각 방면을 시찰한 결과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였는데 여기서 느낀 것은 군, 경, 관, 민은 폭도토벌에 노력하는 한편 민심수습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토벌을 능률적으로 하는 한편 선무공작을 활발히 하여 관대한 태도로써 폭도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발전시켜 국가의 자유를 찾고 세계평화 건설을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도의 식량부족에 대하여는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곧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49. 3. 16)

#### ■ 자유신문 1949년 3월 16일

##### 제주민 구별 곤란 / 도대표-번스씨 회담내용

제주도 선출 오용국 국회의원, 제주도 보통교육과장 이호성(李湖星)씨와 민간측 홍순재(洪淳宰)씨는 마터 씨, 번스 박사, 로버트 키니 씨와 회담하였는데 이들 보고에 의하면 2만호(전 호수의 2분의 1) 34개의 학교, 14면사무소가 파괴 또는 소실되었다. 이재민 구제에는 6만석의 쌀이 5월까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래 제주도는 식량이 부족한 곳이며 도내 주산물인 감자는 작년에는 수확도 불가능하였다 한다. 이재민들은 제주읍 근방 해안지대에 집결되어 있으며 전 도민 30만 명 중 최소한 3분의 1의 이재민은 제주읍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반도는 약 500명의 무장 폭도와 1만 5,000명의 민간 동정자가 있는데 이들 폭도의 소탕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도내 400부락 중 105부락만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공산도당과 양민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한다. 이씨는 학교 교사(校舍)로 텐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실례를 들고 아동을 위한 학교는 태무한 틈을 타서 이들 폭도는 그들 부모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 고취시키고 있다 한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 49. 3. 16)

#### ■ 조선일보 1949년 3월 16일

날로 클로즈업되는 제주도 / 부락 태반이 폐허화 / 이(李), 신(申) 양 장관 현지를 시찰

지난 해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소요는 경찰과 국군의 맹렬한 소탕 전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소멸됨이 없이 참의 극을 다한 여수 순천사건을 비롯하여 가지가지의 비극을 빚어낸 도화선이다. 싹게 그 성격조차 변해져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수일 전 이(李)국무총리 겸 국방장관과 해군의 권위자인 신(申)내무장관은 현지에 출장하여 현장의 사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바 있었다. 양 군인장관이 유다르 관심을 가진 바로 남한의 치안상 제주도의 중대성이 날로 더해감은 양 장관 평상시의 언동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 섬이 본토와 눈 코 사이에 놓인 징검다리 격으로 군략상 요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군사가의 상식으로 되었다. 일찍이 외적의 침범을 막아낸 역사도 없지 않으며 야박한 왜적들이 이 섬에 착안하여 요새지대로 활용한 사실도 있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적대세력의 손아귀에 드는 날 민족의 치안이 적지 않은 위협을 느끼게 됨을 일찍이 모 군부요인이 언명한 바도 있다.

우리 향토의 평화회복을 위하여 시급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것이 요망되고 있는 소위인데 현지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소동 속에서 허물어진 제주도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고구마 한개로 하루를 연명, 외국인 편지로 본 참상** : 제주도민 대표가 번스 박사와 회담하고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전 호수의 3분의 1이 되는 2만호의 가옥과 34개의 학교, 14면 사무소가 파괴 또는 소실되었고, 30만 도민 중 그중 3분의 1 이상의 이재민은 제주읍에 집중되고 있으며 반도는 약 500명의 무장폭도와 1만 5,000명의 민간 동정자가 있는데 소탕은 지리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도내 400부락 중 보호를 받고 있는 부락은 105부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가 최근 외국인에게 보낸 서한 내용에는 제주도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다.

“우리는 제주도민을 구제하여야 할 큰 계획이 목전에 있습니다. 1만호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고 가련한 인민은 매일같이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부락의 721호가 폭도에 의하여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도민들은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어 하루에 고구마 한 개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지대 각 부락은 부락 주위에 성벽을 쌓고 병정들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경찰과 청년단체는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전혀 불가능하고 군대도 최소한 5대의 차량으

로 충분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과거 2개월 간에 도로 근방에 잠복하고 있는 폭도에 의하여 130명이 피살되고 100여 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습니다. 그간 200개의 소송과 3개의 기관총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천주교 교인은 2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16일

충남 경찰국서 제주에 위문단

본도 응원대로 파견되어 주재하고 있는 충남 경찰부대를 위문코자 충남경찰국단 안(安) 경찰국장과 전(全)동방신문 편집국장을 비롯한 위문단 일행이 11일 제주읍에 도착하였는데 동 일행은 도내를 일주하며 각 주둔 부대를 위문하리라 한다. 【제주 발 합동】

■ 경향신문 1949년 3월 17일

전도 섬멸을 개시 / 이(李)국무총리 전남반란지 시찰담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장군은 지난 10일 서울을 출발하여 제주도와 전남의 반란지구를 시찰하고 15일 밤 귀경하였는데 16일 오전 10시 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내외 기자단과 만난 후 동 지구의 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

“2월 15일 군은 해변가의 부락부터 수색을 시작하여 점점 한라산 쪽을 향하여 진진하고 있는데 수색 숙청된 부락은 경찰에 맡기고 부대는 한라산 서남쪽에서 폭도의 주력에 대하여 총공격을 하였다. 제주도의 무장폭도는 약 260명이며 그 외에 추종하는 민중은 총 한 자루에 20명씩 죽창을 들고 따르고 있다. 그간 소탕전에 의하여 폭도는 산골짜기로 도피 중에 있다. 그리하여 3월 5일부터는 귀순자가 매일 증가하여 하루에 수백명씩 되고 있다. 한편 도 당국에서는 파괴된 부락을 건설하며 부락 자위대를 설치하고 다시 폭도가 기동 못하도록 조직하고 있다. 군경민의 관계는 지극히 원만하다. 그리고 제주도 연안에는 이북 괴뢰정권 소유의 기선이 나타나 한라산의 폭도와 화광(火光)신호를 한 일이 있다.”

△전남지구 (후략)

■ 자유신문 1949년 3월 17일

반도섬멸은 불원 / 민중도 이젠 속지 않는다 / 이국무총리 제주시찰 담

제주도 반란이 일어난 지 어언 11개월! 이로 인하여 제주도 30만 민중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그들의 구호와 반란진압은 불가분한 문제로 화하고 있어 지난 10일 이국무총리, 신내무장관, 주기용 국회의원 등은 현지에 출장하여 민정시찰과 평정 방안을 강구한 바 있는데 15일 귀임한 이국무총리는 16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내외 기자단과 회견하고 대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점차 회복 :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260여 명으로 추정되는 무장폭도는 아직도 남아있어 치안을 교란시키려 하고 있는데 공산도배는 이를 과대선전하여 그들의 세력이 이남에 크며 민국정부의 행정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부는 단기간 안에 무장폭도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추종자를 귀순시켜 공산도배의 지하조직망을 분쇄할 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바 2월 15일 이래 해변에 가까운 부락에서부터 순차로 수색 숙청을 하여 지금은 한라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포위를 좁히며 그 서남쪽으로 적의 주력을 압박하여 총공격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군은 수 척의 적설(積雪)지대에서 과감한 행동을 개시하여 260명으로 추산되는 무장폭도의 절반을 섬멸하고 지난 5일 현재로 그 추종자 수백명을 연일 하산케 하고 있다. 그들은 총 한 자루에 20명의 폭도를 거느리고 다니며 무기는 산골짜기에 감추어 두고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산에서 귀순하게 되는 이유는 공산도배의 거짓말이 점차로 알려진 것과 춘궁기를 닥쳐 더 저항할 기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탕이 끝난 다음엔 경찰이 치안을 맡아 부락자위에 힘쓰고 관공서에서는 식량공급과 부흥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내가 제주도 시민대회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곳에 모인 학생들이 기왕에 폭도에 가담하였었다고 하나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다.”

△동란의 원인(遠因) : “이렇게 이 지대에 동란이 난 데에는 과거에 있어서 군경간에 다소간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과오도 인정되나 앞으로 지시하고 무기를 더 보충하고 식량을 보내주는데 있다고 보아 사회부와 농림부로 하여금 그 대책을 맡아하도록 하였다.”

△모국 잠수정 출몰 : “내가 제주도에 가기 7~8일 전에는 북조선 괴뢰정권 소유의 기선이 제주도 연안에 나타나서 한라산상의 폭도와 화광신호를 교환하고 간 것

과 2~3일 전에는 국적불명의 잠수함이 제주도 해변 2~3마일 지점을 잠행하고 있는 것을 국군경비정이 추적한 일이 있고 국군항공대에서도 지난 2월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잠행정을 발견한 일이 있다고 한다. 이들이 무기를 공급한 것은 못보았으나 그래도 폭도들은 모국 기관총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국군은 발견하였다.” (중략)

△수습책은 관용 : “이번에 각 현지를 가 본 결과 나는 폭도에 가담한 자라고 전부 의식적인 공산도배라고는 볼 수 없어 자수한 사람에게는 관대히 하고 계몽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꼈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 49. 3. 17)

###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17일

#### 신(申)내무장관도 제주도사태 보고

이범석 국무총리와 동도 제주도사태를 시찰한 신성모 내무장관은 아래와 같은 보고를 공보처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도지사 경찰 군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국군은 ○○○명으로 추산되는 무장폭도에 대하여 소탕작전을 개시하였는데 군경이 협력작전을 하면 폭도 반도는 3월 이내로 완전 소탕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긴급하고 곤란한 문제는 전기작전 이외에 재민(災民) 및 귀순자의 구호문제로, 매일 증가되고 있는 그들에게 식량 의복 주택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 반도에 가담할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동시 경찰은 해안 산록지대의 탈환 부락경비에 종사하였다. 또 주위 해안선에는 누차 500톤의 소련선박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선박이 상선인지 전투함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반도와 통신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잠수함이 해안선 근방 1마일 지구에 출몰하고 있는데 이 출몰 목적은 무기공급과 훈련받은 반도를 입산시키는 것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보아 소탕작전의 완벽을 기함에는 다음과 같은 물자가 긴급히 소용된다. (1) 무기 (2) 식량 6만 석 (3) 의류(광목) 10만 필(疋) (4) 해군 함정(충무공호급) 4척 (5) 트럭 50대 지프 50대 (6) 의약품 (7) 교통부에 배속된 선박 엘리자베스호는 이 지방에 긴요한 것임.”

(같은 기사 독립신문·동아일보·자유신문·조선일보 49. 3. 17 / 동광신문 49. 3. 18)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17일

민사처 설치 제주사령부에

제주전투사령부에서는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한 관민의 자문기관으로서 또한 군 작전상 부득이 발생하는 민간(양민)의 행정적 경제적 제반부문에 관한 애로 등을 고려하여 동 사령부내에 민사처를 설치하였는데 이로써 군은 전력을 작전 치중주의로 하고 가능한한 민정을 관계 관공서에 이양함과 동시에 상호 유기적 연계를 취하며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 한다. 【제주 발 합동】

(같은 기사 자유신문 49. 3. 18)

■ 독립신문 1949년 3월 19일

제주 구호물자 또 8트럭 발송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사회부에서 구호물자 5트럭을 발송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이번에 또 구호물자 8트럭을 제주도로 발송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도탄 속에서 기아와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제주도 이재민은 다소나마 따뜻한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번에 발송한 구호물자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다.

△염색군복 1,000매 △통조림 200상(箱) △군우화(軍雨靴) 20상자 △명(식기) 400매 △방□용 두건 400폰도 △천막(20조) 60매 △혼합의류 400포

기타 물자

△식량 115상자 △타월 20포 △고화(古靴) 20포 △탈지분유 10통 △대두유 5통 △양촉(洋燭) 6상.

■ 동광신문 1949년 3월 19일

제주에 구호물자 / 의류 식량 등등 화차수송

무장폭도 소탕전이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군관민 합작으로 선무공작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편 주택재건 등 여러 가지 부흥공사에 분망 중인데 이번 이(李) 국무총리와 신(申) 내무장관의 격려시찰에 따른 구호물자는 사회부에서 지금 알



선하기로 되어 우선 다섯 화차를 현지로 급송케 되었다 한다. 이 구호물지는 미국제 칸푸도<sup>22)</sup>를 비롯하여 의복, 침구, 천막 등이며 계속해서 식량, 의료품도 보내리라 한다. 【서울 발 고려】

(같은 기사 독립신문·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49. 3. 18)

■ 조선일보 1949년 3월 19일

육군군악대 제주장병을 위문

육군군악대는 제주도에서 분투하고 있는 장병을 위로하는 동시에 일반 선무공작을 위하여 대장 김판기(金判基) 대위 인솔하에 2주간 예정으로 작(昨) 18일 서울역 발 현지로 향할 것이라 한다.

■ 자유신문 1949년 3월 20일

반란으로 연기했던 제주 양 국회의원(國議員) 선거

공보처장 김동성(金東成)씨는 제주도 선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년 5월 10일 제주도의 북제주군 갑을 양 선거구는 부득이 당시의 군정장관은 동 6월 10일 행정명령 제22호로써 무기연기를 선언하였었다. 그러던 것이 공비소탕이 진행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진압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구호물지는 대량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가장 평화스러운 중에 건설부흥으로 소생하는 빛이 짙어가므로 오는 5월 10일을 기하여 전기 양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단행케 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선거 무기연기의 행정명령을 해지하고 재선거에 대한 것을 곧 발표, 실시하기로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약진상태를 확충하는 동시에 제주도 자체의 평화건설과 민주주의적 과업을 실천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

(같은 기사 동아일보·조선일보 49. 3. 20)

■ 자유신문 1949년 3월 20일

인적은 간 곳 없고 산촌엔 해풍만이 소슬 / 주(朱)국회의원 제주답사기

---

22) 통조림(canned food)을 뜻하는 듯.

제주도의 반란사건이 일어난 지 어언 11개월. 섬멸작전은 진척되어 얼마 안가서 평정되리라고 당국은 언명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선무구호 등 처참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사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바 있다. 우리는 일제 말기부터 전고에 시달리는 다심한 30만 섬사람들을 위하여 금후 어떠한 조치를 하여 주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평화를 구가하며 전설과 풍경 좋기로 유명한 사랑하는 고토를 또다시 기쁨지게 건설하게 하려면 어떠한 건설적 원조가 필요할까? 국회를 대표하여 시찰하고 온 국회의원 주기용(朱基裕)씨는 본사에 현지의 생생한 모습과 현지인의 고민, 그리고 그들의 구급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나는 동란하(動亂下)의 제주의 실태, 특히 이재민의 정황과 교육상황을 주세(註細)히 시찰하고 동시에 군경을 위문코자 뜻깊은 3·1절에 목포 해군기지사령관의 호의로 제주섬으로 향하였다. 재작년 3·1절에 제주에서는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작년 4월 3일에 소위 4·3 폭동사건을 일으킨 뒤로 줄곧 소란 중에 지냈던 것이다.

풍다(風多), 석다(石多), 우다(雨多), 여다(女多)란 제주의 특색임에 틀림없이 태평양의 맹렬한 파도는 강한 바람과 한가지로 처음으로 찾는 손에 대하여 숨김없이 본색을 나타내어 모자 외투 할 것 없이 빼앗아 공중으로 휘날리게 한다. 임지사, 홍청장의 출영을 받아 관계 □□부의 사태취급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자세히 듣고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의 주의(注意)로 비행기에 편승하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공중으로부터 상세하게 전 제주를 씨치할 수 있었고 반도가 수림(樹林) 중에서 소를 도살하다가 비행기 소리에 자취를 감추는 것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산간부락 중간 농토 지대의 부락은 처참한 소적(燒跡)만 붉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홍순봉(洪淳鳳) 청장, 내무부 비상경비총사령부 김의장 김태일(金泰日)씨의 안내로 해안도로를 서편으로부터 일주하면서 군, 경, 민의 활동상황, 이재민의 참상, 학교의 소적(燒跡)을 시찰하고 곳곳마다 그들을 위문하며 낮에는 매일 3~4차씩 선무기연(宣撫譏演)을, 밤에는 좌담회를 열어서 관민의 격의없는 호소를 자세히 들었으며 포로의 모습, 귀순자를 수용한 갱생원, 육군병원, 갱생부락 복구상황, 제주도 □감위원장 고시진(高時珍)의 체포광경□과 부락주위의 (2줄 누락) 여성들의 씩씩하고도 눈물겨운 석재운반 광경, 신내무장관과 함께 제주읍내 중초등학교의 수업상황을 시찰하는 등 체류 10여일 동안에 구석구석 이모저모 살피어 실태 그대로를 파악하노라고 갖은 애를 다 썼다.”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20일

### 사살 181명 등 제주 제2연대 발표

16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보도대에서는 국군 제2연대가 제3단계의 작전에 돌입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폭도들에 대하여 철추를 내린 3월 9일 이후 동 15일까지의 작전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사살 181명, 포로 195명, 소총 3, 카빈소총 3, 99식소총 12, 수류탄 2, 탄약 34등 노획 【제주 발 합동】 (국방부 보도과 검열제)

(같은 기사 자유신문 49. 3. 20)

■ 자유신문 1949년 3월 22일

### 군정 3년이 유죄 / 일부 오리(汚吏)에도 책임있다 / 주(朱)국회의원 제주답사기(2)

첫째 일반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의 사태가 언제 수습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해방 전부터 공산당의 파괴분자가 뿌리를 박고 활동하여 왔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조천면 구좌면에는 13세 이상 소학교 졸업 정도의 아이는 남로당에 가입하였다는 소문만 들어도 저간의 형편을 짐작할 것ियो, 해방직후 인민공화국으로 발전된 것을 보아서 □□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며 미군정 당국의 애매한 정책이 공산당 계열에 있어서 그 성장을 촉진시켜온 온상적 역할을 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전략적 중요 거점ियो 이것을 적화하여 남북 협공의 기지를 삼고자 모국의 선박과 잠수함이 때를 따라 출몰하여 무기 물자를 공급하며 적어도 산중 반도의 기세를 올려주고 연락을 하여 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과정(過政) 전후를 기하여 군정의 행동이 민심을 자극하여 공산당에 악선전의 자료를 제공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遠因) 근인(近因)으로 빚어낸 사태이므로 제주의 사태는 남한 일대에 봉기한 전 사태의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남한사태의 전면적 수습에 지중지대(至重至大)한 관련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지당한 견해인 것이다. 이번 사태수습에 있어서 홍순봉 청장은 내무부 김태일씨와 한가지로 함(咸)제2연대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선무에 적극 노력하며 민심수습에 눈물겨운 활동을 하여온 반면에 폭도는 방화, 약탈, 살상을 무자비하게 감행할 뿐만 아니

라 심지어 부모 친족까지 살상을 함부로 하므로 도민들의 폭도에 대한 악감(惡感)은 극도로 도발(挑發)되어가던 중 작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의 UN총회 승인으로 도민의 사상적 전향은 더욱 현저한 바 있어 어시호(於是乎) 군경민 일체의 기세는 비로소 견비(堅備)되어 군경과 협력하여 부락 방호에 축성에 남녀노유(男女老幼) 할 것 없이 적극성을 띠게 되어 만리장성을 연상케 하는 장장 12만여m의 축조를 단시일에 준공하여 부락내의 자가숙청(自家肅淸) 상 폭도내습에 만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 ■ 자유신문 1949년 3월 22일

##### 1주간 소탕전과 / 군 보도과에서 종합발표

국방부 보도과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의 남한 각지의 전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호남지구 : (전과) 사살 63명, M1소총 10정, 99식 소총 1정, 포로 15명, 카빈소총 127정 (손해) 군 전사 9명, 경찰 전사 3명, 군 부상 6명, 경찰 부상 4명, 양민납치 2명, 양민부상 1명 △제주도지구 : (전과) 사살 171명, 포로 196명, M1소총 3정, 카빈소총 3정, 99식 소총 13정, 실탄 15발 (손해) 민보단 전사 1명, 부상 3명 (후략)

#### ■ 조선일보 1949년 3월 22일

##### 아직 '동정자' 있다 / 그러나 사태는 점차 회복 / 신(申)장관의 제주사태 전망

신성모 내무장관은 21일 국회 제59차 회의와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제주도 사태에 관한 시찰보고를 하였는데 두 군데에서 한 보고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내가 귀국하기 전에 영국 런던에 있을 때에도 제주도 사태에 관해서는 들은 바 있었고 귀국 후에도 앞서 제1차 시찰을 할 때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으려니 하였던 것인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사태는 수습되지 않을뿐더러 외국선박의 왕래가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됨에 이번에는 근본대책을 강구하려 시찰을 갔던 것이다. 폭도의 수효는 일설에는 150명 내지 600명 가량이니 하고 있는데 그들은 훌륭한 군사훈련과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민중의 6,000명이나 6만 명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그들을 원조해주는 민중들이 또한 7,000명서 1만 5,000명 가량은 되는 줄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군과 경찰은 일치 협력해서 폭도의 출몰을 근절하고자 계획적으로 토벌을 개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각 부락에는 그들에게 동정하는 자들이 있어 식량공급 등 연락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갔을 때에만 하여도 제주도 동포들은 두 사람이 길을 걸어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거나 말조차 하지 않고 땅만 보고 다니는 형편으로 비참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달 25일까지 투항하면 관대히 대처하여 처벌치 않을 것이니 동 시일까지 귀순하라는 전단을 산포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모국(某國)의 배가 왕왕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데 상선인지 군함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나 폭도들은 그들로부터 물자나 무기 등의 원조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바 남한 연안에는 수천 개의 섬이 있는 만큼 제주도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수습치 않으면 민국정부의 장래가 매우 위협시되는 바다. 현재 나는 내무장관이라는 직책에 있지만 나는 항상 말하기를 5,000톤 짜리의 배 한 척만 주면 제주도의 사태고 38선도 나의 전력을 다해서 힘쓸 것이거늘 내무장관이란 자리를 뒤집어 썩위쳐서 할 일도 못하고 있다.

도대체 제주도 사태가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군과 경찰이 도민에 대한 태도가 불순하여 도민들은 차라리 산에 올라가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산으로 올라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만족하였으며 그리고 도민들이 겁을 먹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장(場)이 서던 것을 당국에서 못보게 하고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길며 부산까지 가서 1년이면 근 10만원 돈이나 벌어가지고 오는 해녀들의 출어를 금지한 까닭이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여 실시시켰다. 이러한 판국에 제주도로부터 그 귀중한 양곡이나 소, 혹은 말 등을 서울서 이름높은 모 대관들이 명함에다 도장까지 찍어 돈벌기 위하여 수출시키고 있음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내오지 못하게 하였다. (사진은 신장관)

(같은 기사 경향신문·독립신문·조선중앙일보 49. 3. 22)

#### ■ 자유신문 1949년 3월 23일

험난한 한라산봉 / 군경 소탕전에 지장 막대 / 주(朱)국회의원 제주답사기(3)

총후태세의 완비를 따라 군경은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면서 한라산을 포위하고 지난 3월 12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여기에 한가지 부언할 것은 금강산 1만 2천봉은 세계에 이름이 높거니와 한라산에 1만 2천봉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동포 중에도 아는 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기백명의 무장폭도를 단시일에 섬멸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풍다(風多), 우다(雨多), 석다(石多)로 유명한 제주인지라 산야를 비호처럼 달리는 기습전술에 군경의 전략적 고충을 인(認)□하여야 될 것이며 폭도는 왜병이 산중에 매설한 무기와 기계식 71 기관총까지 소지하고 땅을 파고 그 위에 □판을 깔고서 흙을 덮은 후 맥류를 뿌려두고 총구만 남겨두었다가 지나가는 군경을 사살하는 등 상상도 못할 기괴한 전술을 감행하고 있으며 굴의 입구는 정면으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써 요철이 심하고 겨우 진입하더라도 고춧가루를 뿌리며 투석(7줄 누락).

이 총공격과 동시에 자진 하산하는 자는 관용 포섭한다는 선무문(宣撫文)을 산포하는 중에 있는 바 매일 수백명의 귀순자가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하산 중임을 함명리 재건부락에서 만나서 이총리 신내무와 내가 격려 위로의 말을 하였는데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사태수습이 끝나는 대로 연기 중이던 북제주의 국회의원 선거는 4월 하순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벌써 (1줄 누락)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둘째, 이재민의 현상에 대하여 :** 산간, 목축지대는 물론 해안지대 부락까지라도 우선 남원 북촌 동북 서귀포의 4·3사건 후 소실된 가옥이 1만 6,177호에 3만 461동, 양민 피해자수 1,193명, 부상자수 419명, 이재민수 8만 6,797명으로 차등(此等) 이재민은 식량, 의류를 □철할 틈도 없이 피난한 관계로 문자 그대로 돼지우리처럼 만든 집속 땅바닥에 건초를 깔고 그냥 기거하며 해초 산초로써 그날 그날 겨우 연명하여 가는 형편이고 누구할 것 없이 허기에 신음하고 있으며 집 내외는 악취가 진동하여 견딜 수 없었다. 방문을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만 지을 뿐 이 가련한 꼴을 바라보는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다.

제주는 재래 양곡생산이 감자를 포함하여 평년작 하추곡을 합하여 25만 석에 불과하므로 도민 30여 만명을 먹이는데 평상시에 있어서는 약 6만석을 도외로부터 반입하던 터인데 이번 사태로 인하여 양곡의 피해가 실로 5만 8,219석이요 뿐만 아니라 이재민 8만여명 3개월간 소요식량 2만 9,280석까지 가산하면 약 14만여석의 반입이 용허되지 아니하면 하곡 생산기까지 아사할 곤경에 빠질 것을 생각하여야 될 것

이다.

식량뿐 아니라 의류와 침구도 없이 헐벗고 지내는 터로 역병까지 침입하여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다. 정부는 하루바삐 식량 의류 약품을 차등 이재민에게 보내어야 될 것이며, 전국의 애국동포는 애국의 이념에서 식량을 절약□□하니 의류 약품을 분호(分護)하여 제주의 애국동포를 구제하는데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기를 눈물로써 호소하는 바이다. 제주도민은 극소수의 파괴분자를 제외하고는 훌륭한 애국자이며 극도의 수난생활 중에도 한 사람의 도적과 결인을 보지 못할만치 생활력이 가장 왕성한 모범적 국민임을 명기하기를 바란다.

■ 동아일보 1949년 3월 24일

기근 대책 세워주오 / 제주도민 당국에 진정

반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30만 도민은 식량난으로 인하여 금후 2개월만 현 상태로 계속되면 전 도민은 기아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니 당국의 시급한 시책을 강구하여 달라고 제주도민의 진정서가 농림부와 상공부에 전하여 왔다고 하는데 동 진정 내용인즉 다음과 같다.

즉 동 도민의 주식물인 고구마는 매년 50만관의 수확을 보아왔었는데 금년에는 경작기를 앞두고 최소로 필요한 종자 5만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금후 2개월 내에 확보되지 못하면 금년 생산은 우려될 것으로, 이에 따르는 도민들의 불안은 날로 격심하여 가고 있다 하며 동 중지는 주로 강원도의 1,000만관 생산으로 충당하여 왔던 것이라 하는데 금년에는 생산부족으로 동도만도 부족을 보게 되어 할 수 없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이에 충당할 것을 고려하여 달라고 당국에 시급한 시책을 촉구하여 왔다 한다.

■ 자유신문 1949년 3월 24일

인심수습에 치중 / 복구에 관민협력 지요(至要) / 주(朱)국회의원 제주 답사기(4)

△셋째, 이재민 거주택(假住宅) 건설에 대하여 : 비행기로서 시찰한 데 의하면 중간지대 부락은 전소상태로 농경지 9만여 정보의 대부분은 (3줄 누락) 거주부락에

가주택을 설치하여야 될 것이며 1만 6,000호 매호당 2만원 정도로 보조를 주어 농지를 적극 개발하게 할 것이다. 정부는 사태수습의 필요성에 관하여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도민 자체로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을 방지하고 파괴분자의 (1줄 누락)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 피해상황에 대하여 :** 폭도는 부락에 내습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학교에 방화를 하는 것이 상시적 수단이어서 국민학교 96교 중 45교, 동 교실수 179, 중등학교 11교 중 2교 동 교실수 11로서 이상 피해액이 4억 6,000여 만원에 달하는 바 사태수습과 동시에 긴급히 복구대책이 실현되어야 될 것이다. 이번 사태에 교사 중 64명, 학생 중 283명이 가담하고 있으며 소실 교통등 관계로 국민학교 생도 약 8,000여 명중 학생 약 반수는 개학을 못하고 2교 이상이 합하여 1교를 사용, 2부, 3부제로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나 대개는 창고를 이용하므로 삼우기(森雨期)를 당하면 위생상 어려울 것이다. 도(道)□□과는 사상적 (1줄 누락)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코자 하나 교사(校舍) 관계로 실현이 곤란한 모양이다. 교육이념 철저에 있어 교사의 질적 향상과 재훈련에, 학생의 선도책에 문교당국은 각별한 지도가 있기를 바라며 바라크식 교사의 건축에 최대한의 원조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고 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주도 출신으로 실업계에 활동하는 애국동포는 교육기관 복구에 큰 봉사가 계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학생에게 놀리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적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화급적(火急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다섯째 군경의 혈투에 대하여 :** 그동안 종종 군경의 알력을 빚어낸 사실도 있었으나 특히 도경찰당국은 마찰의 원인되는 모든 애로를 극복하며 부하에 금주령까지 철저히 시행하면서 군경의 합□에 고심한 결과 현재는 완전히 협력태세가 완비되어 군경민 일체로서 총공격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굴다(窟多), 석다(石多), 풍다(風多), 우다(雨多)의 자연적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불면불휴(不眠不休) 쉴사이 없이 혈투를 계속하는 군경은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호소하듯 국회에 대하여 눈물로써 소청하고 있는 것이다. 동포는 이 군경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건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젊은이들에게 동정과 □□가 있기를 바라며, 언론단체는 한번 제주도를 방문하여 그 실태를 국민에게 보도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한다.

**△여섯째 민심수습에 대하여 :** 폭도의 섬멸은 단시일에 가능한 것은 기정사실이라 하더라도 만사중국을 고하였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 사태는 결코 일 지역적 문제가 아닌 까닭이다. 앞으로 파괴분자들의 끊임없는 모략과 선전이 강인하게



계속될 것임에 이제동포에 온정의 구호를 시급히 실시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선무공작을 적극 지도하고 강력한 세포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기(根基)한 사상적 철벽을 쌓도록 하며 군경은 더욱 민의를 존중하고 치안확보에 노력하는 동시에 생활력이 왕성한 제주도민의 부흥에 대한 의욕을 극력조장(極力助長)하여 제주의 재건이 예상 외에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정치의 묘미는 민심수습에 있는 것임에 군경은 민심과약과 위국봉사(爲國奉仕)에 절대(絶對)한 노력을 바쳐 바람 비는 많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녹림과 맑은 시내 사시□인 영□제주에 영원한 유토피아 건설이 눈앞에 전개되기를 바란다. (끝)

(같은 기사 독립신문 49. 3. 19)

■ 조선일보 1949년 3월 25일

제주민 구제하고자 식량선(食糧船) 인천 출항

24일 국영선박 문산호는 기아에 우는 제주도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한식량공사 인천지사예 저장중인 밀가루 1,800톤을 싣고 드디어 출항하였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자유신문 49. 3. 25)

■ 경향신문 1949년 3월 26일

보안법 위반으로 양을 검사보 기소

제주검찰청 부임 도중의 양을 검사대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주도 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김윤수(金潤樹) 검사로부터 문초를 받아오다 23일 드디어 기소되었다 한다.

■ 자유신문 1949년 3월 26일

제주도 평정 불원(不遠) / 반도 소굴 한라산 소탕

작년 4·3사건 발발이후 1년 동안 계속된 제주도지구 반란사태를 단시일내에 진압하고자 군 당국에서는 지난 3월 3일을 기하여 한라산중에 잠복중인 폭도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하여 그동안 다대한 전과를 거두고 동 지구의 반란 완전진압도 머지않게 되었는데 24일 현지에서 들어온 바에 의하면 3월 3일부터 동 10일까지의 종합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전과 : 사살 160명, 포로 176명, 식량압수 156가마(그중 60가마 소실), 의류 2건, 철창 53개, M1소총 탄창 1개, 적 가옥소실 14동, 장도 1개, 무선□□□□ 2대, 소 5두, 99식 소총 2정

(2) 아방(我方) 손해 : 전사 7명, 중상 2명, 경상 1명(국방부 보도과 검열제)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29일

제주도 현지 전람회

국방부 정훈국 보도과에서는 제주도 폭동사건에 파견된 제2연대 선무공작 대원이 비상 노력으로 수집한 스케치 사진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고자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제주도 현지 보도전람회를 개최중인데 일반시민의 다수 관람을 요청하고 있다.

(같은 기사 경향신문 49. 3. 25 / 자유신문 49. 3. 27)

■ 조선중앙일보 1949년 3월 29일

군재(軍裁) 수형자 재심 / 66명 의원이 긴급 동의

김□□의원 외 65명은 지난 26일 군정재판 관계 수형자에 대한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령하 군정재판에 의하여 억울한 판결로 수형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재심을 결의함.

# 제주4·3사건자료집 2

[신문기사 영인본]

찾아보기



## 찾아보기

### 【ㄱ】

- 가시오름 233  
 강군오(姜君五) 250  
 강남수(康南守) 261  
 강달진(姜達珍) 230, 234  
 강달호(姜達浩) 230, 234  
 강동수(康東守) 261  
 강만일(姜萬一) 39  
 강문동(姜文東) 256  
 강문화(姜文化) 38  
 강방길(康邦吉) 34  
 강상수(姜象壽) 232, 234  
 강상준(姜象濬) 230  
 강서수(康西守) 261  
 강성진(姜成健) 46, 51, 62  
 강성인(姜性仁) 39  
 강수부(姜壽富) 232  
 강승규(姜承珪) 191, 192, 193, 195  
 강시선(姜時宣) 38  
 강운경 187  
 강원진(姜遠珍) 232  
 강원호(姜遠浩) 232  
 강일화(姜日化) 38  
 강재규(姜載奎) 35  
 강정생(姜丁生) 38  
 강제병(姜齊柄) 38  
 강제환(姜齊桓) 38  
 강중우(姜重祐) 232, 234  
 강중인(姜仲仁) 205  
 강창호(姜昌浩) 230, 232, 234  
 강춘백(姜春白) 38  
 강태문(姜泰文) 268  
 강태홍(康泰洪) 261  
 강한방(康漢邦) 235  
 강한진(康漢辰) 229, 232, 233  
 강형만(姜亨萬) 230, 232  
 강홍열 156  
 강희정(康熙正) 34  
 건청(建靑) 180, 215  
 경무부(警務部)→경찰  
 경비령(警備令) 269  
**경찰(警察)**  
 -경무부(警務部) 33, 41, 42, 46, 51, 145  
 -경찰전문학교(警察專門學校) 40  
 -광주지방경찰청(光州地方警察廳) 100  
 -남원지서(南元支署) 170, 225, 230

- 대정지서(大靜支署) 144, 183
- 모슬포경찰서(慕瑟浦警察署) 267
- 비상경비총사령부(非常警備總司令部) 46
- 삼양지서(三陽支署) 219
- 성산포경찰서(城山浦警察署) 267
- 수도관구경찰청(首都管區警察廳) 96, 165, 198, 201, 228, 245
- 신엄지서(新嚴支署) 256
- 응원경찰(應援警察) 32, 34, 40, 99, 109, 130, 201, 203, 213, 251, 257
- 인천경찰서(仁川警察署) 145
- 저지지서(楮旨支署) 173
- 제1관구경찰청 186
- 제6관구경찰청 99
- 제7관구경찰청 213
- 제8관구경찰청 32, 40, 99, 109, 145, 251
- 제주경찰감찰청(濟州警察監察廳) 145, 205
- 제주경찰학교(濟州警察學校) 87
- 제주비상경비사령부(濟州非常警備司令部) 36, 38, 41, 74, 108, 262
- 조천지서(朝天支署) 88, 112, 237
- 중문지서(中文支署) 225
- 철도경찰(鐵道警察) 96, 105, 106, 161, 163, 257
- 철도관구경찰청(鐵道管區警察廳) 99, 105, 257
- 충남경찰부대(忠南警察部隊) 283
- 특별수사대(特別搜查隊) 187
- 한림지서(翰林支署) 206
- 함덕지서(咸德支署) 220, 237
- 경찰전문학교(警察專門學校)→경찰
- 계엄령(戒嚴令) 246, 248, 252, 253, 254, 256, 257, 258, 260, 262, 263, 267, 269, 296
- 고공백(高公伯) 39
- 고규길(高圭吉) 39
- 고기화(高奇華) 250
- 고두행(高斗行) 250
- 고등군법회의(高等軍法會議) 144, 167, 187, 188
- 고문치사(拷問致死) 79, 83, 87, 88, 135, 219
- 고병구(高炳球) 35
- 고성(리)→애월면
- 고성리(古城里)→애월면
- 고성화(高聖化) 39
- 고시진(高時珍) 288
- 고영수(高英秀) 234
- 고영준(高英俊) 269
- 고완순(高玩順) 230, 232, 233
- 고원진(高元進) 234
- 고유혼(高遊混) 34
- 고윤하(高崙河) 250
- 고정순(高政順) 230
- 고창무(高昌武) 74
- 고태진(高太珍) 229, 232, 233
- 고희만(高喜萬) 39

고희숙(高熙淑) 126  
 공산당(共產黨) 137  
 과도입법의원(過渡立法議院)→남조선과도  
     입법의원  
 과학기술연맹 64, 215  
 과학동맹 106  
 관재처(管財處)→재산관리처  
 광주제우회(光州濟友會)→제우회  
 광주지방경찰청(光州地方警察廳)→경찰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216, 221,  
     229, 234  
 광주지방심리원(光州地方審理院) 254  
 광주형무소(光州刑務所) 205, 216, 219  
 괴선박 출현설(怪船舶 出現說) 198, 206,  
     231, 262, 283, 284  
 교래(리)→조천면  
 교래리(橋來里)→조천면  
 교육자협회(教育者協會) 69, 211  
 구국투쟁위원회(救國鬪爭委員會) 187  
 구병현(具炳玄) 250  
**구좌면(舊左面)**  
 -동복리(東福里) 292  
 -세화리(細花里) 38, 41, 168  
 -송당리(松堂里) 117  
 -종달리(終達里) 116  
 구억리(九億里)→대정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295  
 국방부(國防部)→군대  
 국회선거위원회 104, 105  
 국회의원선거법 99, 104, 134  
 군(軍)관계기사 검열 246, 264  
 군기대(軍紀隊)→군대  
**군대(軍隊)**  
 -국방부(國防部) 240, 252, 259  
 -군기대(軍紀隊) 189  
 -모슬포부대(募瑟浦部隊) 117  
 -제1여단 222  
 -제3여단 213  
 -제5여단 213, 250  
 -제2연대 262, 289, 296  
 -제9연대 42, 43, 49, 65, 72, 73, 186,  
     213, 232, 235, 236, 240, 247, 252  
 -제9연대 특별경비부대 42  
 -제9연대 특별부대 58  
 -제9연대 특별중대 58  
 -제11연대 134, 145, 148, 151, 162, 186,  
     252  
 -제주도지구진투사령부(濟州道地區戰鬥  
     司令部) 286, 289  
 -통위부(統衛部) 50, 118, 119, 123, 140,  
     141, 151, 166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 113, 152  
 -헌병사령부(憲兵司令部) 264  
 군법회의(軍法會議) 177  
 군정장관(軍政長官) 50  
 군정재판(軍政裁判) 88, 106, 296  
 권승렬(權承烈) 271  
 권천석(權千石) 245  
 그리스 82, 95  
 근대당(勤大黨)→근로대중당  
 근로대중당(勤勞大衆黨) 180, 208, 214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 66, 69, 159, 180, 215, 216  
 근민당(勤民黨)→근로인민당  
 금악리(今岳里)→한림면  
 금춘수(琴春樹) 232  
 기독교민주당(基督教民主黨) 204, 215, 218  
 기민(基民)→기독교민주당  
 김건만(金健滿) 235  
 김경렬(金璟烈) 228, 230  
 김경홍(金京弘) 261  
 김계선(金桂先) 250  
 김국홍(金國洪) 261  
 김기병 39  
 김길수(金吉洙) 34  
 김달삼(金達三) 143, 174, 176, 177, 188, 191, 199, 206, 233, 241, 244  
 김대봉(金大奉) 40, 41, 47, 48, 54, 75, 77, 78, 79, 94, 97, 130  
 김대옥(金大玉) 235  
 김대효(金大孝) 230, 232, 234  
 김덕준(金德俊) 47, 62  
 김동성(金東成) 287  
 김두현(金斗鉉) 243  
 김만복(金萬福) 250  
 김만여(金萬女) 75  
 김명(金明) 273  
 김명성(金明星) 129  
 김문숙(金文淑) 34  
 김문옥(金文玉) 34  
 김문칠(金文七) 39  
 김병익(金秉翼) 245  
 김봉수(金奉洙) 250  
 김봉호(金鳳昊) 145, 147, 160, 164, 174, 183, 193, 205, 224, 228  
 김상묵(金常默) 101  
 김상묵(金相默) 118  
 김상호(金尙好) 229, 232, 234  
 김석중(金錫宗) 234  
 김성삼(金省三) 231  
 김성수(金性洙) 131, 156  
 김성연 261  
 김성희(金性姬) 126  
 김수년(金水年) 126  
 김순애(金順愛) 126  
 김승옥(金承玉) 126  
 김시학(金時學) 46, 62  
 김양(金養) 188, 189, 194, 196, 197, 201  
 김양태(金養泰) 197  
 김영천(金永千) 216, 229, 230, 232, 255  
 김영철(金英哲) 229  
 김영태(金永台) 251  
 김영필(金英弼) 229, 232, 234  
 김영희 255  
 김용문(金用文) 88  
 김용순(金容淳) 42  
 김용조 126  
 김용주 186  
 김용철(金用哲) 88, 112  
 김용태(金用太) 250

김유환(金塗煥) 143  
 김윤보(金潤保) 250  
 김윤수(金潤樹) 295  
 김익렬(金益烈) 49, 65, 72, 177, 190,  
 191, 192, 194  
 김인석(金寅錫) 106  
 김인선(金仁善) 47, 62, 273  
 김일성(金日成) 97  
 김재규 255  
 김재규(金在奎) 39  
 김재능(金在能) 273  
 김재천(金在千) 230  
 김재환(金在桓) 106  
 김정도(金正道) 192, 195  
 김정수(金貞秀) 245  
 김정호(金正浩) 33, 35, 44, 54, 67, 68,  
 70, 71, 130  
 김제규(金濟圭) 228, 230  
 김제암(金濟岩) 34  
 김종규(金宗圭) 261  
 김중삼(金仲三) 126  
 김직철(金直喆) 189  
 김창순(金昌淳) 236  
 김천일(金天一) 88  
 김충희(金忠熙) 46, 62, 233  
 김치오(金致五) 229  
 김치옥(金致玉) 232, 234  
 김태원(金台元) 229, 232, 233  
 김태일(金泰日) 288, 289  
 김판기(金判基) 274, 287

김평옥 255  
 김해산 156  
 김행주(金行柱) 235  
 김홍식(金弘植) 232, 234  
 김효석(金孝錫) 273  
 김흥수(金興洙) 194  
 김희주(金禧周) 100

## 【ㄴ】

남로당(南勞黨)→남조선노동당  
 남로당탈퇴성명서 38, 39  
 남북협상(南北協商) 142  
**남원면(南元面)** 38, 41, 292  
 -수망리(水望里) 250  
 -신흥리(新興里) 220  
 -위미리(爲美里) 253  
 -한남리(漢南里) 228, 230  
 남원지서(南元支署)→경찰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43, 98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38, 86, 94,  
 111, 112, 143, 155, 157, 241, 252,  
 258, 289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南朝鮮人民代表者  
 大會) 199, 206  
 남조선인민회의(南朝鮮人民會議)→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  
 노로악 232

노엘→외국인  
노형리(老衡里)→제주읍  
농민위원회(農民委員會) 129  
농업학교(農業學校)→제주공립농업중학교  
눈오름 126

## 【ㄷ】

단선단정(單選單政) 59, 62, 68, 77  
대동청년단(大同青年團) 35, 39, 40, 46,  
47, 93~95, 113, 126, 130, 146,  
170, 220, 242  
**대정면(大靜面)** 38, 41  
-구억리(九億里) 117  
-모슬포(募瑟浦) 38, 41, 95, 126  
-보성리(保城里) 117  
대정지서(大靜支署)→경찰  
대청(大靑)→대동청년단  
대통령령(大統領令) 266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44, 46, 93, 94, 233  
대한의열단 180  
도두리(道頭里)→제주읍  
도령(道令)→제주도령  
도순리(道順里)→중문면  
도인송 187  
도평리(都坪里)→제주읍  
독청(獨靑) 130  
독촉(獨促)→대한독립촉성국민회

동복리(東福里)→구좌면  
드루스→외국인  
딘→외국인

## 【ㄹ】

로버츠→외국인  
로퍼→외국인

## 【ㄴ】

마티→외국인  
메로→외국인  
메리트→외국인  
명도암→제주읍  
명제세(明濟世) 233  
모스크바 267  
모스크바방송 95  
모슬포(募瑟浦)→대정면  
모슬포경찰서(募瑟浦警察署)→경찰  
모슬포부대(募瑟浦部隊)→군대  
모슬포우편국(募瑟浦郵便局) 34  
목포형무소(木浦刑務所) 177  
무어→외국인  
문대유 46, 62  
문두복(文斗福) 250  
문련(文聯) 210  
문맹(文盟)→조선문학가동맹

문상길(文相吉) 188, 189, 190, 191, 193,  
195, 197, 200, 201, 202, 203, 204,  
208, 214, 221, 222, 223

문용채(文龍彩) 89

문장환(文章煥) 149

문정영(文晶榮) 234

문창호(文昌昊) 234

문학가동맹→조선문학가동맹

문홍목(文洪睦) 75

물장오름 250

미국공보원 223

미군(美軍) 58, 59, 63, 64, 66, 114, 123,  
129, 131, 133, 160, 177, 187, 191,  
222

미맹(美盟)→조선미술동맹

민독당(民獨黨)→민주독립당

민보단(民保團) 240, 290

민애청(民愛靑)→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민용기(閔用基) 219

민전(民戰)→민주주의민족전선

민전조사단 77

민족청년단(民族靑年團) 113, 242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276

민주독립당(民主獨立黨) 34, 85, 159,  
162, 178, 180, 214, 215

민주여맹(民主女盟)→민주여성동맹

민주여성동맹(民主女性同盟) 66, 211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42, 46, 58, 74, 76, 77, 97, 208

민주학련(民主學聯)→민주학생연맹

민주학생연맹(民主學生聯盟) 197, 214

민주한독당(民主韓獨黨) 180, 210

민중동맹(民衆同盟) 123, 180, 208, 219

## 【부】

박경선(朴景先) 250

박계현(朴桂炫) 89

박근영(朴根榮) 101, 103, 118, 136, 137

박근용(朴根容) 89

박근택 192

박남호(朴南昊) 229, 232, 233

박명효(朴明效) 56

박봉철(朴鳳哲) 105, 106

박성대(朴性大) 34

박성선(朴性善) 229, 230, 232, 233

박우상(朴雨相) 273

박응수(朴應洙) 269

박진경(朴珍景) 145, 147, 148, 149, 150,  
151, 152, 161, 165, 168, 172, 177,  
181,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6, 197, 199, 200, 201, 204,  
208, 220, 221, 222

박창언(朴昌彦) 245

박창희(朴彰禧) 47, 62

박철(朴哲) 149

박태순(朴泰順) 39

박호인(朴浩仁) 161

반일과학기련(反日科學技聯) 103

반일운동자구원회 57, 77, 106, 214  
 배경용(裵敬用) 188, 189, 191, 193, 195,  
 221, 222  
 백경석(白經錫) 245  
 백록학우회(白鹿學友會) 167  
 백옥운(白玉允) 88  
 백정(白丁) 67, 71, 75  
 번스→외국인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115  
 법학가동맹 199  
 변옥출(邊玉出) 35  
 보갑제(保甲制) 252  
 보성리(保城里)→대정면  
 봉개리(奉蓋里)→제주읍  
 부산제우회(釜山濟友會)→제우회  
 부재민 62  
 북국민학교(北國民學校)→제주북국민학교  
 북로당(北勞黨)→북조선노동당  
 북조선(北朝鮮) 86, 125, 284  
 북조선노동당(北朝鮮勞動黨) 252, 253  
 북조선인민군(北朝鮮人民軍) 176  
 북촌리(北村里)→조천면  
 북촌국민학교(北村國民學校) 174  
 불교청년당(佛教青年黨) 180, 219  
 브라운→외국인  
 비상경비총사령부(非常警備總司令部)→경  
 찰  
 비상경찰권(非常警察權) 46  
 비양도(飛揚島) 198  
 빨갱이 172

## 【사】

사계리(沙溪里)→안덕면  
 사맹(寫盟) 217  
 사민당(社民黨)→사회민주당  
 사형(私刑) 168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 103, 180, 201,  
 202  
 삼균주의청년동맹 180  
 삼균주의학생동맹 180  
 삼양리(三陽里)→제주읍  
 삼양지서(三陽支署)→경찰  
 3·1사건 48, 102, 112, 150, 178, 275  
 3·22총파업 112  
 색달리(穢達里)→중문면  
 서광리(西廣里)→안덕면  
 서귀리(西歸里)→서귀면  
 서귀전매서 34  
**서귀면(西歸面)**  
 -서귀리(西歸里) 43, 47  
 -서귀포(西歸浦) 116, 237, 244, 245,  
 292  
 서귀포발전소(西歸浦發電所) 245  
 서두성 175  
 서북청년회(西北青年會) 100, 112, 130,  
 135, 170, 236, 242  
 서상경(徐相京) 34  
 서울제우회(濟友會)→제우회  
 서울지방검찰청 185  
 서청(西靑)→서북청년회

선거법(選舉法)→국회의원선거법  
 선거위원(選舉委員) 99, 111  
 선무공작(宣撫工作) 75, 77, 274  
 선흘리(善屹里)→조천면  
 성산포경찰서(城山浦警察署)→경찰  
 성읍리(城邑里)→표선면  
 세화리(細花里)→구좌면  
 소련(蘇聯) 95, 97, 125, 267, 285  
 손병주(孫炳柱) 91, 93  
 손선호(孫善鎬) 188, 189, 192, 193, 195,  
 199, 221, 222  
 송당리(松堂里)→구좌면  
 송문희(宋文熙) 34  
 송수방(宋守邦) 35  
 송요찬(宋堯讚) 235, 244, 251, 257, 258  
 송창선 255  
 송창선(宋昌善) 39  
 송호성(宋虎聲) 81, 84, 152  
 송화식(宋和植) 221, 229, 232, 233, 248,  
 250, 260  
 수도경찰청(首都警察廳)→수도관구경찰청  
 수도관구경찰청(首都管區警察廳)→경찰  
 수도청(首都廳)→수도관구경찰청  
 수망리(水望里)→남원면  
 수산리(水山里)→애월면  
 수색(水色) 221  
 스위니→외국인  
 스탈린→외국인  
 시국수습대책위원회 55, 56  
 식량영단(食糧營團) 34

신상우(申尙雨) 188, 190, 191, 193, 195,  
 221, 222  
 신성모(申性模) 264, 265, 280, 282, 284,  
 285, 290  
 신엄리(新嚴里)→애월면  
 신엄지서(新嚴支署)→경찰  
 신진당(新進黨) 180, 201, 202  
 신촌리(新村里)→조천면  
 신흥리(新興里)→남원면  
 심덕순 185  
 심동구(沈同求) 101  
 심방은(沈方殷) 105, 106

## 【ㅇ】

아라리(我羅里)→제주읍  
 안기영(安基永) 118  
**안덕면(安德面)**  
 -사계리(沙溪里) 38, 248  
 -서광리(西廣里) 39  
 안재홍(安在鴻) 81, 84, 152  
 안희경(安喜慶) 101  
**애월면(涯月面)** 74, 95, 109, 111, 240  
 -고성리(古城里) 227, 239, 240, 241  
 -수산리(水山里) 236, 238  
 -신엄리(新嚴里) 41, 238, 279  
 -장전리(長田里) 279  
 -하귀리(下貴里) 178  
 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68, 74, 291

양귀진(梁貴珍) 46, 62, 94, 96, 99, 104  
 양규석 255  
 양기하(梁基河) 46, 56, 62, 169  
 양남호(梁南浩) 35  
 양병직(梁秉直) 47, 62, 93, 94, 96, 99,  
 104  
 양봉호(梁奉浩) 35  
 양석구(梁錫龜) 235  
 양성홍(梁成洪) 254, 260  
 양옥현(梁玉鉉) 235  
 양원일(梁元一) 101, 103, 115, 118, 142,  
 143  
 양을(梁乙) 271, 272, 273, 295  
 양재홍(梁在弘) 245  
 양회천(梁會千) 188, 190, 191, 193, 195  
 어승생 117  
 여맹(女盟)→여성동맹  
 여성동맹(女性同盟) 104, 117, 129  
 여행증명제(旅行證明制) 193, 198, 256  
 연극동맹(演劇同盟)→조선연극동맹  
 예비검속(豫備檢束) 102  
 오경남(吳京南) 38  
 오관(吳寬) 230  
 오덕준(吳德峻) 213  
 오등리(梧登里)→제주읍  
 오라리(吾羅里)→제주읍  
 오만순(吳萬淳) 227  
 오순배(吳順培) 250  
 5·10선거 90, 91  
 오용국(吳龍國) 43, 46, 51, 62, 97, 98,  
 263, 274, 276, 281  
 오현중학교(五賢中學校) 55, 231  
 옥성정(玉成亭) 188  
**외국인(外國人)**  
 -노엘 231  
 -드루스 190  
 -딘 50, 51, 76, 77, 78, 81, 84, 86, 104,  
 105, 125, 134, 146, 148, 152, 163,  
 167, 192, 196, 201, 205, 206  
 -로버츠 152  
 -로퍼 75  
 -마터 281  
 -메로 88  
 -메리트 129  
 -무어 255  
 -번스 281, 282  
 -브라운 108, 114, 116, 117, 124, 144,  
 159, 192  
 -스위니 279  
 -스탈린 82, 95  
 -키니 281  
 -필립슨 223  
 -하지 60, 80, 131, 137, 150, 163, 167  
 외도리(外都里)→제주읍  
 우국노인회 180  
 우영하(禹寧夏) 34  
 원택연(元澤淵) 185, 186  
 월령리(月令里)→한림면  
 월평리(月坪里)→제주읍  
 위미리(爲美里)→남원면

- 유격대(遊擊隊) 184  
 유동열(柳東悅) 113, 115, 149, 150, 152,  
 189, 201  
 유련(儒聯)→전국유교연맹  
 유시흡(柳時洽) 105, 106  
 UN조선위원단 82, 102, 132, 150, 163,  
 167  
 유충열(柳忠烈) 226  
 유해진(柳海辰) 55, 148, 168  
 윤공삼(尹公三) 261  
 윤국선(尹國宣) 34  
 윤상오 117  
 윤예수 117  
 윤좌생(尹佐生) 261  
 윤치영(尹致暎) 220, 225, 227  
 음맹(音盟)→조선음악동맹  
 음악동맹(音樂同盟)→조선음악동맹  
 응원경찰(應援警察)→경찰  
 이근병(李根柄) 230, 232, 234  
 이근석(李根錫) 261  
 이길하(李吉河) 189  
 이달판(李達板) 235  
 이덕구(李德九) 241, 244  
 이도리(二徒里)→제주읍  
 이도연(李道連) 35  
 이도학(李道學) 38  
 이두일(李斗一) 161  
 이명효(李明孝) 234, 255, 260  
 이범식(李範奭) 254, 278, 280, 282, 283,  
 284, 285  
 이사훈 38  
 이상길(李相吉) 176  
 이성우(李性宇) 261  
 이성환(李成煥) 38  
 이승만(李承晩) 76, 131, 156  
 이승진(李承晋) 176  
 이양규(李良圭) 261  
 이양호(李洋鎬) 250  
 이영배 187  
 이왕우(李旺雨) 35  
 이운석(李雲錫) 38  
 이원옥(李元玉) 34  
 이윤락(李允洛) 43  
 이응준(李應俊) 188, 189, 193, 221, 270,  
 277  
 이인(李仁) 139, 140, 141, 154, 161  
 이인구(李仁九) 273  
 이재민구호회 253  
 이재수란(李在守亂) 130  
 이정백(李正白) 229, 232, 233  
 이정생(李貞生) 234, 236  
 이정우(李禎雨) 188, 191  
 이주신(李柱臣) 101, 118  
 이지형(李智衡) 188, 189, 194, 221  
 이창부(李昌富) 250  
 이창옥(李彰玉) 250  
 이창정(李昌禎) 257  
 2·7사건 48, 102, 112  
 이풍우(李豊雨) 189  
 이형근(李亨根) 118, 152, 165, 166



이호리(梨湖里)→제주읍  
 이호성(李湖星) 281  
 인공기(人共旗)→인민공화국기  
 인공당(人共黨)→인민공화당  
 인권옹호연맹 200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79, 85, 97, 111,  
 227, 241, 243, 252, 256, 289  
 인민공화국기(人民共和國旗) 227, 231  
 인민공화당(人民共和黨) 146, 208, 214,  
 218, 219  
 인민대표대회→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199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86, 129, 142  
 인민자위대(人民自衛隊) 103, 109, 113,  
 129  
 인민행동대 234  
 인천경찰서(仁川警察署)→경찰  
 일본군의 토벌참여 138  
 임관호(任琯鎬) 148, 167, 175, 253, 268  
 임동준 203, 207  
 임부택(林富澤) 190, 192, 196  
 임수혁(任守赫) 230, 232, 233  
 임영창(任永昌) 39  
 임정길(任正吉) 229, 232, 234  
 임창범(任昌範) 250  
 임창현(任昌鉉) 47, 62  
 임태희(任泰禧) 34  
 임형권(任亨權) 80

## 【ㄷ】

자경단 253  
 자위대 184  
 자주여맹 180  
 자주학련 180  
 잠수함 출현설 231, 262, 267, 284, 285,  
 289  
 장관봉(張官奉) 39  
 장기춘(張箕春) 40  
 장만호(張萬鎬) 105, 106  
 장성봉(張性鳳) 261  
 장용문(張龍文) 34  
 장전리(長田里)→애월면  
 장택상(張澤相) 64  
 장홍(張洪) 34  
 재산관리처(財産管理處) 187, 189  
 제일조련(在日朝聯)→제일조선인연맹  
 제일조선인연맹(在日朝鮮人聯盟) 204,  
 214  
 저지리(楮旨里)→한림면  
 저지국민학교(楮旨國民學校) 178  
 저지지서(楮旨支署)→경찰  
 적약 232  
 전국농민조합총연맹(全國農民組合總聯盟)  
 63, 64, 69, 215  
 전국불교도총연맹 180  
 전국유교연맹(全國儒敎聯盟) 64, 103,  
 209, 217, 218  
 전국통일학생총연맹(全國統一學生總聯盟)

전농(全農)→전국농민조합총연맹

전평(全評)→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정극서(鄭極徐) 189

정대용(鄭大用) 88

정동일(鄭東日) 250

정동화(鄭東和) 261

정명옥(鄭明玉) 88

정방옥 126

『정보(情報)』 79

정선수 82, 89

정양수(鄭亮洙) 250

정일권(丁一權) 190, 192, 229

정태선(鄭泰善) 106

제11연대→군대

제1관구경찰청→경찰

제1여단→군대

제2연대→군대

제3여단→군대

제5여단→군대

제6관구경찰청→경찰

제7관구경찰청→경찰

제8관구경찰청→경찰

제9연대→군대

제9연대 특별경비부대→군대

제9연대 특별부대→군대

제9연대 특별중대→군대

제우회(濟友會) 149, 158, 159, 162, 163,

201, 216

제주경찰감찰청(濟州警察監察廳)→경찰

제주경찰학교(濟州警察學校)→경찰

제주공립농업중학교(濟州公立農業中學校)

102, 131

제주농업학교(濟州農業學校)→제주공립농  
업중학교

제주도공보원(濟州道公報院) 223

제주도령(濟州道令) 44, 45, 52

제주도사건대책위원회 178, 179, 180

제주도사건진상조사단 179, 211, 205,  
215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濟州道地區戰鬥司  
令部)→군대

제주도청 방화사건 261, 262

제주북국민학교(濟州北國民學校) 187,  
189, 231

제주비상경비사령부(濟州非常警備司令部)  
→경찰

『제주신보(濟州新報)』 195

제주신보사(濟州新報社) 63, 189

**제주읍(濟州邑)** 110

-노형리(老衡里) 247

-도두리(道頭里) 126, 173

-도평리(都坪里) 249

-명도암 250

-봉개리(奉蓋里) 35, 109, 268

-삼양리(三陽里) 117, 219

-아라리(我羅里) 237

-오등리(梧登里) 237

-오라리(吾羅里) 89, 173, 194

-외도리(外都里) 38, 41, 239, 240, 249

- 월평리(月坪里) 250
- 이도리(二徒里) 112
- 이호리(梨湖里) 35, 39, 41
- 함명리(咸明里) 292
- 화북리(禾北里) 38, 41, 76, 77, 80, 130, 194
- 제주읍사무소(濟州邑事務所) 231
- 제주중학교(濟州中學校) 102
- 제주지방법원(濟州地方法院) 115
- 제주지방심리원(濟州地方審理院) 254
- 조덕송 119, 122, 124, 127, 222
- 조만식(曹晩植) 97
- 조몽구(趙夢九) 143
- 조병옥(趙炳玉) 31, 32, 47, 52, 55, 75, 78, 81, 84, 87, 91, 96, 107, 125, 131, 147, 153, 163
- 조선건민회 180
- 조선경비법 195
- 조선교육자협회 67, 209, 214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59, 215
- 조선농림기술협회 214
- 조선농민당 180
- 조선문학가동맹(朝鮮文學家同盟) 64, 65, 104, 214
- 조선문화단체총연맹 209
- 조선미술동맹(朝鮮美術同盟) 104, 214
- 조선민족대동회 180, 214
- 조선민족해방연맹 180
-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朝鮮民主愛國青年同盟) 60, 102, 129, 143, 200, 217
- 조선신문기자회 137
- 조선연극동맹(朝鮮演劇同盟) 69, 214
- 조선음악동맹(朝鮮音樂同盟) 69, 70, 104, 218
- 조선인권연맹(朝鮮人權聯盟) 205
- 조선적십자사 133
- 조선청년총연맹(朝鮮靑年總聯盟) 130
- 조수국민학교(造水國民學校) 178
- 조천리(朝天里)→조천면
- 조천면(朝天面) 111**
- 교래리(橋來里) 109, 250
- 북촌리(北村里) 117, 140, 155, 173, 292
- 선흘리(善屹里) 95, 117, 249
- 신촌리(新村里) 95, 126
- 조천리(朝天里) 38, 41, 75, 175
- 함덕리(咸德里) 39, 41, 173
- 조천지서(朝天支署)→경찰
- 조한용(趙漢龍) 88
- 종달리(終達里)→구좌면
- 좌우합작(左右合作) 97
- 주기용(朱基塔) 284, 288
- 주철순 165, 198, 220
- 주철환(朱哲煥) 163
- 중문면(中文面)**
- 도순리(道順里) 220
- 색달리(穢達里) 232
- 하원리(河源里) 220
- 중문지서(中文支署)→경찰

중일전쟁(中日戰爭) 218

**【ㄸ】**

채병덕(蔡秉德) 258, 260  
 채용병(蔡龍秉) 266  
 천길봉 164, 166, 176  
 천도교청우당 208  
 철경(鐵警)→철도경찰  
 철도경찰(鐵道警察)→경찰  
 철도관구경찰청(鐵道管區警察廳)→경찰  
 청수리(淸水里)→한림면  
 청총(靑總)→조선청년총연맹  
 최경록(崔慶祿) 148, 151, 162, 164, 176,  
 181, 182  
 최난수(崔蘭洙) 96, 152  
 최동욱(崔東旭) 101  
 최동욱(崔東郁) 118  
 최승희(崔承喜) 199  
 최원순(崔元淳) 115  
 최원옥(崔源玉) 248  
 최일영(崔日映) 248  
 최천(崔天) 108, 130, 134, 145  
 최태용(崔兌龍) 76, 77  
 충남경찰부대(忠南警察部隊)→경찰  
 측후소(測候所) 187, 189  
 친일파 민족반역자 102

**【ㄷ】**

키니→외국인

**【ㄹ】**

토지개혁(土地改革) 97  
 통위부(統衛部)→군대  
 통행증(通行證) 49, 172  
 특별수사대(特別搜查隊)→경찰  
 특별통행증(特別通行證) 235

**【ㅍ】**

팔로군(八路軍) 75, 77, 78, 86, 176  
 8·25지하선거 193  
 포고령(布告令) 105, 177, 235  
 표선리(表善里)→표선면  
**표선면(表善面)**  
 -성읍리(城邑里) 116  
 -표선리(表善里) 116  
 『프라우다』 95  
 필립슨→외국인

**【ㅎ】**

하곡수집(夏穀收集) 108, 125  
 하귀리(下貴里)→애월면

하원리(河源里)→중문면  
 하지→외국인  
 학병(學兵) 75  
 학병거부자동맹 180  
 학병거부자연맹 129, 208, 214, 216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85, 159, 162, 178, 179, 180  
 한남리(漢南里)→남원면  
 한독당(韓獨黨)→한국독립당  
**한림면(翰林面)** 39, 41  
 -금악리(今岳里) 95, 130, 173  
 -월령리(月令里) 197  
 -저지리(楮旨里) 39, 114, 126, 173, 183  
 -청수리(淸水里) 126, 249  
 -협재리(挾才里) 197  
 한림지서(翰林支署)→경찰  
 한봉준(韓鳳俊) 250  
 한진섭(韓辰燮) 229, 233  
 함덕리(咸德里)→조천면  
 함덕지서(咸德支署)→경찰  
 함명리(咸明里)→제주읍  
 함병선(咸炳善) 268, 288, 289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군대  
 해안경비대 월북사건 149  
 해안선 봉쇄 203  
 해주(海州) 199, 206  
 행정명령 134, 287  
 향보단(鄕保團) 51, 123  
 허민 34  
 허영선 126  
 헌병사령부(憲兵司令部)→군대  
 현군명(玄君命) 230, 232, 234  
 현상순(玄商淳) 261  
 현영휴 34  
 현주선(玄周善) 47, 62  
 『혈화(血火)』 79  
 협재리(挾才里)→한림면  
 홍경문 235  
 홍수숙(洪秀淑) 35  
 홍순봉(洪淳鳳) 228, 288, 289  
 홍순원(洪淳元) 273  
 홍순재(洪淳宰) 96, 99, 273, 275, 281  
 홍영삼(洪榮三) 261  
 홍제문(洪濟文) 39  
 화북리(禾北里)→제주읍  
 황계봉(黃桂奉) 250  
 황성희(黃聖熙) 101, 118  
 황주복(黃柱福) 192, 195  
 희랍(希臘)→그리스

## 제주4·3사건자료집 2 [신문편]

---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 /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10-040)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Tel : (02) 3703-5644

[http:// www.jeu43.go.kr](http://www.jeu43.go.kr)

자료수집 /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편집 / 도서출판 선인

인쇄 / 대명인쇄제작사

---

<비매품>

